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제24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roceedings of the 2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SEIU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진전

Progress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 11월 12일(일)
- ▶ 장소 : 전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
- ▶ 주최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 주관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 ▶ 후원 : 전라북도교육청 · 전주교육대학교



초대의 글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제24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는 한국, 중국과 일본의 국제이해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결과를 상호 공유하고자 국제학술대회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제24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진전’이라는 주제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국제학술대회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중요한 기둥인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평화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인권교육 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의 그 실천과 지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 유성상 교수의 ‘세계시민교육, 긴장과 갈등에 직면하기’라는 기조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학술대회는 6개 주제 패널, 즉 학교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대학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이행 연구, 스토리텔링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학교수업에서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실천을 통하여 한국·중국·일본의 연구자, 교육자들의 상호 연구 및 실천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제이해교육은 국가 간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넘어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준비하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름이 있는 곳에 상호공존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다양성교육,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는 인권교육 등으로 그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해가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실천과 지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4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가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는 회원들이 상호 교류하고 담론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연구에 큰 성과가 있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1

한국국제이해교육회장 이경한



학술대회 일정

일자	시간	발표 및 내용	
제1일 11월~11일 [토]	10:00 ~ 10:30	학회 등록	1층 로비
	10:30 ~ 10:50	개회식 개회사: 이경한(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 환영사: 고한중(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축 사: 임현목(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원장)	1층 마음연구홀
	10:50 ~ 11:30	기조강연 유성상(서울대학교) 세계시민교육, 긴장과 갈등에 마주하기	
	11:30 ~ 13:00	점 심	이대감 집
	13:00 - 14:30	패널 1: 교사교육센터 101강의실	학교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사회: 박애경(서울시교육청)
		조은경(전주 근영중학교)	세계 속 다크 투어리즘과 평화교육: -국경을 뛰어넘은 '공감'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다
		정지수(인천대학교)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 개발 연구
		김강철(서울대학교)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정체성과 영향력
		김은영(전주 양현초등학교)	공동체 역량 신장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박지웅(전북 송광초등학교)	우리 지역 알기와 도농교류로 알아보는 국제이해교육
		패널 2 교사교육센터 102강의실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사회: 방용환(건양대학교)
		안해정·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발협력의 과제
		김민준(김제 초처초등학교)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국제교류수업 운영사례
		이창근(전주 전라초등학교)	국제교류 교육과정 운영사례: 'Me as a local resident, and us as global citizens'
		강민희(전주 한들초등학교)	국제교류수업 사례와 AI 영어회화 프로그램의 활용
		ARAKAWA , Hironori (明石工業高等専門学校)	Do long-term exchange program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lobal citizenship?

		패널 3 교사교육센터 103강의실	대학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사회: JIANG Yingmin(Beijing Normal University)
		정윤경(전주교육대학교)	탈성장론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KAZAMAKI, Hiroshi (東京都立大学)	교직과목 '다문화 공생 교육법'의 설정
		NAGATA, Yoshiyuki (聖心女子大学)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for Peace: What Did University Students Learn from Children's Paintings from Ukraine and Russia?
		NISHIMURA, Michiko (都留文科大学)	현실 세계를 교실 안에 재현·재구성하는 교육 방법의 추구: '아우슈비츠·홀로코스트'의 교육 실천을 통해
		JIANG Yingmin (Beijing Normal University)	
		HE XIAOYUN (High School Affiliated To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Ningbo, China)	'이기' 이해와 공생프로젝트 님버 실천
	14:30 ~ 14:50	휴 식	
	14:50 ~ 16:20	패널 4 교사교육센터 101강의실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이행 연구 사회: 박환보(충남대학교)
		박환보(충남대학교) 김형렬(서울대학교) 엄정민(유네스코아태교육원)	국제사회의 SDG4.7 모니터링 관련 논의 및 이행 사례 분석
		박경희(우석대학교) 박미재(충남대학교)	17개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이행 현황 분석
		김영식(경남대학교) 정성경(충남대학교)	세계시민교육 정책 참여 학교 특성 분석
		최윤경(인천시교육청)	지역기반의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발전, 확산 사례
		고석영(유네스코아태교육원)	2015-2022 UNESCO APCEIU 연수 프로그램 분석
		패널 5 교사교육센터 102강의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사회: 김다원(광주교육대학교)
		김다원(광주교육대학교) 이경한(전주교육대학교) 김선미(중앙대학교)	한중일 스토리텔링 세계시민교육의 교류 효과 비교
		장진아(서울 남양초등학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수업과 그 실제
		조수진(대전 대양초등학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과 그 실제
		백지은·홍석민(공주교육대학교) 김영서·이동규(전주교육대학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ISHIMORI, Hiromi (北海道教育大学)	'Small Talk' promoting ICC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n elementary schools
		FUJII, Mika (上越市立東本町小学校)	이문화 교류를 도입한 인권교육, 동화교육 실천
		패널 6 교사교육센터 103강의실	학교수업에서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실천(북 콘서트) 사회: 김선미(중앙대학교)
		FUJIWARA, Takaaki (同志社女子大学)	『표주박 섬 문제』 한국어판을 출판하며
		이기훈(보평초등학교)	다문화공존을 위한 『표주박 나라 문제』 시뮬레이션 초등수업 실천사례
		김난영(라운고등학교)	다문화공존을 위한 『표주박 나라 문제』 시뮬레이션 고등수업 실천사례
	16:20 ~ 16:40	휴 식	
	16:40 ~ 17:20	기조패널 및 종합토론	사회: 박경희(우석대학교) 이춘희((전)서울 문성초등학교) JIANG Yingmin(Beijing Normal University) ICHINOSE Tomonori(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Miyagi University of Education)
	17:20 ~ 17:30	폐회식 (장소: 마음연구홀)	
	17:30 ~	만찬 (장소: 교사교육센터)	
제2일 11월~12일 [일]	09:00 ~ 13:00	답 사	주제: 전북의 종교경관의 이해 장소: 전북 금산사 일대

목차

기조강연

- ◇ 세계시민교육, 긴장과 갈등에 마주하기 유정상(서울대학교)

패널 1: 교사교육센터 101강의실

학교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사회: 박애경(서울시교육청)

1. 세계 속 다크 투어리즘과 평화교육: 국경을 뛰어넘은 '공감'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다 조은경(전주 근영중학교) / 3
2.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 개발 연구 정지수(인천대학교) / 10
3.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정체성과 영향력 김강철(서울대학교) / 15
4. 공동체 역량 신장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김은영(전주 양현초등학교) / 23
5. 우리 지역 알기와 도농교류로 알아보는 국제이해교육 박지웅(전북 송광초등학교) / 28

패널 2: 교사교육센터 102강의실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사회: 방용환(건양대학교)

1.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발협력의 과제 안해정·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 35
2.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국제교류수업 운영사례 김민준(김제 초처초등학교) / 40
3. 국제교류 교육과정 운영사례: 'Me as a local resident, and us as global citizens' 이창근(전주 전라초등학교) / 71
4. 국제교류수업 사례와 AI 영어회화 프로그램의 활용 강민희(전주 한들초등학교) / 73
5. Do long-term exchange program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lobal citizenship? ARAKAWA, Hironori(明石工業高等専門学校) / 78

패널 3 교사교육센터 103강의실

대학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사회: JIANG Yingmin(Beijing Normal University)

1. 탈성장론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정윤경(전주교육대학교) / 83
2. 교직과목 '다문화 공생 교육법'의 설정 KAZAMAKI, Hiroshi (東京都立大学) / 90
3.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for Peace: What Did University Students Learn from Children's Paintings from Ukraine and Russia?
..... Yoshiyuki Nagata(聖心女子大学) / 95
4. 현실 세계를 교실 안에 재현·재구성하는 교육 방법의 추구: '아우슈비츠·홀로코스트'의 교육 실천을 통해
..... NISHIMURA, Michiko (都留文科大学) / 98
5. '이기' 이해와 공생프로젝트 님버 실천
JIANG Yingmin (Beijing Normal University), HE XIAOYUN (High School Affiliated To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Ningbo, China) / 103

패널 4:
교사교육센터 101강의실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이행 연구

사회: 박환보(충남대학교)

1. 국제사회의 SDG4.7 모니터링 관련 논의 및 이행 사례 분석 박환보(충남대학교), 김형렬(서울대학교), 엄정민(유네스코아태교육원) / 107
2. 17개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이행 현황 분석 박경희(우석대학교), 박미재(충남대학교) / 109
3. 세계시민교육 정책 참여 학교 특성 분석 김영식(경남대학교), 정성경(충남대학교) / 112
4. 지역기반의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발전, 확산 사례 최윤경(인천시교육청) / 114
5. 2015-2022 UNESCO APCEIU 연수 프로그램 분석 고석영(유네스코아태교육원) / 126

패널 5:
교사교육센터 102강의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사회: 김다원(광주교육대학교)

1. 한중일 스토리텔링 세계시민교육의 교류 효과 비교 김다원(광주교육대학교), 이경한(전주교육대학교), 김선미(중앙대학교) / 135
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수업과 그 실제 장진아(서울 남양초등학교) / 140
3.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과 그 실제 조수진(대전 대양초등학교) / 147
4.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백지은·홍석민(공주교육대학교), 김영서·이동규(전주교육대학교) / 153
5. ‘Small Talk’ promoting ICC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n elementary schools ISHIMORI, Hiromi (北海道教育大学) / 158
6. 이문화 교류를 도입한 인권교육, 동화교육 실천 FUJII, Mika (上越市立東本町小学校) / 163

패널 6:
교사교육센터 103강의실

학교수업에서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실천(북 콘서트)

사회: 김선미(중앙대학교)

1. 『표주박 섬 문제』 한국어판을 출판하며 FUJIWARA, Takaaki (同志社女子大学) / 175
2. 다문화공존을 위한 『표주박 나라 문제』 시뮬레이션 초등수업 실천사례 이기훈(보평초등학교) / 180
3. 다문화공존을 위한 『표주박 나라 문제』 시뮬레이션 고등수업 실천사례 김난영(라온고등학교) / 183

기조패널 및 종합토론

사회: 박경희(우석대학교)

1. 이춘희((전)서울 문성초등학교) 193
2. JIANG Yingmin(Beijing Normal University) 195
3. ICHINOSE Tomonori(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Miyagi University of Education) 196

※ 찾아 오시는길 · 캠퍼스 안내 201

기조강연

유성상(서울대학교) 세계시민교육, 긴장과 갈등에 마주하기

세계시민교육, 긴장과 갈등에 마주하기

유성상
교수, 사범대학 교육학과
주임교수, 대학원 글로벌교육협력전공
서울대학교

1

세계시민교육의 등장, 그리고 10년의 성과

2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시민교육(GCED)은 모든 연령의 학습자가 더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ESCO 2015, 14).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의존성과 지역, 국가, 세계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는 더 넓은 지역사회와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하고자 한다(UNESCO 2015, 14).”

3

세계시민교육의 발전과정과 동향

<교육 의제와 세계시민교육>

-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 권고안 (1974년)
-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교육 선언 (1993년)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1995-2004년)
-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2005-2014년)
- GEFI(글로벌교육우선구상)
- Post-EFA와 세계시민교육

<개발 의제와 세계시민교육>

- 1970년대 개발교육 본격화
- 영국 정부, 개발교육 정규교육에 포함
DEA(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출범
- 글로벌 교육헌장(Global Education Charter) (1997년)
- MDGs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Oxfam)
- SDGs

4

세계시민교육 의제 설정 관련 주요 회의

- Technical Consultation on GCED (September 2013, APCEIU)
- 1st UNESCO Forum on GCED (December 2013, UNESCO Bangkok)
- Global EFA Meeting (May 2014, Muscat, Oman)
- 2nd UNESCO Forum on GCED (January 2015, UNESCO HQ, Paris)
- UN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ebruary 2015, UN, New York)
- Global Youth Advocacy Workshop on GCED (April 2015, Busan, Korea)
- UNESCO World Education Forum (19-22 May, Incheon, Korea)



Technical Consultation on GCED
(September 2013, APCEIU)



1st UNESCO Forum on GCED
(December 2013, UNESCO Bangkok)

5

세계시민교육 촉진을 위한 전략 및 과제

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9-10 Sep 2013, Seoul, Rep of Korea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4 Dec 2013, Bangkok, Thailand



6



7

한국정부의 세계시민교육 의제에 대한 선도적 정책 및 APCEIU에 대한 권한부여

“대한민국정부는 특별히 학습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배움의 가치와 지혜를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세계시민교육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허브로 기능해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변함없이 확장,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8



UN SDGs

9

인천선언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우리는 양질의 교육과 학습성과 개선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입, 과정, 결과평가 및 측정과정의 매커니즘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 및 교육자들이 권익향상되고, 적절하게 채용되고, 잘 훈련되고,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동기 부여되어 있으며, 풍부한 지원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창의성과 지식을 함양하고, 기초 수준의 문장해독력과 수리력 뿐만 아니라 분석력, 문제해결력과 기타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 대인관계 및 사회성 기술의 습득을 보장합니다. 이는 또한 시민들이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이끌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을 통해 지역적·범지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가치, 태도를 발전시킵니다.”

10

SDGs에서의 세계시민교육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 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UN 2015).

11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시민교육(GCED)은 모든 연령의 학습자가 더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ESCO 2015, 14).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의존성과 지역, 국가, 세계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는 더 넓은 지역사회와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하고자 한다(UNESCO 2015, 14).”

12

<세계인권선언 속 "교육">

26 **주목** 1. **모순** 2. **모순** 3. **모순** 4. **모순** 5. **모순** 6. **모순** 7. **모순** 8. **모순** 9. **모순** 10. **모순** 11. **모순** 12. **모순** 13. **모순** 14. **모순** 15. **모순** 16. **모순** 17. **모순** 18. **모순** 19. **모순** 20. **모순** 21. **모순** 22. **모순** 23. **모순** 24. **모순** 25. **모순** 26. **모순** 27. **모순** 28. **모순** 29. **모순** 30. **모순** 31. **모순** 32. **모순** 33. **모순** 34. **모순** 35. **모순** 36. **모순** 37. **모순** 38. **모순** 39. **모순** 40. **모순** 41. **모순** 42. **모순** 43. **모순** 44. **모순** 45. **모순** 46. **모순** 47. **모순** 48. **모순** 49. **모순** 50. **모순** 51. **모순** 52. **모순** 53. **모순** 54. **모순** 55. **모순** 56. **모순** 57. **모순** 58. **모순** 59. **모순** 60. **모순** 61. **모순** 62. **모순** 63. **모순** 64. **모순** 65. **모순** 66. **모순** 67. **모순** 68. **모순** 69. **모순** 70. **모순** 71. **모순** 72. **모순** 73. **모순** 74. **모순** 75. **모순** 76. **모순** 77. **모순** 78. **모순** 79. **모순** 80. **모순** 81. **모순** 82. **모순** 83. **모순** 84. **모순** 85. **모순** 86. **모순** 87. **모순** 88. **모순** 89. **모순** 90. **모순** 91. **모순** 92. **모순** 93. **모순** 94. **모순** 95. **모순** 96. **모순** 97. **모순** 98. **모순** 99. **모순** 100. **모순**

세계인권선언 26조 2항에 따르면, 인격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국민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13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접근성향상 > 인지적 학습성과 > 비인지적 생활역량

학습에 있어서 비인지적 역량에 대한 강조

- 공감, 동정심, 돌봄, 관용, 상호이해, 의사소통 기술 등
- ‘Learning-to-be(삶을 위한 학습)’ & ‘Learning-to-live together(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의 강조 대두

4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가치



15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이해한다.
-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 세계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기술적, 환경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해한다.
- 빈곤, 불평등, 인권, 평화, 기후변화 등 지구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한다.
-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인의 참여 뿐 아니라 상호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한다.
-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한다.

6

세계시민교육의 모형

<포용적글로벌세계시민 교육모형> 강순원



17

세계시민교육의 영역

<표 1>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효과성 측정 지표 기준

구분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목표 역량	• 전 지구적 과업들과 세계의 가치들의 존중,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지극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비판적, 창의적 탐구치로써 사고하는 역량	• 인류 공동체와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 세계시민으로서의 공평과 인권 의식, 가치와 책임감을 공유하는 역량	•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국제적 차이에 따른 사법적 관행들이 해결 방법을 갖기 위해 협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역량
주요 학습 성과	• 지역·국가·세계의 이슈 및 다양한 국가와 사회들의 상호연계성 성립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한다. •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발달 시킨다.	• 인권에 기반한 존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고 보편적 책임과 소속감을 경험한다. • 인류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공평, 연대의 태도를 익힌다.	•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요구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와 의지를 기른다.
학습 주제	1. 지역·국가·세계의 상호연계성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3. 사회적 책임과 상호연계성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5. 사람들에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문화의 상호연계 방식 6. 책임의 다양성의 중요성	7. 개인적·집단적으로 위협을 받는 실천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9. 참여하고 실천하기

출처 : 유네스코(2015, p. 33)를 재구성함.

8

세계시민의 자질	세계시민교육 핵심 교수방법	관련된 교과 내용
 Non-cognitive Skills • 공감 • 돌봄 • 의사소통기술 • 관용 • 상호 이해	 • 총체적 학습 • 대화 • 가치 형성 과정 • 비판적 역량강화	 • 도덕 • 사회 • 지리 • 역사 • 언어(국어, 외국어) • 과학 • 예술(음, 미) • 체육 • 문학, 드라마 등

19

학교, 평화, 세계시민교육



2022. 2.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

우리는 세계시민?

- 우리는 세계화라는 그물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 세계화라는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세계화가 전지구적 문제를 가속화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음
- 이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세계시민'임
- 세계시민이 함께 노력하면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세계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세계시민이기 때문임



21

‘나’는 세계시민인가?

“나는 더 넓은 세계에 대해 알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인가?”

“나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나는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역에서부터 국제적 차원까지 다다른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인가?”

“나는 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사람인가?”

....

“나는 세계시민인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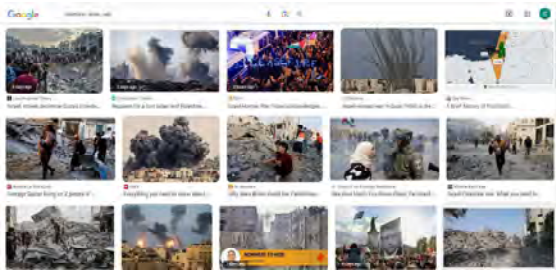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세계시민인가?

23

그런데 ... 지금 세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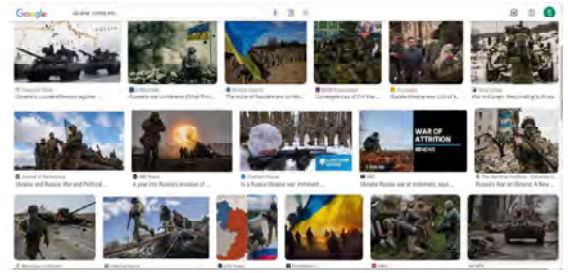
24

종교분쟁



25

이념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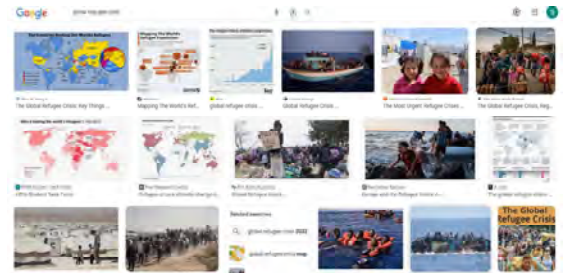
26

이민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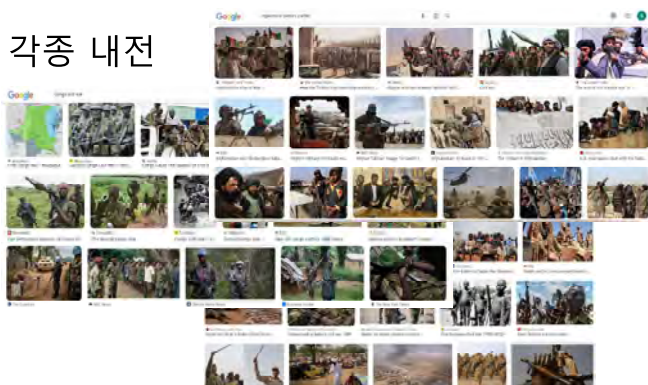
27

난민 전쟁



28

각종 내전



29



30

Global conflicts and IDPs...

Total number of IDPs by conflict and violence as of 31 December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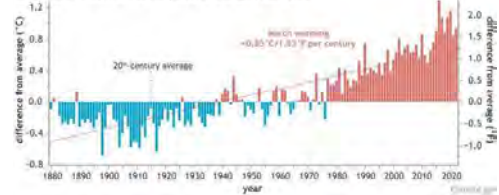


<https://reliefweb.int/report/world/global-report-internal-displacement-2023-grid-2023-internal-displacement-and-food-security>

31

Global Climate Crisis

Global March temperatures compared to average (1880-2022)



<https://www.climate.gov/news-features/understanding-climate/global-climate-report-march-2022>

32

Gender-based Vio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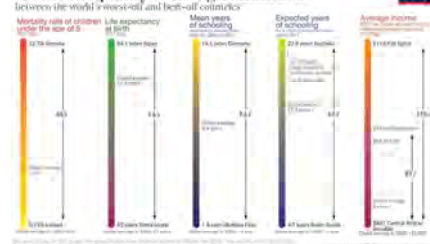


<https://hphr.org/blog-5-tillewein/>

33

Global inequality

Global inequality in living conditions



<https://www.visualcapitalist.com/global-inequality-gap/>

34

다시 ...
세계시민교육으로 돌아오면?

SDG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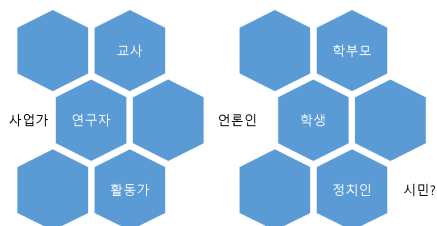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



35

36

GCED를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37

'우리'는 왜 이 일에 관심을 갖는가?



<https://issues.tigweb.org/globalcitizenship>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49670281025551&set=a.149670251025554>



<https://www.worldwiseschools.ie/knowledge/>

38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https://gcedsolutions.com/2021/03/23/what-is-global-citizenship-education/>

39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illegible]

40

그래서, 우리
하고 있는거



(Martinez Sainz & Ba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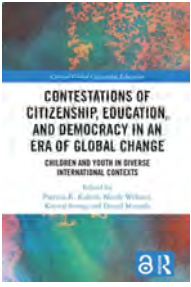
41

Index

세계시민교육 10년, 도대체 왜 이렇는가?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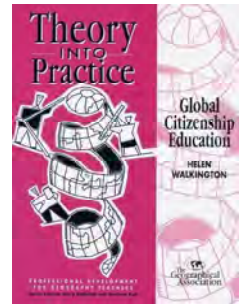
변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43

왜 그럴까? 왜 잘 바뀌지 않은 걸까?

- 세계시민교육에서 내세운 이야기들이 잘못된 것일까?
-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일까?
-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일까?
-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
- 인권적으로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 다 타당한데 방법을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 방법을 아예 모르는 걸까?
- 방향도 맞고 방법도 타당한데, ... 그러면 왜 안 움직이고, 왜 안 변화지?



44

왜 그럴까? 왜 잘 바뀌지 않은 걸까?

- 세계시민교육에서 내세운 이야기들이 잘못된 것일까?
-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일까?
-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일까?
-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
- 인권적으로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 다 타당한데 방법을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 방법을 아예 모르는 걸까?
- 방향도 맞고 방법도 타당한데, ... 그러면 왜 안 움직이고, 왜 안 변화지?

Global Citizenship as a Floating Signifier Lessons from UK universities

Silvia Elisabeth Moraes
Universidade Federal do Ceará, Brazil

Abstract
In a world where people demand greater transparency, citizens need to find their voice in the global community. However, global citizenship (GC) has become an abstract and elusive concept.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of GC in higher education in the UK, focusing on the role of GC in the curriculum and the role of GC in the research community. The paper argues that GC is a floating signifier, a concept that is used to represent a variety of different ideas and values. The paper also argues that GC is a tool for social change, a way to bring about a more just and equitable world. The paper concludes by discussing the challenges of implementing GC in higher education and the need for a more holistic approach to GC.

45

아마도...

- GCED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가?
- GCED에 대한 이해는 같은데,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지식의 수준이 달라서일까?
- GCED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은 같은데, 이를 통해 도출하려는 목표가 달라서일까?



<https://www.wibas.com/blog/a-new-perspective-on-resistance-to-change/>

46

세계시민성,
우리는 그게 뭔지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가?

47

우리, 세계시민성이란 색깔을 칠하는 화가?



48

코스모폴리타니즘

- the idea that all [human beings](#) are members of a single [community](#)
- both prescriptive and aspirational, believing humans can and should be "[world citizens](#)" in a "universal community"
- The idea encompasses different dimensions and avenues of community, such as promoting [universal moral standards](#), establishing global political structures, or developing a platform for mutual cultural expression and tolerance

49

What it looks like...

- a cosmopolitan community where individuals from varying locations (physical, economic, etc.) enter relationships of mutual respect despite their differing [beliefs](#) (religious, political, etc.) / [Kwame Anthony Appiah](#)
- a cosmopolitan world where armies were abolished and humans were governed under a representative global institution. / Immanuel K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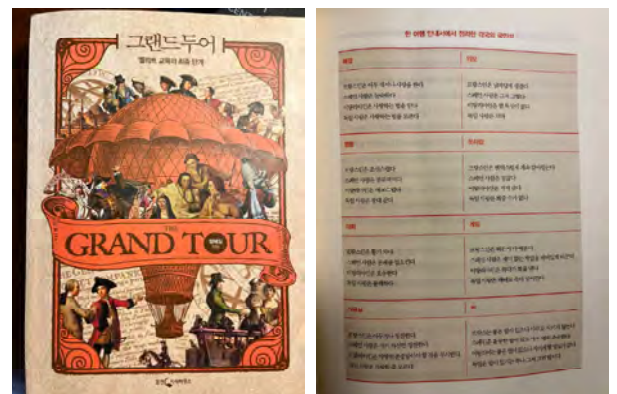
50



https://www.scotthyoung.com/blog/2019/12/16/why-is-action-hard/?utm_source=Biblio&utm_medium=Article_footer&utm_campaign=Related_content

<https://medium.com/@amandaposthuma/theoretical-vs-practical-knowledge-86cab1113abd>

51



52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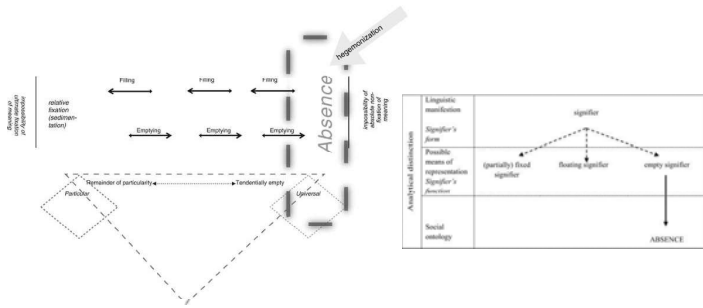
제목	Recontextualisation of Global Education Agenda in Totally Pedagogising Society: A Case Study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Japan/ 전인성
대동서명	패다고지화 된 사회와 글로벌교육의 미래: 일본의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사례연구
저자	전인성
지도교수	유성상
발행사항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8
형태사항	xii, 271 p. - 삽화, 도표: 26 cm
주기사향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글로벌교육협력학전공, 2018. 2
주제	Totally Pedagogising Society > pedagogic device > empty signifier > global agenda > ESD > Japan > education reform > knowledge economy > sustainable development >
언어	English
자료유형	학위논문
출처	82SNU_ALMA

53

상세정보

제목	Mainstreaming the Global Education Agenda into National Policy: A Case Study of Introducing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integrated Curriculum in Bangladesh / 문의슬 [electronic resource]
대동서명	글로벌 교육 의제의 국가 정책으로의 실현: 방글라데시 세계시민교육 연계 교육과정 도입 사례 연구
저자	문의슬
지도교수	유성상
발행사항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23
형태사항	online resource (xiv, 260p.)
주기사향	학위논문(박사) -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글로벌교육협력학전공, 2023. 8
주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global education agenda > national policy > national curriculum > Bangladesh >
언어	English
자료유형	학위논문
출처	82SNU_ALMA

54



**왜 추상적 의제는 의미없는 화법으로만
남아 있는가?
세계시민교육,
과연 특권적 지위를 향한 인간의 욕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인간 집단의 변화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한 이론적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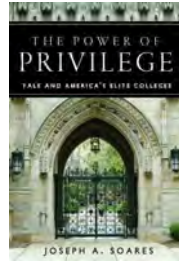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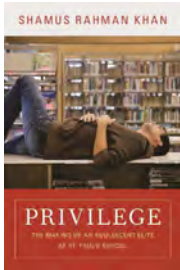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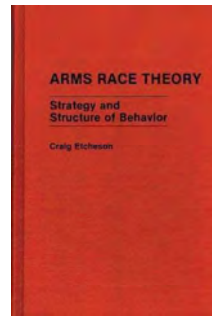
영국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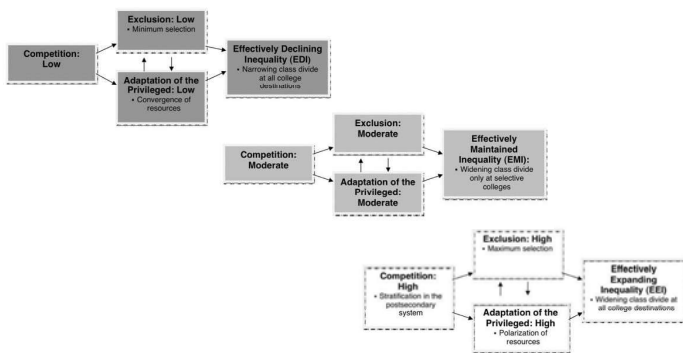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61



62



The Evolution of Class Inequality in Higher Education: Competition, Exclusion, and Adaptation
DOI: 10.1177/000312240907400503

63

변화에 대한 거부



<https://whatfix.com/blog/causes-of-resistance-to-change/>



<https://www.youtube.com/watch?v=NEJzPeyqO>
Do



https://tyonote.com/resistance_to_change/

64

그래서... 결국



<https://saglobal.com/blog/change-happens-through-people-not-magic/>



"And that is what happens when we resist change."

<https://www.tnt.com/articles/all-change-will-be-resisted-so-focus-on-the-transition>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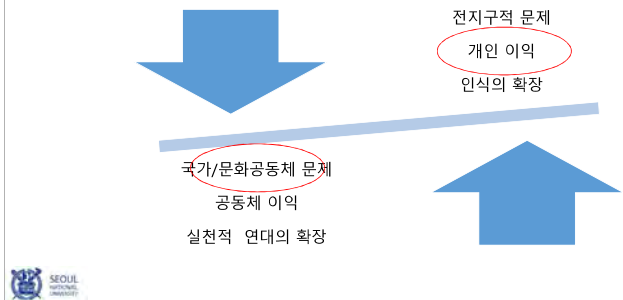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 연구자, 교육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66



67

풀어야 할 딜레마들!!!



68

평화...

Oslo Accords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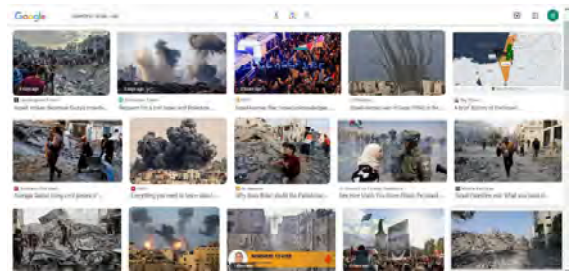
Nobel Peace Prize (1995)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Yasser-Arafat/From-agreement-to-the-second-intifadah>

69

종교분쟁



70

Wicked problem



https://socialmarketing.blogs.com/r_craig_lefebvre_social/2012/09/social-marketing-and-wicked-problems.html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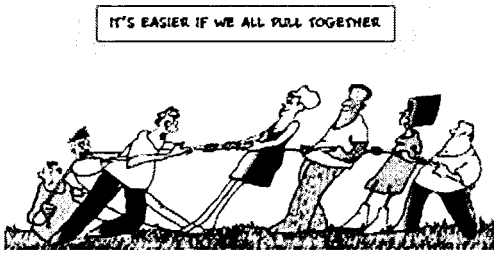
No change at all

1. Failure to make a **compelling case for change** – People need to make sense of the change before they change
2. Not involving the employees – Leaders believe top-down still works
3. Ignoring current **organizational culture** – Failure to understand and shape the informal organization
4. Real **change happens at the bottom** of the organization – It does not happen at the town hall meeting or through the intranet
5. Not **dealing proactively with resistance**
6. Failing to celebrate small wins – Change management is a dolphin, not a whale

<https://www.mindgardener.com/blog/2018/1/22/5-forms-of-change-resistance>



72



학교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사회: 박애경(서울시교육청)

조은경(전주 근영중학교)	세계 속 다크 투어리즘과 평화교육: 국경을 뛰어넘은 ‘공감’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다
정지수(인천대학교)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 개발 연구
김강철(서울대학교)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정체성과 영향력
김은영(전주 양현초등학교)	공동체 역량 신장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박지웅(전북 송광초등학교)	우리 지역 알기와 도농교류로 알아보는 국제이해교육

세계속 다크투어리즘과 평화교육

- 국경을 뛰어넘은 ‘공감’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다 -

조 은 경
(전주근영중학교)

1. 서 언

평화교육은 학생들에게 화해 협력 상생 공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증진시킬 길을 제시하고 서로를 대하는 비폭력적 방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현장에서 그런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년 주력한 부분은 세계속 다크투어리즘과 평화학습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이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다크헤리티지를 AI 활용으로 알아보고 외국의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기획하며 공동 수업을 온.오프로 실시했다. (온라인 화상수업, 교실속수업, 현지체험학습)

독일 교사와는 아우츠비츠수업을, 우크라이나 교사와는 전쟁 속 일상의 복귀희망을, 아프리카의 교육자들과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그리고 일본교사와는 사도광산, 간토 대지진에 대한 주제로 공동수업을 실천했다.

현장 체험학습의 장소는 서대문 형무소와 군산의 과거 미곡 수탈의 현장 그리고 일본 간토 지역이었다. 특히 올해는 일본 간토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0년이 된 해이다. 학생들을 인솔하고 도쿄, 요코하마, 사이타마에서 대지진의 기억을 마주하였고 일본 학생들과의 우리 학생들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세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를 소개하고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교육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공동체와 세계 시민 그리고 평화교육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인재 즉 공동체 속에서 상생하는 시민성을 강조한다. 기존 교육 과정의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뿐 아니라 타자와 공감하고 공존하는 능력 개발의 중요성이 공식화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았거나, 형성되지 않았다고

인식한 결과일 터다. 이웃, 거주 지역(생활권, 행정권), 국가, 민족을 범위로 한 공동체 교육이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 문제, 증가하는 사회 갈등에서 보듯이 공감과 공존보다는 각자도생이 일반화됐고,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도 그랬다.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시민성 계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었다.

나는 일찍이 공동체 교육의 공간, 내용, 방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동체 단위가 국내 지역뿐 아니라 세계로 넓어져야 한다고 말이다. 우리가 세계화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적 가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은 이웃·국가 성원뿐 아니라 세계 시민이 공유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 평화, 환경 이러한 가치는 지역이나 국가 단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가치와 주제(내용)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공간을 뛰어넘어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세계 시민이란 내용의 공동체 형성 과정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3. 국제수업 그리고 AI

내가 외국의 교사, 지식인들과 공동 수업을 진행해 온 게 18년 정도 됐다. 처음에는 외국인을 학교에 초청하여 또는 내가 상대국의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이었다. 몇가지를 소개하면 일본 교사를 초청하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러시아 한민족학 교장과는 한국인의 디아스포라를, 그리스 교육자와는 아테네 민주정을, 프랑스인과는 민중의 혁명과 자유를, 인도 교수와는 카스트제도에 대한 수업을 함께 하였다. 대부분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되돌아보고 세계시민으로 마주보는 시간이었다.

대면 교류가 어려웠던 지난 3년 동안은 온라인으로 국제 교류 수업을 진행했다. 2022년 5월에는 5개국 교사의 공동수업 있었다. 한국, 일본, 독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교사가 참여했다. 2차 세계 대전이 안겨준 기억의 재구성을 큰 틀로 하여, 세 가지 정도를 주된 수업 내용으로 했다. 첫째 가해와 피해를 반성과 화해로 마주보기, 둘째 21세기 현재의 전쟁을 마주한 우리들, 셋째 갈등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와 공존의 길 실천이었다. 학생들과 함께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문제를 짚어보고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는 시간이었다.

2022년부터 11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의 수업은 외국의 학생들 교사들과의 주제 중심 토론이었다. 우리 나라와 독일의 학생들이 역사 속 인권과 자연권을 서로 이야기하고, 일본 교사가 내한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부분을 함께 수업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학생들과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었다. 전쟁 폭격과 매일 공습으로 전력과 전원이 끊기고 부족하였지만 그들의 교육 열정은 대단하였고 우리와의 공동 수업에 매우 기뻐하고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였다.

2023년 내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시도한 것은 다양한 디지털 툴.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용이었다. CHAT GPT와 평화 수업, 세계 시민을 생각하니 아무래도 연결짓기가 힘들었고 나 자신도 혼란과 고민의 연속이었다. 인공지능 교육은 학생이 미래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자신을 둘러싼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AI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을 하는 걸까?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Chat GPT 및 AI를 활용하여 수업을 소개하자면 이집트 아브심벨 신전의 보전과 복구에서의 이루어졌던 세계 여러 나라의 협업- 유네스코의 범세계적 보호운동과 국제사회의 지원 호소로 이루어진 사회운동 (1963년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한국전쟁과 에티오피아, 르완다의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노력 등은 인공지능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나라의 외교관과 교육자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업의 완성도나 만족감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다.

그리고 18년째 이어진 한일공동수업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군함도와 사도광산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보았는데 AI와 한·일이 함께 마주보며 진실을 전제로 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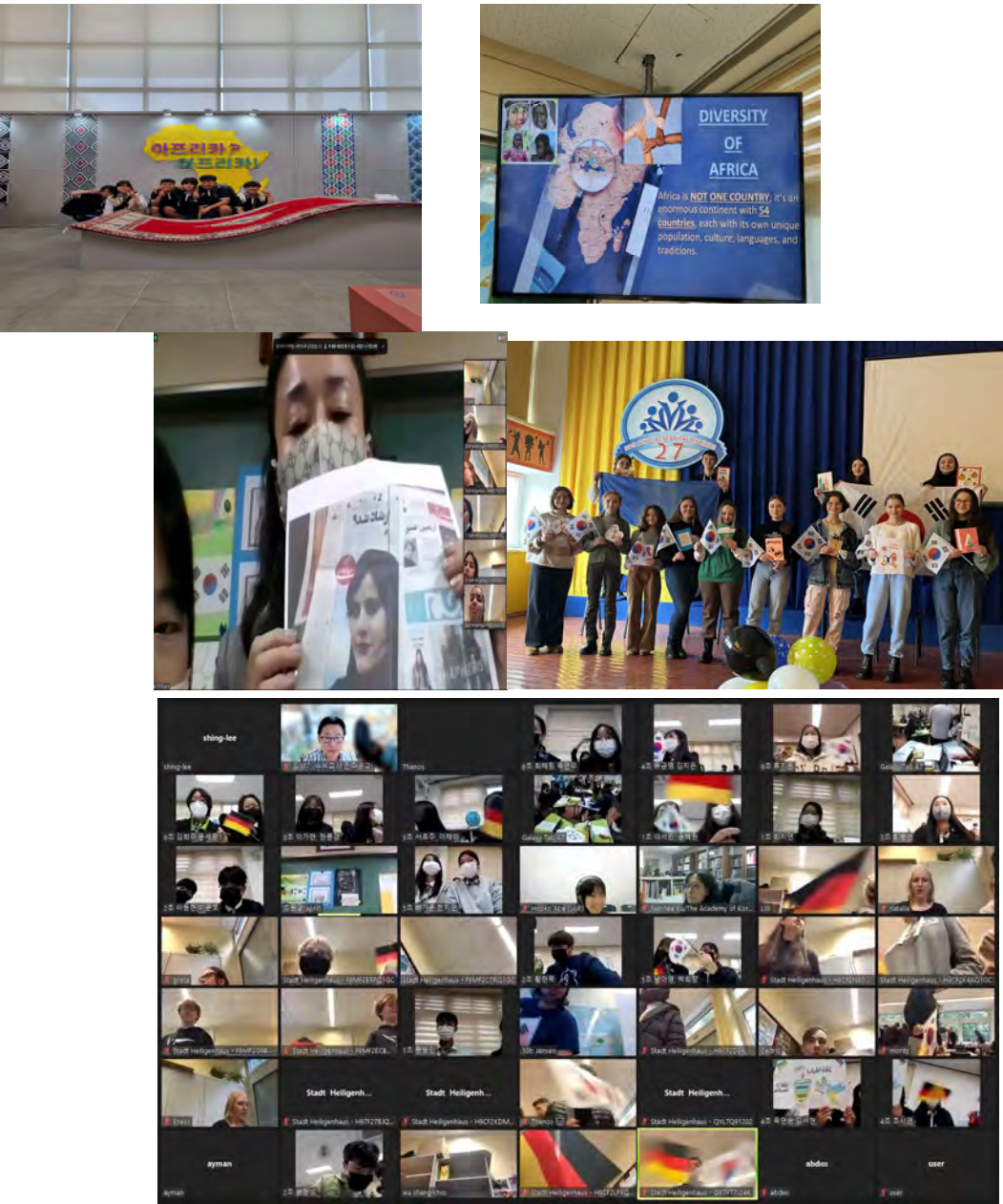
올바른 자료들이 쌓여간다면 좋은, 옳은 아카이브를 만들고 AI와 연동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인공지능 수업은 의미있고 또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다크투어 (우리나라. 아프리카. 유럽. 일본)와 평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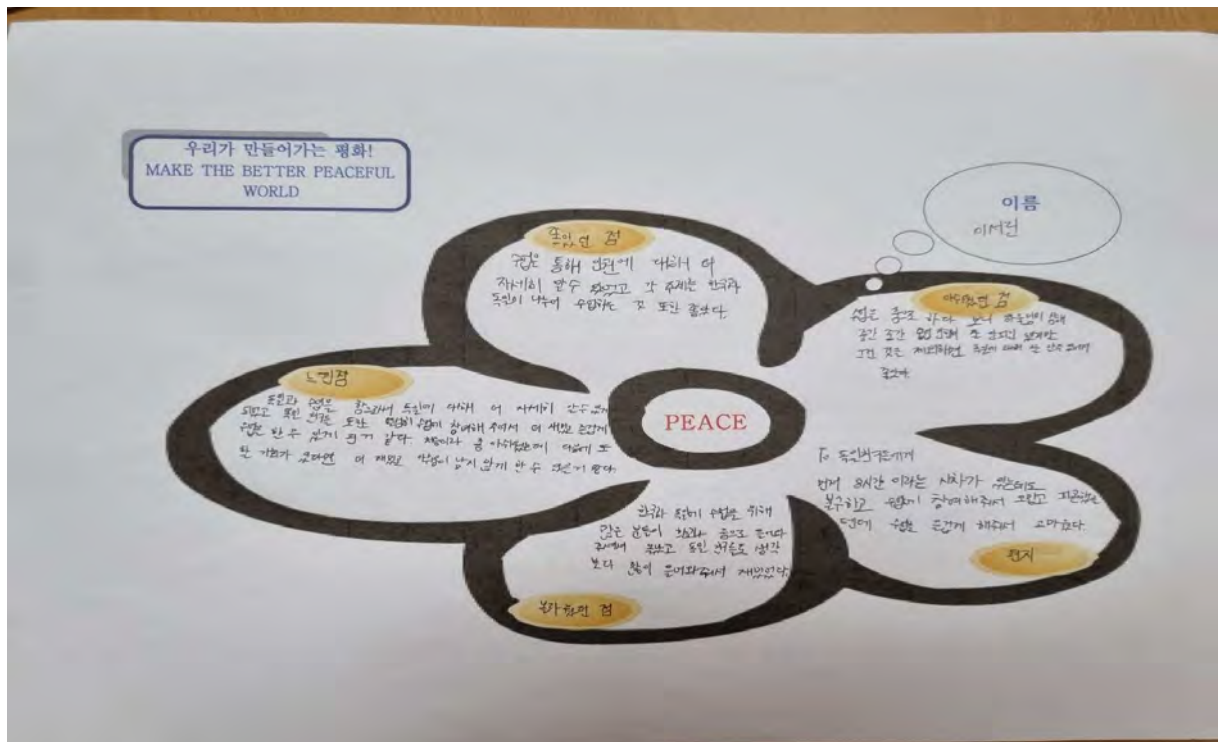
다크투어리즘 교육을 기획한것은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고자 함이었다. 평화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주변.세계 곳곳에 산재한 역사적 장소 등을 찾아보고 또는 체험하면서 자기 삶의 반경에도 이와 관련된 곳이 있음을 알고 이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제 관계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일본 간토 대지진 현장의 체험은 나와 학생 모두에게 역사를 기억하고 마주하면서 화해와 평화의 지점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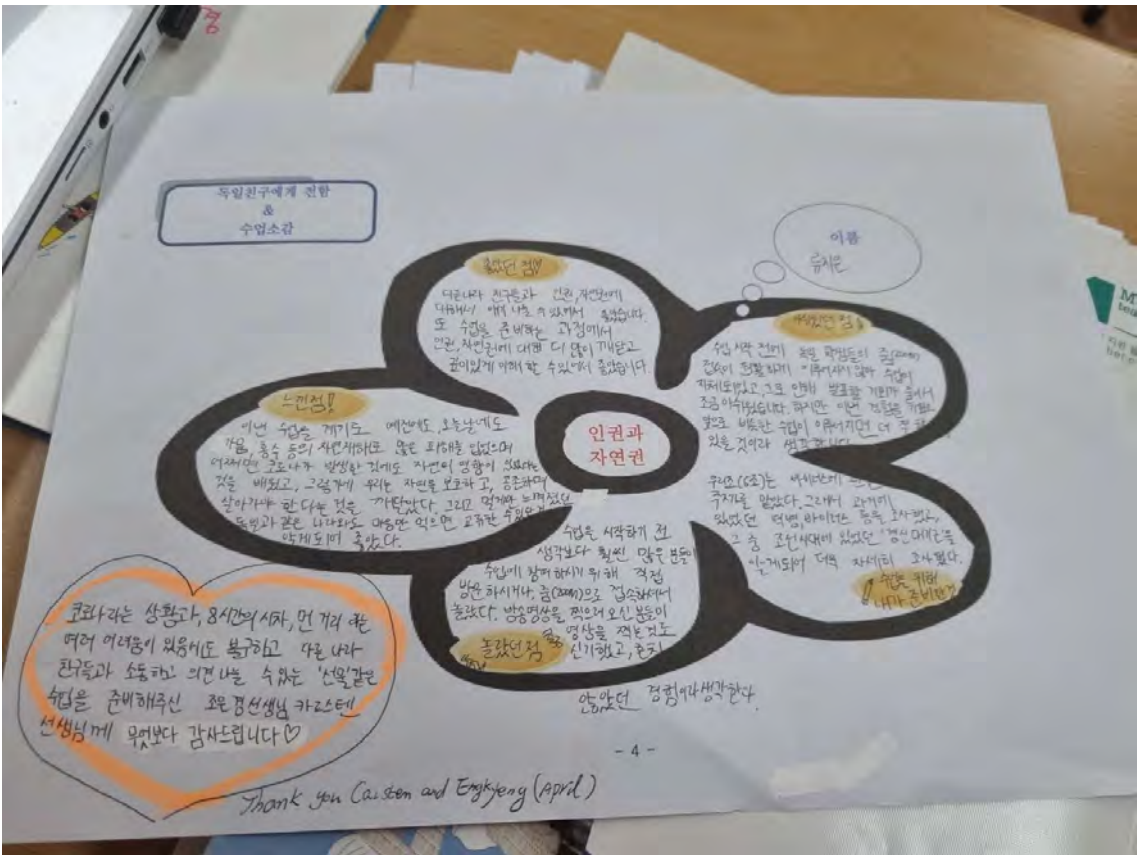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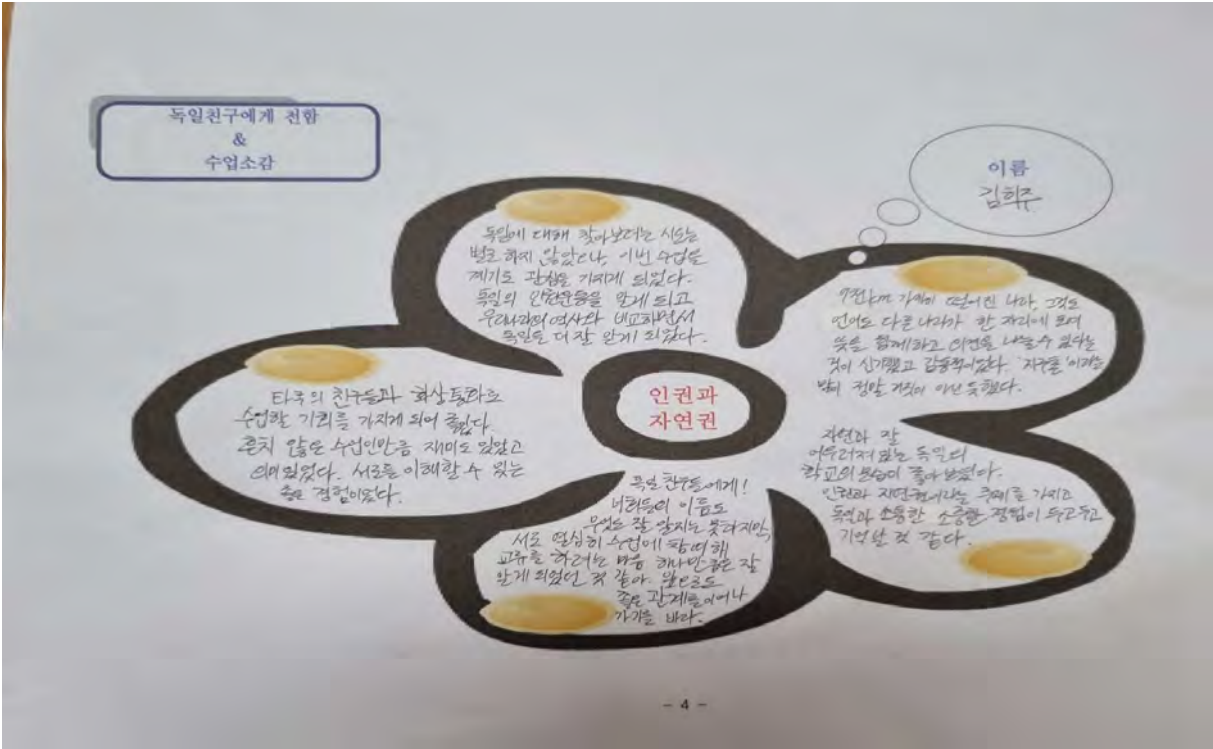
아직은 힘들고 멀지만 가야할 길 , 갈 수 있는 길이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국제공동수업 감상







5. 맺음말

평화를 향한 희망이 인간 의식 속에 강하게 뿌리내릴 때 우리는 폭력과 전쟁등의 요소를 줄이고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나는 다크투어리즘 학습을 사전연구활동, 실천 활동, 정리활동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보편적 가치를 공감하는 세계 시민 교육이고 평화교육의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이다.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나 재난 또는 재해의 지역을 방문하는 활동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었다. 평화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고 지켜야 할것임을 학생들이 느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단순히 이론 학습이 아닌 학생 활동으로 평화교육을 실천하면서 나 또한 힘을 얻었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목표로 증오의 사슬을 끊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다. 마주보며 대화하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 개발 연구

정 지 수
(한양대학교 리더십센터)

평화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태로 인식되는 보편적 가치이다. 인류는 이러한 평화를 늘 갈망해 왔지만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고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와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쟁이 종식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빈곤과 기아, 사회적 불평등, 차별과 혐오, 억압과 착취 등 세상에는 폭력이 만연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의 혼란, 양극화, 인종, 젠더, 국가 간의 갈등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윤철기, 2022, p.66).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원인을 찾고 갈등을 전환하려는 평화학(peace studies) 또는 평화갈등연구(peace and conflict studies)와, 평화에 대해 인식하고 삶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평화교육(peace education)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서보혁, 정옥식, 2016, p.29).

평화교육은 평화에 무관심하거나, 어떻게 평화를 실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와 같은 평화문맹(이찬수, 2016, p.14)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하다. 평화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오래 전부터 다양한 종교에서 언급되어 왔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평화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0~1960년대에는 유네스코 중심의 전통적 평화교육이, 1970년대 이후에는 비판적 평화교육과 제3세계 평화교육이 이루어졌고,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평화교육이 퍼지기 시작했다. 현재 다양한 평화교육 단체가 생기며 평화교육이 이전에 비해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평화교육을 낯설게 여기고 있다.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한 해석, 접근, 실현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회복적 생활교육, 평화감수성훈련, 또래조정(peer mediation)¹⁾, 인성교육, 인권교육, 생태교육, 평화·통일교육, 탈분단교육 등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정지수, 김경이, 2020, p.67). 이러한 평화교육은 대체로 단기적으로 진행되며 단체마다 산발적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교육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정현백, 김엘리, 김정수, 2002, p.3; 서보혁, 정주진, 2018, p.228).

한편, 평화교육은 일방적 소통 및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며, 경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를 성찰과 실천으로 이끌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 평화교육이 단시간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습자가 깊이 있는 성찰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외국의 평화교육 모델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평화교육 모형 창출에 대한 노력이 적은 편이다(진행남, 2008, p.81). 그러므로 평화교육에 철학적·이론적 기반이 필요하고, 평화교육의 내용에는 지식적 요소도 포함되어야 하며, 평화교육 수업설계를 위한 기준 및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며 다양한 학습자와 다양한 교육 맥락에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평화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평화교육에 적용할 원리와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한 내적 타당성 검증 및 평화교육 실천가와 학습자 반응을 통한 외적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모형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 과정을 거쳐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의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1) peer mediation은 또래조정, 또래중재, 또래중조 등으로 사용된다.

1.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의 원리와 구성요소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의 원리와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Freire의 프락시스(praxis)와 Arendt의 공론 영역(public realm)을 살펴보고, 평화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Freire는 인간을 발전이 가능한 미완성의 존재로 보았고,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락시스적 존재라고 하였다(Freire, 1968/2018, p.55). Freire가 말하는 프락시스는 성찰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Freire, 1968/2018, p.157), 교육의 목적인 인간화를 위한 실천원리이다(엄재춘, 2022, p.163). 프락시스의 특징은 대화적 관계에서 시작될 수 있고, 성찰적 지식이며, 삶의 변혁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락시스의 특징을 통해 평화교육에 적용할 원리와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먼저, 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대화적 관계에서 ‘지식의 공동구성’과 ‘수평적 관계 형성’을, 성찰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에서 ‘경험에서 시작하는 문제 인식’과 ‘반성적 성찰을 돕는 질문하기’를, 삶의 변혁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에서 ‘전환과 회복’과 ‘삶에서의 실천 계획 수립하기’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지식의 공동구성’ 그리고 ‘수평적 관계 형성’에서 ‘안전한 공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이는 평화교육의 시작 단계에서 형성해야 하며, 수업 중 실행 단계와 연결하였다. 또한 ‘경험에서 시작하는 문제 인식’과 ‘반성적 성찰을 돕는 질문하기’와 ‘전환과 회복’과 ‘삶에서의 실천 계획 수립하기’는 ‘삶에서의 실천’, ‘평화감수성 함양’으로 도출하였다.

Arendt는 인간이 활동하는 영역인 세계를 사적 영역(private realm), 공론 영역, 사회로 구분하였다. 인간이 동물의 한 종으로 실존할 수 있게 하는 삶의 필연성과 개인의 보존과 관련된 영역인 사적 영역과 달리, 공론 영역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공개성, 자유, 평등, 다원성의 특징을 지니며, 행위가 실현되는 영역이다(Arendt, 1958/2019, p.128-130). 공론 영역은 다수성을 특징으로 하며, 다양성이 존중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

이러한 공론 영역의 특징을 통해 평화교육에 적용할 원리와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먼저, 타자와 함께 존재하는 다수성에서 ‘평화로운 공동체’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하기’를, 개개인의 개성이 드러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다양성의 존중에서 ‘차이와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와 ‘수용적 태도와 열린 자세로 대하기’를, 유한성을 넘어서 지속성을 창조해내는 데에서 ‘평화에 관련된 개념과 관점’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평화교육의 원리로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평화로운 공동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하기’를 ‘안전한 공간’으로, ‘차이와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 ‘수용적 태도와 열린 자세로 대하기’를 ‘다양한 관점에 열린 태도’로, ‘평화에 관련된 개념과 관점’, ‘성찰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새로 시작하는 능력’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각각 실행 단계와 실행의 마지막 단계로 연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을 개발하였다.

<표 1> 평화교육 통합적 접근 모형의 구성요소

	특징	내용 요소 측면	운영 방법 측면	구성요소
프락시스	대화적 관계	지식의 공동구성	수평적 관계 형성	안전한 공간
	성찰적 지식	경험에서 시작하는 문제 인식	반성적 성찰을 돕는 질문하기	삶에서의 실천 평화감수성 함양
	삶의 변혁	전환과 회복	삶에서의 실천 계획 수립하기	삶에서의 실천 평화감수성 함양

공론 영역	다수성	평화로운 공동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안전한 공간
	다양성 존중	차이와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	수용적 태도와 열린 자세로 대하기	다양한 관점에 열린 태도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	평화에 관련된 개념과 관점	성찰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새로 시작하는 능력

2. 모형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설계·개발 연구(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의 하나인 형성적 연구방법(formative research methodology)을 활용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교수설계 이론 및 모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에서 시작한 대안적인 연구방법인 Reigeluth의 형성적 연구는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및 Yin의 사례 연구(case study research)를 따르며, 실천을 위한 ‘어떻게’에 관심을 가지며, 처방성과 최적성을 강조한다(Reigeluth, 1999/2005, p.526, 임철일, 2000, p.174).

1) 내적 타당성 검증

전문가 자문을 통한 내적 타당성 검증은 개발한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 박사이면서 모형 개발 또는 평화교육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고 관련 분야 경력이 15년 이상인 4명의 전문가에게 3회에 걸쳐 모형에 대한 내적 타당성 검증을 받았다.

<표 2>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N=4)

영역	1차				2차				3차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적합성	2	1.41	0.25	0.33	3.25	0.50	1	0.67	4	0	1	1
모형의 구성과 절차의 적절성	2.75	0.96	0.5		3	0.82	0.75		4	0	1	
모형의 내용의 적절성	2.75	0	1		3.25	0.50	1		3.75	0.5	1	
설명력	2	0.82	0.25		2.75	0.96	0.5		3.75	0.5	1	
유용성	3.25	0.50	1		3.5	0.58	1		4	0	1	
가치성	2.5	1.29	0.5		3.5	0.58	1		4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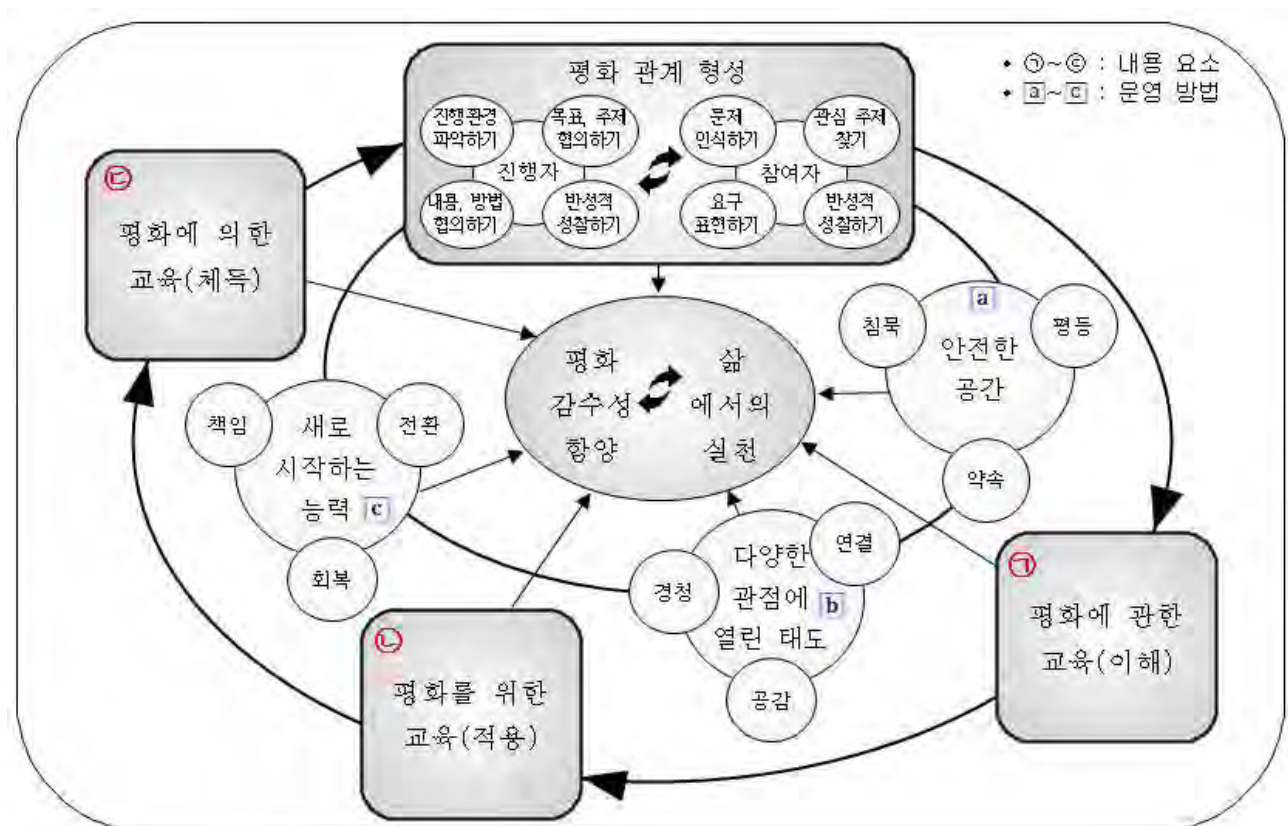
* 1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2점: 타당하지 않다. 3점: 타당하다. 4점: 매우 타당하다.

2) 외적 타당성 검증

외적 타당성 검증은 평화교육 실천가와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모형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력 5년 이상인 평화교육 활동가 7명에게 내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수정 및 보완된 모형과 이를 토대로 설계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설문 조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 반응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화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학습자 20명을 모집하여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모형에 대한 외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문헌분석을 통해 Freire의 프락시스와 Arendt의 공론 영역에서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형의 초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4인을 통해 진행된 내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3회에 걸쳐 진행된 내적 타당성 검증 결과 이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명의 평화교육 실천가를 통해 진행된 외적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학습자 반응을 통해 모형의 현장성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개발한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의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

본 연구는 평화교육 수업설계모형 개발을 위해 Freire의 프락시스 및 Arendt의 공론 영역을 바탕으로 모형의 원리와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 원리들을 내용 요소 측면과 운영 방법 측면으로 나누고 내용 선정의 준거와 운영 방법의 준거를 도출하였다. 모형의 초안을 완성한 후 형성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모형의 내적 타당성 및 외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최종 모형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한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학습자와 교육 맥락에 적용 가능하다. 모형은 특정 학습자나 학습 상황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모형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둘째, 평화교육 내용에 인지적 영역이 포함되었다. 이전의 놀이와 활동 위주의 평화교육에 머물지 않고, 지식과 경험이 혼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평화와 폭력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활동을 통해 반성적 성찰 및 실천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소 2차시 이상의 수업을 가정하고 설계해야 한다. 셋째, 실제 평화교육 실행 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모형과 세부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평화교육을 개선하여 인지적 영역을 포함하였으며, 진행자(교수자)가 모형을 토대로 다양한 학습자 및 학습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모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행자와 참여자의 협의 및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며, 진행자 및 실천가 양성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해서 추후 많은 평화교육 전문가들에게 모형의 타당도를 면밀히 검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다양한 학습자와 교육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하여 모형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추후 모형을 바탕으로 설계된 평화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 적용한 실행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나은 평화교육 모형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서보혁, 정옥식. (2016).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사람들.
- 서보혁, 정주진. (2018). **평화운동 : 이론·역사·영역**. 과천: 진인진.
- 엄재춘. (2022). 프레이리 교육사상의 대안교육적 의미 고찰. **아동교육**, 31(2), 151-170.
<https://doi.org/10.17643/kjce.2022.31.2.08>
- 윤철기. (2022). 뉴노멀 시대, 평화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새로운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5(1), 65-94.
<https://doi.org/10.35881/HLER.2022.15.1.4>
- 이찬수. (2016). **평화와 평화들 :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서울: 모시는사람들.
- 임철일. (2000). **교수설계이론 : 학습과제유형별 교수전략**. 서울: 교육과학사.
- 정지수, 김경이. (2020). 평화교육 연구동향 분석 : 2000년~2020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인격교육**, 14(3), 65-86.
<https://doi.org/10.18015/edumca.14.3.202008.65>
- 정현백, 김엘리, 김정수. (2002).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통일교육총서 2002-03).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진행남. (2008). **국내외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 분석**(연구사업보고서 08-02). 서귀포: 제주평화연구원.
- Arendt, H. (2019). **인간의 조건 제2개정판** (이진우 역). 파주: 한길사. (원서출판, 1958).
- Freire, P. (2018). **페다고지 50주년 기념판** (남경태, 허진 역). 서울: 그린비. (원서출판, 1968).
- Reigeluth, M. C. (2005).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최욱, 박인우, 변호승, 양영선, 왕경수, 이상수, 이인숙, 임철일, 정현미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서출판, 1999).

교사리더십을 갖추고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A Phenomenological Case Stud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
Teacher Leadership and the Practic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김 장 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목차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 IV. 연구 결과
- V. 논의 및 결론

2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21세기를 맞아 급변하는 국제 사회의 상황 속에서 새 시대에 발맞추어 적응하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

A. 교사리더십

-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교사들의 역할은 교과지식을 전달하는 등 전통적인 것들 외에도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함께 공부시키는 것, 학생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 책무성 강화로 인한 다양한 서류 업무를 처리하는 것 등으로 폭넓게 재정의(Fullan & Hargreaves, 2006)
- 교실의 안과 밖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료교사 및 다른 리더들이 포함된 공동체에 기여하고, 다른 교사들이 각자의 교수적 실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질 능력을 가진 교사(Katzenmeyer & Moller, 2009)
- 본산적 리더십 차원에서 모든 교사에게 학교의 성장과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Kamaruzaman, Musa & Hashim, 2020)
- 교사의 권한강화(empowerment)(Katzenmeyer & Moller, 2001)
- 학교 공동체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학교 변화와 발전의 주체로 인식(Cooper et al., 2016)

3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21세기를 맞아 급변하는 국제 사회의 상황 속에서 새 시대에 발맞추어 적응하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

B. 세계시민교육

-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학습자가 평화적이고 정의로우며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UNESCO, 2016; 교육부, 2015)
- 한국을 포함한 '정부 주도적 세계시민교육(State led GCE)'(Noh, 2019; Pak & Lee, 2018)
- 기존 '시민교육'에서 확장된 개념으로의 세계시민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것(Davies, 2006)
- 정부가 규정한 사고체계를 비판 없이 수용하도록 가르치는(Hocutt, 2005), 주입식(indoctrination) 교육 등의 한계점(Biesta, 2011)

4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목적

• 교사는 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실제 행위자

-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실천하는 주체(Fullan, 2003)
- 자신의 관점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실천가이자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교육과정 변혁의 주요 동인에 해당(Biesta et al., 2015)

• 교사리더십을 가진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사례 탐구

- 정부주도적 세계시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적인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변화를 불러오는 사례의 가능성

5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개혁과 교사리더십

- 학교 조직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적합한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요구받았고,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개혁의 필요로 이어짐(Joseph, 2005)
- 학교 혁신과 개혁 과정에서 교사들의 주도적 참여와 활동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여기서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할이 바로 '교사리더십'(Sergiovanni, 2001; Wasley, 1991)
- 학생의 학습 및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사가 교수학습을 향상하기 위해 동료교사, 학교장 등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 정의(York-Barr & Duke, 2004)
- 근본적으로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의미체계를 만드는 교사의 능력을 가지고, 학교 조직의 성공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이해와 실천의 새로운 형태(Crowther, Ferguson & Hann, 2009)

6

II. 이론적 배경

2. 변혁적 교육으로의 세계시민교육

가. 세계시민교육의 변혁적 성격과 실제적 한계

·세계시민성,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의 등장은 전통적인 학교 시민교육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국가라는 범주에 기반한 전통적 시민교육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글로벌 이슈들 가운데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위치, 소속감, 정체성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Yemini et al., 2018)

•Oxfam(2015)은 세계시민교육이 변혁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그를 위해 학습하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과정이라 이야기함으로 '물려받은 세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방점이 있음을 강조(Oxfam, 2015)

•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은 이처럼 정부 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기존 '시민교육'에서 확장된 개념으로의 세계시민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것(Davies, 2006)

•정부의 사고체계의 무비판 수용(Hocutt, 2005), 주입식 교육(Biesta, 2011), 비판적 문해력 향상의 어려움(Davis, 2006)

7

II. 이론적 배경

2. 변혁적 교육으로의 세계시민교육

나. 한국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실천과 어려움

• 교과 내용에 세계시민성을 녹여 교육, 동아리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김다원, 이경환, 2017).

•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혹은 교과형태의 교육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도덕, 윤리 등의 사회과 과목과 연관되어 교육되는데, 내용이 정부의 관심에 부합하는 시민성만을 강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Noh, 2020)

• 동료 교사와의 인식 차이(Kang&Lee, 2018), 세계시민성 개념의 모호함(이성희, 2016), 한정적이며 반복적인 프로그램(Kang&Lee, 2018), 과중한 업무부담(박순용, 강보라, 2017)

• 세계시민교육의 장애물은 기존 학교 및 지역사회의 전통적 관행들과 관련(이성희, 2016; 강규원, 김수정, 2018)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을 국가주의 관점에 대응되는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에 대립하는 대안적 교육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은 교사 개인의 내적 동기와 신념에 부합하는 교육으로 인식(박순용, 강보라, 2017)

8

III.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 연구방법: 현상학적 사례연구(Phenomenological case study)

· 사례연구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이해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특정한 '사례'를 집중 있게 분석하여 개인적 생애주기, 소그룹의 행동, 조직과 그 간의 과정, 동료관계, 학교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실질적으로 총체적 이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의 인정 (2002: 29)

· 개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거기에 초점을 둔 해석주의의 전통을 따르며(Garrick, 1999),

· 특히 개인들이 그들의 세계를 어떻게 체험하고, 그 세계에 존재하는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하는 현상학적 관점에 근거(Van manen, 1990)

- 연구참여자 모집: 초등학교 교사 6명

-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 중, 리더십 성향이 강한 교사들
- 선행연구에 근거 저술, 외부강의 등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한 교육적 활동으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원 진학, 연수 등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높임으로 교육 경력을 이어가며, 동료 교사들로부터 리더십이 있다고 인정받은 등의 조건

9

III.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illegible]

1

IV. 연구 결과

1.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성향	가. 교사들이 인식하는 세계시민(성) 교육 나. 학교에서 보이는 리더의 모습: Leading follower 다. 장애물의 맥락: 흘러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가. 세계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 '세계시민교육'
4.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교사주도의 세계시민교육	나. 생활지도도 통한 세계시민교육: 넓은 울타리 다. 통합적 커리큘럼으로의 세계시민교육 라. 변화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사의 관심에서 학생의 필요로

48

IV. 연구 결과

1.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성향	가. 교사들이 인식하는 세계시민(성) 교육 나. 학교에서 보이는 리더의 모습: Leading follower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4.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교사주도의 세계시민교육	가. 세계시민 교육이라 부르지 않는 '세계시민교육'
	나. 생활지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넓은 울타리
	다. 통합적 커리큘럼으로의 세계시민교육 라. 변화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사의 관점에서 학생의 필요로

9

IV. 연구 결과

1.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성향	가. 교사들이 인식하는 세계시민(성) 교육 나. 학교에서 보이는 리더의 모습: Leading follower
---------------------------------	---

(1) 교육철학으로의 세계시민성

“세계시민 교육 자체가 교육 방법이 아니라 일단 교육철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는 것들이 다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프로젝트도 있지만, 삶이나 생활지도에서 어느 부분까지가 세계시민교육인지 구분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진영재 교사)

- 세계시민교육은 특정 시점부터 발견하거나 적합한 방법 내지 접근이라기보다, 연구 참여자들이 추구하던 교육적 지향이며 현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교육철학에 가까운 것
- 교사들이 가진 리더십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이해

13

IV. 연구 결과

1.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성향	가. 교사들이 인식하는 세계시민(성) 교육 나. 학교에서 보이는 리더의 모습: Leading follower
---------------------------------	---

(2) 교사 스스로가 먼저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저는 항상 제가 좋은 어른, 닮고 싶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세계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펼치는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 될 수 있고요. (김서희 교사)

- 먼저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교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본인이 하는 모든 교육적 행위가 실천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14

IV. 연구 결과

1.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성향	가. 교사들이 인식하는 세계시민(성) 교육 나. 학교에서 보이는 리더의 모습: Leading follower
---------------------------------	---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나누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뭐 만들었다 하려는 이거 드릴까요? 교육자료나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거 쓰세요.' 하고 그냥 메시지로 보내고. 그래서 굉장히 이 나눔이 활발해서 놀라셨다는 분도 계시긴 했어요. (은지영 교사)

“저는 사람들이 그냥 내년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사들과 사이가 안 좋은 분들과도 자진해서 일을 같이 해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교사들이 '또 그 쌤이랑 같이 일하게 됐는데, 괜찮아?' 라고 저를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이도연 교사)

- 다른 이들이 보면 그저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일과 기피하는 일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Follower)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해당 업무를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끌고(Leading) 있었던 것

15

IV. 연구 결과

1.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성향	가. 교사들이 인식하는 세계시민(성) 교육 나. 학교에서 보이는 리더의 모습: Leading follower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4.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교사주도의 세계시민교육	가. 세계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 '세계시민교육' 나. 생활지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넓은 울타리 다. 통합적 커리큘럼으로의 세계시민교육 라. 변화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사의 관심에서 학생의 필요로

16

IV. 연구 결과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	---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열정이 있지만 절대로 먼저 자기가 한다고 안 해요. 개개인을 보면 커뮤니티를 스스로 찾아올 만큼 되게 주도적인 교사거든요. 그런데, '누가 리더를 맡으실래요?' 말하면, 취 죽은 듯 조용해요. (현승희 교사)

- 개개인은 주도성이 있지만, 공동체로 모일 경우 드러내서 나서지 않는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일면이, 학교라는 조직의 특성을 그대로 가진 축소판과 같다
-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 확인

17

IV. 연구 결과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	---

(1) 교사에 대한 부정적 외부인식

“사실 언론에서도 보면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죽을 등 살 등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사회는 이렇게 교사들을 미워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 교육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공자님이 해결하셨겠지. (유나래 교사)

“제도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이 있는 유교 문화임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약간 자꾸 모래알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은지영 교사)

- 교사들은 본인과 학교의 '무력함'을 실감했으며, 이러한 교사의 무력함이 학생들에게 학습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훼손

18

IV. 연구 결과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2) 위계적인 교직문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교사님이었는데 일단은 제가 부장으로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이려면... 일단은 되게 거부감을 자주 보이셨고 저의 일이나 일 처리하는 방식을 계속 마음에 안 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것도 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셨고...그래서 같은 학년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진영재 교사)

- 학교 내의 계급 구조와 권력 구조가 교사들에게 단순히 무력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교사로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

19

IV. 연구 결과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3) 교사 집단의 우울감

“교사 집단의 집단 우울감이라는 것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관리자가 막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학부모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야. 아이들은 내가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뭔가 날개가 꺾인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우울감 때문에 선불리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진영재 교사)

- 학교 내의 계급 구조와 권력 구조가 교사들에게 단순히 무력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교사로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

20

IV. 연구 결과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Tyack과 Cuban(1995)이 묘사한 '학교의 문법(grammar of schooling)'

- 다양한 개혁 시도에도 바뀌지 않는 학교의 모습을 묘사
- 학교를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 교수방법 등의 관행들이 마치 문법처럼 학교가 어떠한 공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념을 규정하며, 교사와 학생은 이에 맞추어 행동한다는 것

21

IV. 연구 결과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1) 교사 집단 내 개인주의와 소통의 어려움: '달걀판'과 '성벽'

“학교는 굉장히 개인주의 사회거든요. 그냥 내 교실 안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다가 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교류가 없을 수도 있는, 없어도 되는 사회거든요. 다 교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마치 계란 한 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개인주의 사회로 흘러가기 쉬운 문화예요. (김서희 교사)

초등학교의 교실은 그 선생님의 성이다. 그래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옆 반에도 이제 높은 성벽이 쌓여 있어서 가기가 어렵다. (유나래 교사)

- 교사들 사이의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을 보여주며,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한국 교사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22

IV. 연구 결과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2) 교사 문화에서 소통의 어려움과 자율권: 경계와 균형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사들의 자율권이라고 하죠. 그것은 경계에 상관없이 지켜지는 것이고요.(은지영 교사)

- 본인이 피해를 받더라도 동료 교사가 자신의 교실 내에서 갖는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것, 즉 선을 넘지 않는 것은 '내 선배들도 그랬'듯 당연히 지켜줘야 할 동료 교사의 영역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본인이 보호받아야 할 영역

23

IV. 연구 결과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1) 학생들의 다양한 환경

“부유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애들이 막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초딩이 왜 이렇게 조니?' 하고 물어보면, 너무 학원 숙제를 열심히 해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애네들은 항상 사교육에 되게 찌들어 있어서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항상 더 새로운 것을 줘야 했어요. 반면에, 가로동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상적인 단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지?'라는 고민을 했어요... (현승희 교사)

- 다양한 학생들의 배경, 그로인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교육 현장

24

IV. 연구 결과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2) 빠르게 변하는 시대

“ 더 이상 내가, 학교가 아이들한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느낌. AI, 스마트 교육... 매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뭔가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철학이나 사업 대본 바뀌고, 이런 걸 잘 따라가지 못하는 나는 과연 좋은 교사일까? 아이들한테 내가 더 이상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미래의 학교란 무엇일까? 학교의 기능은 뭘까? 내가 하는 일에서 괴리감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김서희 교사)

- 교사들의 고민은 학교에 대한 새로운 요구뿐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 역할에 대한 위협과도 관련
-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고민과 연결

26

IV. 연구 결과

1.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성향	가. 교사들이 인식하는 세계시민(성) 교육 나. 학교에서 보이는 리더의 모습: Leading follower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4.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교사주도의 세계시민교육	가. 세계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 '세계시민교육' 나. 생활지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넓은 울타리 다. 통합적 커리큘럼으로의 세계시민교육 라. 변화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사의 관점에서 학생의 필요로

26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같은 수업도 변화를 주게 되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즐거워요. 그 경험을 했더니, 아이들과 제가 함께 성장한 것 같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창의적인 교육을 한다고 인정받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더 큰 성취감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유 나래 교사)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중에 뭐가 좋아? 이런 질문하잖아요. 저는 그중에 끌리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제일 끌리는 건 성장 욕구인 것 같아요. 자아실현과 성장 욕구. 그런데, 그거의 도구가 저는 세계시민교육이거든요.(김서희)

- 교사의 성장은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교사의 성장 그 자체는 세계시민교육의 결과
-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장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영향력을 획득하고 있었다.

27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같은 수업도 변화를 주게 되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즐거워요. 그 경험을 했더니, 아이들과 제가 함께 성장한 것 같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창의적인 교육을 한다고 인정받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더 큰 성취감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유 나래 교사)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중에 뭐가 좋아? 이런 질문하잖아요. 저는 그중에 끌리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제일 끌리는 건 성장 욕구인 것 같아요. 자아실현과 성장 욕구. 그런데, 그거의 도구가 저는 세계시민교육이거든요.(김서희)

- 교사의 성장은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교사의 성장 그 자체는 세계시민교육의 결과
-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장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영향력을 획득하고 있었다.

28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1) 공감과 전문성 함양

“ 학교 안에서는 할 수 없었던 시도들을 커뮤니티 안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지식 나눔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이 안에서 계속 창출되니, 그걸 교육적으로 풀어내고,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지. 그 수단이 돈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Teacher 보다는 Educator. 그게 처음 단체를 만들 때 비전이었어요 (현승희 교사)

29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2) 제도의 제약을 넘어섬

“ 교육청 프로그램에 있는 한계가 워낙이면 같은 지역 선생님들만 모여야 해요. 반면, 저희가 하는 교사학습공동체는 목적이 교사 전 세계 교사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나아가, NGO나 교육공무원, 연구자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다 연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유나래 교사)

30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3) 사회적 기여와 효능감

“최근에 했던 그 프로젝트가 아프리카 선생님들하고 온라인으로 교원 공동체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거를 매주 금요일 밤마다 선생님들이 다 진행하셨어야 하거든요. 그거 끝나고 엄청 피로도가 높았을 텐데,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이분들이 이걸 하면서 자기의 어떤 진짜 효능감을 좀 발견하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현승희 교사)

31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1) 연대: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공존의 조화

“혼자서만 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대해야 하고, 남한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게 다소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연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김서희 교사)

32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1) 연대: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공존의 조화

“혼자서만 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대해야 하고, 남한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게 다소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연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김서희 교사)

33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1) 연대: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공존의 조화

“혼자서만 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대해야 하고, 남한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게 다소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연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김서희 교사)

34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2) 교육의 본질은 연대하는 것

“인간이라면 생득적으로 가질 수 있는 본능적인 인간성이 아니고, 교육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인간성.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저는 고상함이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인간을 키워내는 게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은지영 교사)

35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3) 연대하는 삶의 실천

“저는 만남의 광장 같은 사람이예요. 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모여요. 교사들끼리의 소통은 정보를 보고받는 형태가 아니라 대개 공유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소통이 너무 중요해요. 그 정보가 만남의 광장인 저를 통해 계속 흘러가게 되요.(현승희 교사)

- Stein(1998)은 교사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수, 경험, 개인 특성 역량 같은 것보다도 사회적 관계 - 돌봄교사의 갈등 해결: 정부와 학교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의 문제들을 리더십을 발휘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까지 이뤄낸 것이라 볼 수 있다.

36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1)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 교육

“노키즈존 혹은 동물원에 대해 찬성하나 반대하나?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있죠. 노키즈존은 없어야 하고 동물원도 없어야 하고, 근데 제 수업에서는 제가 정답을 안 알려 주거든요. 다른 의견을 가진 아이들의 이야기 도 수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풀어낼지를 고민하거든요. (김서희 교사)

- 아이들이 특정한 이슈에 대해 정해진 답을 배우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과 문제에 마주했을 때 그를 수용하고 풀어 가는 역량을 기르는 것

37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2) 학생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큰 번곡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왜 내가 난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 이슈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저도 불안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의 확장이 어렵구나, 시민성이라는 것이 확장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세계를 받아들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진영재 교사)

- 부유한 지역과 빈곤지역에 각각 근무하며 학생들이 각자 다른 교육적 필요가 있음을 발견했고,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세계시민교육이 필요

38

IV. 연구 결과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3)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판단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욕심 부릴 필요 없어’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하고, ‘내 것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주장 하는 아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선이 어디까지인가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의견을 얘기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까지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은지영 교사)

- 공감에서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각 교사 개인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동료 교사와 함께 하는 업무 및 필요에 부응하는 ‘과정’이며, 학교에 활력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행위는 교사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설득함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교사리더십의 개념(Danielson, 2006)과 닮아있다.

-이는 리더십을 가진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해석하고 실천할 때, 관 주도적이 아닌 해우이자 주도적인 세계시민교육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줌

39

IV. 연구 결과

1.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성향	가. 교사들이 인식하는 세계시민(성) 교육 나. 학교에서 보이는 리더의 모습: Leading follower
2. 학교에 존재하는 변화의 장애물	가. 장애물의 맥락: 홀어지면 Leader 모이면 Follower 나. 교사집단의 무력감 다. 소통을 막는 학교문법 라. 시대 변화에 흔들리는 학교의 역할
3. 세계시민(성)교육을 통한 장애물의 극복	가. 극복의 맥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나. 무력감의 극복: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다. 학교문법의 극복: 연대(連帶)의 가치 라. 교육의 시대적 역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4.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교사주도의 세계시민교육	가. 세계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 ‘세계시민교육’ 나. 생활지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넓은 울타리 다. 통합적 커리큘럼으로의 세계시민교육 라. 변화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사의 관점에서 학생의 필요로

40

IV. 연구 결과

4.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교사주도의 세계시민교육	가. 세계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 ‘세계시민교육’
	나. 생활지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넓은 울타리
	다. 통합적 커리큘럼으로의 세계시민교육
	라. 변화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사의 관점에서 학생의 필요로

“세계시민으로서 사는 건 관심이 많은데, 사실 교육 자체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내가 아이들하고 살아있는 교육을 한다고 느끼는 것은, 학습 모형이나 방법 같은 것보다 책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묻고 답하는 과정이 제일 좋은 교육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지영 교사)

-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한 교육일지 모르지만, 실제 학교 구성원에게는 ‘마이너’한 이슈일 수 있는 것

- 연구 참여자들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교육 접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면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도출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방법 중 하나

41

IV. 연구 결과

4.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교사주도의 세계시민교육	가. 세계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 ‘세계시민교육’
	나. 생활지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넓은 울타리
	다. 통합적 커리큘럼으로의 세계시민교육
	라. 변화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사의 관점에서 학생의 필요로

- 일상의 생활지도를 통해 세계시민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제공

- 교사들은 실제 삶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싸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 평화로운 갈등조정 방법을 학생들에게 학습

- 이 과정이 바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으며, 이를 체득시키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교육

- 안전이 보장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다양한 공동체적 상황을 유도하고 또한 자유로이 체험할 수 있는 ‘넓은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있음

42

IV. 연구 결과

4.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교사주도의 세계시민교육	가. 세계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 '세계시민교육'
	나. 생활지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넓은 울타리
	다. 통합적 커리큘럼으로의 세계시민교육
	라. 변화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사의 관심에서 학생의 필요로

- 교과 과정에 있는 수업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세계시민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해 수행하기도 했다. 그 방식은 개별 교과 단위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교과과정의 통합 방식으로 실천
-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제와 관련한 활동과 내용을 각 과목에서 다를 뿐 아니라, 각 과목의 성취기준과 진도를 충족시키며 교육을 수행
- 모둠활동을 통한 프로젝트: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제와 관련한 활동과 내용을 각 과목에서 다를 뿐 아니라, 각 과목의 성취기준과 진도를 충족시키며 교육을 수행

43

IV. 연구 결과

4.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교사주도의 세계시민교육	가. 세계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 '세계시민교육'
	나. 생활지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넓은 울타리
	다. 통합적 커리큘럼으로의 세계시민교육
	라. 변화하는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 “예전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강의를 할 때, 화려한 프로젝트를 설명했다면, 작년부터는 개인의 마음 챙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비폭력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더 반응도 좋고 피드백도 좋게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서 깨달았네요. 왜 제가 준비하는 연수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알게 되었어요. (진영재 교사)
- 세계시민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교사의 관심사에서 출발했지만, 삶의 사건과 교육적 경험이 축적되며 그 무거가 학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간 것
 - 교사들이 수행하는 세계시민교육은 교사로서의 경험, 생애주기, 개인적 사건 등을 통한 반성적 사고와 교육의 실행이 맞물린 연결고리처럼 영향을 주며 변화

44

V. 논의 및 결론

1. 교사리더십을 가진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때, 학교 변화를 위한 개혁적 성향이 증폭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리더십 성향이 강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교사로서의 성장을 갈망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
-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교사들로 하여금 더욱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더 큰 교육적 성장과 성취를 이루도록 했다.
- 결국, 교사리더십과 세계시민교육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교사의 영향력, 즉 리더십의 향상, 세계시민교육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학교의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45

V. 논의 및 결론

2. 리더십 성향이 강한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때, 관 주도형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교사들이 학교의 한계로 지정한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학교 모델에서 관찰되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
- 교사들이 실천한 교사 리더십과 세계시민교육은 학교 구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이해
- 이는 세계시민으로 직접 살아가며 실천하는 모습,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남
- 변화를 일으키려는 동기로 인해 행동하고, 그 행동이 학교 구성원에 영향력을 주며, 그 영향력으로 인해 학교와 구성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교사리더십의 영향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리더십 성향이 강한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관 주도형 교육의 여러 한계들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

46

V. 논의 및 결론

3. 리더십 성향이 강한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사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주도적인 학교 변화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제공

- 교사리더십 + 세계시민교육
→ 개혁적 성향 증폭 + 관 주도형 교육 환경

→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학교의 변화
= 관 주도형 교육의 문제들을 극복

=> 일련의 과정을 '교사 주도적인 학교 변혁의 한 사례로 이해

47

V. 논의 및 결론

- 교사들의 리더십은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교사들은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 이에 더하여 세계시민교육은 교사들이 실천하는 교육과정과 교육체계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결국, 교사의 리더십과 세계시민교육의 조화로운 결합과 상승작용은 교사 주도적인 학교 변혁을 가능케 한다.

- 이러한 교사 주도의 학교 변혁은 교육 분야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교육 시스템의 질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48

공동체 역량 신장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학습연구년제 # 미래교육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학습 #초등학교 #멸종위기동물

김은영
(전주 양현초등학교)

1

2) 연구의 목적

미래교육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 지구의 웰빙을 위해 주체적으로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학교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안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 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많은 것에 대변화를 주었다. 특히 안타까운 일 중의 하나는 이민국 또는 다른 국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증가였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낙인, 폭력이 늘었고, 세계와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과 조선족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사피엔스(2015)의 저자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전염병의 위기는 오지 글로벌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인필드, 타임즈에 기고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통해 '전염병에서 인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국의 이득만 고려한 행동은 큰 혼란과 위기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지만, 강대국들은 자국민의 백신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렸고, 그 결과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함에 따라 또 한 번 전 세계는 흔들렸다.

이런 극수적이고 한계경화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한 국가 혹은 한 민족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일 수도 있고,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할 우리나라는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세계와의 연결이 긴밀해지는 현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공감하고 협력하며, 지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세계와 소통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을 기를 필요가 있다.

우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2021)를 보면 교육은 우리를 세계와 연결시키고, 또한 서로 연결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대화와 행동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높여주지만,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그 자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교육 재건을 위하여 '교육의 방식은 협력과 공동 작업,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적·사회적·도덕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적 교육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6가지 중 공동체 역량의 성취와도 맞닿아 있다.

핵심역량	의미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2

2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개요

가) 주제: 공동체 역량 신장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나) 연구기간: 2023년 1월 ~ 2024년 2월

다) 연구목적: 교육과정 속 세계시민교육 요소들을 조망하고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 신장을 위해 교육현장에 세계시민교육의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

라) 연구문제:

하나 -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이며, 세계시민성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둘 - 교육과정 내에 세계시민교육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셋 - 미래의 세계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안은 무엇인가?

마) 연구범위: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의 구체성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함.

4

2) 연구절차

단계	연구절차	내용	시기
계획 및 준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연구 과제 세부 운영 계획 수립	1~2월
	자료 수집	관련 문헌 조사	3~4월
		실천 사례 수집	3~4월
		우수기관 답사 및 전문가 면담	3~11월
	관련 내용 연수	직무연수	3~6월
실천	연구실행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7~8월
	연구과정 보완	활동 계획 점검 및 수정	8~10월
정리	검증 및 보고	자료 정리 및 과정보고서 작성	3~10월
		연구결과 정리 및 최종보고서 작성	11~12월
	일반화	모류 분석 및 최종보고서 수정	2023.1월~
		현장 적용 및 연구의 지속적 실천	2023.3월~

3 연구 내용 및 진행 상황

1) 자료 수집 및 윤현 탐구

세계시민교육 관련 책들과 논문, 그리고 교육하는 방법을 구안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illegible]

3) 세부 연구 계획

[illegible]

4) 세계시민 성장 프로젝트(개민소양)

미래의 세계시민들을 훌륭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도전과제를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학습연구년
개인 주제 연구와 더불어 꾸준히 실천하여 성취해 내시길 바란다.

프로젝트	실현내용	목표성취확인
조니와 영아 작품! [영화]의 버디와 조니가 있 어면, 세게중국어이기에 가짜 언어로 되겠는 것어우, 영어 줄거리는 국문(영어)이	동화책 원서도 만족 (Harry Potter 시리즈 읽음) 유작 하리전의 Financial Times 기고문 The World after Coronavirus 원문 읽기 도간 시험 공부	독일 809월 이심외 생애종명서
동 서계사공문화 공부 세계사(그리스) 과학철학 있는 한 형제 사형은 후쿠자와 우즈에 보드, 다른 나라의 역사적 문화에 대한 공통력	미치루 교수님 언하오 모든 세계사 직무연구 『한 번 세계사』와 『세계사, 세계문화 관련 책 읽고 정리하기』 유튜브 저지러화단 채널 구독	세계사에세계문화 실천함츠 『특수 하고 있다』, NYT 저록 제작
신진 전강년 세계사민보자 [미대입시] 학부, 대학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을 완수하고, [서울 집회] 해 전강년 시합결과 의외로 그들을 위해서도 칭찬과 피라	매일 2시간씩 글기 신하이고 운영일 글기 운영각출과의 인터뷰를 통해 쓴바 적당할 이해하기	신하이고 운영일 관주 인증서 두 『세계사민보자』 인터뷰록 수필 자료 제작

2) 연구 주제 관련 철학세우기 및 글쓰기

세계시민교육은 교육방법이나 이론이기보다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 즉 미래의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철학적 주제라고 생각한다. 관련 서적과 자료들을 읽으며 생기는 생각들을 글로 정리해 보았다.

1.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변혁적 교육
-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를 읽고 -

[illegible]

2.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한 발자국
- 김지혜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고 -

[illegible]

3. 상호문화교육의 의미

- 세계시민과 유럽의 다문화 정책 관련 논문을 읽고 -

[illegible]

3) 온라인 연수 및 아카데미 참여

구분	연수명	연수기관	일정
온라인 연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아이스크림원격연수원	4월
	KOICA와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아이스크림원격연수원	8월
	디지털 리더러십, 수업과 만나다	교육사랑연구원	8월
세계시민교육 중 아카데미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성 함양 / 김나형 선생님(곡지암고등학교)	유네스코아태교육원	3월
	세계시민 우리반 정체성 기르기 / 박종하 선생님(대구비슬초등학교)	유네스코아태교육원	4월
	나의 첫 젠더 수업 / 김교연주 작가	유네스코아태교육원	4월
	교육융합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실현 / 김희영 선생님(대전삼천중학교)	유네스코아태교육원	5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교육과정 디자인 접근 / 임재일 선생님(서원초등학교)	유네스코아태교육원	6월
	영어회화	전북대 언어교육원	5-6월

4)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이정환 교수님 사사교육

[illegible]

시기	동아시아 문화 및 국제 정체 탐구 세부 주제
3~4월	아제안 확대과정 분석, 19세기 영국의 동남아 식민지화 원인 연구, 남중국해 분쟁과 베트남의 전략 연구, 필리핀 마닐라의 도시성장의 특성, 동남아시아 문화와 사회의 형성, 동남아시아 반한류에 나타난 문화적 갈등과 특성 연구 등
5~7월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 인도네시아 발리 댕치고 소바의 이데올로기적 포상, 동남아 촌촌마을 의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태국 역사와 이해, 태국의 한류 문화의 초국적 소비와 재생산, 베트남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과 그 성과, 발로 발바는 싱가포르, 지리교육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이해, 상호문화교류정책 을 통한 글로벌 장소감 형성 등

4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

- 1) 효과적인 연구 실행을 위한 연구주제 방향 및 범위를 조정하고 구체화 시킴.
- 2) 관련 도서 및 자료 탐색, 연구 및 아카데미 수강으로 전문성을 신장함.
- 3) 지도교수 컨설팅을 통한 사회과 교육과정 및 프로젝트 학습 연구 사례 탐구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탐색함.
- 4) 세계시민교육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3학년 교육과정 속에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하고, 활용 가능한 지도안, 학습지, PPT 등을 제작중임.

13

1.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학습 계획안

세시	교과	내용	활동	평가	비고
발문위탁형 보조 프로젝트					
▶ 기간: 1월 2주~4주 ▶ 발문위탁: 해당 과목 담당교사에게 보조할 수 있음(가) ▶ 활동 관련 책임: 총괄책임교사, 자원봉사활동, 활동비지원을 보조 담당. ▶ 비용: (비영리) 대학 내 자원봉사					
1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3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4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5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6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7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8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9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0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1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2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3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4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5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6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7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8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9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0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1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2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3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4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5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6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7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8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9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30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4

(우리는 지구 영웅) 프로젝트 개요

세시	교과	내용	활동	평가	비고
1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3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4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5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6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7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8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9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0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1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2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3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4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5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6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7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8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9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0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1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2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3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4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5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6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7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8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29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30	교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5

2. 교수·학습 지도안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5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6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7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8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9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0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1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5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6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7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8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9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0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1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5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6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7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8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9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0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6

3. 수업활용자료(활동지)

평가방법	
출제과목	국문, 국사, 국문, 국문
출제주제	한국사, 국문, 국문, 국문

출판사: 도서출판 문학과 지성사

[illegible]

- [illegible]

* 圖書刊行費를 조세특도

이름 _____	이름 _____
학년/과 _____	학년/과 _____
학급 _____	학급 _____

이름 _____	이름 _____
학년/과 _____	학년/과 _____
학급 _____	학급 _____



4. 수업활용자료(PPT)



감사합니다

제24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쉽게 계획하고 적용하기

박 지 응
(전북 송광초등학교)

[SDGs (5) 양성평등]

▶ 양성평등이란?

- 평등의 종류 :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이 있고 양성평등에선 상대적 평등이 중요함.
- 양성평등 :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 세계경제포럼 2020년 153개국 108위, 유엔 개발계획 2019년 성 불평등지수 10위 -> 차이가 크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
- 성인지 감수성 :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

▶ SDG 속 양성평등

- 세부 목표
- 목표에 따른 수치와 현황
- ▶ 양성 평등을 위한 사례
- '퍼플레이 컴퍼니' : 여성영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
- 'KOICA'의 네팔 여성역량 강화 프로그램 : 여성의 경제력 강화
- 'UN Women'의 'HeForShe' : 지금 이 자리의 내가 성차별 근절의 주역

[8월 세계시민 관련 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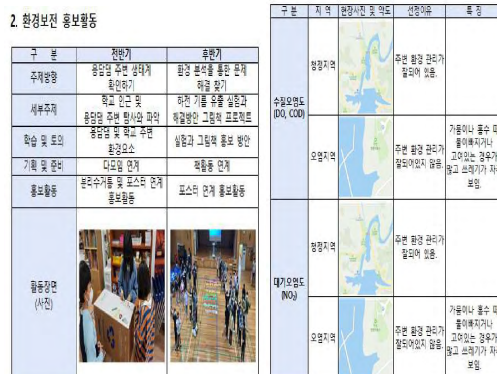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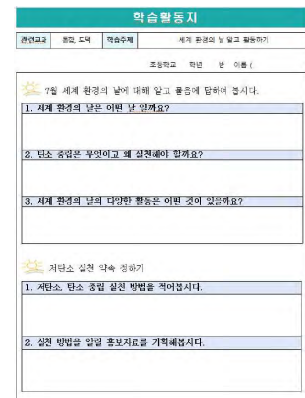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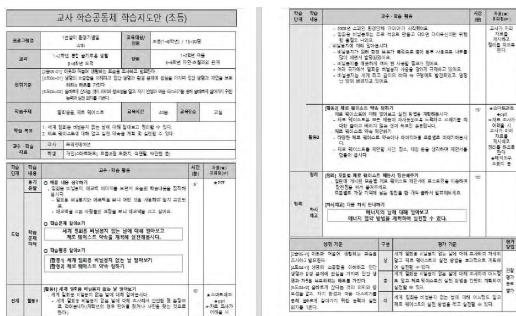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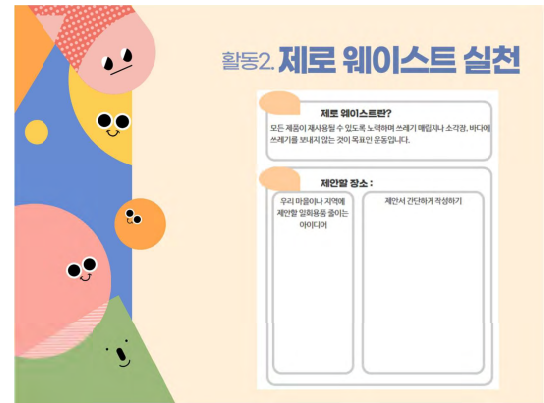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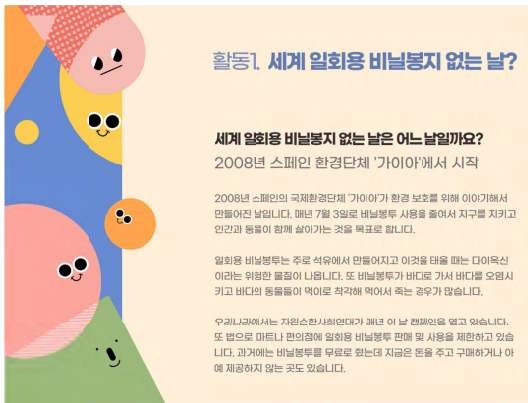
- ▶ 8월 13일 '세계 원손잡이의 날' : 원손잡이들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개선하고, 원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편견을 없애 원손잡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
- ▶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

그레타 툰베리

- 스텝 3. 다양한 청소년 환경운동가 알아보기
- 세번 스즈키는 1992년 열린 리우 회의에서 12살의 나이에 환경 문제에 대한 연설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 조너선 리의 만화 '고그린맨'은 초록 마을을 지키는 환경 보안관 고그린맨이 환경을 오염시키려는 심술통 공해 박사에게 맞서 마을을 지켜 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마일로 크레스는 빨대 소비를 줄여 환경을 지키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Be Straw Free"라는 단체를 만들어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 스티븐 은조로게는 케냐가 처한 환경 파괴 문제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The We Care Club>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환경 연계 수업 자료





<월별, 계절별 변화추이와 그에 대한 분석>

○ 수질오염도

- 용존산소량(DO),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담댐 일대에서 학교 인근 중 권광지이고 주변 권리가 잡히는 것과 권리가 안되는 곳의 인근 개울물을 수질 및 모니터링하였다. 용담호로 내려가기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 개울물로 했으나 특별한 차이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번 분례로 처리된 깨끗한 개울물과 농업용수가 지나가는 개울물을 할 것이라 이야기가 나왔다.

- 대기오염도(NO_2)

- 실제 두 곳은 자동차가 속도를 내고 어느정도 지나다니는 길이다. 오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지역은 방향의 동산 일대로 차가 더 빠르고 많이 지나다녀서 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유의미하게 나오진 않았다. 차량의 이동 차수가 적었다는 0이기도 되었으나 두 곳다 바람이 부는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토의되었다.

5. 토론학습

가. 도론 1 및 활동(물 밖 식물)

1) 실험종기 : 물 주변에 사는 식물을 찾다가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식물이 물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채취하게 되었다.

2) 준비물 : 용담과 채취한 식물, 식물을 넣을 통, 물, 기온

구분	농로표 관찰기록	
기름에 넣기 전		기름에 넣은 후 식물이 다 기름저찌르고, 질과 통 쫄기가 충분
기름에 넣은 후		기름이었는데, 반질로 줄어 들었다. 이 결과로 해서 이 식물은 기름을 정화시켰다.

1) 실정봉기 : 불속동불을 찾아보면서 불나라라는 상봉대에
해 알게 되었다. 불나라라는 1급수 서식생이다 서식하는 물이 더러
워지면 녹아서 소멸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불나라로 실
정을 하게 되었다.

3) 실험 과정 : 기둥에 낀 플라나리아가 완전히 활발했고 4시간 뒤에는 기둥에있던 플라나리아들이 몸을 말고 있었다. 그리고 12시간뒤에 다시 확인해보더니 플라나리아가 사라졌다. 반면 기둥을 안팎은 플라나리아는 살아있었고 잘 움직였다.

4) 실행 결과 : 기류가 유출되면 잘라도 다시 생성되는 불라나리아도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다시는 기름유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구분	12시간 뒤	
기름에 안 붙는 것		
기름에 붙는 것		

다. 토론 3 : 활동(물 속 식물)

1) 딸꼴라스

구분	눈으로 봤을 때	현미경으로 봤을 때
기름에 넣기 전		x
기름에 넣기 후		x

기름에 넣은 후		x
기름에 넣기 전 보다 넣은 후에 더 색이 검어졌다. 기름을 마금 서 죽쳐지고 무거워졌다. 상대적으로 기름을 잘 머금는다. 2) 워터마루론		

구분	눈으로 봤을 때	현미경으로 봤을 때
기름에 넣기 전		x
기름에 넣기 후		

기름에 넣은 후		x
생각보다는 기름을 잘 머금지 않았다. 기름은 거의 표면에만 묻 있는 정도였다. 뿌리부분에 기름이 많다.		

3) 계구리반

구분	논으로 받을 때	현미경으로 받을 때
기름에 넣기 전		×
기름에 넣은 후		×

가장 기쁨을 삼 삼수했다. 기쁨에 넘치 전 때는 서로 떨어져 있는데, 기쁨에 넘친 후 때는 서로 달라붙었다.

4) 실험결과 : 실험 결과로, 기쁨을 잘 삼수한 식물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식물도 있었다. 잎의 면적이 줄어들수록 기쁨을 더 잘 삼냈다.

5) 반성 : 식물들을 기우에 너무 오래 단궂어졌던 것 같다. 다음
는 조금만 단궂어서 기우에 너무 영겨볼지 알게 해야겠다.

- 플라스틱 수조에 모래, 자갈, 흙을 경사지게 넣는다.
- 플라스틱 수조에 물을 조심스럽게 넣는다.

- 식용유와 물감을 섞어 물에 묻는다.
- 플라스틱 수조를 좌우로 약하게 흔든다.
- 커진타원을 이용해 기름을 제거한다.
- 관찰한다.

3) 실험 결과
물과 모래, 자갈 등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기름 냄새가 났다. 또
과 모래, 자갈 등에 묻은 기름은 키친타월이나 물로 닦아도 없어지
않았다. 실험에 사용했던 물 또한 기름 냄새가 나고 검은색으로 변
고 기름층이 떠 걸러져 기름이 제거되지 않았다. 그리고 실험 시 장

구분	색	냄새	느낌
훈	검은색	기름 냄새가 난다.	미끄럽다.

오래	검은색	기름 냄새가 난다.	미끄럽다.
자갈	검은색	기름 냄새가 난다.	미끄럽다.
물	검은색	기름 냄새가 난다.	핀둑핀둑하다.

리, 자갈, 돌 등이 오염된다. 물 위에 떠다니는 기름과 흙, 모래, 자갈 등이 들어있는 기름을 제거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름 제거 및 세척 과정에서 많은 폐수와 쓰레기들이 발생하여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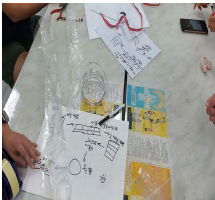
기름을 조금 더 넣으면 피해가 더 잘 나타났을 것 같다.

마. 해결방법 최종 산출물(그림책 만들기)



그레타 툰베리

- 스텝 4.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름 유출 동화
- 과학적 근거 알아보기



세계 시민의 날과
지역기반 세계시민 교육

2. 연구 개발 예시 - 시나리오

1. 지역요소 추출과 세계시민요소 매칭(SDGs 기반, 14개 시군 기반)
2. 지역요소끼리 연결과 주제 정련화
3. 카드뉴스 시나리오와 인포그래픽 연결
4. 현장답사 및 수업 적용(현재 진행 중)

2. 연구 개발 예시 - 시나리오

[크리스마스 1] - 5월 15일 부활절 바티칸의 날	[크리스마스 2] - 5월 14일 바티칸의 날 해방 40주년 국제로 바티칸의 분례와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바티칸의 역할이다. 바티칸 해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
[크리스마스 3] - 바티칸의 모든 신자 사제와 회당 회중을 위한 첫 인종인 방고(가) 성령의 힘을 5월을 위한 인종인 방고(가) 5월 31일까지이다.	[크리스마스 4] - 크리스마스 4월 15일 바티칸의 모든 신자 사제와 회당 회중을 위한 첫 인종인 방고(가) 성령의 힘을 5월을 위한 인종인 방고(가) 5월 31일까지이다.
[크리스마스 5] - 바티칸의 모든 신자 사제와 회당 회중을 위한 첫 인종인 방고(가) 성령의 힘을 5월을 위한 인종인 방고(가) 5월 31일까지이다.	[크리스마스 6] - 크리스마스 4월 15일 바티칸의 모든 신자 사제와 회당 회중을 위한 첫 인종인 방고(가) 성령의 힘을 5월을 위한 인종인 방고(가) 5월 31일까지이다.
[크리스마스 7] - 바티칸의 모든 신자 사제와 회당 회중을 위한 첫 인종인 방고(가) 성령의 힘을 5월을 위한 인종인 방고(가) 5월 31일까지이다.	[크리스마스 8] - 크리스마스 4월 15일 바티칸의 모든 신자 사제와 회당 회중을 위한 첫 인종인 방고(가) 성령의 힘을 5월을 위한 인종인 방고(가) 5월 31일까지이다.
[크리스마스 9] - 바티칸의 모든 신자 사제와 회당 회중을 위한 첫 인종인 방고(가) 성령의 힘을 5월을 위한 인종인 방고(가) 5월 31일까지이다.	[크리스마스 10] - 크리스마스 4월 15일 바티칸의 모든 신자 사제와 회당 회중을 위한 첫 인종인 방고(가) 성령의 힘을 5월을 위한 인종인 방고(가) 5월 31일까지이다.

[illegible][illegible]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

7월 11일
50억의 날
세계 인구가 50억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과로' 상태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의 양'

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과 먹고, 쉼과 공기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수 = 1.6개 지구

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구로 너무 과포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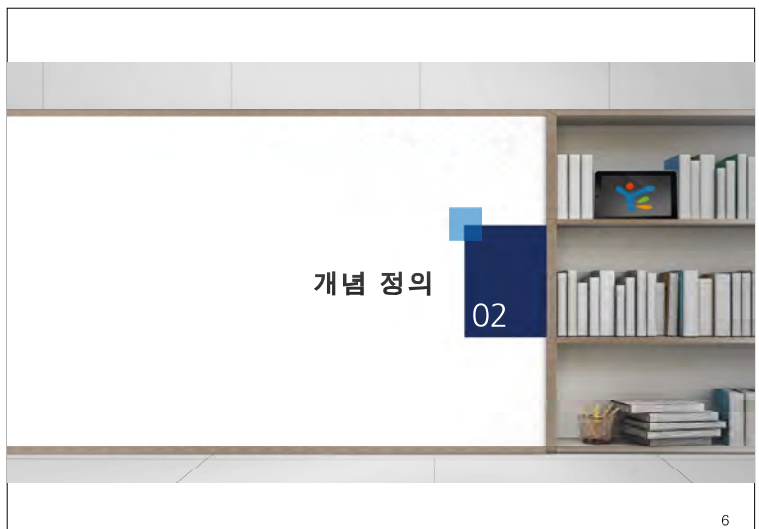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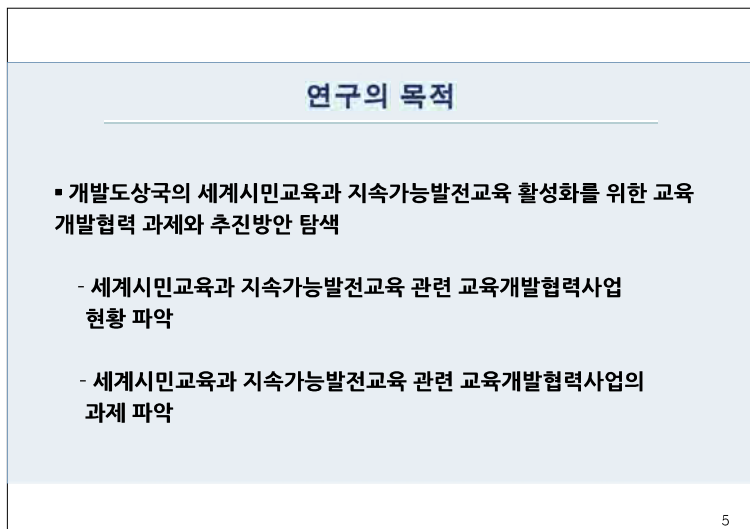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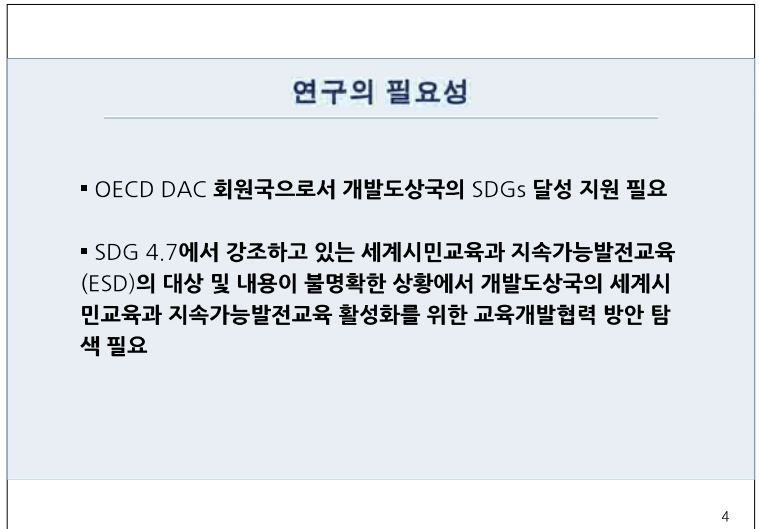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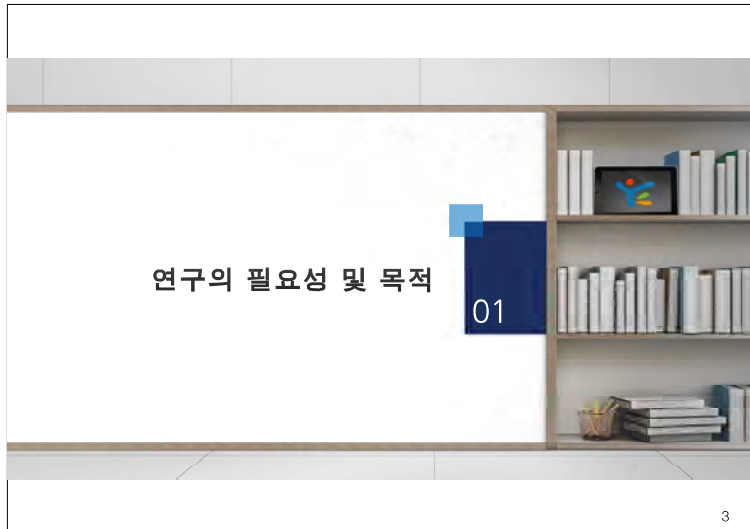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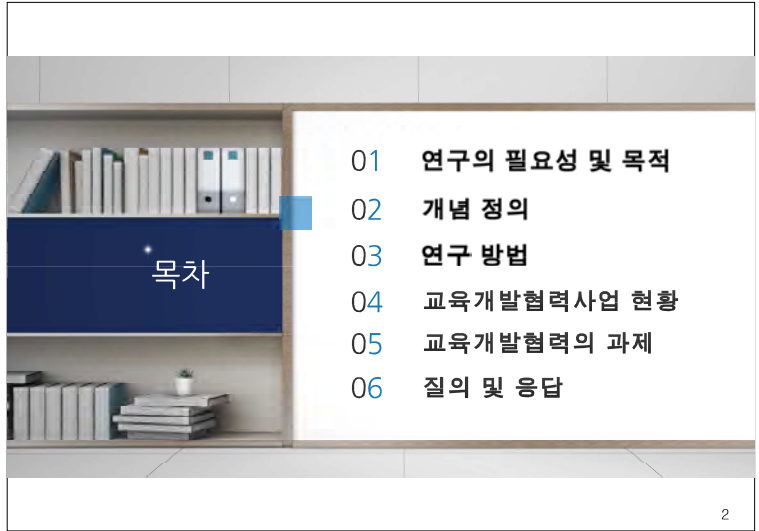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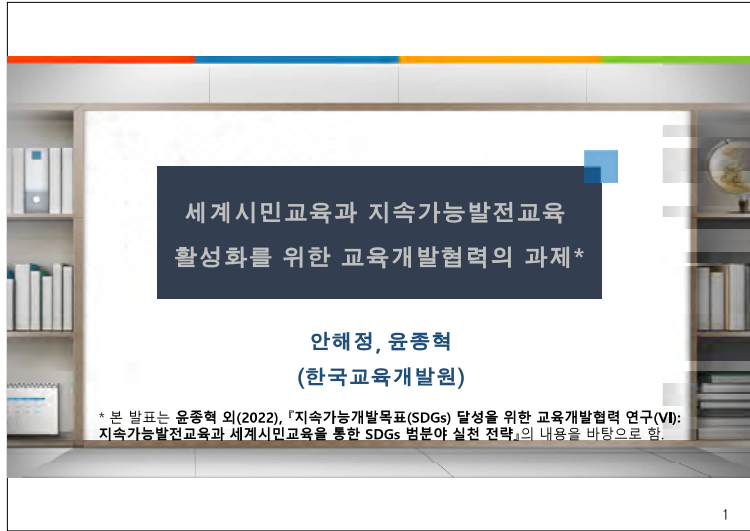
2. 연구 개발 예시 - 전시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사회: 방용환(건양대학교)

안해정·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개발협력의 과제
김민준(김제 초치초등학교)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국제교류수업 운영사례
이창근(전주 전라초등학교)	국제교류 교육과정 운영사례: 'Me as a local resident, and us as global citizens'
강민희(전주 한들초등학교)	국제교류수업 사례와 AI 영어회화 프로그램의 활용
ARAKAWA , Hironori (明石工業高等専門学校)	Do long-term exchange program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lobal citizenship?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

■ 세계시민교육

- 목표: 학생들이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드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세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인식을 길러주며, 인권, 민주주의, 차별반대, 다양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 추구
- 주요 주제: 평화, 인권, 다양성 존중과 관용, 문화 간 이해 포용성, 시민의식 등

7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 목표: 학생이 현재와 미래를 공감각으로 이해하며, 환경을 온전하게 보존하면서도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적으로 조화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 환경과 사회와 경제 발전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 탐색
- 주요 주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소비, 생물다양성 등

8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

■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공통점

1.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 문제에 대한 대응
 - 기후변화, 갈등, 불평등, 환경 악화, 천연자원의 관리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고조, 전쟁, 테러 등에 대한 대응책 포함
2. 인류 공동의 긴급한 요구
 -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고 인류가 지구와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변화 요청
3. 평화,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업체계 등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 능력, 태도, 가치관 형성

9

연구 방법

03

10

면담조사

- 방법: 전문가 심층 면담
- 목적: SDG 4.7 관련 교육개발협력사업의 현황과 특징 파악 및 향후 과제 도출
- 대상: 국내외 시민사회단체(CSOs) 관계자 및 교육 분야 전문가 19명
- 조사시기: 2022. 7.~8.(약 2개월)

11

교육개발협력사업 현황

04

12

사업의 어려움

1.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 낮음

이게 내국인 대상의 아주 필요한 아이템인데 이걸 개발 협력으로 바로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느 나라든 그런 잘 안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시민교육이라는 게 그냥 주류화돼서 인발류 되면 몰라도 어떻게 딱 타킷팅 된 의미의 시민교육을 개도국에서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이제 4.7이라는 게 개도국을 타킷으로 한 인권, 양성평등, 평화 비폭력 문화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미스매치가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S)

출처: 윤종혁 외 (202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VI):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SDGs 범분야 실천 전략

13

사업의 어려움

2. 세계시민교육 인지도 낮음

우선은 그동안에 우리 세계 시민교육 자체가 국내에서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확보하는 시간이 꽤 걸렸죠. 원래 국제 이해 교육 패러다임이 계속 지배하고 있다가 SDG로 가면 서 세계시민 교육으로 변화했죠.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세계시민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글로벌 단위에서 보면 여전히 국제 이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간의 어떠한 평평한 긴장감들이 있고, 국가마다 선호도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제 이해 교육에 대한 포커스가 더 있었을 것이고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기존에 본인이 하고 있던 패러다임에서 운영했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용어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SDG에 좀 맞춰서 할 수 있지요. 한국은 NGO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걸, 국제개발 협력 교육 등으로 접근했습니다. (전문가 G)

14

사업의 어려움

3.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어려움

해외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한 2015~2016년까지 기반 구축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2000년대 한 4~5년, 6~7년 정도가 세계 시민교육이 NGO 안에서는 되게 불어오는 시기였는데 그때 NGO 중 큰 단체들은 여러 가지 재원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교재도 만들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강사도 훈련시켜서 갈 수 있는 이 여건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중소형 기관들은 우리도 그거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렇다고 큰 NGO들이 하고 있는 거를 갖고 와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 면서 이제 oooo(기관)한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거는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좀 oooo(기관) 내에 회원단체들 그러니까 대형, 중형, 소형이 다 같이 모여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재구조화하고 그럴 커리큘럼화해서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좀 만들어보자 라는 욕구가 있었고 요청이 있었어요 (전문가 G)

15

사업의 어려움

4. 주요 주제에 대한 개도국 현지의 거부감

아까 말씀하신 주제들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서, 아프리카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권이나 빈곤을 다루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거... (전문가 E)

5. 지표와 범위, 개념 등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모든 세계시민의 교육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일반적인 세계시민의 정의에 대해서 다 동의한 느낌이야. 여기까지만인거죠. 더 깊이 조작적으로 들어가고 뭔가 알고 했을 때 그게 세계시민이냐? 아니냐? 역량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또 어려워지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갭이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크더라고요. (전문가 R)

16

교사 교육 중심으로 실시

연수를 한다든지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실시간, 비실시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교육 활동을 공유하고 저희가 팬데믹 이후로는 교육 활동의 공유 이후에, 팬데믹 이후로 조금 달라진 건 현지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이 들어간다는 점,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컨설팅한 다음에 피드백이 한 번 들어가고 그다음 단계에서 이게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정도가 조금 추가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 E)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걸 실천할 수 있는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지에 대해서 교사들이 사전에 토론하고 토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현장에서 세계시민 교육이나 SDG's의 각 목표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내용으로 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E)

저희도 아프리카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그런 전문가를 초빙하는 전문 연수를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커버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내용은 많이 들어가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교과는 어떻게 연결하고 비교과는 어떻게 기후·환경에 대해서 아이들과 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활동을 어떻게 할지를 많은 풍부한 논의를 좀 하자 라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은 상태예요. 저희가 전문가 영역까지는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학교에서 교과, 비교과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그때는 교육 전문성을 저희가 발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E)

17

학생부터 성인까지 교육 대상 확장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앞으로 이거 할 거가 하나가 있는데 성인 대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대학생 대상인데 저희가 주로 안 하는 분야인 한데 그래도 좀 다른 케이스라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아까 제가 까먹었거든요. 베트남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TOT 방식으로 한국에 있는 저희 같은 공동체가 베트남 대학의 강사 그룹에게 SDG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전달하고요. 강사들이 대학생에게 직접 교육 실라버스를 팔 때 SDG 주제를 넣어서 실라버스를 팔는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인큐베이팅 단계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저희 기관이랑 SDG 세계시민 교육 TOT를 베트남 대학이랑 같이 할 것 같고요. (전문가 E)

SDG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거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도 포함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건데 이게 교육이라는 이름만 딱 붙었다고 하면 굉장히 갖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 G)

18

교육개발협력의 과제

05

19

과제 1: 협력국의 요구 반영

1-1.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협력국의 요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

우리 머릿속으로 '자국에서는 이게 필요할 거야.'라고 준비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모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모임 많이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물어내면 좋겠고요. 그럴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과정이 결국은 일종의 협상인데, 거기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되게 제한적인데 그 제한된 자원 속에서 얼마만큼 그쪽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D)

출처: 윤종혁 외 (202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VI):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SDGs 범분야 실천 전략

20

과제 1: 협력국의 요구 반영

1-2. 현지 상황 분석을 통해 발굴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

2007년 초에 그때 인도네시아에 보골에 있는 모 대학교하고 지자체하고 좀 연계해서 사업들을 하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주면 좋겠냐고 문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원하는 건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중략) 거기에 그냥 3년 동안 상주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러한 사례를 하나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콘텐츠를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쪽 전문가랑 그쪽 전문가랑 같이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는 그런 경험을 좀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 D)

아프리카든 아니면 아시아든 그 지역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들이 그 요구를 충족하는 과정을 우리나라 전문가랑 함께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 D)

21

과제 1: 협력국의 요구 반영

1-3. 철저한 기초조사 실시

세계시민 교육의 콘텐츠가 들어갈 때 저희가 어떻게 현지화하고 맥락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는 되게 많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지에 대한 지금 8월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이런 것들을 기초 조사를 해 오실 것 같아요. (전문가 E)

22

과제 2: 지속가능발전교육 중심의 사업 발굴

2-1. 환경문제 및 기후 변화 주제 중심 접근

기후 재난과 관련된 것들을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기후변화 교육일 텐데요. 최근에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보다도 기후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기후재난이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거기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후변화 교육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전문가 D)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주력하는 요소들이 아무래도 기후, 환경 쪽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은 쉬운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쉬운데, 저희도 되게 고민인 건 인권이나, 잘 아시겠지만 인권이나 평화 이런쪽, 젠더 쪽으로 들어가기는 되게 어렵죠. (전문가 E)

23

과제 2: 지속가능발전교육 중심의 사업 발굴

2-2. 환경과 기후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관점 접근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환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환경이라고 말은 하죠. 경제 논리가 더 우선이 되는 상황이고 그 밑에 교육이나 환경이나 평등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저희가 잘 활용을 하면 되죠. (전문가 F)

24

과제 3: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존의 사업과 연계

3-1. 기초교육 및 여아교육사업 등과 연계

세계시민 교육 콘텐츠도 그때 유네스코가 했던 KOICA 지원으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BLG라 해서 Better Life for Girls 해서 이니셔티브를 잡아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일환으로 사업이 발굴돼서 했는데 세계시민 교육 콘텐츠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이게 뭐, 그런 콘텐츠가 과연 여기서 얼마나 역할이 얼마나 할까?' 했는데 아주 반응도 좋았던 것 같고, 콘텐츠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여학생들이 대부분 중학교 정도 마치면 바로 현장으로 나가니까,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니까 집에서 소득 활동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창업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전문가 Q)

전체 국가 정부 예산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게 10% 정도 될 정도로 실제 예산 지원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완전히 별도로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가져가기보다도 건물을 짓는 교육 프로젝트 사업도 있을 테고 교사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전문가 Q)

25

과제 3: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존의 사업과 융화

3-2. 난민사업과 연계

아프리카 쪽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난민들이 많아요. 뭐가 이슈가 있냐면 KOICA에서도 올해 지원하는 국제기구협력사업 중의 하나가 키고마에 거주하는 난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난민을 받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탄자니아에 사는 사람들과 난민과 갈등이... 그래서 평화나 그런 갈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그 지역에 많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 세계시민 교육은 난민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도 난민을 포용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더더욱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 Q)

(마사이족과 정착지농촌) 사람들과 갈등이 많다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유목 생활을 하면서 양이나 이런 걸 키우고하게 되면 그런 양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 농작물을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탄자니아의 사람들의 재산을 훼손하니까 서로 갈등이 생겨서 큰 폭력 사태도 나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세계시민교육이 뛰어나갈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 Q)

26

질의 및 응답

06

27

감사합니다

☎ 82-43-530-9346

✉ hahn2@kedi.re.kr

28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국제교류수업 운영사례

김민준
(김제 초저초등학교)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AI 기술의 발전, 특히 Chatgpt의 등장으로 세계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변화하였다. 이에 발맞춰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평화의 시대에서 갈등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은 국적을 초월해 변화하는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세계시민교육**이다. 이에 연구자는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세계시민성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우리 학교를 만들고 그 가상공간 안에서 세계의 여러 친구와 영어를 사용해 문화교류를 해본다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번 연구를 구상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에듀테크 기기인 **웨일북을 활용한 세계친구 M.E.E.T프로젝트**를 통해 에듀테크 활용능력 강화와 영어 의사소통역량 및 세계시민성을 함양 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웨일북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간 구축 활용 및 다양한 에듀테크 학습을 통해 **에듀테크 활용능력**을 강화한다.

둘째,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영어교육과 문화교류 콘텐츠 생산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

셋째, 온라인 비대면(Untact) 국제교류수업과 온라인 대면(Ontact) 국제교류수업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기른다.

3. 용어의 정의 및 이론적 배경

가. 에듀테크 활용 능력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다양한 ICT 기술 및 디지털 기기를 교육 분야에 접목하여 기존 교육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의 의미를 나타낸다. 오프라인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오픈 연계 교육하는 온라인 대면(Onfact) 수업에 필수적인 요소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되는 에듀테크 하드웨어는 웨일북이다. 웨일북은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탑재하여 교사와 학생이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제작된 미래교육 플랫폼 디바이스다. 또한 주로 사용되는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로는 ZEP Edu, 패들렛, 리딩앤, 캔바, 파파고 등이 있다.

구분	이름	설명
H/W	웨일북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제작된 미래교육 플랫폼 디바이스
S/W	ZEP Edu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통해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웨일북 지원)
S/W	패들렛	가상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메모지를 붙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
S/W	리딩앤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영어도서 읽기 플랫폼 (웨일북 및 국제교류 대상학교 지원)
S/W	캔바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
S/W	파파고	네이버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번역 사이트

나. Untact, Ontact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며 생겨난 개념으로, Untact는 비대면을 뜻한다. Ontact는 Untact에 온라인의 On을 더해 온라인 대면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Untact 수업으로, 온라인 대면 수업을 Ontact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영어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역량을 뜻한다. 본 연구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영어 학습 과정과 말레이시아 학생들과의 국제교류수업을 위한 단계별 준비과정을 통해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라.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성이란,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국적을 초월해 서로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인식하며 지구촌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가치 및 태도를 종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세계시민성 함양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공감하며 보살피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 전통놀이, 전통동요와 전통춤, 전통음식 등을 주제로 교류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며 세계친구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치 및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중점으로 계획되었다.

II. 연구 방법

1. 학생 및 학습환경 분석

항목	분석요소	결과 및 시사점
에듀테크 활용능력	에듀테크 활용 수업 경험	에듀테크 활용 능력 사전 설문에서 35점 만점 기준 19.6점으로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많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이 학생들이 에듀테크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파악된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	영어 의사소통 역량	리딩앤을 통해 AI영어 레벨 테스트를 본 결과 학생들의 레벨 평균은 3레벨이었다. 또한 레벨이 1인 학생부터 7인 학생까지 개인별 수준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지 않다는 것, 수준별 맞춤형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에 대한 흥미도 및 필요성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 및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낮고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한 경험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시민성	지구촌 공동체 의식	세계시민성 사전 설문 조사 결과 45점 만점에 평균 25.4점이 나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구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타자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S.W.O.T 분석

Strengths	강점	Weaknesses	약점
-에듀테크 활용 수업 환경 구축 -교사들의 적극적 연구 의지와 학생들의 높은 참여 의욕 -해외 교류학교와의 우호적인 관계		-학생들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경험 부족 -대상 학년(3-6학년)의 영어 학습 수준 편차가 큼 -거주지의 위치적 특성 및 생활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기 힘들	
Opportunities	기회	Threats	위협
-학생 대부분이 스마트 기기 사용에 익숙함 -코로나19 당시 온라인 대면(Onlact) 수업 경험이 있음 -국제교류수업 운영학교 선정		-가정 연계수업에서의 어려움 -대상 학년의 통합수업이 어려움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생들의 **에듀테크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개인별 영어 학습 수준 편차가 크고, 학생들의 평균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준별 맞춤형 영어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국제교류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여 **세계시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3. 연구의 설계

가. 연구 대상 및 기간

연구 대상	00초등학교 3학년(1명), 4학년(4명), 5학년(7명), 6학년(4명) 총 16명(남 9명, 여 7명)
	연구 대상이 혼합학년인 이유는 연구자의 학교가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특정 학년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연구 대상 숫자가 적어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거나, 진행된 연구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 환경을 반영하여 혼합학년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이를 위해 학년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고 프로젝트 진행 시 학년별로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여 지도하였다.
연구 기간	2023. 4. ~2023. 7.

나. 연구의 설계

Whale을 타고 세계친구 M.E.E.T 프로젝트					
1 단 계	M	Metaverse for international Exchange class 국제교류수업을 위한 메타버스 교육환경 구축	①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 M.E.E.T프로젝트에 맞추어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에듀테크 활용능력	
			②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 학생별 '웨일북' 대여 및 학교 웨일스페이스 구축 - 국제교류 대상학교 '리딩앤' 지원사업 활용 - '패드렛', '캔바' 프로그램 지원 - 웹캠, 헤드셋 구비		
			③ 교사 및 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 웨일 스페이스 및 ZEP Edu 기초교육 - 리딩앤, 패들렛, 캔바 활용 기초교육		
			④ 학교 메타버스 국제교류 공간 구축		
2 단 계	E	Edutech for English communication skill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① 리딩앤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영어 교육 - Test → Learning by level → Feedback → Accept	영어 의사소통 역량	
			② 파파고를 활용한 회화 연습 - Communicate with Speaking - Communicate with Text		
	E	Edutech for international Exchange class 국제교류 수업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① 파파고를 활용한 영어편지 작성 및 메타버스 공간 업로드		
			② 캔바를 활용한 문화교류 수업자료 만들기 ③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자료 공유		
3 단 계	T	Two ways for global citizenship 또래교수 수업으로 세계친구 만나기	① 온라인 비대면 교류활동 진행하기 - 메타버스 공간을 통한 편지 교류 - 패들렛을 활용한 사진 교류 - 킷박스통을 통한 전통물품 교류	세계시민성	
			② ZEP Edu를 활용한 온라인 대면 또래교수 국제교류 수업		

Ⅲ. 연구 내용

1. **M** 단계: 메타버스 국제교류 교육환경 및 공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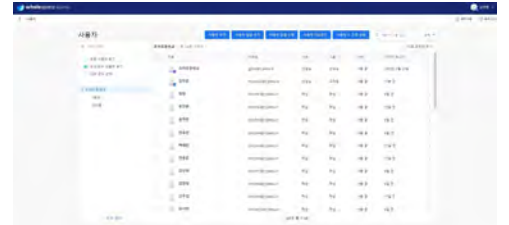
- ①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3~6학년이 모두 국제교류수업 대상 학년이기 때문에 먼저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진행하였다.

3~4학년	교육과정 성취기준		
	국어	영어	체육
	[4국03-04] 읽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4영02-06] 쉽고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	[4체03-02] 단순한 규칙으로 이루어진 게임을 수행하며 경쟁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탐색한다.
	교육과정 재구성		
	국어	영어	체육
	세계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세계친구와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다.	세계친구와 함께 전통놀이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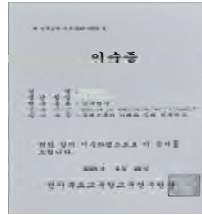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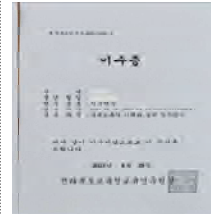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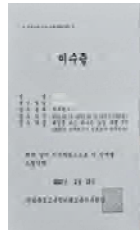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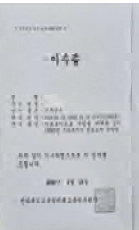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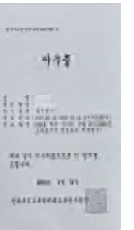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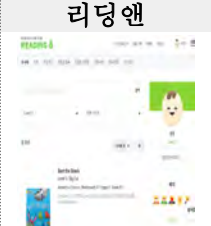
5학년	교육과정 성취기준		
	국어	영어	음악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6영02-07]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	[6음02-02]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교육과정 재구성		
	국어	영어	음악
	세계친구에게 아리랑과 K-POP을 소개할 수 있다.	세계친구와 간단한 일상대화를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음악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세계친구에게 말할 수 있다.

6학년	교육과정 성취기준		
	국어	영어	실과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6영02-07]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	[6실02-10]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준비 조리하여 평가한다.
	교육과정 재구성		
	국어	영어	실과
	세계친구에게 대한민국 전통음식을 소개할 수 있다.	세계친구와 간단한 일상대화를 할 수 있다.	세계친구와 함께 대한민국 전통음식 유과를 조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②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세계친구 M.E.E.T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다.

디지털 하드웨어 교육환경 구축		
웨이북 대여	· 교육지원청에서 웨일북 16대를 대여하여 학생 1인당 1스마트기기 디지털 환경 을 구축하였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순차적으로 도내 웨일북이 보급될 예정이므로 연구 과제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쉬워질 것이다.	
웹캠 설치	· 원활한 소통을 위한 추가적 보조장치 로 3~6학년 교사 PC에 웹캠 을 설치하여 원활한 온택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헤드셋 설치	· 학생들의 원활한 화상대화를 위해 학생 1인당 1 헤드셋 을 지급하였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교육환경 구축		
연구학교 웨일 스페이스 구축	· 학생들마다 웨일 스페이스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웨일 스페이스 내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학교 온라인영어독서 프로그램 지원	· 학생들마다 온라인 영어독서프로그램(리딩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수준별 맞춤형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지원이 없더라도 학교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무료 AI 영어교육프로그램인 AI펍톡으로 대체가능하다.	·수선 ·수선자 ·합조 (정류) ·제목 [일일] 2023년 온라인영어독서프로그램 지원 일일(국제교류, 영어학습프로그램) 1. 관련: 중앙인재교육과-429(2023. 4. 24.) 2. 2023년 온라인영어독서프로그램 지원 대상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함(다). 가. 지원 기간: 2023. 5. ~ 2024. 2. 나. 지원 대상: 국제교류수업 운영 학교, 영어학습프로그램 운영 2교, 총 500명 · 학교명: [붙임] 파일 참고 3. 행정사항 가. 온라인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 위탁업체와 5월 초 협의 권장 · 내용: 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운영회 신청 여부 · 업체에서 학교에 찾아가는 운영회는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으로 가능함(선택사항)) 나. 이공문의: 운영 위탁업체 리딩엔(1969-2639), 카카오톡(달리함 채널) 붙임 2023년 온라인영어독서프로그램 지원 현황(국제교류, 영어학습프로그램) (부, 원)
패드렛 비대면 국제교류공간 생성	· 패들렛을 활용한 학교 비대면 국제교류 공간을 생성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세계 친구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캔바 (수업자료 제작 툴) 가입	· 캔바 아이디어를 학생마다 제공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접속하고 또래교수에 활용할 학습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③ 교사·학생 역량 강화: 세계친구 M.E.E.T 프로젝트를 위한 교사 및 학생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교사 역량 강화			
국제교류 연수 이수	· 효과적인 국제교류수업을 위한 국제교류 직무연수 이수 - 국제교류의 이해와 실제 직무연수(20시간) - 해외 국제교류 매칭 방법 및 국제교류 수업 방법 연수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 이수	· 웨일북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 이수 - 안드로이드로 수업을 바꿔라 1기(6시간) (2023 스마트기기 선도교사 직무연수) - IOS로 여는 신나는 수업 2기(6시간) (2023 스마트기기 선도교사 직무연수) - 웨일을 타고 떠나는 교실 여행 3기(6시간) (2023 스마트기기 선도교사 직무연수)	  	책임연구원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회	· 세계친구 M.E.E.T 프로젝트에 적합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협의회 진행		
학생 역량 강화			
스마트기기 기초 활용 교육	· 웨일북 및 웨일 스페이스 기초 교육 진행 - 학생들이 웨일 스페이스 로그인을 어려워하여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지도가 필요하였다. - 많은 학생들이 영어와 숫자, 특수문자로 이루어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의 숙달이 필요하였다.		
에듀테크 기초 활용 교육	· 패들렛 사용 방법 교육 - 로그인 및 업로드 방법 · 캔바 사용 방법 교육 - 로그인 및 수업자료 제작 방법 · 리딩앤 사용 방법 교육 - 로그인 방법 -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책 찾는 방법 · 파파고 사용 방법 교육 - 원하는 언어를 고르고 번역하는 방법 - 발음 듣기, 텍스트 복사 기능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 세계시민교육 진행 - 지구촌 갈등 상황 속에서 세계시민으로서 역할 알기 - 인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세계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이야기하기		

④ 학교 메타버스 국제교류공간 구축

활동명	우리 학교 가상공간 만들기			성취 기준	3~4학년	5학년	6학년
학습목표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가상의 우리 학교를 제작할 수 있다.			기준	[4미02-04]	[6미02-03]	[6영02-03]
주요활동	1단계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 학습 ○ZEP Edu의 이해					
	2단계	○ZEP Edu의 기초 학습					
	3단계	○우리 학교, 우리 교실을 관찰하고 메타버스 공간에 재현하기					
평가계획	3~4학년	[미술] ZEP Edu를 활용하여 가상공간에 우리 학교 제작을 계획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관찰평가			
	5학년	[미술] ZEP Edu를 활용하여 가상공간에 우리 학교를 구체화할 수 있는가?					
	6학년	[미술] ZEP Edu를 활용하여 가상공간에 우리 학교를 구체화할 수 있는가?					
1단계	·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 학습 -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처럼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를 뜻하는 것을 학습 · ZEP Edu 소개 - ZEP Edu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학교의 메타버스 공간을 직접 만들어 세계친구를 초대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2단계	· ZEP edu 기초 배우기 - 자신의 아바타 꾸미기 방법 학습 -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는 방법 학습 -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학습 - 빈 맵에서 오브젝트 배치 방법 학습 - 포털 생성 방법 및 배치 방법 학습 - 프라이빗 공간 제작 방법 학습 - 스포트라이트 지정 방법 학습					
3단계		· 우리 학교, 우리 교실을 관찰하고 메타버스 공간에 재현하기 - 우리 학교와 우리 교실을 관찰하고 그와 비슷하게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우리들만의 메타버스 공간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였다. - 모둠별로 역할을 분배하여 각각의 공간을 제작한 다음 그 공간들을 포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제작하였다.					
							

학교 메타버스 국제교류공간 일반화 방향 제시

· 학교 메타버스 공간을 제작하면 다양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술 시간**에 완성한 작품을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하고 학교 내 다양한 학년을 초대해 **전시회**를 할 수 있다. 또는 **체육 시간**에 표현한 움직임을 녹화한 다음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하여 다른 반에 참고하거나 **움직임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처럼 수업 후 결과물을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하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E.E 단계

< 1st E.E: Edutech for English communication skil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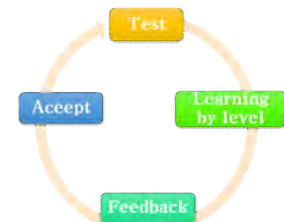
활동명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영어 실력 쑥쑥!		성취 기준	3~4학년	5학년	6학년
학습목표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다.			[4영02-06]	[6영02-07]	[6영02-07]
주요 활동	① 1 st E.E: 책 읽는 즐거움, 리딩엔 READING & 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영어교육		○ Test ○ Learning by level ○ Feedback ○ Accept			
	② 2 nd E.E:  papago 를 활용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		○ Communicate with Speaking ○ Communicate with Text			
평가계획	3~4학년	[영어] 영어를 활용하여 세계친구와 간단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가?			평가 방 법	관찰평가 AI영어 레벨테스트
	5학년	[영어] 세계친구와 온라인으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는가?				
	6학년	[영어] 세계친구와 온라인으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책 읽는 즐거움, 리딩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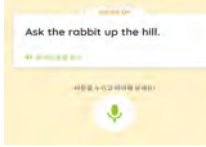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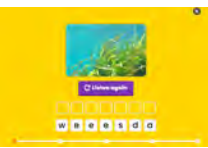
① **READING &** 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영어교육

리딩엔 학습 순환도

리딩엔을 활용하여 학생들 각각의 수준별 맞춤형 영어 교육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리딩엔의 학습 단계를 통해 영어의 읽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기르고 각 학년별 영어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유도하였다. 학습은 **TEST**, **Learning by level**, **Feedback**, **Accept** 단계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레벨진단테스트	테스트 결과
Learning by level	· 16명의 학생들의 영어수준을 테스트할 수 있는 레벨 진단 테스트를 진행하여 학생들 개인별 수준을 진단하였다.		
	· 4월에서 7월의 학습 기간에 학생별 영어 수준에 따른 책을 선정하여 단계별 학습을 매주 진행하였다.		
	· 총 5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듣기, 읽기, 말하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를 수 있게 설계되었다.		
1단계 Warm Up		리딩엔 학습 사진	
단어 익히기	· 1단계에서는 단어를 사진으로 익힌다.		

2단계 Listen Up			
내용 상상하며 듣기	· 2단계에서는 내용을 본문 없이 사진과 함께 들으며 내용을 유추한다.		
3단계 Read			
읽고 해석하기	· 3단계에서는 본문을 읽고 해석해 본다.		
4단계 Speak Up			
듣고 따라 말하기	· 4단계에서는 문장을 듣고 따라서 말한다.		
5단계 Wrap up			
내용 정리하기	· 5단계에서는 퀴즈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다.		
Feedback	· 수준별 학습을 마치고 1주에 한 번 교사가 학생들별 학습량과 성취도, 영어 발음 녹음 파일 등을 체크하여 피드백을 준다. · 웨일북의 화면녹화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영어 학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학습방법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준다.		학생 Feedback 리포트
			
Accept	· 학생들은 교사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학습을 다시 진행한다. · 처음 테스트를 진행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영어 수준을 재진단하고 다시 레벨에 맞는 학습을 진행한다.		Feedback Accept 후 학습 사진
			Re-Test 사진
			
학습 후 학생 반응		학습 후 교사 성찰	
▶ 내 실력에 맞춰 영어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내 웨일북이 있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 말할 수 있어서 내 영어 발음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교사의 학습 방법 지도 후 학생들은 빠르게 이해하고 학습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놀라웠다. ▶ 웨일북의 화면녹화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습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때 더욱 유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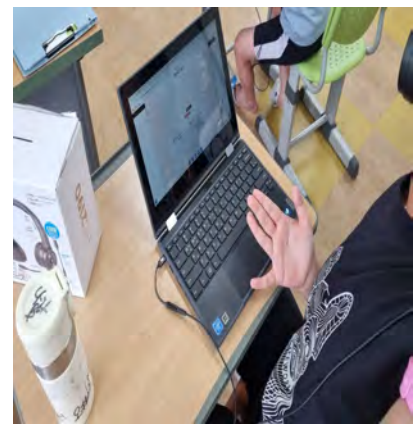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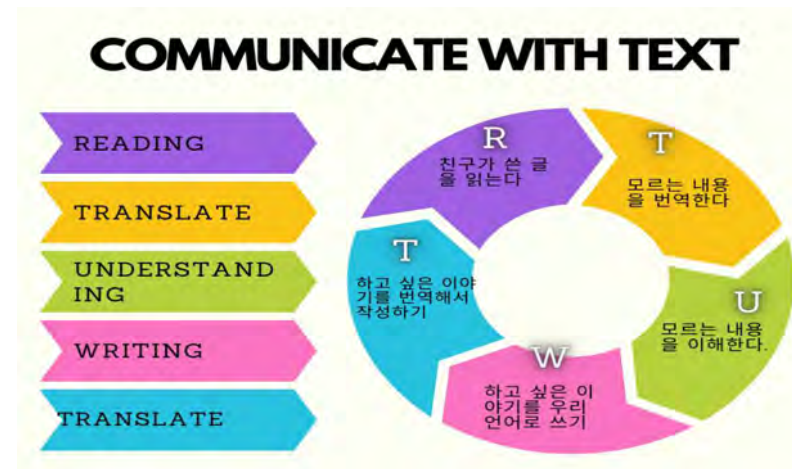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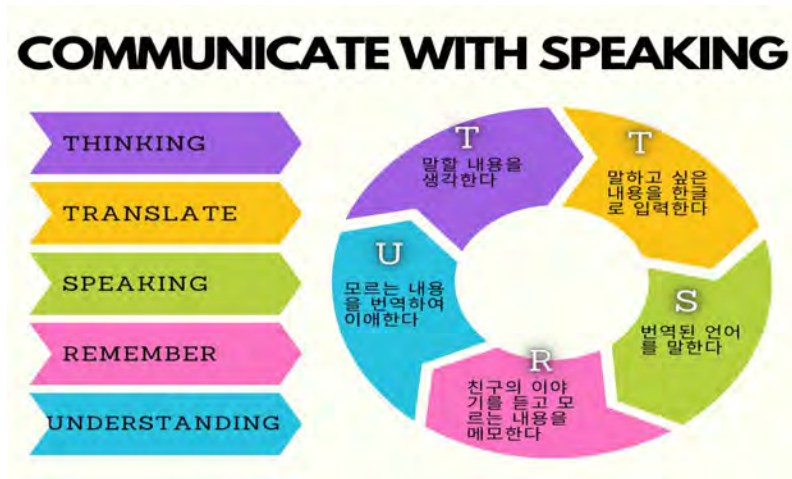
책 읽는 즐거움, 리딩앤

READING & 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영어교육 일반화 방향 제시

· EBS English에서는 AI영어교육프로그램인  AI 펭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AI 펭귄도 리딩앤과 마찬가지로 레벨테스트를 진행하고 단어학습, 듣기, 읽기, 말하기 단계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지원된다. 이를 활용하면 연구프로젝트에서 리딩앤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으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을 일반화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② papago를 활용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

파파고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지도하여 언제 어디서든 세계친구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온라인 대면(Onflect)으로 세계친구와 소통하다보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의 영어 수준을 벗어난 질문을 받거나, 질문하고 싶을 때 파파고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파고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2가지 상황에서 파파고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였다.



학습 후 학생 반응	학습 후 교사 성찰
▶ 파파고를 활용하니 영어 소통이 훨씬 편해졌어요. ▶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갖춰야 파파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웨일북에서 바로 파파고를 켤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 파파고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 놀라웠다. 학생들은 파파고를 활용하기 위해 기초 영어 및 언어 의사소통능력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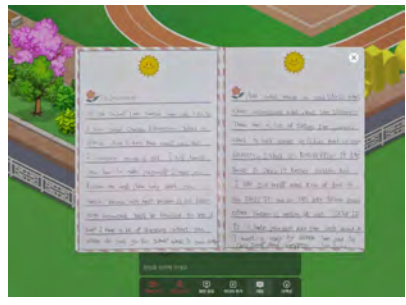
papago를 활용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 일반화 방향 제시

· 파파고는 세계친구와 소통할 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어 학습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거나, 영어 문장의 뜻을 모를 경우, 발음을 모르는 경우 등 모든 영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번역 기록 기능을 활용하면 내가 몰랐던 부분이 기록되어 복습하기 용이하다. 파파고 앱을 활용하면 글로벌 회화 기능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식당, 쇼핑, 교통, 관광 등 상황별 필요한 표현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다. 웨일북 같은 경우 파파고가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어 더욱 접근하기 편리하다.

< 2nd E.E: Edutech for international Exchange class >

활동명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국제교류수업 준비하기	
학습목표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국제교류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	
주요활동	①  papago 와  ZEP EDU 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류 준비하기	☐ 세계친구에게 편지쓰기 ☐ 세계친구에게 편지보내기
	②  Canva 를 활용한 또래교수 문화교류 수업자료 만들기	☐ 3~4학년  Canva 를 활용한 수업자료 만들기 ☐ 5학년  Canva 를 활용한 수업자료 만들기 ☐ 6학년  Canva 를 활용한 수업자료 만들기
	③  Padlet 을 활용한 수업자료 공유하기	☐ 한국 수업 자료 공유하기 ☐ 말레이시아 수업 자료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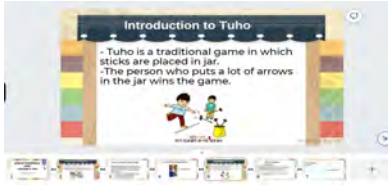
① papago 와 ZEP EDU 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류 준비하기

세계친구에게 편지쓰기	· 파파고를 활용하여 세계친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작성하기 -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을 작성하고 세계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 등 파파고를 활용해서 교과 수준에 벗어난 다양한 내용을 편지에 적을 수 있다.	
세계친구에게 편지보내기	· 웨일북을 이용하여 편지 사진찍기 - 웨일북에는 사진 촬영 기능 및 편집 기능이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편지 사진 찍고 알맞은 크기로 편집한다. · 학교 메타버스 공간에 편지 업로드하기 - 학교 메타버스 공간에 학생들이마다 자신이 업로드하고 싶은 위치에 편지가 삽입된 오브젝트를 삽입한다.	

papago 와 ZEP EDU 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류 준비하기 일반화 방향 제시

- 파파고를 사용하면 영어 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편지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비(非)영어권 학생들과 국제교류를 진행할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세계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기위해 업로드하는 과정은 자신의 미술작품이나, 동영상 등을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하는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학급 온라인 전시회나, 학습과제 온라인 제출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② Canva를 활용한 또래교수 문화교류 수업자료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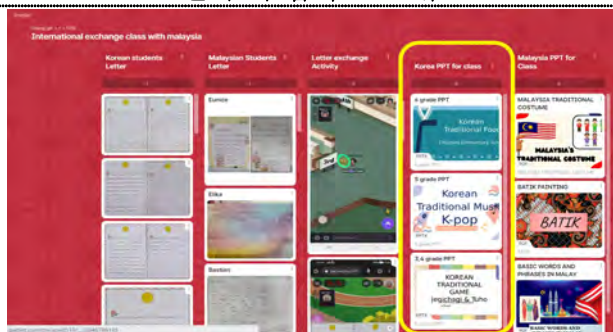
3~4학년 Canva를 활용한 수업자료 만들기	전통놀이 또래교수 문화교류 수업자료 	
5학년 Canva를 활용한 수업자료 만들기	전통음악, K-Pop 또래교수 문화교류 수업자료 	
6학년 Canva를 활용한 수업자료 만들기	전통음식 또래교수 문화교류 수업자료 	

Canva를 활용한 또래교수 문화교류 수업자료 만들기 일반화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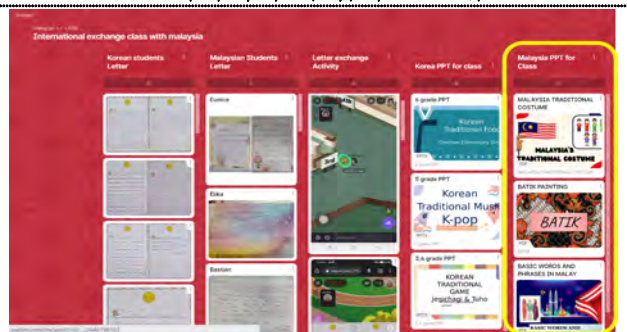
· 캔바같은 경우 국제교류 수업자료를 만드는 것 외에도 카드 뉴스 제작, 포스터 제작, 동영상 제작, 마인드맵 등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교직원 인증을 받으면 학생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 활용도가 높다.

③ :Padlet 을 활용한 수업자료 공유하기

한국 수업자료 공유



말레이시아 수업자료 공유



:Padlet 을 활용한 수업자료 공유하기 일반화 방향 제시

· 패들렛같은 경우 학생들이 수업 과제를 제출하고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좋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사회 ‘우리 고장 표현하기’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한 후 패들렛에 업로드하고 반 학생들이 서로의 과제를 확인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3. T 단계: Two ways for global citize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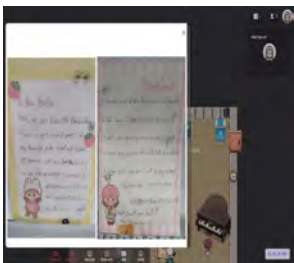
수업명	세계친구와 국제교류		성취 기준	3~4학년	5학년	6학년
학습목표	온라인으로 말레이시아 친구를 만나 문화교류를 할 수 있다.			[4국03-04]	[6국01-05]	[6국01-05]
				[4영02-06]	[6영02-07]	[6영02-07]
			[4체03-02]	[6음02-02]	[6실02-10]	
주요활동	① 1 st way: 온라인 비대면(Untact) 국제교류 활동		○ 학교 메타버스 공간을 통한 편지 교류 ○ 패들렛을 활용한 사진 교류 ○ 말레이시아 친구들에게 Culture Box 보내기 ○ 말레이시아 친구들에게 Culture Box 받기			
	② 2 nd way: Zep Edu를 통한 온라인 대면(Ontact) 국제교류 수업 진행하기		○ 각 나라의 전통놀이 상호 교류하기 ○ 각 나라의 전통음식 상호 교류하기 ○ 각 나라의 전통음악 상호 교류하기			
평가계획	3~4학년	[국어] 세계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를 작성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자기평가 관찰평가 지필평가		
		[영어] 영어를 활용하여 세계친구와 간단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가?				
		[체육] 세계친구와 두 나라의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가?				
	5학년	[국어] 전통음악과 K-POP을 세계친구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가?				
		[영어] 세계친구와 온라인으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음악] 다른 나라의 전통음악을 듣고 느낀점을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가?				
	6학년	[국어] 전통음식을 세계친구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가?				
		[영어] 세계친구와 온라인으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실과] 세계친구와 유과를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가?				

① 1st way: 1~3차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온라인 비대면(Untact)으로 세계친구와 소통하기

학습역량
영어 의사소통 능력, 지식정보처리역량

[활동1] ZEP EDU 학교 메타버스 공간을 통한 편지교류

단순히 편지지를 이메일이나 패들렛을 통해 교류하는 방법보다 구축한 학교 메타버스 국제교류공간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흥미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학교 메타버스 공간에 물건을 배치하고 해당 물건에 편지 사진을 삽입하여 각 나라의 학생들이 자신에게 온 편지를 찾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편지지가 숨겨진 물건 앞에서 버튼을눌러 숨겨진 편지를 확인하고, 편지를 읽으며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국 학생 편지 교류 활동 사진	말레이시아 학생 편지 교류 활동 사진
	

한국 학생들이 학교 메타버스 공간을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온 편지를 찾고 읽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학교 메타버스 공간을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온 편지를 찾고 읽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ZEP EDU 학교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편지교류 후 학생 반응

- 웨일북을 활용해서 편지를 쓰고 찍고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리했어요.
- 그냥 편지교류를 하는 것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편지교류를 하니 흥미가 생기고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었습니다.
- I will learn how to exchange letters online and continue to use this method to interact with Korean friends. I'm having a wonderful time. (말레이시아 학생 반응)

[활동2] :Padlet 을 활용한 사진 교류

학습역량
영어 의사소통 능력,
지식정보처리역량

학생들은 서로의 사진을 패들렛에 업로드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진 교류를 진행하였다. 실시간으로 만나기 전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각 학교 간 사진 교류 활동

패들렛 활동 모습



:Padlet 을 활용한 사진 교류 후 학생 반응

- 개인별 웨일북을 가지고 패들렛에 로그인하여 원하는 사진을 교류할 수 있어서 교류 활동이 부담이 적고 편했습니다.
- 사진 속에 나와 편지를 주고받은 학생이 사진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얼른 실시간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It's so fun and fascinating to be able to interact in various ways.(말레이시아 학생 반응)

[활동3] Culture Box 교환을 통한 국제교류

학습역량
공동체 역량

컬처박스 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각 나라의 전통 놀이, 물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국제교류수업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유의미한 국제교류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한국 Culture Box			말레이시아 Culture Box	
전통놀이 물품	K-Pop 앨범	유과만들기 세트, 약과	Batu(≒한국공기), Bottle Cap	Batik Painting
투호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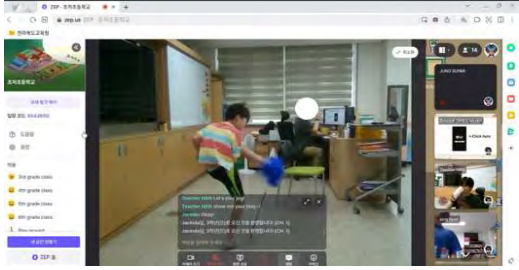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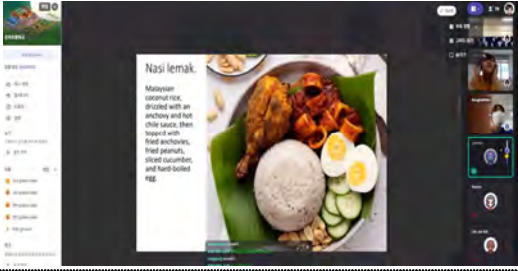
Culture Box 교환을 통한 국제교류 후 학생 반응

- 우리가 보낸 물품이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뿌듯하였습니다.
- 말레이시아 컬처박스를 받아서 사용해보니 너무나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물건도 있고 새로 보는 물품도 있어서 너무나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 The experience of exchanging things and conducting classes will be memorable for the rest of my life.(말레이시아 학생 반응)

② 2nd way: 4~9차시 Zep edu를 활용한 온라인 대면(Ontact) 국제교류수업 진행하기

	Day 1 [4~5차시]			Day 2 [6~7차시]			Day 3 [8~9차시]		
[K]	3,4 Grade	5 Grade	6 Grade	3,4 Grade	5 Grade	6 Grade	3,4 Grade	5 Grade	6 Grade
	↓	↓	↓	↓	↓	↓	↓	↓	↓
[M]	A group	B group	C group	C group	A group	B group	B group	C group	A group
[K]	전통놀이	음악	전통음식	전통놀이	음악	전통음식	전통놀이	음악	전통음식
	↓	↓	↓	↓	↓	↓	↓	↓	↓
[M]	전통놀이	음식, 언어, 음악	전통의상, 전통미술	전통놀이	음식, 언어, 음악	전통놀이	음식, 언어, 음악	전통의상, 전통미술	전통놀이

온라인 대면(Ontact) 국제교류수업은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3일에 걸쳐서 총 6차시로 이루어졌다. 교류수업의 방식은 **포레교수방법**을 사용하였다. 교사가 내용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대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친구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주고, 반대로 세계친구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세계친구와 국제문화교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

	[K] 한국	[M] 말레이시아
전통놀이		
	한국 전통놀이 투호 던지기	말레이시아 전통놀이 바투(Batu)
전통음식		
	한국 전통놀이 제기차기	말레이시아 전통놀이 바투(Batu)
전통음식		
	한국 전통음식 소개	말레이시아 전통음식 소개
전통음식		
	한국 학생들의 전통음식 약과 만들기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한국 전통음식 약과 만들기

전통음악		
	한국 전통음악 아리랑 소개하기	말레이시아 전통음악 Rasa sayang hey! 소개하기
		
	한국 K-POP 소개하기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같이 K-POP 춤 추기
Two ways for global citizenship 일반화 방향 제시		

· 학교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국제교류를 국내학교간 교류방식으로 바꿔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농학교 간 교류의 주제를 도시의 생활 환경과 문화, 농촌의 생활 환경과 문화로 선정한 후 Two ways로 교류를 진행한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통해 내적 친밀감을 형성한 후 온라인 대면 수업을 하면 학생들 간 교류도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고 교과서에서 배웠던 서로 다른 지역의 생활 환경과 문화를 친구가 알려줌으로써 더욱 유의미한 사회 교류수업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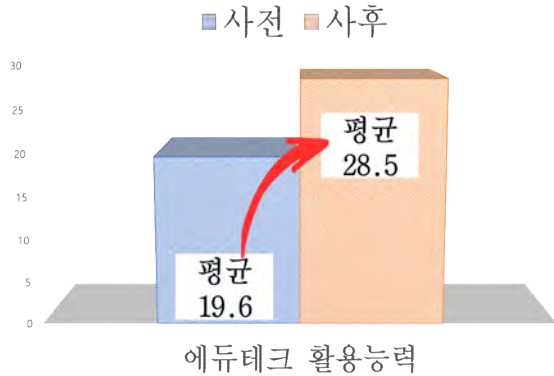
IV. 연구 결과

1. 연구 내용 검증 분석 방법

	검증 내용	검증 방법	참고 자료
양적 검증	에듀테크 활용 역량 학생 변화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	연구자 문항 자체 개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학생 변화	리딩엔 AI 영어 레벨 테스트	리딩엔 레벨 테스트
	세계시민성 학생 변화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	APCUIU 2021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성과측정도구 개발, 2021
질적 검증	에듀테크 활용 역량 학생 변화	서술형 응답 및 학생 개별 면담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 성과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학생 변화		
	세계시민성 학생 변화		

2. 양적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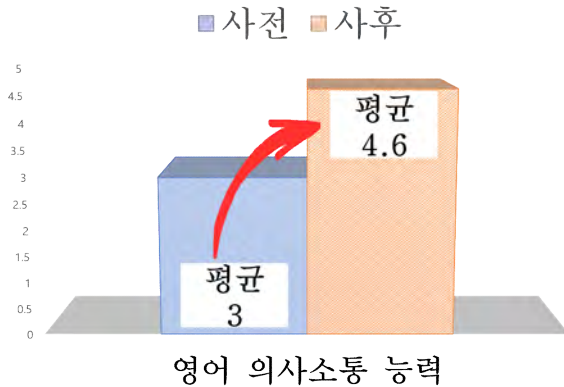
에듀테크 활용능력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 결과



N=16 | T통계량: -11.4 | P값: 0.000000008(<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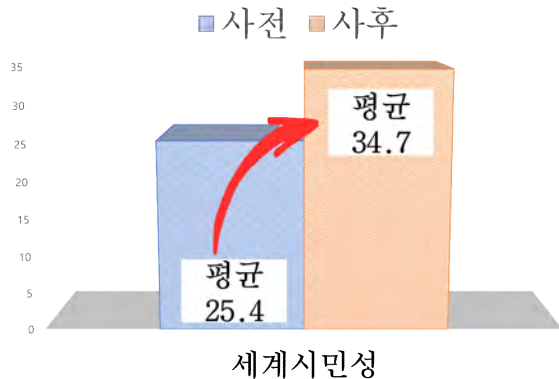
- ✓ 학생들의 에듀테크 활용능력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활용하였다.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값은 유의미하다.
- ✓ 프로젝트 전 학생들 에듀테크 활용능력은 35점 만점에 사전 평균 점수는 19.6이었다. 반면 프로젝트 이후 에듀테크 활용능력 평균 점수는 28.5로 8.9점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 ✓ 이를 통해 『Whale을 타고 세계친구 M.E.E.T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에듀테크 활용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 사전-사후 AI레벨 테스트 결과



- ✓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리딩엔 영어 AI레벨 테스트를 활용하였다.
- ✓ 프로젝트 전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레벨은 평균 3레벨이었다. 반면 프로젝트 이후 영어 의사소통 능력 레벨은 평균 4.6으로 1.6레벨이 평균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 ✓ 이를 통해 『Whale을 타고 세계친구 M.E.E.T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수준별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시민성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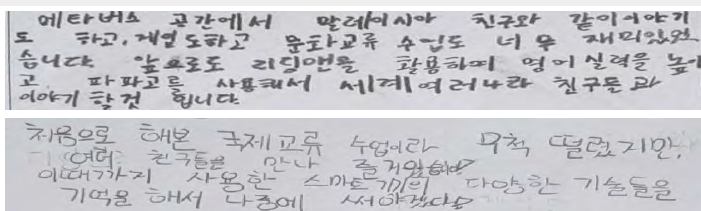


N=16 | T통계량: -6.3 | P값: 0.0000138(< 0.05)

- ✓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활용하였다.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값은 유의미하다.
- ✓ 프로젝트 전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양적 지표는 45점 만점에 사전 평균 점수는 25.4였다. 반면 프로젝트 이후 세계시민성 양적 지표는 평균 34.7로 9.3점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 ✓ 이를 통해 『Whale을 타고 세계친구 M.E.E.T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향상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질적 검증 결과

1. 에듀테크 활용 역량 변화



앞으로도 리딩엔을 활용하여 영어 실력을 높이고 파파고를 사용해서 세계여러나라 친구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번에 배운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기술들을 앞으로 자주 활용해야겠다.

소통=교육자들이 많이 발전했어는걸 느꼈고 정말 기쁘고
신기했다. 다른나라의 친구들과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할수=이 기술을 활용해 각 나라의 청소년들이 소통하면
좋겠다.

이 기술들을 활용해 각 나라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겠다.

질적 검증 해석

학생들의 에듀테크 활용 자신감이 상승하였고, 프로젝트 이후에도 자기주도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세계친구와 소통하겠다는 것을 통해 **에듀테크 활용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영어 의사소통 능력 변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갔고 세계 친구와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갔고 세계친구와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던 단어 문장이 많았는데 준비 하면서도
세계친구와 만나서 모르던 단어들을 알게되었습니다.

모르는 단어, 문장이 많았는데 준비하면서도, 세계친구와 만나면서도 모르던 단어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발음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김치, 떡국을 소개하며 말한
영어가 익숙하게 됐다. 그리고 많이 듣다 보니 이해력이
높아졌다.

발음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김치, 떡국을 소개하며 말한 영어들이 익숙하게 됐다. 그리고 많이 듣다 보니 이해력이 높아졌다.

질적 검증 해석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모르는 단어를 알게되고,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영어 문장을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영어 이해력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세계시민성 변화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세계 다양한 사람과 친구가
될수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세계 다양한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르고 있던 문화를 알게된 후, 제가 모르던 문화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고 있던 문화를 알게 된 후 제가 모르던 문화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세계의 친구들에 대해 우리와 많이 다르고
생각하고,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서 크게 교류 하지는
않아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없어지고 세계 친구들
위와 다른점 있지만 공통점도 많다는것을 알게되고 더 가까이
문화도 좀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세계의 친구들에 대해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는데 국제교류수업을 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없어졌다.

질적 검증 해석

학생들이 세계 다양한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던 편견이 없어졌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일반화

1. 연구의 결론

가. M 단계

- 1) 국제교류수업을 위해 **학년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년별 교과 성취기준**을 달성하면서 국제교류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내실이 있는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하였다.
- 2) 학교에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습할 환경이 마련되었고 자연스럽게 **에듀테크 활용능력이 향상**되었다.
- 3) 교사·학생 **역량 강화**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문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 4) 학교 메타버스 국제교류공간을 학생들이 직접 구축하도록 하여 프로젝트의 주도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 E.E 단계

- 1) 스마트기기로 즐거움이 만드는 실력, 리딩엔 **READING &** 을 활용하여 수준별 맞춤형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papago** 를 활용하여 세계친구와 자신의 영어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 2) **papago** , **ZEP EDU** , **:Padlet** 을 활용하여 비대면 교류를 준비하였다. 학생들에게 에듀테크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에듀테크 활용 능력을 강화하였다.

다. T 단계

- 1) 학생들은 지금까지 학습한 역량들을 활용하여 온라인 비대면 국제교류와 온라인 대면 또래교수 국제교류를 진행하였다. 두 가지 방법의 국제교류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능력이 길러졌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세계시민성이 향상되었다.

2. 제언

국제교류를 통한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세계시민 양성은 몇 차시 국제교류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제교류수업이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제교류를 진행하는 학교나 준비하는 학교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국제교류수업에 대한 연구 방안이 필요하다.

3. 일반화 방향 모색



더 넓게 활성화



비(非)영어권 국가들과의 국제교류수업에 활용하는 방안

비(非)영어권 국가들과 국제교류수업을 진행할 경우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단계인 E.E단계를 수정한다. 만약 중국어로 소통해야 한다면 중국어 교육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파파고를 통해서 중국어를 번역하고 발음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이런 과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활용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와 국제교류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에듀테크 활용능력, 해당 언어 의사소통 능력, 세계시민성이 모두 높아질 것이다.



더 깊게 내실화



국내 다른 학교들과의 교류수업에 활용하는 방안

이 프로젝트는 국내의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교류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사회와 국어를 융합하여 도·농학교 간의 생활 환경에 따라 생겨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개하는 교류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학교 간 같은 주제로 미술수업을 진행한 후 메타버스 공간에서 합동 전시회를 할 수 있다. 또는 체육과 연계하여 학교 대항 전통놀이 대회를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M.E.E.T단계 중 E.E단계를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아닌 각 교과에 필요한 역량 강화 활동으로 수정한다면 국내 다양한 학교와의 교류활동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및 연구보고서

- 박현정 외(2021). 202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성과측정 도구 개발, APCEIU, 81-82
- 이종연 외(2014).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 성과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우현주 외(2020). 초등영어과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초등영어 교사와 학생의 인식 연구. 외국학연구 제 53집
- 오은주(2021). 세계시민성 함양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 영어 수업모델 개발.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보도자료

-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2). 미래교육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우수사례집.

웹사이트 및 스마트 앱(App)

- 젼 에듀(Zep Edu). <https://zep.us/home/spaces>
- 웨일스페이스(Whale Space). <https://whalespace.io/>
- 캔바(Canva). <https://www.canva.com/>
- 리딩앤(ReadingN). <https://www.readingn.com/>
- 패드렛(Padlet). <https://padlet.com/>
- 파파고(Papago). <https://papago.naver.com/>

이미지 및 아이콘 활용

- 플래티콘. <https://www.flaticon.com/>

부록 1. 온라인 대면(Ontact) 국제교류수업 계획

가. 한국 연구학교 국제교류수업 지도안

3~4학년 온라인 대면(Ontact) 국제교류수업 지도안

관련교과	체육, 영어, 국어		적용 학년	3,4학년
			해당 차시	1차시
학습목표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대한민국의 전통놀이를 소개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관련 성취기준	[4국03-04] 읽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4영02-06] 쉽고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 [4체03-02] 단순한 규칙으로 이루어진 게임을 수행하며 경쟁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탐색한다.			
학습 형태 및 집단 조직 계획	국제 교류 학교	학습 활동	집단 조직	
	00초등 학교	1. 투호 소개하고 놀이방법 알려주기 2. 제기차기 소개하고 놀이방법 알려주기	반 전체	
	말레이시아 학교	3. 투호에 대해 배우고 익히기 4. 제기차기에 대해 배우고 익히기	모둠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분)	활용 에듀테크
도입	 아이스브레이킹 · ZEP Edu를 통한 대한민국 민속놀이 관련 O, X 퀴즈	5	 웨일북  ZEP EDU
전개	[활동1]  대한민국 전통놀이 [투호] 소개하기 · 투호 소개하기 ·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투호 보여주기 ·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투호 놀이방법 가르쳐주기 · 실시간 투호 대결하기 [활동2]  대한민국 전통놀이 [제기차기] 소개하기 · 제기차기 소개하기 ·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제기차기 보여주기 ·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제기차기 놀이방법 가르쳐주기 · 실시간 제기차기 대결하기	30	 웨일북  ZEP EDU  Canva  Padlet
정리	 정리하기 · 활동 마무리 및 인사나누기	5	 웨일북  ZEP EDU

5학년 온라인 대면(Ontact) 국제교류수업 지도안

관련교과	국어, 음악, 영어		적용 학년	5학년
			해당 차시	1차시
학습목표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국악과 K-POP을 소개할 수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관련 성취기준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6영02-07]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 [6음02-02]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학습 형태 및 집단 조직 계획	국제 교류 학교	학습 활동	집단 조직	
	00초등 학교	1. 국악 소개하고 알려주기 2. K-POP 소개하고 알려주기	반 전체	
	말레이시아 학교	1. 대한민국 국악에 대해 배우고 익히기 2. K-POP에 대해 배우고 익히기	모둠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활용 에듀테크
도입	 아이스브레이킹 · ZEP Edu를 통한 대한민국 국악 및 K-POP 관련 O, X 퀴즈	5	 웨일북  ZEP EDU
전개	[활동1]  대한민국 국악 소개하기 · 아리랑 소개하기 ·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아리랑 들려주기 ·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아리랑 가르쳐주기 · 모두 함께 아리랑 부르기 [활동2]  대한민국 K-POP 소개하기 · K-POP 대표가수 소개하기 -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 K-POP 댄스 보여주기 ·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K-POP 댄스 가르쳐주기 · 모두 함께 K-POP 댄스 해보기	30	 웨일북  ZEP EDU  Canva  Padlet
정리	 정리하기 · 활동 마무리 및 인사나누기	5	 웨일북  ZEP EDU

6학년 온라인 대면(Onfact) 국제교류수업 지도안			
관련교과	사회, 실과, 영어	적용 학년	6학년
		해당 차시	1차시
학습목표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대한민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소개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관련 성취기준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6영02-07]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 [6실02-10]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준비 조리하여 평가한다.		
학습 형태 및 집단 조직 계획	국제 교류 학교	학습 활동	집단 조직
	00초등학교	1. 전통과자 유과에 대해 소개하고 같이 만들어보기 2. 전통음식에 대해 소개하고 같이 먹어보기	반 전체
	말레이시아 학교	1. 한국 과자 유과에 대해 배우고 같이 만들어보기 2. 전통음식에 대해 배우고 같이 먹어보기	모둠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활용 에듀테크
도입	 아이스브레이킹 · ZEP Edu를 통한 대한민국 음식 관련 O, X 퀴즈	5	 웨일북  ZEP EDU
전개	[활동1]  대한민국 전통과자 [유과] 소개하기 · 대한민국 전통과자 유과 소개하기 ·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유과 만드는 방법 가르쳐주기 · 다른 나라 친구들과 같이 만들어보기 · 만든 유과 같이 먹어보기 [활동2]  대한민국 전통음식 소개하기 · 대한민국 전통음식 소개하기 · 다른 나라 친구들과 대한민국 전통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30	 웨일북  ZEP EDU  Canva  Padlet
정리	 정리하기 · 활동 마무리 및 인사나누기	5	 웨일북  ZEP EDU

나. 말레이시아 연구학교 국제교류수업 지도안

① 1일차 수업 지도안

July 17 th virtual class exchange outline			
Korean time	Malaysian time	Class / Preps	
		Korean	Malaysian
9:00 – 9:45 am	8:00 – 8:45 am	Grade 3 – 6 (16 pupils)	Year 5 & 6 (16 pupils)
➢ Intro (10')		➢ teacher welcome speech (briefly about school)	➢ teacher welcome speech (briefly about school)
- Malaysian Principal speech - Korean Principal speech - Teacher welcome speech			
➢ Ice Breaking (10')		➢ ZEP Edu	➢ ZEP Edu
- Avoid poop			
➢ Korea Traditional Game (20')		➢ ZEP Edu ➢ slides ➢ Tuho Set ➢ Jegichagi	➢ ZEP Edu ➢ slides ➢ Tuho Set ➢ Jegichagi
➢ Closure (5')		➢ Question sheets	➢ Question sheets
- Take turns asking and answering - Share thoughts and feelings about the exchange			
SHORT BREAK (10')			
9:55 – 10:30am	8:55 – 9:30am	Grade 3 – 6 (16 pupils)	Year 5 & 6 (16 pupils)
➢ Intro (5)		➢ teacher welcome speech	➢ teacher welcome speech (brief on location of country, state/school)
- Welcome speech from teacher			
➢ Presentation (5')		➢ ZEP Edu	➢ ZEP Edu ➢ slides
- Slide presentation on places of interest in Penang/Malaysia			
➢ Malaysia Traditional Game (20')		➢ ZEP Edu ➢ Batu seremban ➢ Bottle caps	➢ ZEP Edu ➢ slides ➢ Batu seremban ➢ Bottle caps
- Batu Seremban - Ceper Botol			

➢ Closure (5')	➢ Integration among the pupils (Free & Easy Style)	➢ Integration among the pupils (Free & Easy Style)
- Take turns asking and answering - Share thoughts and feelings about the exchange		

	Group 1	Group 2	Group 3
Korea	3 rd Grade 4 th Grade	5 th Grade	6 th Grade
Malaysia	Anjali Kong Kah Wen Randy Ng Tan Yong Yao Lim Jia Xin	Loo Hui Tian Chan Ewen Chee Ming Tze Lim Yi Zhen Tan Yong Hao Eunice Lee Bastian Koay	Jacinda Elika See Lim Wei Jun Lim Jun Kai

② 국제교류수업 6차시 수업 계획안

DAY 1 – 17th July (Monday) – SESSION 1

SESSION 1 – Korean students will teach Malaysian students		
STATION 1	STATION 2	STATION 3
Korea Traditional Game Jegichagi & Tuho	Korea Traditional Music Kpop	Korea Traditional Food
Grade 3 & 4	Grade 5	Grade 6
Group 1 Anjali Elika Randy Bastian Ming Tze	Group 2 Jacinda Kah Wen Ewen Jun Kai Wei Jun Yong Hao Eunice	Group 3 Hui Tian Yi Zhen Jia Xin Yong Yao

DAY 1 – 17th July (Monday) – SESSION 2

SESSION 2 – Malaysian students will teach Korean students		
STATION 1	STATION 2	STATION 3
Malaysia Traditional Game Batu Seremban & Ceper	Malaysia Traditional Food Learn Malay words Malaysia Folk Song	Malaysia Traditional Costume Batik Painting
Grade 3 & 4 (5 students)	Grade 5 (7 students)	Grade 6 (4 students)
Group 1 Anjali Elika Randy Bastian Ming Tze	Group 2 Jacinda Kah Wen Ewen Jun Kai Wei Jun Yong Hao Eunice	Group 3 Hui Tian Yi Zhen Jia Xin Yong Yao

DAY 2 – 18th July (Tuesday) – SESSION 1

SESSION 1 – Korean students will teach Malaysian students		
STATION 1	STATION 2	STATION 3
Korea Traditional Game Jegichagi & Tuho	Korea Traditional Music Kpop	Korea Traditional Food
Grade 3 & 4	Grade 5	Grade 6
Group 3 Hui Tian Yi Zhen Jia Xin Yong Yao	Group 1 Anjali Elika Randy Bastian Ming Tze	Group 2 Jacinda Kah Wen Ewen Jun Kai Wei Jun Yong Hao Eunice

DAY 2 – 18th July (Tuesday) – SESSION 2

SESSION 2 – Malaysian students will teach Korean students		
STATION 1	STATION 2	STATION 3
Malaysia Traditional Game Batu Seremban & Ceper	Malaysia Traditional Food Learn Malay words Malaysia Folk Song	Malaysia Traditional Costume Batik Painting
Grade 6 (4 students)	Grade 3 & 4 (5 students)	Grade 5 (7 students)
Group 1 Anjali Elika Randy Bastian Ming Tze	Group 2 Jacinda Kah Wen Ewen Jun Kai Wei Jun Yong Hao Eunice	Group 3 Hui Tian Yi Zhen Jia Xin Yong Yao

DAY 3 – 20th July (WEDNESDAY) – SESSION 1

SESSION 1 – Korean students will teach Malaysian students		
STATION 1	STATION 2	STATION 3
Korea Traditional Game Jegichagi & Tuho	Korea Traditional Music Kpop	Korea Traditional Food
Grade 3 & 4	Grade 5	Grade 6
Group 2 Jacinda Kah Wen Ewen Jun Kai Wei Jun Yong Hao Eunice	Group 3 Hui Tian Yi Zhen Jia Xin Yong Yao	Group 1 Anjali Elika Randy Bastian Ming Tze

DAY 3 – 20th July (WEDNESDAY) – SESSION 2

SESSION 2 – Malaysian students will teach Korean students		
STATION 1	STATION 2	STATION 3
Malaysia Traditional Game Batu Seremban & Ceper	Malaysia Traditional Food Learn Malay words Malaysia Folk Song	Malaysia Traditional Costume Batik Painting
Grade 5 (7 students)	Grade 6 (4 students)	Grade 3 & 4 (5 students)
Group 1 Anjali Elika Randy Bastian Ming Tze	Group 2 Jacinda Kah Wen Ewen Jun Kai Wei Jun Yong Hao Eunice	Group 3 Hui Tian Yi Zhen Jia Xin Yong Y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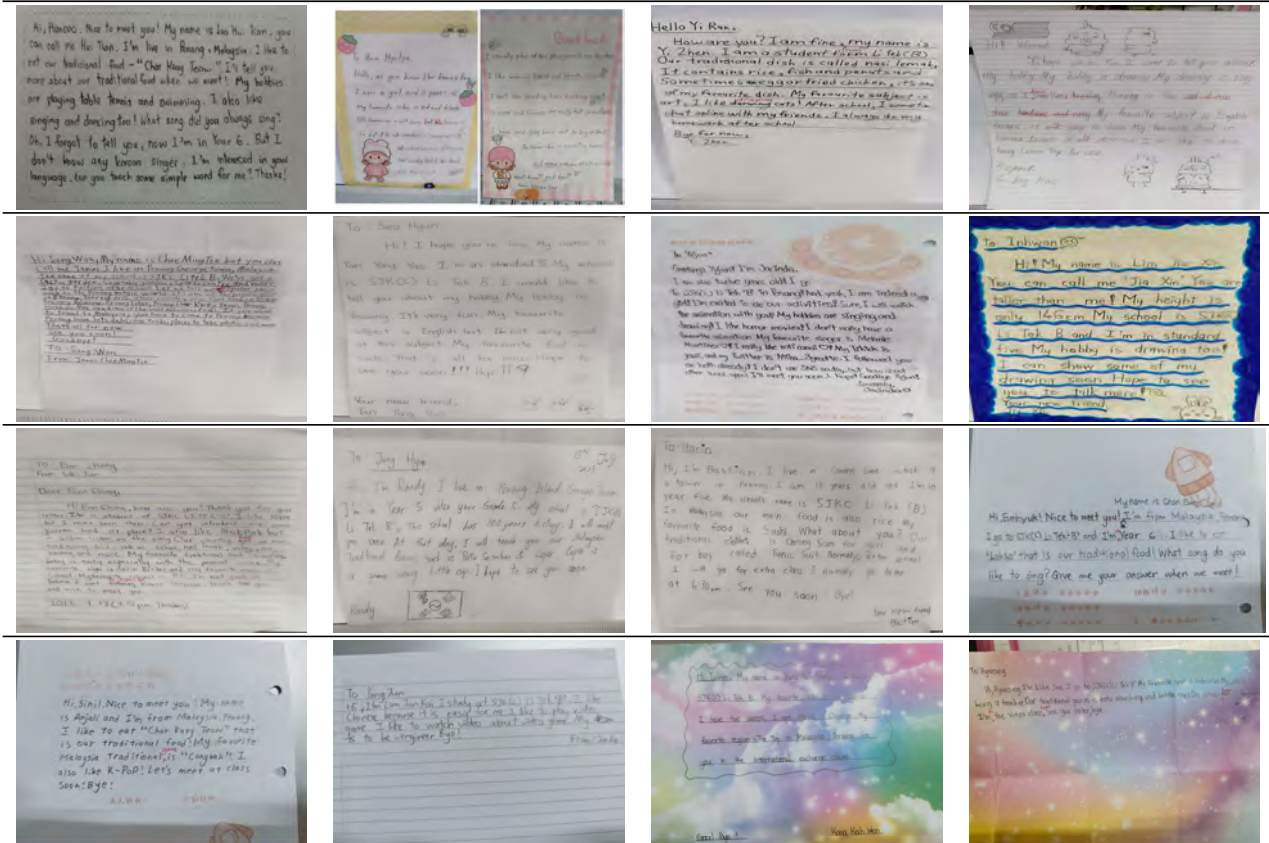
부록 2. 온라인 국제교류수업 활동 사진

가. 온라인 비대면(Untact) 편지 교류 학생 산출물

① 한국 연구학교 학생 편지지



② 말레이시아 연구학교 학생 편지지



나. 온라인 대면(Onfact) 국제교류수업 활동사진

연구학교 학교장 환영인사



수업 시작 전 자기소개 시간



수업 시작 전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수업 시작 전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3~4학년 전통놀이 또래교수 수업 활동 사진



말레이시아 전통의상 또래교수 활동 사진



3~4학년 전통놀이 제기차기 또래교수 수업 활동사진



말레이시아 전통미술 또래교수 활동 사진



5학년 K-pop 댄스 또래교수 수업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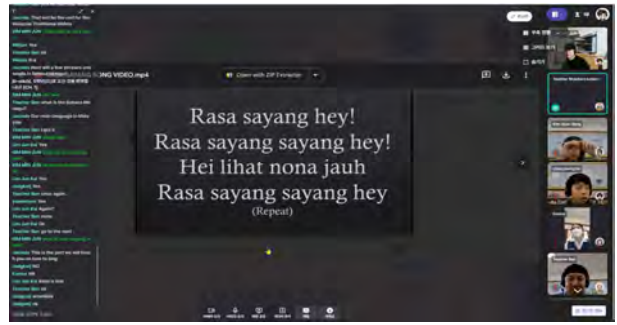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학생 K-pop 댄스 활동 사진



5학년 전통음악 아리랑 또래교수 수업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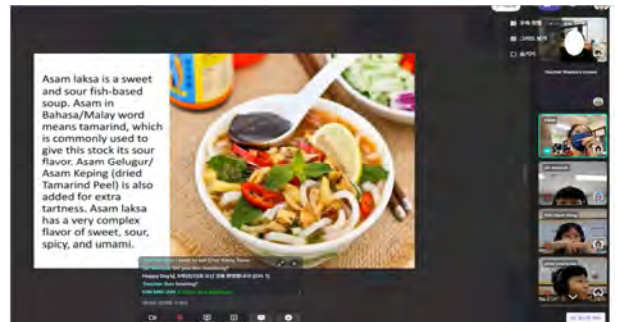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전통 음악 또래교수 수업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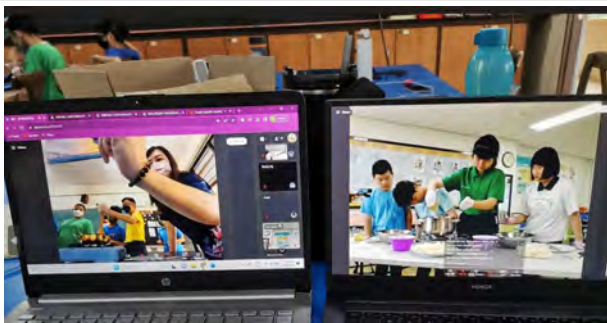
6학년 전통음식 소개 또래교수 수업 활동 사진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 소개 또래교수 수업 활동 사진



6학년 약과 만들기 또래교수 수업 활동 사진



말레이시아 약과 만들기 활동 사진



한국 학생 말레이시아 전통놀이 수업 활동 사진



말레이시아 전통놀이 또래교수 수업 활동 사진



국제교류학교간 기념 사진 촬영



말레이시아 학생들 수업 종료 후 인사



부록 3. 사전·사후 설문지

가. 에듀테크 활용 능력 사전·사후 설문지		나. 세계시민성 사전·사후 설문지	
웨일을 활용한 세계친구 M.E.E.T 프로젝트 에듀테크 활용 능력 사전·사후 설문지 학년 이름		Whale을 활용한 세계친구 M.E.E.T 프로젝트 세계시민성 사전·사후 설문지 학년 이름	
1. 오픈나 교육용 사이트의 아이디를 생성하여 로그인 할 수 있나요? ① 할 수 없다 ② 많은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③ 보통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④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⑤ 스스로 할 수 있다. 2.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공부할 하거나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① 없다.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회 이상 3. 스마트기기에 있는 오픈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제작할 수 있나요? ① 할 수 없다 ② 많은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③ 보통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④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⑤ 스스로 할 수 있다. 4. 다양한 공유 프로그램(캐슬렛, 링커벨, 구글 드라이브, Zep edu)를 활용하여 자료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나요? ① 할 수 없다 ② 많은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③ 보통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④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⑤ 스스로 할 수 있다. 5.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영어 교육 오픈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르는 표현, 단어, 문장, 발음등을 찾고 활용할 수 있나요? ① 할 수 없다 ② 많은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③ 보통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④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⑤ 스스로 할 수 있다. 6.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할 수 있나요? ① 할 수 없다 ② 많은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③ 보통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④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⑤ 스스로 할 수 있다. 7.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습이 잘 된다고 생각하나요? ①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학습에 약간 도움이 된다 ③ 학습에 보통 도움이 된다 ④ 학습에 도움이 된다 ⑤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된다		1. 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나는 다른 문화의 전통과 역사에 관심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나는 다른 문화와 우리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심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나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나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진 의견도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나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나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기꺼이 협력할 마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다. 프로젝트 질적 검사 사전·사후 설문지			
웨일을 활용한 세계친구 M.E.E.T 프로젝트 사후 소감 조사 학년 이름			
1.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교류를 해본 소감과 학습한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기술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적어주세요. 2. Whale을 활용한 세계친구 M.E.E.T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본인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적어주세요. 3. Whale을 활용한 세계친구 M.E.E.T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세계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적어주세요.			

라. 영어 의사소통능력(리딩앤 레벨테스트) 사전·사후 검사 결과			
학생 1 사전 검사 결과	학생 1 사후 검사 결과	학생 2 사전 검사 결과	학생 2 사후 검사 결과
			
학생 3 사전 검사 결과	학생 3 사후 검사 결과	학생 4 사전 검사 결과	학생 4 사후 검사 결과
			
학생 5 사전 검사 결과	학생 5 사후 검사 결과	학생 6 사전 검사 결과	학생 6 사후 검사 결과
			
학생 7 사전 검사 결과	학생 7 사후 검사 결과	학생 8 사전 검사 결과	학생 8 사후 검사 결과
			
학생 9 사전 검사 결과	학생 9 사후 검사 결과	학생 10 사전 검사 결과	학생 10 사후 검사 결과
			
학생 11 사전 검사 결과	학생 11 사후 검사 결과	학생 12 사전 검사 결과	학생 12 사후 검사 결과
			
학생 13 사전 검사 결과	학생 13 사후 검사 결과	학생 14 사전 검사 결과	학생 14 사후 검사 결과
			
학생 15 사전 검사 결과	학생 15 사후 검사 결과	학생 16 사전 검사 결과	학생 16 사후 검사 결과
			

부록 4. 국제교류수업 한국 수업자료 학생 산출물, 말레이시아 수업자료

가. Canva를 활용한 한국 연구학교 또래교수 수업자료 학생 산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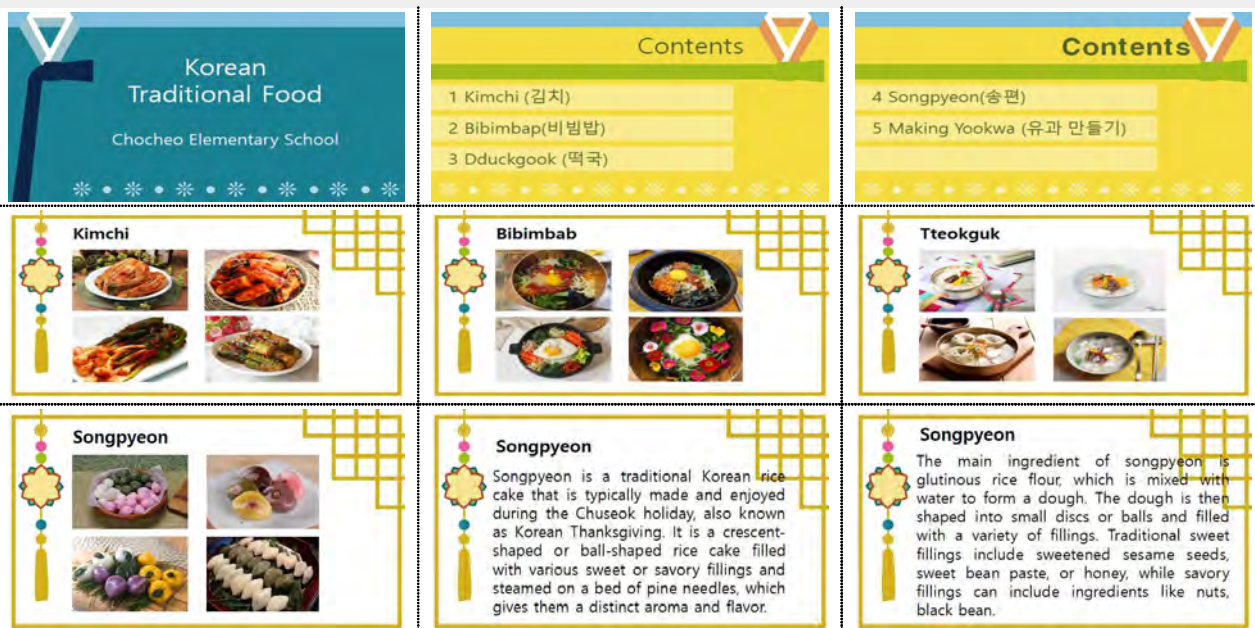
① 3~4학년 전통놀이 또래교수 수업자료 학생 산출물



② 5학년 전통음악, K-pop 또래교수 수업자료 학생 산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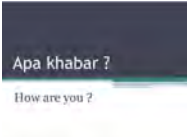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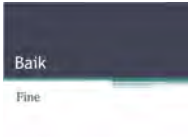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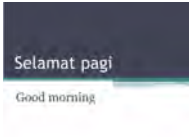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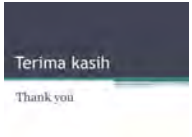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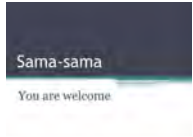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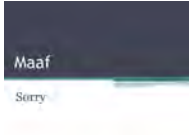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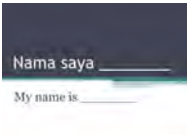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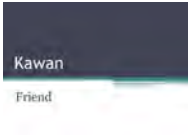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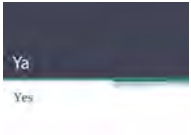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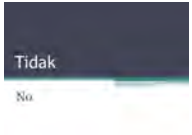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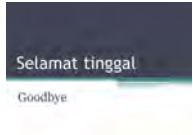


③ 6학년 전통음식 토래교수 수업자료 학생 산출물



나. 말레이시아 연구학교 수업 자료

① 말레이시아 언어 포래교수 수업자료

② 말레이시아 전통미술 Batik painting 포래교수 수업자료



BATIK

Batik

- Textile art in Malaysia
- Most popular motifs are leaves and flowers
- For men, batik can be worn at dinner functions
- Women wear the fabric as part of formal dress





③ 말레이시아 전통의상 포래교수 수업자료

MALAYSIA'S TRADITIONAL COSTUME



MELAYU COSTUME

Man: Baju Melayu
Women: Tundung, Baju Kurung



CHINESE COSTUME

Man: Chinese Tunic, Suit
Women: Cheongsam



INDIAN COSTUME

Man: Jhippa
Women: Sari



④ 말레이시아 전통음식 포래교수 수업자료

Malaysian Dishes



MALAYSIAN TRADITIONAL FOOD

Nasi Lemak

Malaysian coconut rice, drizzled with an anchovy and hot chili sauce, then topped with fried anchovies, fried peanuts, sliced cucumber, and hard-boiled egg.



Char Kway Kak

Char Kway Kak means cubes of cake (in this case rice cake cubes). The rice cake is cut into cubes and then stir-fried with eggs, seafood, or another choice of protein, preserved turnip/chive, chili, dark soy sauce, soy sauce, and usually young bean sprouts are added.



Char Kway Teow

Char kway teow, Malaysia's most famous street food, is a simple rice noodle dish made with soy sauce, eggs, cockles, bean sprouts, Chinese sausage and a couple of shrimp.



Roti Canai

Roti canai is made from dough which is usually composed of fat (usually ghee), flour and water; some recipes also include sweetened condensed milk. The dough is repeatedly kneaded, flattened, oiled, and folded before proofing, creating layers.



Asam Laksa

Asam laksa is a sweet and sour fish-based soup. Asam in Bahasa/Malay word means tamarind, which is commonly used to give this stock its sour flavor. Asam Gekugur/Asam Keping (dried Tamarind Peel) is also added for extra tartness. Asam laksa has a very complex flavor of sweet, sour, spicy and umami.



Curry Mee

Curry Mee is a popular Malaysian dish consisting of noodles served in a flavorful curry broth. It typically includes a variety of ingredients such as chicken, fish, shrimp, bean sprouts, and cockles. The curry broth is rich, aromatic, and mildly spicy, giving the dish its distinctive taste. It is often garnished with fresh herbs, lime, and a dollop of chili paste for an extra kick of flavor. Curry Mee is a delicious and satisfying dish enjoyed by locals and visitors alike in Malaysia.



Hokkien Mee

Hokkien char mee is served in Kuala Lumpur and the surrounding region. It is a dish of thick yellow noodles braised in thick dark soy sauce with pork, squid, fish cake and cabbage as the main ingredients and cubes of pork fat fried until crispy (sometimes pork liver is included).



⑤ 말레이시아 전통놀이 포래교수 수업자료

MALAYSIAN TRADITIONAL GAMES



Batu Seremban

"Tossing the stones" or mainly known as batu seremban is a traditional game that involves at least 2 players or more. It is usually played with few small round stones or pebbles.



Congkak

Congkak is played with two players sitting in front of one another. Congkak boards are made of wood and the sides are carved into various shapes and siz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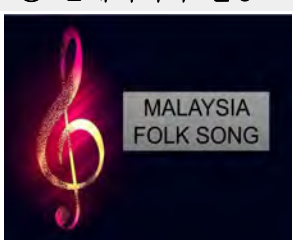
Ceper

This game is used bottle caps. This game consists of two players or more and 5 pieces of bottle caps are used in a game.



⑥ 말레이시아 전통노래 포래교수 수업자료

MALAYSIA FOLK SONG



*Rasa sayang, hey!
Rasa sayang sayang, hey!
Hey, lihat nona jauh,
Rasa sayang sayang, hey!*

I've got that loving feeling, hey!
I've got that loving feeling, hey!
See that girl in the distance,
I've got that loving feeling hey!

Buah cempedak di luar pagar
Ambil galah tolong jolokkan
Kami budak baru belajar
Kalau salah tolong tunjukkan

*Rasa sayang hey!
Rasa sayang sayang hey!
Hei lihat nona jauh
Rasa sayang sayang hey*
(Bersutan)



03 해외현장체험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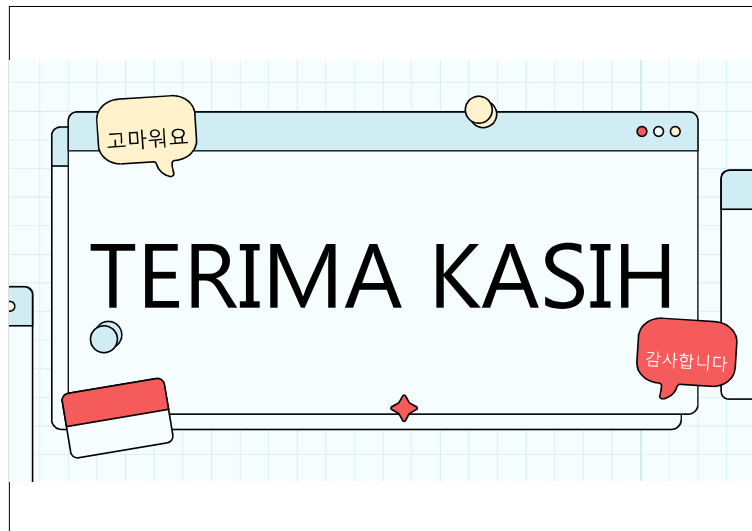


7

04 인도네시아 교사 초청파견



8



국제교류수업 사례와 AI 영어회화 프로그램의 활용

강 민 희
전주 한들초등학교

1. 교류학교 소개 및 수업 운영

가. 국제교류 학교 구하기

- 1) ALCoB, ISNet 네트워크 활용
- 2) 메일을 통한 국제교류수업 제안 및 파트너쉽 체결

나. 국제교류대상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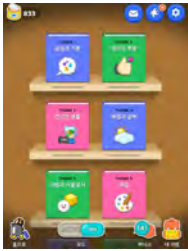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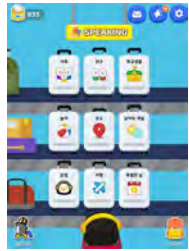
한국	말레이시아
전주한들초등학교	SJK(C) Perempuan China

다. 수업 운영

차시	주제	수업 방법
1	All about Me(학교 및 자기소개)	실시간교류
2	My Daily Life	비실시간 교류(Google Padlet)
3	School Life	실시간교류
4	School Life QnA	비실시간 교류(Google Padlet)
5	Culture Box 교환	비실시간 교류(우편)
6	Travel to Korea and Malaysia (지역 명소 및 축제 소개)	비실시간 교류(Canva 제작)
7	Where do you want to go?	비실시간 교류(Google Padlet)
8	Cooking Class(다식 만들기)	실시간 교류

2. AI펍톡이란?

가. 회화중심의 콘텐츠 제공(테마월드, 파닉스, 스쿨톡, 애니톡, 스캔잇, 스피킹, 렛츠톡)

	 테마월드	 스피킹
---	---	--

나. AI 팽독 콘텐츠 도식화 예시(자기소개, 학교, 우리나라 및 지역, 동물, 여행지, 놀이문화, 일상생활, 공통주제)

주제	학년	콘텐츠	주제	학년	콘텐츠
자기 소개	3	[인사와 소개] Hello, I'm Dabin. [인사와 소개] Good Morning. [개인의 취향] Do you like games? [개인의 취향] I don't like onions. [개인의 취향] I hate carrots. [개인의 취향] Can you swim? [개인의 취향] I can't run. [개인의 취향] Are you good at jumping rope?	학교	4	[위치와 장소] Where is my bag? [일상생활] It's time for school. [학교생활] We have a cooking class.
				5	[학교생활] My favorite subject is math. [위치와 장소] Do you know where she is?
				6	[위치와 장소] Where is your classroom? [학교생활] What club are you in? [숫자와 시간] When is the field trip? [허락과 의무] You should be quiet in library.
	4	[인사와 소개] What's your name? [인사와 소개] This is my sister. [인사와 소개] Who is he? [제안과 요청] Let's play soccer. [직업] I'm a pilot. [직업] He is a firefighter. [취미와 여가] Do you like fishing? [취미와 여가] It's fun.	우리나라 ,지역	3	[계절과 날씨] It's cold in winter. [계절과 날씨] I need a scarf.
				5	[위치와 장소] Where is the market? [위치와 장소] It's next to the bakery. [음식] Do you want some more? [계절과 날씨] It's warm and sunny.
				6	[정보] Who wrote the story? [정보] Do you know anything about Arirang? [정보] When is Thanksgiving day? [위치와 장소] How can I get to city hall?
	5	[인사와 소개] Where are you from? [인사와 소개] Where do you live? [개인의 취향] Why do you like music? [직업] I want to be a photographer. [직업] Why do you want to be a nurse? [개인의 취향] What do you like?		공통	[개인의 취향] She is my favorite singer. [직업] He is the best inventor.

3. 국제교류수업에서의 AI펍톡 활용

가. 한국 학교 소개

- 1) PPT 슬라이드 교환을 통한 얼굴 익히기
- 2) 간단한 학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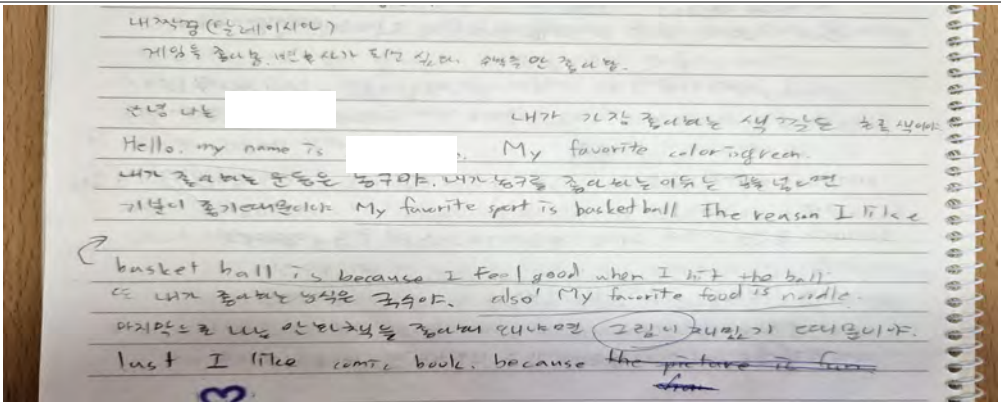
나. All about Me

- 1) AI펍톡 학습 차시 사례

자기소개	[토픽월드]-[인사와 소개]-Hello, I'm Dabin.
	[토픽월드]-[인사와 소개]-Do you like games?
	[토픽월드]-[인사와 소개]-Do you like fishing?
	[토픽월드]-[인사와 소개]-Where are you from?
	[토픽월드]-[인사와 소개]-Why do you like music?

- 2) 자기 소개 대본 작성

1차시 자기소개 대본



The image shows a handwritten script on lined paper. At the top, it says '1차시 자기소개 대본' (1st Class Self-Introduction Script). The script is written in both Korean and English. It includes a greeting, a name, favorite activities (coloring, basketball), favorite food (noodle), and a reason for liking basketball. The student's name is redacted with a white box. The script ends with 'last I like comic book, because the picture is funny'.

- 학생 A

- [토픽월드]-[인사와 소개]-Hello, I'm Dabin., [토픽월드]-[인사와 소개]-Do you like fishing? 학습한 내용 적용

다. School Life(학교 생활 소개)

- 1) AI펍톡 학습 차시 사례

학교	[토픽월드]-[일상생활]-It's time for school.
	[토픽월드]-[학교생활]-We have a cooking class.
	[토픽월드]-[학교생활]-My favorite subject is math.
	[토픽월드]-[위치와 장소]-Do you know where she is?
	[토픽월드]-[위치와 장소]-Where is your classroom?

2) 학교생활 영상 제작 및 대본 작성

2차시 학교생활 소개 대본	
The cafeteria is the first floors. There is a sanitizer machine you enter the cafeterias.	
- 학생 C	
Hoon min It's lunch time now	
- 학생 D	
and our science lab is on the 3rd floor	
- 학생 E	

- 문장을 통째로 쓰기보다는 music class, ___ floor, cafeteria, lunch time과 같은 단어 사용 빈도 수가 높았음.
- AI 팽톡에서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기보다는 번역기의 문장을 보면서 AI 팽톡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발화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라. Travel to Korea and Malaysia(지역 명소 및 축제 소개)

1) AI팽톡 학습 차시 사례

우리나라 여행지 및 지역 축제	[스피킹]-[명소]-How much is the admission?
	[스피킹]-[명소]-How can I get there?
	[스피킹]-[명소]-Dad, how long is this trip?
	[스피킹]-[명소]-Where can take this train?
	[토픽월드]-[정보]-When is Thanksgiving day?

2) 지역 명소 소개 PPT 제작 및 대본 작성

3차시 우리나라 여행지 및 지역 축제 소개 대본	
Introduction to transportation It takes an hour by subway	
- 학생 F	
The Gyenggi-jeon is open from 9a.m. to 7p.m., and the admission fee is	
- 학생 G	

- 학습한 내용을 단어 중심으로 활용함.
- 이번 차시에서는 '테마월드'의 콘텐츠보다 '스피킹'으로 해당 표현을 학습하여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4. 국제교류수업에서의 AI펍톡 활용 결과

- 학생 면담 결과 국제교류수업에서의 AI펍톡 활용이 학생의 영어 발화 능력 및 표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하지만 AI펍톡에서 제시하는 콘텐츠를 학생들이 학습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교류수업에서의 발화나 대본 작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미비함.
- 연구 대상 학급에서는 국제교류수업 전 1주일 정도만 AI펍톡을 활용하였으나 단기적인 학습으로는 국제교류수업에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므로, 학교 일과 시간뿐 아니라 가정에서 국제교류 관련 AI펍톡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AI펍톡에서 학습한 내용을 국제교류수업에서의 영어 회화 능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련 학습지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함. 일회성의 학습이 아닌 복습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 영어 발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 Study on Long-Term Exchange Programs for Developing Global Citizens

-From Historical Changes of YFU and AFS and Qualitative Surveys of Participants

Hironori ARAKAWA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KOSEN) Akashi College, Japan)

1. Summary

The presenter has been encouraging high school students to participate in "long-term exchange programs" in which they stay with host families abroad and attend local schools for a period of 10 months to a year. In this presentation, I will discuss what students have learned from this long-term study abroad program. Based on a qualitative survey of the students, I would like to discuss whether studying abroad for about a year, a much longer period than study tours, helps students in their secondary growth stage to become more global citizens.

2. What is a long-term high school student exchange program?

According to the "National Council of Exchange Program Organizations for High School Students," established in June 1992 by 10 organizations involved in high school student exchange programs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exchange programs and improve the quality of exchange programs, this type of exchange program is defined as "an exchange program in which students spend one academic year with a host family of volunteers overseas. This type of exchange program is defined as "an exchange program in which students spend one school year with a family that accepts overseas volunteers. A program in which students spend one academic year in a home hosting volunteers from overseas, attend a school recognized as a regular high school in the place where they stay, and make efforts to understand each other as young people of the same generation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nd as ordinary people in the community" (National Council of High School Student Exchange Organizations, "High School Student Exchange Program Handbook.") Program Handbook"). For example, the YFU website states.

"This program sends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to 16 of the 45 YFU exchange countries (as of March 2022) for one academic year. The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will stay with volunteer families selected by YFU from around the world while attending a local high school (a formal, post-secondary institution) for an academic year to share cross-cultural experiences with their host families and fellow students." (https://yfu.or.jp/about/)

While the length of stay for individual study abroad programs is determined voluntarily by the studen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language skills and earning credits (graduation), the length of stay for exchange study abroad programs is determined by each study institution to be one academic term (approximately 10 months), and in principle students stay with local families rather than in dormitories. Since homestays are provided free of charge, the cost of studying abroad is lower than that of individual study abroad programs. For example, as of 2022, the cost of YFU, including orientation and travel expenses in Japan, is 1.79 million yen for students sent to the U.S. and 1.6 million yen for those sent outside the U.S. As can be seen from the above descriptions, in addition to language and academic acquisition, the main focus of exchange programs is to foster long-term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local people and the sending students and to maintain grassroots exchange.

3. Origins of YFU and AFS

The two major study abroad organizations that have sent many students since the 1950s are Youth

For Understanding (YFU) and the American Field Service (AFS), both of which originated as American relief organizations for wounded and sick soldiers on the European front during both World Wars. AFS is an organization that originated as a relief organization for wounded and sick soldiers on the European front during both World Wars. After World War II, the AFS began exchange programs in 1947 amidst the trend toward peace.

The YFU, on the other hand, also pioneered in 1951 when Rachel Andresen of Michigan invited 75 West German high school students to the U.S. on behalf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e idea that the "exchange of families" between the U.S. and West Germany was necessary for world peace encouraged this activity. The U.S. Department of State, along with the Fulbright Program for higher education, was committed to promoting exchange activities through both organizations as the "High School Student Exchange Program."

In other words, in the beginning, the high school student exchange program was meant to strengthen the Western camp, and both organizations played a strong role in sending high school students to each other between Western countri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mutual exchanges with former Eastern countries have also begun, and both AFS and YFU now have partner organizations in more than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4. Acceptance in Japan

In Japan, AFS sent eight students to the United States in 1954, and YFU sent two students to the United States in 1958. Prior to the Vietnam War, travel and living expenses for AFS students were paid by AFS International Headquarters.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involved in the selection of AFS students, and the program became a semi-official exchange program.

In 1958, Dr. Kamenosuke Shinohara, the world's first developer of clinical diagnostic reagents, became the first Japanese president of YFU, and in the same year sent two students to the U.S. In 1977, Nobuhiko Ushiba,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Japan, became the second president, and whil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other ministries backed up the program, it was also able to recruit students mainly from private companies. In addition, the program has been working to recruit students for dispatch mainly from the private sector.

As can be seen from the countries that were the recipients of the reciprocal scholarships in their formation, both organizations played a strong role in sending high school students to Western countries when they were first established.

In the 1970s, the United States, which had been a major destination country, began to show signs of affluence, as symbolized by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cholarship recipients due to the Vietnam War and other factors. On the other hand, Japan, which had gained significant economic strength, began to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exchange students, diversify the countries to which they were sent, and begin to develop a full-fledged system for accepting exchange students in Japan.

In 1988,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mulgated the "Ministerial Ordinance Partially Amending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chool Education Law" (Ministry of Education Ordinance No. 4, 1988), which stipulated that "students may receive education at a foreign high school without taking a leave of absence or withdrawing from the high school they are enrolled in" and "students may receive education at a foreign high school without taking a leave of absence or withdrawing from the school they are enrolled in. The major point of change was the enactment of the "Ministerial Ordinance Amending Part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chool Education Law" (Ministry of Education Ordinance No. 4, 1988), which stipulated "that students may receive education at a foreign high school and earn credits at a domestic high school without having to take a leave of absence or drop out of their current high school. This upper limit of credits allowed in high schools was initially 30 credits, but was revised in 2010, and as of 2022, 36 credits is the maximum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this system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studying abroad as a whole. Howeve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in Japan at that time were much less diverse than today when there are many AO (admissions office) examinations and entrance examinations for

returnees. In addition, many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traditionally required applicants to have already studied in a Japanese high school. Therefore, there was a difference in temperature between public high schools, which focused on entrance examinations for public universities, and private high schools, which focused on high schools affiliated with universities, and were concerned about the loss of one year of schooling in Japan.

However, it was significant that this reform made it possible for students to study abroad without having to stay in school. 1988 was a time of unprecedented economic boom in Japan, and even after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the yen continued to appreciate in the aftermath of the Plaza Accord, creating economic space and a "study abroad boom" in the country.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is was also a time when the Japanese economy continued to invest capital overseas, and mass media coverage also helped to focus the nation's attention on foreign countries.

As we entered the 21st century, Japan's domestic economy began to lose strength in the face of the growth of emerging Asian countries, and gradually the "stagnation" of Japanese society began to be pointed out. The government itself, in turn, realized the necessity of studying abroad to develop economically useful "global human resources," and began to actively encourage companies to increase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5. Focus of the survey: Long-term exchange programs as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While the U.S. State Department took the lead in the Cold War period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with a secondary objective of strengthening Western alliances from a young age, the principle was that the "primary goal is to build peace through family exchange" between the U.S. and Germany. Through the exchange of families, cross-cultural understanding based on reality, not superficial understanding, was carried out over a long period of time, which may have led to the participants and their host families physically acquiring such understanding.

I feel that when the exchange of families from western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Philippines, began, it may have led to a broad cross-cultural understanding that was accompanied by a greater awareness of diversity than between the U.S. and Germany. This leads to the understanding of Target 4.7 of the current SDGs Indicator 4.7.1,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nd contribution to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e, which was implemented outside of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in the home. In other words, the practice of world citizenship education and ESD in the current context has been ongoing.

Today, "family exchanges" are implemented not only in Japan and the U.S., Germany, and the U.S., but also in 60 countries in both YFU and AFS in multiple regions of the world. This implementation status may further lead to a sustain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physically understand cultural diversity. In Japan, long-term exchange programs as a par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re not an event that has received particular attention.

I would like to conduct qualitative research in the form of interviews with studen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to further explore the history of change, and at the same time,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mindsets of the students who have participated. The results of this survey will determine whether long-term exchange programs can be positioned as a form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References (Japanese)

- 江夏啓子「実りある異文化体験のために」『教育と情報』平成7年5月号、文部科学省生涯学習政策局調査企画課編、1995、p.20-25
- 法澤 剛一「日本における高校生留学政策の展開と今後の課題 ―日本からの留学生派遣を中心として―」筑波大学大学院人間総合科学研究科教育学専攻『教育学論集』第1集、2005.3、p.107-127
- 横田雅弘「青年期における留学のインパクト―日本人高校生と大学生の留学経験―」多文化間精神医学会編、『文化とこころ～多文化間精神医学研究』第2号(1)、相川書房、p.12-16(1997)

대학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사회: JIANG Yingmin(Beijing Normal University)

정윤경(전주교육대학교)	탈성장론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KAZAMAKI, Hiroshi (東京都立大学)	교직과목 '다문화 공생 교육법'의 설정
NAGATA, Yoshiyuki (聖心女子大学)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for Peace: What Did University Students Learn from Children's Paintings from Ukraine and Russia?
NISHIMURA, Michiko (都留文科大学)	현실 세계를 교실 안에 재현·재구성하는 교육 방법의 추구: '아우슈비츠 · 홀로코스트'의 교육 실천을 통해
JIANG Yingmin (Beijing Normal University)	'이기' 이해와 공생프로젝트 님버 실천
HE XIAOYUN (High School Affiliated To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Ningbo, China)	

탈성장론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교육

정 윤 경
(전주교육대학교)

I. 서론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거의 모든 체제,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적 경제성장의 가정 위에서 돌아간다. 로마클럽보고서가 성장의 한계를 경고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더 많이 = 더 좋은’이라는 생각은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신념에 가깝다.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소외시키는 것을 넘어 마침내 자기 자신을 끝없이 착취하는 자기착취의 피로사회(한병철, 2012)는 가속화하고 있다.

생태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교육도 큰 변화가 있었다.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지속가능발전’과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개념의 등장이 전환점이 됐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기존의 환경교육을 대신하며 급부상했고, 그 개념 자체도 지평을 확대하면서 2015년 이후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가 사회 전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한편 ‘SDGs 같은 대책을 미디어에서도 크게 다루는데 왜 세계 이산화탄소배출량은 매년 늘어날까?’라고 문제제기하면서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결합이라는 해법 대신, 성장에 기초한 현시대 지배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비판하고, 그것과 ‘다른’ 삶의 양식과 사회를 상상하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적게’가 아닌 ‘다름’에 초점을 두는 삶의 방식과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탐색하는 ‘탈성장론’을 형성한다.이라고 한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복합적 위기에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의 삶의 양식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전환이 요청되는 시대다. 성장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삶의 양식과 체제를 탐색하는 탈성장론을 살펴보고, 이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육과 사회 전환을 위한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등장과 진화

1.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등장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1987년 Bruntland가 의장으로 있는 ‘세계환경발전위원회’¹⁾에 의해 작성된 부룬트란트 보고서에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한다(교육부, 1994). 부룬트란트 보고서는 기존의 경제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오랜 갈등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환경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실시킴 없이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또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고정된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정윤경, 2004에서 재인용). 실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 개념도 계속 진화해왔다.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1) 세계환경발전위원회는 1983년 UN의 결의에 따라 독립기구로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지구의 핵심적인 환경문제와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엔 ESD 10년(UN Decade on ESD, 2005-2014)’,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ESD 국제 실천 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me on ESD, 2015-2019)’을 거치며, 전 세계적인 교육 현안으로 주목받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ESD for 2030)’이 발표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18).

2015년 채택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발전을 가난한 국가의 아젠다로 보기보다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의 공동책임인 세계적인 문제로 보도록 촉구하면서 인류의 생태에 대한 책임감과 지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포함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통합적 목적을 꾀하고 있다(이경한 외, 2017: 32).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4번 목표 ‘양질의 교육’은 교육과 관련된 목표이다. 2019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SDG 4번 목표의 필수 요소이자 다른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 원동력”이라고 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전체를 달성하는 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설정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2.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비판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지속가능성’과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졌는데, 상이한 두 개념을 통합하고자 하지만 경제 우위의 결합, 지속가능성 자체의 모호함, 북반구 선진국을 모범으로 간주하는 남북간 형평성 문제(정윤경, 2004) 등이 비판받기도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인 ESD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주류 ESD를 비판하는 진영(Huckle & Wals; Getzin, 2019: 64에서 재인용)은 ESD의 여러 시도가 현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에 도전하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그 비판 몇 가지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닫힌 개념의 ESD’(closed circle of ESD)의 문제다(Kaufmann et al., 2019: 934). 대부분의 ESD 접근은 사회 위기의 근본 원인인 현재 지배적 패러다임을 그대로 둔 채, 오히려 문제의 지배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재생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구 교육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한하는 가정(인식)을 재생산한다. Graupe(2017; Kaufmann et al., 2019에서 재인용)는 경제교육의 예를 들어 경제 교과서, 교육, 학문에서 정상성(normality)에 대한 특정한 이해²⁾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여준다.

둘째, 도구적 접근의 문제점이다. 이것은 교육 일반에 대한 비판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오늘날 교육에 대한 주요 접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찾기에 주목한다. 도구적 접근의 교육이 갖는 문제점은 학습자의 탐구를 제한한다. 도구적 접근의 ESD가 학습자 자신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자신의 성찰이 빠진 채, 이미 규정된 지속가능한 해결책(보통 그것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것일 수 있다)을 교육하는 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지배적 교육체제가 문제의 권력구조와 패러다임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문제의 틀 안에서 가능한 솔루션 찾기는 문제를 재생산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Kaufmann et al.(2019)은 ESD의 도구적 이해가 세계관의 복잡성을 다루는 학습을 방해하고, 미리 결정된 솔루션은 미래를 탈정치화한다고 비판한다. 비판적 해방 교육이 되려면 세계의 복잡성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점에서 탈성장론은 지배 패러다임 너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주류 ESD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비판적·해방적 접근의 ESD가 시도된다. Getzin & Singer-Brodowski(2016; Kaufmann et al., 2019에서 재인용)는 비판적·해방적 접근의 ESD에서는 학습자가

2) 상품화와 시장에 대한 묘사는 사회를 자기 자신의 개인적 웰빙을 극대화하려는 무자비한 목표를 가진 독립 개체들(경쟁자)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가정한다. 이것은 ‘커먼즈’나 ‘공유경제’ 같은 시장을 넘어서는 상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된다(Kaufmann et al., 2019: 934).

지속가능한 행동이나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차적이며, 핵심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학습자의 판단임을 강조한다. 비판적·해방적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공적인 정치적 토론에 참여하고, 민주실천의 핵심인 다양한 선택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 최근 등장해서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분야에서 화두가 되는 SDGs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사이토 고헤이³⁾(2020/2021)는 ‘SDGs는 현대의 아편’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속불가능 자본주의』를 시작한다. 그가 SDGs를 아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SDGs를 포함하여 현재 제안된 기후위기의 대안들은 현실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으며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⁴⁾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비롯해 그린뉴딜, 녹색 성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그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의 대안은 ‘탈성장’⁵⁾이다.

Ⅲ. 탈성장론의 문제의식과 주요 주장

1. 탈성장론의 등장과 문제의식

탈성장을 뜻하는 프랑스어 ‘데크로상스’(décroissance)는 프랑스 고르(Gorz)가 1972년 처음 사용했다. 그는 탈성장 논의의 핵심 질문인 “지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 생산에서 무성장, 나아가 탈성장이 필요 조건이다. 그렇다면 지구의 균형은 자본주의 시스템과 양립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D’Alisa et al., 2014/2018). D’Alisa et al.(2014/2018)에 따르면, 탈성장은 무엇보다 성장을 비판하고, 더 적은 자연 자원을 이용하면서 오늘날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사회를 희망한다. ‘단순성’, ‘공생공락’, ‘공유물’(커먼즈) 등이 탈성장 사회상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탈성장론을 물질 흐름의 일률적 축소로 해석하는 것은 탈성장론에 대한 오해다. 탈성장론자들이 강조하듯이, 탈성장 사회는 소득과 자산의 공정한 분배, 공적인 것의 확대, 불필요한 노동으로 부터의 해방 등을 포함한다. 단순히 적게 생산-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산-소비하는 것을 강조한다(홍덕화, 2022: 18). 즉 탈성장의 목표는 코끼리를 날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를 달팽이로 변환하는 것이다(D’Alisa et al.(2014/2018: 27).

탈성장은 일차적으로 성장에 대한 비판이며, 이러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된다. 탈성장론은 아직 정치·사회적 의제 성격이 강해 자기완결적 이론체계를 갖추지 못한 담론 수준에 불과하다.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들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성장을 멈추자거나, 성장을 줄이자는 양적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전환하자는 내용을 주장한다.

탈성장 개념이 사전에 출판되고 여러 분야에서 탈성장 담론이 시작되는 것에 비해, 교육 분야에서 탈성장 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다. 그런데 미래교육 관련 보고서(유네스코 2050, OECD2030)가 ‘탈성장’을 핵심어로 전면에서 제시하지 않지만, 개인의 성공, 국가경쟁력, 경제발전의 가치를 강조해온 기존의 교육목적을 성찰하면

3) 사이토는 독일 마르크스 생태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일본의 경제학자다. 그의 학위논문 영어판은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이고, 인류세 기후위기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담은 『지속불가능 자본주의』가 있다. 그의 탈성장론은 사회생태주의 입장에서 대안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 증거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년 2.6%씩 꾸준히 증가하는 사실을 들고 있다. 사이토는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서, 유엔이 강조하고, 각국 정부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는 지구 전체의 위기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SDGs는 눈앞의 위기를 가려주는 효과 정도밖에 없다는 것을 비판하며, 아편으로 도망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장한다.

5) 탈성장이란 지구 한계를 주의하면서 경제적 격차 해소, 사회보장 확충, 여가 증대 등을 중시하는 경제모델로 전환하는 일대 계획이다. 그는 풍요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커먼’(common)의 재건을 들고 있다(고봉준, 2022).

서 모두를 위한 웰빙과 지속가능성으로의 변혁을 강조하는 것은 지배적인 체제를 성찰하는 점에서 교육의 미래에 탐색은 탈성장론과 만날 수밖에 없다. 외국 문헌의 경우 탈성장 논의를 교육에 접목하여 탈성장교육(학)을 이론화하는 연구(Kaufmann et al., 2019; Jones, 2021)가 있고, 탈성장론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재구성하려는 연구(Getzin, 2019, 2021)도 있다. 국내 연구는 성장주의에 토대를 둔 교육이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공’(公)이 사라진 교육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문명(탈성장)으로의 전환이 ‘교육’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역설하는 것(남미자, 2023) 정도다.

2. 탈성장론의 지적 배경과 교육에의 시사점

가. 공생공락(conviviality)과 자율성

탈성장론의 핵심 아이디어의 하나인 ‘공생공락’⁶⁾은 일리치에 의존한다. 일리치는 근대 제도를 양극의 스펙트럼으로 설명한다. 왼쪽 끝에 ‘공생적(convivial) 제도’가, 오른쪽 끝에 조작적(manipulative) 제도가 있다. 현대사회의 대부분 제도는 오른쪽에 해당하며, 왼쪽은 참여자의 자발성과 의사소통, 협력이 주된 특징을 보이는 공생적 제도이다. 근대사회가 되면서 제도의 스펙트럼이 공생적인 극에서 점차 조작적인 극으로 이동한다. 조작적 제도의 경우,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수록 사회적·심리적으로 중독에 빠진다. 학교제도는 공익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형적인 위선적 공익사업의 대표 예라고 일리치는 비판한다(Illich, 1970/2004: 94-102 참조).

일리치(1970/2004: 95)에 따르면, 바람직한 미래에 도달 여부는 제작과 파괴, 생산과 소비밖에 할 수 없는 생활양식을 유지하기보다, 오히려 자발적이면서도 서로가 관계해 가면서 존재할 수 있는 생활양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제작과 파괴, 생산과 소비만의 생활양식은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통하는 길이다.

공생공락과 자율성은 서로 보완하는 개념이다. 공생공락의 즐거움은 타인을 예측하거나 착취해서 얻는 쾌락과 소비주의의 대안이다. 탈성장을 향한 길은 자율성을 복원하기 위한 여정이며, 서로를 소외하는 타율적 체계에의 의존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D’Alisa et al., 2014/2018: 115).

나. 사회적 상상 (social imaginaries)

‘사회적 상상’은 카스토리아디스(Castoriadis)가 『사회의 상상적 제도』(1967)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카스토리아디스에 따르면, 우리의 상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회제도가 상징적 네트워크와 법, 권력구조, 종교 같은 체계를 통해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제도 중 ‘교육’은 사회적 상상을 지배하는 핵심 제도다. 라투슈(Latouche)는 카스토리아디스의 사회적 상상 개념에 의존해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D’Alisa et al., 2014/2018: 214에서 재인용).

... 성장과 개발이 일종의 믿음이라면, 그래서 한 국가경제에서 ‘진보’를 비롯한 모든 기초 범주가 가지는 상상의 의미가 이 믿음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그 상상계가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성장 사회에 도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상상계를 탈식민화하는 것을 뜻한다.

테일러(Taylor)⁷⁾도 사회이론에 비해 ‘사회적 상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가 이 용어를 통해 의미하려고

6) 일리치가 근대적 제도의 반대편 스펙트럼에 있는 제도 특성으로 본 ‘convivial’의 사전적 의미는 ‘friendly and pleasantly’을 뜻한다. ‘공생적’ 또는 ‘상호친화적’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즐거움’의 의미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생공락’이라고 번역한다.

7) 찰스 테일러가 ‘사회적 상상’을 말한 것은 그의 책 『근대의 사회적 상상』(2004/2010)에서다. 그가 영향받은 사람으로 카스토리아디스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지만, 내용상 우리가 사회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지배적인 것을 설명하는 점에서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바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실존에 대해 상상하는 방식,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식, 사람들 사이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 통상 충족되곤 하는 기대들, 그리고 그러한 기대들의 아래에 놓인 심층의 규범적 개념과 이미지들이다. 테일러가 사회적 상상과 사회이론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하는데, 첫째, 사회적 상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환경을 '상상하는' 방식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이론적인 용어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상상'은 이미지와 이야기, 전설 등에 있다. 둘째, 이론은 소수의 전유물이기 쉬운데, 사회적 상상은 사회 전체는 아닐지라도 폭넓은 인간 집단에 의해 공유된다. 셋째, '사회적 상상'이란 공통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정당성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공통의 이해다(Taylor, 2004/2010:43-45참조).

이상에서 볼 때, 사회 전환을 위해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상상을 탈식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상상 형성에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고 지배적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상상의 전환, 라투슈의 표현으로 하면 '사회적 상상의 탈식민화'가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탈성장론이 교육에 갖는 시사점이 라고 할 수 있다.

IV. 탈성장론의 관점에서 본 ESD

1. 탈성장론과 ESD의 유사성

탈성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성장에 기초하고 있고, 성장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현 사회의 주된 문제로 지목하지 못하는 점을 비판한다. 그러나 탈성장의 이론적 배경과 실천을 소개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론과 실천과 유사성을 보인다. 예컨대, 탈성장의 다양한 이론과 행동에는 풀뿌리 경제 실천으로 생태공동체, 협동조합, 도시 텃밭, 지역화폐, 성장 없는 복지제도 등이 있다. '공동체 통화'라 불리는 '지역 화폐', 코로나19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기본소득이나 일자리 보장을 위한 모색 등은 이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내용⁸⁾을 보면, 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일상의 삶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소개된다. 이러한 사례는 탈성장의 지적 논의와 행동과 많은 부분 중첩된다.

2. 주류 ESD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주류 ESD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탈성장 담론 이전 비판적 ESD 진영에서도 시도해 오고 있다. 비판적 ESD 진영은 지속가능성 달성을 방해하는 교육적·사회적 메카니즘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생태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탐색하면서 비판이론과 비판이론에 기초한 비판교육학과도 관련된다. 탈성장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가. 성찰을 통한 관점의 전환: 사회적 상상 탈식민화

탈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주류 ESD는 현재의 패러다임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 패러다임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상유지 - 혁신 - 전환(변혁)'을 연속체로 볼 때, 탈성장 논의는 현재 지배적인 성장 패러다임 자

8) ·공유냉장고를 활용한 수원의 취약계층 보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광주의 주1일 채식운동,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원주의 건강반장 육성,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함께 만드는 전주의 선미촌,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구의 RE100 시민클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충남 먹거리연대의 네트워크 사업,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통한 무장애도시를 만드는 천안, ·창원의 함께하는 시민장터 '길마켓', ·인천의 소매습지 시흥갯골보존을 한 위킹그룹 사업(윤희철, 2023)(<https://www.eroun.net> 참조).

제의 전환을 지지한다.

관점을 전환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인식체계를 성찰함으로써 시작된다. 자신의 인식체계 성찰은 탈성장론의 ‘사회적 상상’의 탈식민화와 통한다. 또한 이것은 비판교육학에서 말하는 변혁적 학습과도 관련된다. ‘변혁적 학습’은 은 사고, 감정 및 행동의 기본 전제에서 심오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을 극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바꾸는 의식의 변화이다. 그러한 변화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포함한다. 이런 것은 모두 비판적 성찰과 변혁적 행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점에서 ‘비판 이론’과 ‘비판적 교육학’과 맥을 같이 한다. 메지로(Mezirow)(1991)의 전환학습이론에 따르면, 학습은 의미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둘째, 새로운 의미들을 학습하며, 셋째, 가정에 대한 반성(reflection)을 하면서 의미들의 전환이 일어난다. 넷째, 반성과 비판을 통해 관점 전환을 갖게 된다. 메지로는 전환이론이 단계론이 아니라, 반성성(reflectivity)을 향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Prádanos(2016; Kaufmann et al., 2019에서 재인용)은 학생들이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과 자신이 안다고 가정하는 많은 상투적인 사실이 실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지배적인 상상에 의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전파된, ‘학습된 무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설계한다. Getzin(2019)도 탈성장 논의를 통해 주류 ESD가 더 나은 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하면서, 탈 성장에 기반한 ESD가 길러주어야 할 능력으로 ‘경제성장의 영향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묻고 비판하는 능력’, ‘경제성장이 어떻게 문화와 ‘사회적 상상’을 형성하는지를 성찰하는 능력’, ‘경제성장과 관련된 문화적 관행에 저항하고 ‘탈학습’(unlearn)⁹⁾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나. 교육의 정치적 차원 강화

ESD가 탈성장론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육에서 정치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비판이론과 비판교육학에 기초한 탈성장교육은 교육의 정치적 차원¹⁰⁾을 강조한다.

교육에서 정치적 차원 확대를 역설하는 Kaufmann et al.(2019)에 따르면, 탈성장론은 인종주의, 계급주의 또는 성차별과 같은 현재 경제 패러다임에 내재된 권력구조가 보여주는 차별을 비판한다. 이들은 녹색성장 개념과 같은 주류 ESD가 말하는 해결책이 내장하고 있는 권력 구조를 드러내고 성찰을 통해 더 나아가기를 시도한다.

이상에서 볼 때,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단지 환경교육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공동의 웰빙을 위해 민주시민으로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김누리(2022)말대로, ‘민주주의가 결판나는 곳은 투표장이 아니라 교실’이고 ‘교실은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면 교육에서 정치적 측면을 배제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차원이 강화될 때,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 탈학습의 사전적 의미는 “새롭고 때로는 더 나은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적인 방법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to make an effort to forget your usual way of doing something so that you can learn a new and sometimes better way)을 뜻한다. 탈학습은 학습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학습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깨닫게 한다. 기존의 교수법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새로운 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출발점 수준이 어디인가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탈학습은 새로운 관점을 배우거나 혹은 잘못된 관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경우, 출발점이 기존 지식과 믿음에 대한 회의 단계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

10) 비판적 교육학자로 분류되는 프레이리(1985)에 따르면, 가르치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듣기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중립적 입장을 떠는 것은, 빌라도가 그랬듯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이 된다. 가치지향적 활동으로서 교육은 특정한 방향과 입장, 신념과 가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 또한, 교육을 포함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사안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 고봉준(2022). 기후위기와 생태사회주의: 사이토 고헤이와 안드레아스 마뤼의 논의를 중심으로. **후마니타스포럼**, 8(2), 9-29.
- 교육부(1994).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누리(2022). 민주주의 성패는 교실에서 갈린다. **한겨레신문**(2022.01.04)
- 김현우(2019). 탈성장, 도덕적 가치를 넘어 현실대안의 그물망으로. **모심과 살림**, 20: 78-93.
- 남미자(2023). 학교에서 탈성장을 가르칠 수 있을까?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편(2023). **탈성장을 상상하라: 성장신화의 종말과 이후 시대**.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경한 외(2017). 국제이해교육 관련개념 분석을 통한 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지향성에 관한 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12(1), 1-47.
- 정윤경(200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가? **교육철학**, 32집, 181-19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2). 초·중등학교 지속가능발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병철(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 D'Alisa et al.(2014). **탈성장 개념어 사전**(Degrowth : a vocabulary for a new era). 강이현 역(2018). 서울: 그물코.
- Freire, P.(1985). "Reading the world, reading the words: an interview with Paulo Freire." *Language arts*, Vol, 62(1). 양은주 역. (교사를 일깨우는 사유 중 일부).
- Getzin, S.(2019). Shifting education towards sustainability-how degrowth can transform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Zurich 대학 박사학위논문.
- Getzin, S.(2021). Can Degrowth-informed Education Transform Society? (<https://degrowth.info/en/blog/can-degrowth-informed-education-transform-society>).
- Illich, I.(1970). **학교없는 사회**(*Deschooling society*). 심정보 역(2004). 서울: 미토.
- Jones, A.(2021). What is an educational good? theorising education as degrowth.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55: 5-24.
- Kaufmann, N.(2019). Building new foundations: the future of education from a degrowth perspective. *Sustainability science*, 14: 931-941.
- Mezirow, J.(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Saito, K.(2020). **지속불가능 자본주의**(人新世の資本論). 김영현 역(2021). 고양: 다다 서재.
- Taylor, C.(2004). **근대의 사회적 상상**(Modern social imaginaries). 이상길 역(2010). 서울: 이음.
- <https://www.eroun.ne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in Japan

KAZAMAKI Hiroshi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0. Definition of Terms

The first thing that needs to be explained is what the term "multicultural conviviality" means.

I use the term "multiculture" as a translation of the Japanese term "tabunka". And I use the term "conviviality" as a translation for the Japanese term "kyosei". There is much debate about how to translate the Japanese word "kyosei" into English. Academic societies calling themselves "Society of Kyosei Studies" have abandoned the translation of the society's name into English. The term "conviviality", which I will use as a translation, follows the idea of Ivan Illich's terminology. It describes a relationship in which "individuals" living together in harmony and vivacity.

1. Introduction — Discovering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through Encounters with Refugee Children

I became involved in what is now called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in the late 1980s. It was the time when the term "multicultural conviviality" was coined by Japanese people in the midst of social change. In 1987, an incident occurred in Kanagawa Prefecture in which a Cambodian refugee murdered his wife and children. This was a shocking incident for me. After the incident, a group was formed to think about the case. The people in the group believed that the cause of the incident was Japan's closed society. At that time, the term "multicultural conviviality" was first coined in the Japanese language.

My participation in the group's meetings led me to found the "Tama High School Japanese Language Volunteer Circle" in February 1990, a volunteer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teaching schoolwork to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of Vietnamese and other refugee backgrounds. One of my goals was to bring "Asia" into the high school where I taught.

2. Birth of the Term "Multicultural Conviviality"

When and how did the terms "multicultural conviviality" and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come into use? It was in 1991 that the term was first used in an academic journal. By established theory, it has been said that it was 1993. In fact, I myself was the first person in Japan to use this term in literature. In an academic journal published in November 1991, I used this term to describe the future of education in Japan. Here is what I wrote in the journal;

"Japanese language education should not be allowed to play a role in the unilateral imposition of culture, the so-called 'assimilation' policy. Japan made this mistake before the Asian-Pacific War. Without reflection, this has led to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We hope

that these refugee children's study rooms will become "a model for a multilingual society, a society in which multicultural conviviality is realized."

The term "multicultural conviviality" was not coined by me alone. It is a word created simultaneously by different, as yet unknown people. When the term "multicultural conviviality" was created, what kind of thinking went into it? In a text written in 1992 entitled "Anti-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in Ethnic Education", the following words can be found.

"Recently, the number of non-Korean foreign children in Osaka schools has been increasing. We hope that Koreans and their other new foreign children, as well as Japanese children, will walk hand in hand and become players in the creation of a society in which multicultural conviviality is realized." Here, it is clearly argued that the majority is also a player in creating a society in which multicultural conviviality is realized.

Going back a little further in time, Pastor Lee In-Hwa, a Korean living in Japan, a citizen of Kawasaki City, said in 1985. "No movement can touch people's hearts if it is not supported by universal truths. In this sense, our goal is to realize a society in which we can live together. It is a completely new kind of society that accepts ethnic differences. In other words, it is to overcome the myth of a mono-ethnic society. "

This phrase "living together" is the origin of the word "conviviality". It was a forerunner of "Learning to Live Together" expressed in the "Four Pillars of Learning" in the "Dror Report" submitted to UNESCO in 1996 that Pastor Lee In-Hwa had the idea of "living together". What is important is that "living together" is a "goal". In other words, it is something that is still in progress and has not yet been achieved.

Pastor Lee In-Hwa's words were written at a time when the anti-fingerprinting movement, also known as the Japanese civil rights movement, was expanding. In response to this movement, hate mail was sent to those who refused to have their fingerprints printed. In other words, the opposing concept of "conviviality" is the violence of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During this period, Koreans living in Japan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also changed attitudes dramatically. They had not used their real names, and began to value their Korean names, that expressed their ethnicity.

Japanese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were shocked to learn that they had never been aware of the discrimination suffered by Koreans living in Japan, and they began to question their own "privilege". The Koreans living in Japan realized that they would no longer pretend to be Japanese. The Japanese realized that they were on the side of discrimination and tried to become "allies". The awakening of Koreans living in Japan and the Japanese that occurred here created a movement for the "live together" society. I would like to ca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s living in Japan and the Japanese of that era "authentic-multicultural conviviality". This term was created from the phrase of the Korean live in Japan, "let's live together," which was "the call of love" from the minority to the majority.

3. The Emergence of "Pseudo-Multicultural Conviviality"

Around the year 2000, the term "multicultural conviviality" suddenly began to be used at

the national level, and now the term is used everywhere,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a bargain version of the term "multicultural conviviality", "pseudo-multicultural conviviality". This may have its roots in the "Proposal for the Acceptance of Foreigners" issued by Keidanren (Japan Business Federation) in 2004. The background is the decline of Japan's working population.

The proposal mentions "the role of local communities in promoting multicultural conviviality," including counseling services for foreigners, Japanese language learning, housing issues, education for children, and even the role of education for the majority. Here, the discourse of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rather than the "dignity" of "individuals" has been attached to the term "multicultural conviviality".

I would like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above-mentioned "authentic-multicultural conviviality" and the term "pseudo-multicultural conviviality" accompanied by the discourse of "acceptance of foreign workers" that has come into use since this era.

"pseudo-multicultural conviviality" obscures the image of the minority who tried to "live together" with the majority while resisting th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at existed in the era when the term was "coined", and the majority who tried to "live together" as allies by changing themselves and their society in response to such changes.

Although "pseudo-multicultural conviviality" is not the same as "authentic-multicultural conviviality", most of the criticism of the "multicultural conviviality" discourse at the research level is often a criticism of this "pseudo-multicultural conviviality". For example, Choi Seoungkoo, a Korean living in Japan, states, "Japanese policymakers equate 'conviviality' and 'integration' as the same concept. Multicultural conviviality is the ideology of modern colonialism". In 2023, Prime Minister Kishida, who change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or the worse, spoke of "conviviality with foreigners". His use of the word "conviviality" unfortunately proves the validity of Choi Seoungkoo's criticism.

Currently, the common definition of "multicultural conviviality" is often based on the 2006 report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Conviviality". The report defines "multicultural conviviality" as "people of different nationalities and ethnicities living together as members of a local community, while recognizing each other's cultural differences and seeking to establish 1equal relationships". However, what the report fails to point out is the following;

- (1) The fact that from the time of colonial rule to the present, Japanese society has forced "assimilation" without recognizing mutual cultural differences, has not tried to "establish an equa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 (2) The fact that hate speeches and hate crimes, such as discrimination, division, and sometimes even murder, which are at the opposite side of "living together", have occurred in Japan's history so many times.
- (3) The fact that political leaders have falsely asserted that "Japan is a mono-ethnic group".
- (4) The fact that the real actors of the Koreans living in Japan who advocated "living together" as "the calls of love" to the majority are hidden.

The definition is problematic in that it does not take these perspectives into account.

Respecting the minds of those of us who coined the term "multicultural conviviality"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we believe that the definitions of "multicultural conviviality" and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should be as follows.

First, "multicultural conviviality" is realized when the majority, aware of its privilege, transforms itself and becomes an "ally", when the human rights of minorities are protected, when their civil rights are guaranteed, and when minorities and the majority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vivacity. And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is an education that fosters the knowledge, attitudes, and skills necessary to realize such conviviality with a view to taking action.

The term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is confusingly similar to the term "multicultural education," which is a term used by James Banks and others in U.S. educational studies. This term is often used at the level of educational research in Japan, such as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e believe that this term should be used with cau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Japan. It is necessary to learn about the multicultural situation in the US. However, when we talk about future education in Japan, using the term would mislead. It is simply transplanting the concept of the U.S., separating the above-mentioned Korean living in Japan-driven practice of "living together" from it.

4. Against those Who Reject "Authentic-Multicultural Conviviality"

Recently, we hear the term "global citizenship," but Japanese society today does not even have the sense of "East Asian citizenship" as a precondition for "global citizenship," as those who share the common historical and social challenges of living in East Asia. In order to realize a truly multicultural convivial society in Japan, it will first depend on how this sense of "East Asian citizenship" can be fostered.

In addition, living in Japanese society, we sometimes feel a movement to exclude "those who strongly advocate". For example, when a young Japanese person was taken hostage in the Iraq War, he was strongly bashed. The same can be suspected as the background of the suicide of a TV personality in 2023 who embodied sexual diversity. Even for minorities such as foreigners living in Japan, people tend to accept only those who "do not advocate" for them. For example, a 3F (fashion, food, festival) type event is acceptable. However, if you advocate for a higher right or identity, you are likely to face exclusion,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This distorted mental framework and social structure is the background of hate speech and hate crimes.

It is pointed out that the November 2015 hate demonstration in Sakuramoto, Kawasaki City, was planned in response to a local demonstration for peace in Sakuramoto held by first- and second-generation Korean women living in Japan, "Halmoni", during the Diet debate on the Security Treaty Law. The sense of civil society that it is natural to advocate has not taken root in Japanese society. I feel this strongly when I see the kind of advocacy of civil democratic society that I see on the streets of Korea.

5. The Creation of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in the Age of Hate" as the Successor to "Authentic-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What is the goal of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First, the goal may be to "understand" different minority cultures and their ways of being. In the primal stage, this makes sense. However, if the "privileged" majority only "understand" and "exhibit" minority cultures without reflecting on their own privilege, the pseudo-multicultural conviviality mentioned above could not be prevented.

In order to restore "authentic-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it is necessary to relativize and "de-center" the privileges of the majority culture as a goal. Another important perspective is "multiple identities," which, in my words, have rainbow-like gradations. For example, being a Japanese citizen and an East Asian citizen at the same time is an important aspect of "hybridity".

The Hate Speech Elimination Act, passed in 2016, calls for significant changes in education in Japan. Article 6 of the Act states that "educational activities shall be carried out to eliminate unjustified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and practice of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in the age of hate" will foster citizens who are allies of the minority and defenders of their human rights. It is an education to overcome hate speech and to see the minority as an essential part of society.

6. The Need to Establish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Courses" in Teaching Programs

What we need to do now is to change education in order to transform the majority. At the high school and university level,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ely incorporate multicultural conviviality-related community volunteerism. The field has the power to transform young people. And we must hire many "multicultural" teachers, even through affirmative action. Now, foreign residents in Japan can become teachers, but the number is still small. Teachers who are connected to foreign countries can serve as good role models for the foreign-connected students and help raise awareness of multicultural conviviality among Japanese students.

Above all, we need to introduce multicultural conviviality subjec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or at least include the essence of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in existing subjects such as social studies and special activities. And as a prerequisit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urses in teacher training programs to train teachers who can be allies to the minority and foster citizens who protect their human rights. In its report "Building a New Era of Japanese School Education in Reiwa",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also calls for the need for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In order to establish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in the age of hate" that inherits the idea of "authentic-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we must deepen the discussion on the creation of educational methods for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nviviality".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for Peace

– What Did University Students Learn from Children's Paintings from Ukraine and Russia? –

Yoshiyuki Nagata

(University of the Sacred Heart; President, JAIE)

1. Background and Objectives

More than a year and a half has passed since the Russian military forces crossed into Ukraine. It can be said that this 'war' has continued to produce many casualties, while at the same time envelop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and even outside the countries in a vague sense of insecurity and bringing about feelings of frustration and helplessness.

In the course of meeting these young people, the author was involved in holding the 'Ukrainian and Russian Children's Art Exhibition - Towards a Reimagining of Peace', which lasted two months from May to July 2022, exhibiting 18 children's paintings from both countries on the university campus, and showing the children's depiction of everyday scenes before the war. The exhibition provided an opportunity for people inside and outside the university to rethink about peace through the expressions of children on their ordinary lives.

Two bamboos were erected in the exhibition space, and visitors were encouraged to write their thoughts on strips of paper and string in the colours of the Ukrainian and Russian flags and hang them up. At the end of the exhibition, poems by poets from both countries and picture book readings by authors from both countries were also held.

The exhibition was open to the public and was covered by the media, including newspapers and television, and was also used in classes related to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t the university, where students and staff stopped and thought deeply about peace.

In recent years, when the deep transformation of learner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not only i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ut also in 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noteworthy how students' awareness and values have been transformed through this kind of SEL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is report, we would like to share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survey that asked students about the changes in their awareness and perceptions before and after viewing the exhibition, and also examine the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of SEL.

2. Overview of the Survey

In the first semester of 2022, the above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154 students in total) enrolled in two classes taught by the author. The phases of the series of surveys were

divided into three. First, a pre-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during the customary classroom lectures; second, the students viewed the paintings and submitted written impressions during the event; and third, they completed a questionnaire after viewing the paintings.

The questionnaire included a series of questions asking about knowledge and impressions of both countries, such as national flags, as well as questions about feelings about the war, the impressions of the children's paintings, what they could do for peace, and so on. The number of valid responses was 133, showing a change in the students' impressions and awareness of the two countries before and after viewing the paintings.

3.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This section presents some of the overall trends in the transformation of students' attitudes and emotions before and after the viewing, as well as an analysis of their impressions of Ukraine and Russia, respectively.

The questionnaire shows that while some students felt frustrated and helpless, others were more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and peace in the region. In the question on 'feelings about the military encroachment by Russia' (multiple answers allowed), the most common responses were 'fear' (98 students) and 'sadness' (97 students), followed by 'confusion' (56 students). This was followed by 'bewilderment' (56 respondents). In the free-response questions, there were not a few responses such as "I am heartbroken to see the news reports" and "I feel sorry", while others tried to take a positive view of reality, such as "the children are still living life to the fullest".

As for the students' impressions of Ukraine,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were 'neither' (74%) before viewing the paintings, but after viewing them this decreased to 35%, with students saying they had a 'very good image' (16%) or a 'good image' (48%). The majority of respondents answered 'yes' (75%) when asked if their impression of Ukraine had changed after viewing the paintings. As a description of the change in impression, one respondent wrote: "Ukraine has an image of rich nature, but at the same time I had a dark image of Ukraine, partly because of the intrusion. (...) I have now a new image of the happiness and warmth of being close to family and the people I love, and the beauty of nature, which has changed my image of Ukraine to a slightly brighter one." I only saw the sadness of the Ukrainian children (...) but now I have a warmer image of Ukraine in the sense that I know about the peaceful days before that. Many students did not have any impression of Ukraine at first, or had a gloomy impression of the country due to its military aggression, but it became clear that this impression changed to a positive one through the viewing of the film.

Before viewing the film, about half of the students had a 'bad image' (41%) and 'very

bad image' (7%) of Russia, but after viewing the film, 'bad image' (14%) and 'very bad image' (3%) decreased to about one fifth of the total.

When asked whether their impression of Russia had changed after viewing the children's paintings, around half of the respondents answered 'Yes' (48%). 'I had a strong image of Russia as a cold country, and I had prejudices in my own mind that I might see coldness in the children's drawings (...) However, I now regret that I had this image of the children, even though they were innocent.' 'I had the impression that Russia was to blame for the current war, but (...) I now realise that the Russian side is also in a difficult situation.' Although many students initially had a negative impression of Russia, it became clear that many of them realised through the viewing of the children's paintings that the negative aspects were only part of the reality and not all of it was bad, and that their own perspectives and thinking were biased.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 effect of becoming aware of one's own prejudices through the everyday innocent expression of the children is unique to art-mediate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현실세계를 교실 안에 재현하고 재구성하는 교육 방법의 추구

~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의 교육적 실천을 통해 ~

니시무라 미치코

(쓰루 대학교)

1. 세계의 리얼리티와 교실의 연결

지금 우리는 전쟁, 팬데믹, 기후변화라는 인류사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대량 난민을 양산하고 격차, 빈곤,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전쟁 확대의 공포 속에서 자원과 식량 확보가 '전략'이 되어 세계 전체가 무력항쟁에 휘말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 속에서 교육은 학교가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위기와

우리의 일상, 학교 교육의 내면에는 큰 괴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전쟁과 난민은 먼 지역의 일, 위기는 먼 미래의 일로 현실세계의 문제나 위기는 공유되지 않고,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교사와 아이들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는 듯하다.

지금 다시 한 번 인류사적 위기를 나의 일처럼 여기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세계 현실과 교실을 연결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현실 세계와 역사를 교실 안에 재현, 재구성하고, 거기서 인간으로서의 질문을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세계를 읽어내고, 그것에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 있는 세계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배움이 '위기의 시대'의 교육방법으로 지금이 바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내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사회과와 종합학습에서 다루었던 '6·11', '아우슈비츠', '한일역사' 등의 학습은 현실세계를 교실(수업)에 재현하는 것을 통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포착하고, '주권자'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실천이었음을 되돌아보고, 현재 교직을 꿈꾸는 대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실천의 의의와 교육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의 '아우슈비츠 학습' 실천과 대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2. 교실 안에서 세계를, 역사를 재현하고 재구성하다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의 실천으로부터

(1) 안네 프랑크의 생애를 알아보자

6월 12일 안네 프랑크의 생일을 계기로, 매일 아침 수업 전에 6학년 아이들에게 『안네 프랑크』를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안네가 불쌍하다'는 생각에서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왜 유대인을 나치는 박해를 했을까? 학살을 했는가', '국민들은 왜 히틀러를 따랐을까' 등의 질문이 아이들 사이에서 생겨났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서로 발표했습니다.

안네와 유대인 박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NPO법인 홀로코스트 교육자료센터의 이시오카 후미코 씨를 강사로 초빙해 워크숍을 진행했다. 안네의 은신처 내부를 영상으로 탐험하고, 안네의 방 크기를 끈으로 만들고 일기를 낭독하는 등 수십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었다.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알고,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를 방문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폴란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를 방문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차별과 박해, 학살의 실상을 유적과 유물, 체험자의 증언을 통해 보고 들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용소의 생생한 흔적과 수많은 유물들에 충격을 받았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35년간 아우슈비츠 박물관 관장을 지낸 카지미슈 스몰렌 씨(당시 91세)의 이야기였다. "아우슈비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그것이 희생된 것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사회과나 종합학습 등을 통해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 아이들과 함께 '홀로코스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한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를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과 의문을 품었다.

▶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정말 끔찍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문밖의 손톱 자국을 보며 질식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갔을까 생각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전쟁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히틀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왜 다른 사람들이 찬성했는지 궁금하다.

▶ 스몰렌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치에 저항한 것은 매우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에 대해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만행을 저지른 나치 히틀러에 대한 분노, 나치에 동조한 국민과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 의사에 대한 불신, 가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 나치에 저항한 사람들의 용기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찬사 등 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4)) '홀로코스트'는 왜 일어났는가?

아우슈비츠의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아이들이 품었던 생각은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이었다.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전범 폴란드인의 경험에서 나온 말 속에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인간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우선시되고 정당화될 때마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초등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양성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배타주의로 인해 많은 생명과 소중한 인권이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어떤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전달했습니다.

(5) 가까운 '아우슈비츠'를 생각하다

일련의 학습 중 한 권의 책 『아우슈비츠의 아이들』(아오키 진나, 그린피스 출판사, 2000년)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다. 그 책은 '120센티미터 높이의 가로대 아래를 통과해 보자.'로 시작해서 이런 문장으로 끝맺고 있었습니다.

"1945년, 나치 독일은 멸망했다. ... 독일은 나치가 저지른 일이 반인도주의적 범죄임을 인정하고 지금도 계속 배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는 정말 끝났을까? ...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수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 구분하려는 생각은 없는 것일까? 남들과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안되는 인간'이라고 단정 짓는 일은 없는 것일까? 남들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안되는 녀석'이라고 말하며, 동료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없을까? 강한 자에게 외면당하기 싫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해버리는 일은 없을까? 나만 잘되면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을까? ... 우리 마음속에 아우슈비츠는 정말 없는 것일까?"

이 책을 읽고 서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차별과 따돌림, 동조와 무관심을 가까운 '아우슈비츠'로 꼽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아우슈비츠는 없는지' 계속 질문하지 않으면 다시 아우슈비츠가 되풀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6) 채플린의 메시지를 받은 어린이들의 모습

학습의 발전으로 종합학습 시간을 이용해 채플린의 작품 '독재자'(미국 1940)를 함께 감상했다.

"나는 독재자가 되고 싶지 않다. 지배하고 싶지 않다. 가능하면 돕고 싶다.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류는 서로 도와야 한다. 타인의 행복을 염원하며 살아야 한다. ... 병사들아, 희생하지 마라. 독재자의 노예가 되지 말라. 꿈을 모르는 자들만이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인생은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독재자 채플린 역의 독재자가 병사들에게 들려주는 대사다.

영화를 본 후 한 어린이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다. "나는 세계 희극왕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잔인한 세상을 바꾸어 평화롭고 자유로운 멋진 나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반성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만, 절대 잔인한 짓을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해요."

(7) 창작극 발표회 - 인간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아이들

학습을 마무리하는 학예회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창작극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대본을 만들고, 무대 배경, 음향과 조명, 의상, 도구 등의 분장도 모두 아이들이 담당하고, 감독과 조감독의 지도 아래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했다. 제목은 'Peace and Freedom'으로 정했다.

학예회 본 공연에서 아이들은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들 앞에서 자신들의 창작극을 당당하게 공연했다. 과거의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배웠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뜨겁게 이야기했다.

"지금도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우슈비츠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괴롭히거나, 자신만 안전하다면 좋겠다고 버리는 일, 없나요?" 라고 말했다.

"확실히 지금도 아우슈비츠는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차별과 따돌림, 무관심".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전쟁에 반대하는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간은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평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멋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고 싶다..."

이 대사는 아이들의 배움에서 나온 것으로, 한 마디 한 마디가 현실 세계와 자신을 돌아보며 인간의 존재를 묻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다.

3. 아우슈비츠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다

'아우슈비츠'를 생각하고 전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어린 마음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발달 단계에 맞는 교재와 학습 방법을 고안해내야 합니다. '안네의 일기'를 읽고, 워크숍을 도입하고, 영화 '독재자'를 감상하며 채플린의 메시지도 접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정리로 '창작극'이라는 표현 형식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아우슈비츠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자신의 발밑으로 눈을 돌렸다. 학예회가 끝난 후,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우슈비츠'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했다.

"..."연극은 대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인간관계도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어? 조금의 욕도 못 하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겠어! '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 같은 사람도 결국은 히틀러를 비판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 세계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내 주변부터 평화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왜 남을 괴롭히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어른이 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깨끗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싶다."

자신의 발밑으로 눈을 돌려 음담패설과 무관심, 동조와 무저항 등 인간의 교활함과 어리석음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변화된 자신을 자각하고, 어른들과 자신들에게 인간의 삶의 방식과 사회의 모습을 묻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4. 교실'을 세계의 리얼리티와 연결하는 배움'을 대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현실세계의 문제, 직면한 사회문제(전쟁과 테러, 환경위기, 핵위협, 차별과 인권, 격차와 빈곤, 증오의 연쇄 등)와 단절된 오늘날의 학교교육의 현실에서 아이들

을 사회의 주체로 성장시키고, 주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개척하는 수업 실천으로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교실 안에서 세계(현실 사회)를 재현, 재구성하는 교육 방법"을 소개합니다.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하고 있는 대학 수업에서 소감과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도록 했다.

【대학생 반응】

◇"세계(현실사회)를 교실 안에 재현, 재구성하는" 교육방법은 미래 사회를 만들어갈 아이들의 주권자 의식을 키우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교실에 세상을 재현함으로써 문제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깊이 고민하는 것을 통해 아이들에게 당사자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 자신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학습에 임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창작극으로 만들어 학예회에서 발표하는 모습이였다.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더해 이 실천에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창작극으로 만들어 어른들을 향해 발신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의지와 사회의 모습에 대한 질문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한 것은 아이들의 주권 의식을 크게 성장시켰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교육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한 실천을 해보고 싶다.

◇나는 지금까지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운 기억이 없다. 또한 내가 받았던 사회과 수업은 아이들이 역사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주고받는 주체적인 학습이 아닌, 단순히 지식을 일시적으로 암기하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배운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실습을 통해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현대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일을 가까운 시사문제나 사회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활동이었다. 역사를 단순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내 일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일어났던 '유대인 학살'을 가까운 문제(차별, 왕따, 동조, 무관심)로 대체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위기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교실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교과 학습과 연결하여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의 문제를 협동으로 배우고, 토론하고, 의견을 표명하면서 자신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고민하는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주권자로 성장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실 안에서 세계와 역사를 재현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담아 재구성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되묻고, 과제에 맞서는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과 연대가 조금이라도 교육의 현주소를 바꾸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昇己”이해와 공생을 위한 닝버실천

강영민(중국베이징사범대학교)

하소운(닝버노팅엄대학교부속고등학교)

본 발표는 일중한공동연구 “昇己”이해 공생프로젝트(2022~2025)의 일환으로 닝버노팅엄대학교부속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수업사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昇己”란 서로 상이 혹은 상반된 가치관을 가진 문화집단이 한 공간속에서 공생해야 하는 현대적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중일한 삼국 학생들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의 이기성에 대해 인식하고 공생의 길을 탐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중국, 한국의 연구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昇己”프로젝트는 2014 년 에 시작되어 현재 삼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대화수업 개발을 주축으로 진행되고있다. 중국 닝버시에 위치한 닝버노팅엄대학교부속고등학교에서는 2021 년부터 2023 년 3 년간에 걸쳐 “昇己” 관련 수업개발을 진행해왔다.

1.수업목적:

“친구가 내가 없는 사이 내 초콜릿을 먹었다면?”이란 주제로 진행하는 본 수업은 “昇己”이해로부터 공생으로의 비전을 지향하여 다음과 같은 수업목적을 설정하였다:(1)학급, 민족, 국가 차원을 초월하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체험을 통해 인지하고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2)스테레오타입의 습관적인 이문화 이해에 대해 성찰하고 다문화공생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3)대화능력, 표현력, 수치나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4)이해할수 없는, 받아들일수 없는 생각들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昇己”이해로부터 공생을 향한 방법을 탐구하는 의욕과 태도를 양성한다.

수업에서 토론 자료로 사용된것은 중국과 일본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내가 없는 사이 말없이 내 초콜릿을 먹어보린 친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것인가”질문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이다.

2.수업과정

(1)2021 년 수업: “昇己”의 이기성 존재에 대한 이해

2021 년 수업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①친구관계성에 대한 인식 :나에게 있어 친구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보기;②학급내의 이기성 인식: 동 학급의 초콜릿 관련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같은 선택을 한 학생들로 모듬을 편성한뒤 동 모듬 선택 원인에 대한 대화와 발표를 통해 학급안 선택및 이유의 다양함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기;③이기간 충돌가능성에 대한 인식:한모듬안에

다른 선택을 한 학생들이 섞이도록 모둠을 재편성한뒤 서로 다른 선택을 한 학생들이 한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면 어떤 일들로 충돌이 생길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보기; ④국가간 이기성에 대한 인식: 일본 초등학교, 중학교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그로 인한 일본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토론하기;⑤성찰: 집단간 의견차이의 보편성에 대해 돌이키고 스테레오 타입의 문화인식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⑥이기공생에 대한 모색:이문화 대응, 적응, 공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지 모둠 토론 발표하기. 이 수업이 끝난후 학생들은 “다시한번 문화차이의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친구사이가 초콜릿하나로 끊어질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였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양국간 학생들사이에 대화과정이 없어 심도있는 수업개발이 어려웠다는 한계점을 가지고있었다.

(2)2022 년 수업: 중일간 대화수업을 통한 이기성 이해

2022 년에는 동 학교와 일본 죠에츠교육대학부속중학교 학생간의 대화 수업이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①중일 양국의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되는 선택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각 모둠사이에서 의견 교환하기; ②각 모둠에서 일본학생들께 제출할 질문을 1 개씩 준비하기; ③인터넷상에서 일본학생들과 질문-회답을 주고받기;④ 대화전과 대화후에 토론 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발표하기. 수업이 끝난후 학생들은 “구체적인 원인을 듣고 문화이해가 정말 중요하고 또한 쉽지 않다고 느꼈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3)2023 년 수업: 이기 이해로부터 공생의 길에 대해 생각하기

2023 년 수업은 전 2 년간의 수업 결과를 토대로 이기 이해로부터 공생의 비전에 대해 생각하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①양국 학생들의 조사 결과와 대화과정을 통해 이기 이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모둠별로 분석해보기; ②초콜릿문제 조사에서 본 반에서는 D를 선택한 학생이 극소수인데 비해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당수였음에 대해 원인분석하기; ③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같은 학교 혹은 직장에서 생활할때 나타날수 있는 충돌적상황, 문제해결의 방법을 스토리로 만들어 발표해보기.

3. 수업성찰

닝버노팅엄대학교부속고등학교의 본 실천은 연속 3 년간 수업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교사가 경험을 쌓고 이기 수업의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인식을 가질수 있었다. 또한 수업 참가 대상이 고등학교 단계였다는 점, 학생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이기충돌과 이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이해로부터 공생으로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 부분이 그 특징이었다고 할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이행 연구

사회: 박환보(충남대학교)

박환보(충남대학교) 김형렬(서울대학교) 엄정민(유네스코아태교육원)	국제사회의 SDG4.7 모니터링 관련 논의 및 이행 사례 분석
박경희(우석대학교) 박미재(충남대학교)	17개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이행 현황 분석
김영식(경남대학교) 정성경(충남대학교)	세계시민교육 정책 참여 학교 특성 분석
최윤경(인천시교육청)	지역기반의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발전, 확산 사례
고석영(유네스코아태교육원)	2015-2022 UNESCO APCEIU 연수 프로그램 분석

2023년 국제이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국제사회의 SDG4.7 모니터링 관련 논의 및 이행 사례 분석

박환보(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김형렬(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엄정민(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1

Introduction

4.7 by 2030 ensure all learners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 human rights,
- gender equality,
-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 global citizenship, and
-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2

Introduction

SDG 4.7 Indicator

Concept	Indicators		
Input	4.7.1	Extent to which (i)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i)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mainstreamed in: (a) national education policies, (b) curricula, (c) teacher education and (d) student assessment	Global indicator
	4.7.2	Percentage of schools that provide life skills-based HIV and sexuality education	Thematic indicator
	4.7.3	Extent to which the framework on the World Programme on Human Rights Education is implemented nationally (as per the UNGA Resolution 59/113)	
Outcome	4.7.4	Percentage of students by age group (or education level) showing adequate understanding of issues relating to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Thematic indicator
	4.7.5	Percentage of students in the final grade of lower secondary education showing proficiency in knowled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geoscience	
Input	4.7.6	Extent to which national education policies and education sector plans recognize a breadth of skills that needs to be enhanced in national education systems	

Source: Written by the author based on UNESCO(2021),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21/2: Non-state actors in education: Who chooses? Who loses? Paris, UNESCO.

3

Introduction

Monitoring of indicator 4.7.1

- Custodian agency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Instrument
 - UNESCO questionnaire for monitoring of implementation of "1974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The 1974 Recommendation sets out guiding principles on teaching "peace and non-violenc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ultural diversity and tolerance, and human survival and well-being"
 - Questionnaire collects data for four components of indicator 4.7.1: Policies, Curricula, Teacher education, Student assessment
- Data collection
: every 4 years responses by national governments

4

Introduction

Background of research

- While the global indicators provide guidance for the monitoring, they still have limitations for an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progress and situation in each country in regard to the different educational systems, governance, cultural context, and curricula.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national initiative and ownership in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in line with global indicators.
- SDGs global monitoring also encourages countries to develop more refined indicators, aligned with global ones, and a monitoring system feasible and effective in their own particular context.

5

Introduction

Background of research

- Against this backdrop,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has conducted relevant research and developed a monitoring system in the Rep. of Korea since 2018.

APCEIU's Multi-Year Project:
Developing the Domestic Monitoring Framework of GCED

Desk Review on the Development of SDG Global Indicator 4.7.1

Formulating the definition of GCED

Refining key concepts and thematic areas of GCED

Setting the sub-indicators of SDG 4.7.1

Providing the indicators and sub-indicators of GCED

↓

↔

↔

↓

Education Policy

Investigating the policie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eacher Education

Investigating teacher education curricula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institutes nationwide

Expert Consultation + Delphi Survey + In-depth Interviews

6

Introduction

Background of research

- Among the SDG4.7 indicators, the previous researches mainly focus on SDG4.7.1, which is the input, and identify the degree of mainstreaming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areas such as education policies, curricula, teacher education, and student assessment.
- This year's research focused on the change and growth of learners through GCED, and explored monitoring methods in three aspects: GCED policy, teachers' GCED competency, and learners' GCED competencies

7

Research Framework

Key concept and the thematic areas of GCED in Korea



Thematic area	Keywords
Global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global citize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terconnectedness, international cooperation, global competences, democratic citizen, sense of community
Gender Equality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gender, gender sensitivity, gender sexual identity, gender inequality, sexual discrimination, sexual violence
Peace	peace, peace education, non-violence, dispute, conflict resolution, human security
Human Rights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right, democracy, justice, freedom, equality, dignity, tolerance, discrimination
Cultural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for cultural diversity, diversity, multicultural education, understanding culture, respect for culture, cultural sensitivity, culture and arts, cultural identity, intercultural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ESD, sustainability, environment, environmental problem, environmental protection, ecology, ecological diversity, climate change, climate crisis, renewable energy

- Keywords in each thematic area were selected to measure the mainstreaming of GCED in educational policy, curriculum, teacher education, and student assessment.
- Media literacy is newly considered as one of learners' global citizenship competency.

Source: Park, et. al. (2020). A Study on the Monitoring Framework of GCED in South Korea. Seoul: UNESCO APCBU.

8

Conclusion: Summary

- **Mainstreaming GCED in educational policies**
 - The overall GCED policies is being implemented to a certain degree stably in terms of legal institu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number of educational policies
 - GCED are implemented in various contents and metho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issues of each region in Korea
 - The degree and speed of policy mainstreaming may vary depending on how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interpreted and reorganized by regional context.
- **Importance of infrastructure for GCED**
 - Infrastructure and support for students were found to be a very important factor in participating in GCED policy
 - There is a need to not only develop and provide GCED policies and programs, but also improve the educational conditions for participating in them

9

Conclusion: Recommendations

1. Establishment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GCED at the national level
2. Sharing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GCED and use them for policy feedback
3. Need to link GCED monitoring indicators with national educational statistics including education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MIS)
4. Continuous improvement of GCED indicators

10

Rethinking SDG4.7 indicators

- **Contents of GCED**
 - GCED policies can be monitored based on GCED reinterpreted according to each country's context rather than universal standards.
- **Monitoring GCED**
 - It is also important to monitor how the GCED policy is specifically implemented at the school level.
- **GCED beyond school**
 -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learning outcomes of various learners including adult learners.

11



Thank you very much

12

17개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이행 현황

2023.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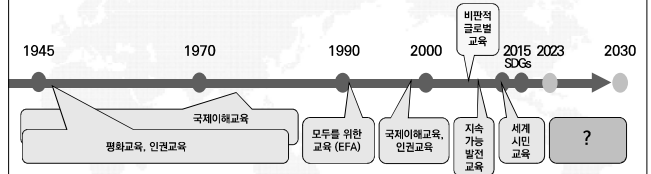
박경희(우석대학교)
박미재(충남대학교)

1

국내외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UN 17SDGs

UNESCO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교육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국제교육 세계교육 발전교육 세계화교육(531교육개원안, 1995~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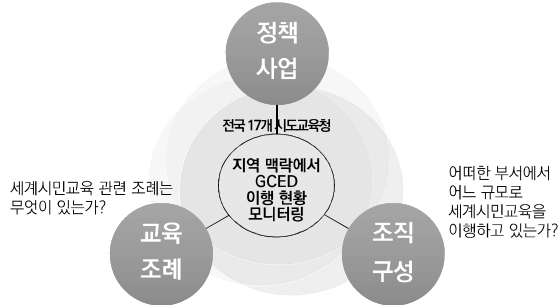
2

연구 목적 및 방향

2023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연구 중

SDG4.7.1 글로벌 지표: 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어떠한 세계시민교육이 어느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3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영역 및 개념틀 (분석준거)

주제영역	관련 주제어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성, 상호연결, 국제협력, 글로벌역량, 공동체역량, 민주시민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교육, 젠더, 성인지, 양성체성, 성불평등, 성차별, 성폭력
평화	평화, 평화교육, 비폭력, 분쟁, 갈등해결, 민간안보
인권	인권, 인권교육, 권리, 민주주의, 정의, 자유, 평등, 존엄성, 관용, 차별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교육, 다양성, 다문화교육, 문화이해, 문화존중, 문화감수성, 문화정체성, 상호문화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 환경, 환경문제, 환경보호, 생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글로벌 논의에 따라 2023년부터 '미디어리터러시' 추가

4

1.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요 조례

주제영역	주요 교육조례
세계시민성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성평등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지원조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조례,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평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조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조례
문화다양성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지속가능발전	학교환경교육/생태환경교육 진흥조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조례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조례, 미디어교육 활성화조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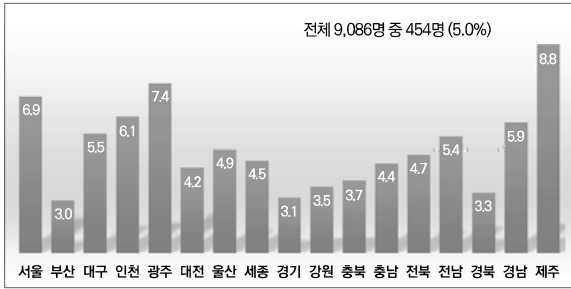
1.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요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

지역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제5조)
경기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 교육 3.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4.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해석 및 사회적 참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5.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6.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6

2.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조직



2023년 세계시민교육 조직 이행 현황 분포 (단위: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조직도, 검색기준일 2023.07.01.)

7

2.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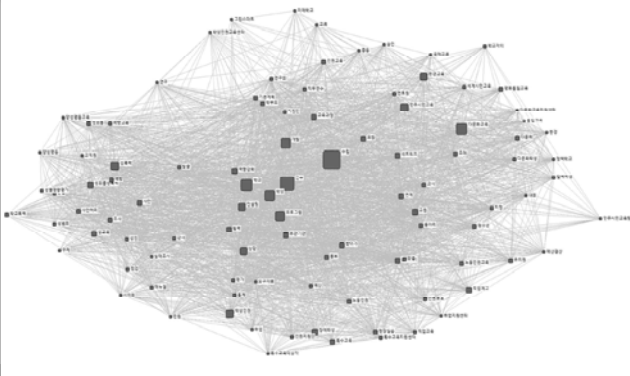
연도별 '세계시민교육' 전담인력 현황 (단위: 명)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
서울	1	4	5	5	4	▽
부산	1	1	1	1	1	
대구	1	7	6	5	3	▽
인천	1	2	1	1	5	▲
광주	1	1	1	1	0	▽
대전	1	1	1	1	2	▲
울산	1	1	1	1	2	
세종	1	1	1	1	1	
경기	1	1	1	1	1	
강원	1	1	0	0	0	
충북	0	0	0	1	1	
충남	1	2	2	3	1	▽
전북	0	1	1	1	1	
전남	0	0	1	1	0	
경북	0	0	1	1	1	
경남	1	1	1	1	1	
제주	1	1	2	1	2	▲
계	13명	25명	26명	26명	26명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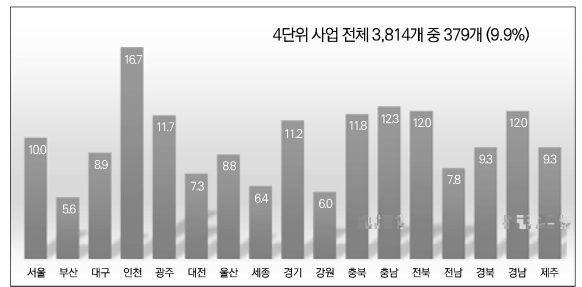
2.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조직

17개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담당 업무 세부 (2022년 기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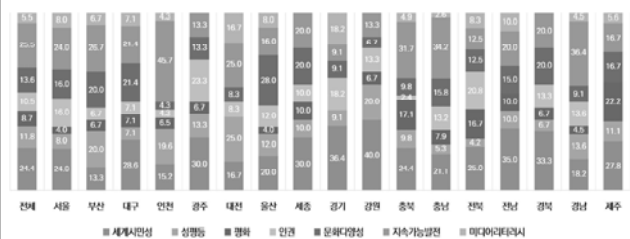
3.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사업



2023년 세계시민교육 정책 사업 이행 현황 분포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1-2-3-4단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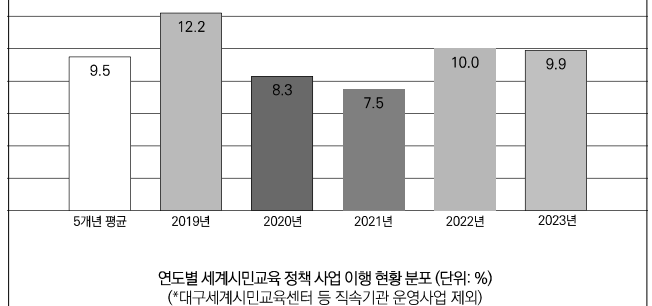
10

3.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사업



11

3.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사업



12

소결과 시사점

17개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통해 지역별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국내 세계시민교육 이행은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한 각 주제영역이 동반되면서
안정적인 단계로 주류화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확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성 함양의 일환으로 논의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발견함.

13

THANK YOU

khpark@woosuk.ac.kr

14

2023년 국제이해교육학회 학술대회

세계시민교육 정책 참여 학교 특성 분석

김영식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정성경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연구문제

Then, what factors or features can be important for predicting schools' participation in GCED policies?

What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are needed in the future to increase GCED participation at the individual school level?

데이터 소개

Instruction of data and sample	
Region	Seoul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Lower secondary)
Periods	2020-2022
No. of Cases	1,163 schools 2020: 386 schools 2021: 388 schools 2022: 389 schools
DV: GCED policies	2020: Peace/GCED Practice School (10) 2021: GCED Practice School (31) 2022: UNESCO Associated School Project (24)
IV: School factors	256 variables from 'School information data' & 'EDSS' (Academic/Student, Finance/Facilities/Infrastructure, Health/Welfare)
Methods&tools	T-test(STATA) and RandomForest(python)

분석 절차

```

graph LR
    A["School factors:  
Academic/Student/Finance/Facilities/Infrastructure/Health/Welfare  
(265 variables)"] --> B["t-test:  
73 variables"]
    B --> C["RandomForest:  
Top 20 variables  
- Feature importance  
- Dependence plots"]
    C --> D["GCED school factors:  
1.  
2.  
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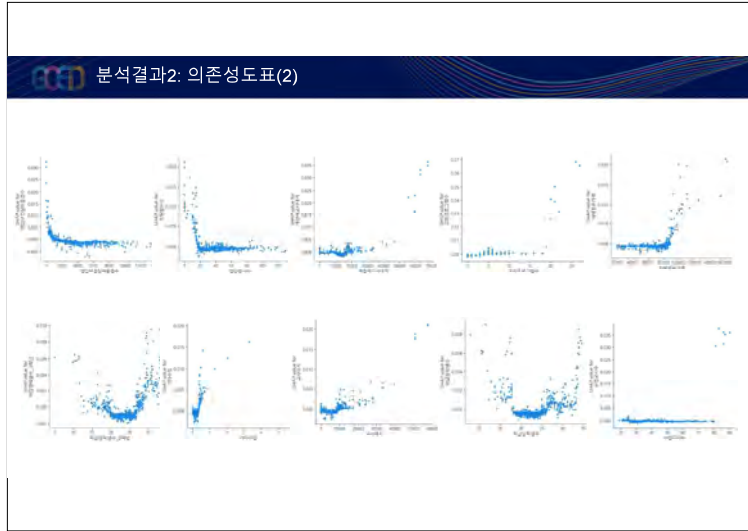
<Research process>

분석결과1: 중요도 변인(20위)

Predictive Factors of school's GCED policies (Top 20)

Predictive Factor	Importance
No. Classroom for ability grouping	0.064
No. ICT(computer) room	0.032
Supports for Educational Activities	0.026
No. Students (8th grade)	0.025
Area of school(Sports hall)	0.023
Total Scholarship Amount	0.023
No. Students Enrolled in Courses	0.021
No. Scholarship Recipients	0.021
Scholarship Amount	0.020
No. Participating in Creative Experiential Learning	0.020
Annual Nurse's office Visits Count	0.019
No. Books per Student	0.019
Area of school(Entrance)	0.019
No. Programs of school subject	0.019
Average price of school uniform(summer)	0.018
No. Students (8th grade)	0.018
Other incomes	0.018
Area of school	0.018
Class size	0.018
No. teacher(student)	0.017

분석결과2: 의존성도표(1)



- 소결 및 시사점
- Main Results
 -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infrastructural elements'** of schools are crucial in their participation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 Second, it is also established that the level of **'direct support targeting student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redicting participation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This suggests that for activat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 level, financial support for students should be provided as well.
 - Lastly, **'the size of the school'** is shown to be highly relevant to individual school participation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Larger school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initiatives compared to smaller schools.

Thank you very much



2023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발표

·지역기반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발전, 확산사례·

...

최윤경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1



인천광역시교육청

Table of Contents

- 1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역사와 발전
Before starting our presentation
- 2 인천 세계시민교육 정의
Our awesome ideas
- 3 교육과정 속의 인천 세계시민교육
What we do
- 4 확산: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Good GCED examples by GCED lead teachers
- 5 질의 응답
Questions and answers
- 6 감사합니다
Keep it touch!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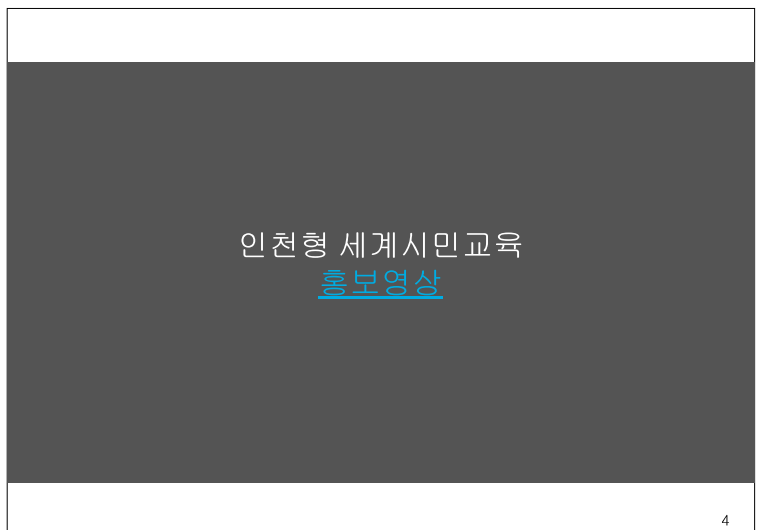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역사와 발전

개인, 지역, 국가, 세계
인천...

3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홍보영상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변천

2015~현재

- 1 세계시민교육 (2015~2020)
세계와의 연계와 양해 및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간 증가
- 2 동아시아시민교육 (2021~2022)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성과 중요성 확대 및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시간 증가
- 3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2023~)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필요

5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

산업사회 → 지능정보사회

6

제4차 산업혁명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
- 디보스 포럼, 2016 -

제4차 산업혁명, 즉 제2차 정보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은 국가 산업의 흥망을 결정

시민의 역사

* 시민: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존재로서 타자와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지향하는 존재 (거트 비에스타, 2019)
* 시민교육: 교과서를 통해 배운 박제된 지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연대해 행동할 수 있게 돕는 과정

신민	국민	시민
- 절대 군주체제하 군주의 지배 받는 신하 - 봉건시대	- 근대국가를 전제로 국가의 구성원 - 베스트팔렌조약 (1648)	- 주권자+다양한 공동체 구성원 - 폴리스, 세계시민

UNESCO 교육의 4지둥

UNESCO, 1996

세계시민교육 등장 및 패러다임의 변화

-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등 불명확한 개념 존재
- 새로 생겨난 개념 아닌 기존의 흐름과 연결되는 포괄적 개념
-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른 역동적 개념으로 상황에 따른 강조점 확인 요구

GEFI 글로벌 교육 우선구상

3대 우선순위 (Ban, 2012)

- 2012년 제67차 UN 총회
- 반기문 사무총장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EFI)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세계시민교육 출범’

국경을 초월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토대로 인류 보편 가치 및 지구촌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 협력, 존중, 책임의 자세를 보이는 시민

세계교육포럼 연혁

인천광역시교육청

1990 태국 줌디엔 2000 세네갈 다카르 2000 하반기U N총회 2015 대한민국 인천

모두를 위한 교육 (EFA)

- ① 영유아 보육과 교육
- ② 초등교육 보편화
- ③ 청소년과 성인학습요구 충족
- ④ 성인문해
- ⑤ 교육의 양성평등
- ⑥ 교육의 질 향상

- 2015년 대한민국 인천 세계교육포럼
- 교육좌표: EFA(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제시

13

2015 세계교육포럼 개요

행 사 명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
목 적	1990년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15년간 세계교육의제를 이끌 교육목표 설정
기 간	2015년 5월 19일~22일
장 소	인천 송도 컨벤시아
참석 대상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장관급 이상 대표, UN, WB 등 국제기구 수장,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1,500여 명
효 과	한국의 우수한 교육 정책 및 교육을 통한 발전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교육 위상 제고

1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단일국가에 기반한 근대적 시민성 개념에서 벗어나,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공통 문제의 해결,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 방안의 모색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

1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 목표 (70차 UN 총회)

16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

2015~2020

17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GCED: 세계시민교육

2- Thinking, Feeling & Acting as Global Citizen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DOMAINS OF LEARNING

COGNITIVE

글로벌 이슈들 및 세계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계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SOCIO-EMOTIONAL

인류 공동체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의식, 공감, 가치와 책임감을 공유하는 것

BEHAVIORAL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지역, 국가,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Source: <http://daijicdo.org/education/images/0021/002125/2125293a.pdf>

18

세계시민교육의 구성 요소

By UNESCO 인천광역시교육청

- 세계시민교육 이해 / 필요성 인식
- 학교맥락에 맞게 재구성, 적용
- 구체화 사례 공유 방안 마련
- 교사: 세계시민교육의 지향점, 교육내용의 적합성 판단과정 필요

20

2015 세계교육포럼 준비: 인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20

인천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활동

21

인천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사례집 발간

22

동아시아시민교육

2020~2022

동아시아 공동의 문제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분쟁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 실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를 소재로 활용하는 세계시민교육

23

GCED: Taking It Local

지역과 상통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개념
다양성 존중, 연대, 인간성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Target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한 생활패턴,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차별 증진, 세계시민성, 문화다양성 이해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모든 학습자가 습득해야 함.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예시
홍익인간, 우분투 등

24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정의

개인, 지역, 국가, 세계
인천....

31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2023~현재

인천의 이해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성과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 실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32

PISA 2018: 글로벌 역량

2018 PISA (OECD)

글로벌 역량 (Global Competence)

1. SKILLS: Analytical and critical thinking*
공감, 유연성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 참여

2. KNOWLEDGE & UNDERSTAND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global issues
글로벌 이슈 및 상호문화적 사안 이해 및 지식

3. ATTITUDES: Openness toward people from other cultures
다문화 개방성
문화차이 존중
책임감, 글로벌마인드

VALUES: Valuing human dignity, Valuing cultural diversity
인간의 존엄성, 문화 다양성에 가치 부여

GLOBAL COMPETENCE

33

Global Competences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글로벌 이슈들을 분석하고,
차이가 어떻게 인식과 판단, 자신과 타자의 생각에 영향을 주
는지 이해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유된 존중감을 기반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타자들과
개방적이고,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
(OECD, 2016)

2022 PISA – Creative Thinking

34

OECD 교육 2030 학습 개념틀(제6차 IWG 회의)

OECD 학습 나침반

OECD 교육 2030
개인·사회적 웰빙(well-being)
'변혁적(transformative)' 역량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 참여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책임의식
학생들이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의식적인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것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간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

OECD 2030 학습나침반

35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 인재상

자기감세성을 바탕으로 자기주도
적 학습, 사회적 책임감 함양
지속가능성·탄력성·노력, 자기주도성

주도성
책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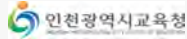
배려와 포용
타인을 배려하여 함께 나누는
포용적 가치관 실현
협력, 공감, 화해 능력

혁신적
공유 인재

창의력
혁신
비판적 사고와 새로운 상황
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
새로운 알고리즘, 방법, 공동체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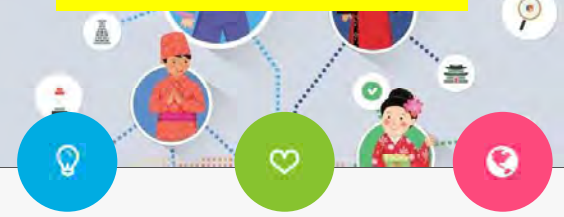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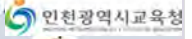
36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특징



- ❖ **인천 속 세계를 만나, 세계 속 인천을 경험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자신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곳인 인천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
- ❖ **결대로 성장하는 학생의 삶의 주도성이 강조된 세계시민교육**(자기 삶의 결정권자로서,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인식)
- ❖ **마을·지역·국가·지구촌 등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세계 시민교육** (인천, 세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협력할 것을 강조)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인간상



자율적인 사람

자신, 인천, 세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협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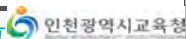
인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구성원과

실천하는 사람

민천과 세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illegible]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비전 및 목표



스르거

인천 속 세계, 세계 속 인천을 만나 학생성공시대를 열다
Feel the world in Incheon, Lead Incheon to the world

비전

평화·공존의 지구촌을 열어갈 세계시민 양성

모표

- 지구촌 공동 문제 대응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함양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의 공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세계시민 양성
- 글로벌 학습도시 인천의 지역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학습도시 인제로 성장하는 인천 학생성공도시 실현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추진과제



2023 인천교육계획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인천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 147개 중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비대질과 하늘길이 있고, 15개의 국제기구가 위치한 글로벌 허브도시입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인천의 특성을 교육 자원화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역량 함양,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43

교육정책 5: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5-1. 외국어 역량 신장

- 5-1-1 1인 1외국어교육 확대
- 5-1-2 AI 외국어 교육시스템 운영
- 5-1-3 성과를 맞춤형 외국어 집중 프로그램 실시
- 5-1-4 체험형 영어프로그램 운영

5-3.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5-3-1 지역 내 외국대학, 국제기구 연계 외국어교육 활성화
- 5-3-2 국제기구 연계 진로프로그램 운영
- 5-3-3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감 추천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5-2. 세계시민 자질 함양

- 5-2-1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추진
- 5-2-2 학생, 교원 국제교류 활성화
- 5-2-3 세계를 품은 평화교육 허브기관 운영
- 5-2-4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 5-2-5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인권교육

44

교육과정 속의 인천 세계시민교육

인천세계시민학교 초·중·고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운영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내어 구현함으로써
세계시민이 자라는 학교 (연간 68차시 이상)

45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학교 현황

2022년 교육통계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529	306,493	23,831
초등학교	260	155,906	10,399
중학교	142	78,827	5,933
고등학교	127	71,760	7,499

46

교육과정 속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구분	교육국제화특구 네트워크 학교	인천세계시민학교
의미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추진	인천 지역자원 연계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속 구현
현황	43교 (연수구 18교, 계양구 9교, 서구 16교)	61교 (초31교, 중16교, 고13교, 각종1교)
과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학교 교육과정 속 세계시민교육, 국제문화교류, 지역사회(교육국제화특구) 연계 활동	글로벌 이슈와 해결방안 탐색, 다국어교육, 국제교류, 인천지역자원과 글로벌 자원 연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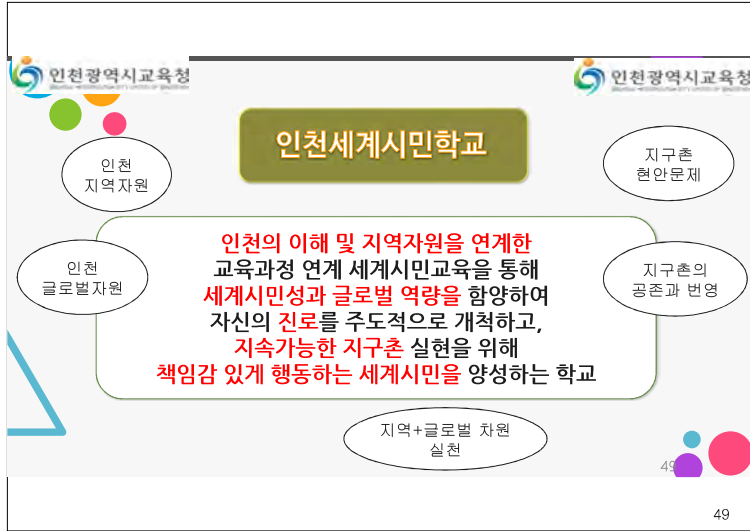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 및 외국어교육 협력기관

· (협력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 국제협력방안 연구 및 국제교류 활동 지원
- 다국어 교육 지원



4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세계시민학교 필수운영 대상 선정

학교의 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천세계시민학교 4개 필수과제를 전체 이수할 대상 필히 선정 운영!

(예시)

	필수과제 이수시간(연간 차시)			이수여부	비고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A 학교	1개과제 17차시 이수	1개과제 17차시 이수	1개과제 34차시 이수	미이수	4개 필수과제 모두를 지속적으로 전체 이수한 학생이 없음
B 학교	4개과제 68차시 이수			이수	4개 필수과제 모두를 지속적으로 전체 이수한 학생이 있음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중학교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인천 지역자원
 인천 글로벌자원
 지구촌 현안문제
 지구촌의 공존과 번영

**'인천의 이해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과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 실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사업 선정**

지역+글로벌 차원
실천

56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학교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추진방침

최소 2개의 과제 선택

- 지구촌 공동 문제 대응**
학교별 특색과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교과 내, 교과 간 연계**
글로벌 이슈 및 해결방안
탐색, 다국어 교육, 국제교류
등
- 교과목 선정, 주제통합**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과목
및 교과 내용 선정,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주제 통합
- 주제중심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학생
참여 중심 세계시민교육
- 범교과 학습과 연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인권교육, 다문화 교육 등
- 동아시아시민 교재 활용**
교재 활용 교과내, 교과간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
- 인천의 지역자원과 글로벌 자원 연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선택 운영**

57

인천광역시교육청

7 인천의 지역자원과 글로벌 자원 연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선택 운영

- ❖ 국제기구와 글로벌 대학 등 인천의 글로벌 교육 환경 연계 프로그램
- ❖ 지속가능발전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해양·생태 환경 프로그램
- ❖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이해를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 프로그램
- ❖ 한반도의 관문도시이자 항구도시인 인천을 이해하는 인천이해교육 프로그램
- ❖ 융합형 미래도시 인천의 특색을 살린 미래전략산업 체험 연계 프로그램
- ❖ 인천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 ❖ 이외 인천의 지역자원 및 글로벌 자원 연계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58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 교재 및 교과서 보급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시교육청
홈페이지)

- 총 6권 : 학생용 교재 3권, 교사용 지도서 3권
- 초등학교 5~6학년용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 중학교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 고등학교 학생용 교과서(인정도서) 및 교사용 지도서

59

인천광역시교육청

확산: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행사의 역사와 취지
 주요행사내용
 기대효과

인천의 글로벌 자원을 한자리에 모아
 인천 속 세계, 세계 속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기반 세계시민교육의 성과를 홍보하는 장

60

4월 30일 (목)			
시각	주제	비고	
09:40~11:30	주한 대사와 축하공연 / 1월과 2월 체험부스 운영		○ 개회 축하 공연: 구미: 새해의 전통을 알리는 다양한 나라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국악 및 민속놀이 체험하는 부스, 체험 구역
11:30~12:00	점심 식사 및 포스트 푸드 콘서트		○ 민속 축제: 체험 구역: 민속놀이 체험을 위해 구공촌 농촌박물관 옆에 위치한 삼천포에 삼천포에 있는 세계민족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민족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체험 구역
13:00~14:00	1월과 2월 체험부스 1 운영		
14:40~16:30	사건과 여담이 담긴 '사건' 사진 전시회	한국 사진학회 주관	
16:00~17:27	가정식, 미식, 미식, 미식	한글 원 (10) 사진전시	
14:27~14:55	교육청 1월과 2월, 미식, 미식, 미식	도청 교육청 1월	
14:55~16:30	1월과 2월 체험부스 2 운영		
4월 1일 (수)			
시각	주제	비고	
10:00~11:30	민간 세계기독교 문화의 국제화	문화체육 관광	
11:30~13:00	점심 식사 및 포스트 푸드 콘서트		
13:40~14:30	주한 대사와 축하공연 / 2월과 2월 체험부스 1 운영		
14:30~15:00	학생이 한도는 세계민족 음악 전시회		
15:00~16:30	2월과 2월 체험부스 2 운영		
16:30~17:00	전시 마무리		

- 개회 축하 공연: 구미: 새해의 전통을 알리는 다양한 나라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국악 및 민속놀이 체험하는 부스, 체험 구역
- 민속 축제: 체험 구역: 민속놀이 체험을 위해 구공촌 농촌박물관 옆에 위치한 삼천포에 삼천포에 있는 세계민족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민족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체험 구역

구미	주요	주요활동	주요내용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 세부 운영 내용은 해당 사업별로 별도 소책자에 별도 반영될 수 있음

63

63

○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초청 '민천세계시민교육 전문가 국제포럼'

- (주제) 지역 기반의 민천형 세계시민교육의 나아갈 방향
- (대상) 정부직, 지자체 교수 등 총 유네스코 아태교육청장
- (협약자) 도청을 민천교육시국교육

Ganbold Raasajav, UN ESCAP, 동북아시아수. 대표

Robert Mait, 한국 토지재단(세라)고 총장

Rajen Fakhrudin, GCF Senior Specialist

이날, 한국 유네스코사무소와 80 인민사민대학 세계시민교육센터 박달교수

6. 주한 외국대사관 및 다문화와 합창단 초청 공연

○ 주한 외국대사관 문화 공연 및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초청 공연

- (장소) 행사장 메인 무대 (무대 및 공연 대기실 지원 예정)

날짜	시간	주관	내용
10.11 (목)	09:45 ~ 10:00	주한 몽골대사관	비공공 연주, 몽골 전통음악 호비 공연 등
	13:45 ~ 14:00	유리 다문화어린이합창단	Over the Rainbow 등 합창 공연
11.1 (수)	12:40 ~ 13:00	주한 인도네시아	교향악을 위해, 오디시 등 공연

7. 인천세계시민교육 시민강장

○ Incheon GCED Wall 운영 : 참가 시민들의 의견 수집, 행사 피드백, 행사자 찾기

○ 인민단 민족도 조사 및 기념품 수령

○ Incheon GCED 프로젝트 운영, 세계시민 데크킹하기 부스 활동

○ 그 외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가 가능한 다양한 행사 기획 예정(메이커스 캠퍼스 사신 캠퍼스 인문 행사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Gyeonggi-do Education Office

안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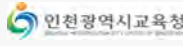
- 2023 인천세계시민학교 및 초중학교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학교급별 컨설팅단 구축 및 컨설팅 활성화
- 운영계획서 및 찾아가는 컨설팅
- 2023 인천세계시민학교 담당자 오픈채팅방(또는 밴드)로 정보 교환 플랫폼 구축



초·중



고



인천광역시교육청

Thank You for Listening!

Any More Questions?

• • •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최윤경 (☎420-8237)

67

APCEIU 2015-2022 연수프로그램 분석

고 석 영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연구소)

1. 개요

가. 연구목적 및 연구질문

본 연구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연수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포함된 2015 년 이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수행한 4 개 주요 연수의 주제 및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주요 연수 프로그램인 아태지역 교원연수(이하 아태연수), 중앙 선도교사 연수 및 시도 선도교사 전달연수, 세계시민교육 교사교육가 글로벌 연수(이하 글로벌 연수), 세계시민교육 청년리더십 워크숍(청년 연수)의 주제 및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15 년부터 2022 년까지 이루어진 각 연수프로그램의 컨셉노트, 프로그램 북, 연수교육자료 및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를 수행하여 각 연수의 연도별 주요 주제어들을 추출하고,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먼저 1) 2015 년부터 2022 년까지 8 년간 아태교육원에서 수행한 4 개 연수프로그램의 컨셉노트, 프로그램북, 연수자료 및 최종보고서에 드러난 연수 목적, 연수의 내용, 그리고 연수 방법 및 전략을 연도별로 요약 및 정리하여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 2) 연수프로그램의 변화의 상세한 맥락을 밝히기 위하여 연도별 연수프로그램 담당자 및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한다. 3) 마지막으로 내용분석과 면담결과를 종합하여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의 변화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1) 단계의 결과만을 다루고 있다.

2. 연구결과

가. 아태지역 교원연수(아태연수)

1) 아태연수 개요 및 목적

아태연수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대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2000 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설립 이후 지난 22 년 동안 아태지역 내 핵심 교사 교육가를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해왔다. 2015 년부터 2019 년까지 아태연수의 목적은

1)참여자들에게 EIU/GCED의 핵심 개념과 원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장(심화)하고,
 2)교육현안에 대한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관점을 평화문화로 재설정하고,
 3)참여자들 각자의 현지 상황에 맞는 EIU/GCED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2015년부터 2020년 COVID-19 이전에 수행된 아태연수의 목적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맥락에서 GCED의 개념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이후에 각 참여자의 출신지역적 상황에 맞게 개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있다.

팬데믹 이후 이러한 양상은 바뀌게 된다. 팬데믹으로 연수가 취소된 2020년 이후, 2021년에는 아태연수의 목적은 1)팬데믹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2) 참여자들이 교육활동을 변형시켜 보다 성찰적이고 현지맥락에 기반한(relevant)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기부여하며, 3)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분석을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교육적 이슈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고, 4)참여자가 현지 상황에서 GCED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며, 5)참가자들이 EIU/GCED를 기반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즉, 일반적인 맥락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맞닥뜨린 COVID-19라는 글로벌 맥락에서 GCED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국제사회가 마주한 구체적인 공통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로컬 맥락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추가되었다. 또한 EIU/GCED를 구심점으로하여 글로벌 및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연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아태연수의 내용, 방법 및 전략

2015년 이후 아태연수는 기본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연수를 진행한 후, 참여자들이 연수에서 학습 및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뼈대를 바탕으로 아태교육원은 각 참여자의 국가 및 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수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방면으로 연수내용 및 방법을 혁신해왔다. 예를 들어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캠퍼스(GCED Online Campus)¹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실시간 사전/사후 연수를 제공하는 한편, 현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다각화된 멘토십 프로그램 및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해왔다. 특히 멘토십 프로그램은 연수 수료생들이 GCED 전문가 멘토그룹의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실천적 역량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

2015년 아태연수는 GCED 소개부터 시작하여 지역 및 국제적 문제의 비판적 분석까지 포괄적인 주제들을 다루며, GCED 개념 및 관련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워크숍 디자인 및

¹ <https://www.gcedonlinecampus.org/>

교수법 사례에 대한 소개 등 실용적인 기술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8년부터는 문화다양성, 생태정의, 성평등, 지역기반접근, 종교간 대화(Interfaith Dialogue) 등 주제별 접근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교육가라는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속해서 효과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21년부터 등장하는 ‘팬데믹’, ‘21세기’ 키워드들은 현대적 문제들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GCED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고찰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에서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함에 따라, 시민성 재구상(Rethinking)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며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시민성, 혹은 기존 시민성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시도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이처럼 팬데믹 이후의 아태연수는 그 이전과 비교해서 인권, 성평등, 기후변화 등 주제중심적으로 GCED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수방법 및 전략 측면에서는 2015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는 1)참여적/대화형 워크숍, 심층 세미나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형태의 강의, 2) 성찰 및 종합, 3) 워크숍 설계(액션 플랜), 4)현지 조사(현장 학습), 5)문화 교류 등 참여자-참여자, 참여자-강사 간 상호작용을 최대화해왔다. 2020년 팬데믹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대부분의 활동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아태교육원은 대면 강의 및 토론활동요소를 비대면 상황에서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멘토십 및 지원금(Grant) 경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연수 종료 후 연수 수료생들이 연수 종료 이후 지원금과 함께 지속적인 멘토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연수 강사, 멘토 및 GCED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선발된 프로젝트의 분야 전문가를 멘토로 초청하여 연수생들이 지속적으로 실천적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한편 GCED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 영화상영회를 개최하고 제작자와의 실시간 워크숍 세션을 기획하는 등 아태지역의 교육가들이 시공간적 제한을 넘어 연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오고 있다. 있다.

나. 세계시민교육 교사교육가 글로벌 연수(이하 글로벌 연수)

1)글로벌연수 개요 및 목적

2016년부터 시작된 글로벌연수는 교사교육가 연수(Training of teachers: TOT)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교사교육가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연수는 청년 연수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회원국 중 ODA 수원국 출신의 참여자만 모집하지만, 3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보유한 교사 혹은 교사교육가를 모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팬데믹으로 연수가 취소된 2020년을 제외하고 6년간 이루어진 글로벌 연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초기 글로벌 연수의 목적은 1) GCED의 주요 개념과 원칙에 대한 참가자의 이해와 지식을 넓히고, 2) 개발도상국의 교사 교육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3) 교육현안에 대한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관점을 평화문화로 재설정하고, 4) 각 현지 상황에 맞는 GCED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참가자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5) 다양한 지역에서 GCED를 추진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5)를 제외하면 아태연수의 초기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이후, 팬데믹 맥락에서 GCED를 조명하거나,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에 초점을 맞추어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 글로벌연수의 내용, 방법 및 전략

글로벌연수와 아태연수의 목적은 유사하나, <표 4>를 보면 그 내용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글로벌연수는 첫 수행연도인 2016년부터 SDGs와의 관계 속에서 GCED를 소개하였으며 각 세션에서는 인권, 홀로코스트, 폭력적 극단주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 주제에 2명 이상의 발표자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주제를 심도있게 고찰할 수 있도록 각 세션 말미에는 1시간 가량의 Q&A 및 브레인 스토밍시간이 편성되어 있다. 연수생들은 매 세션마다 각자의 소견을 내게 되고, 이는 워크숍 마지막 액션 플래닝 세션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종합된다.

2017년부터는 아태교육원이 주최하는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GCED: IConGCED)와 연계하여 글로벌 연수가 진행되었다. 연수 참가자들은 양일간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며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학술적, 인적 교류를 나누고, 액션 플랜을 위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각 세션의 주제 하에 하위 세션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PVE-E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2019년에는 성평등 관점에서 GCED를 조명하는 한편,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교육현안도 다루었다.

팬데믹 이후 2021년에는 비대면 연수로 전환하면서 본 연수의 기간 및 시간이 짧아지는 한편, 혐오발언 및 차별, Disruptive time 등을 언급하며 현대의 신형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GCED를 제시하였다.

다.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워크숍(이하 청년연수)

1) 청년연수 개요 및 목적

청년연수는 유네스코 회원국 출신이고 2년 이상 교육분야에서 활동경험을 가진 만 19에서 28세 사이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연수는 2015년 UN Summit을 앞두고 같은 연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청년들의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와 실천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그래서 아태교육원은 청년연수의 목적을 참여자들의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세계시민교육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젊은 활동가들이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상호교류할 수 있는 장(forum, platform)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청년연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2012년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그룹인 Youth Advocacy Group(YAG)를 계승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이 청년연수가 주로 애드보커시와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배경이 된다. 청년연수의 목적은 아래 <표 5>와 같이 정리된다.

2) 청년연수의 내용, 방법 및 전략

모든 시행연도에 걸쳐 청년연수의 내용, 방법 및 전략은 네트워크 강화 및 문화교류, 그리고 이를 통한 간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강연과 세션이 참여자-강연자 간 상호 토론과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타 연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청년연수는 지역 활동가 혹은 GCED Youth Network에 소속된 청년활동가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청년연수는 ‘세계시민교육 전문가/실천가’이면서 동시에 ‘청년’의 관점에서 GCED를 조명하기 위해 보다 현장과 맞닿아있는 청년 실천가 및 활동가들을 연수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GCED에 대한 창의적인 관점과 혁신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특징은 각 참여자들의 GCED에 대한 관점과 해석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싣는 연수결과보고서 양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년연수 또한 타 연수와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전면 온라인 워크숍으로 변경되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지식은 GCED Online Campus에서 사전연수(pre-requisite courses/pre-workshop)를 통해 습득하도록 하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본 연수(main workshop)에서는 청년연수의 기본 취지를 살려 세계시민교육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교육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구성하였다. 한편 글로벌 연수와 마찬가지로 멘토십 및 그랜트 경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라. 중앙 선도교사 연수

1) 연수 개요 및 목적

중앙 선도교사 연수는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을 맞이하여 한국의 주도 의제인 세계시민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핵심 교원을 양성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수행된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중앙선도교사들은 연중 2차례 진행되는 약 3-5일간의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이수하고, 중앙 및 시도별 교사연구회를 조직하며, 각 출신 시도 선도교사들에게 전달연수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연수의 내용, 방법 및 전략

2015 년 중앙선도교사 연수는 21 세기 교육에서 공감, 상호 이해, 소통, 존중 등의 역량을 뜻하는 비인지 역량(non-cognitive skills/competencies)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교육이 공교육에서도 보다 체계적이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설계되었다. 이에 중앙선도교사 연수의 각 세션은 인권, 문화다양성 등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를 하나씩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각 주제가 한국 공교육에서 실천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각 주제들에 대한 대안적인 실천방법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그러한 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연구회를 조직하고 지원했다.

이후 발간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지침서인 <세계시민교육: 학습 목표 및 주제>를 소개하며,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있어서 유네스코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교육 현장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평화교육, 갈등해결 등의 새로운 키워드를 통해 보다 다각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접근하였다. 2020 년부터는 중앙 선도교사 연수는 ‘우리 안의 세계시민성 다시보기’, ‘교육과정 내 실천’ 등 키워드가 등장하며 ‘새로운 무언가’로서 GCED 가 아니라 이미 교육현장과 교육가 및 학생 안에 자리한 GCED 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세션이 다수 구성되었다. 중앙 선도교사연수 역시 팬데믹 이후 온라인 워크숍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연수에서 디지털 시대,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키워드가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처럼 중앙선도교사 연수는 새로운 환경과 기술에 적응하고 세계시민교육 관련한 주제들을 확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사회: 김다원(광주교육대학교)

김다원(광주교육대학교) 이경한(전주교육대학교) 김선미(중앙대학교)	한중일 스토리텔링 세계시민교육의 교류 효과 비교
장진아(서울 남양초등학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수업과 그 실제
조수진(대전 대양초등학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과 그 실제
백지은·홍석민(공주교육대학교) 김영서·이동규(전주교육대학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ISHIMORI, Hiromi (北海道教育大学)	‘Small Talk’ promoting ICC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n elementary schools
FUJII, Mika (上越市立東本町小学校)	이문화 교류를 도입한 인권교육, 동화교육 실천

한·중·일 세계시민교육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이 경 한 (전주교육대학교)

김 선 미 (중 앙 대 학 교)

김 다 원 (광주교육대학교)

1. 추진 배경

①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 증대

- 스토리텔링은 교육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 효과적인 교수법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문학작품은 스토리텔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이 콘텐츠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 스토리텔링은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세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주며, 과거와 현재의 가치와 지혜를 전달한다는 면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방법으로 효과적이며 적절성을 지님.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나라가 가진 문화를 상호 교류할 수 있고, 문화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스토리텔링을 학교 수업에 활용하면, 예비교사들은 스토리의 유래, 맥락과 지역 사회, 민족 또는 국가의 문화적 메시지를 바탕으로 스토리의 교육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② 세계시민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수업의 기대 효과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APCEIU)은 세계시민교육의 콘텐츠 및 교수법 다양화의 맥락에서 교육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흥미로운 스토리를 발굴하여, 이를 도서, 영상,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배포해왔다.
- 세계시민교육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매개로 하여 변혁적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감성을 통한 타자와 타문화에 대한 공감 능력을 신장시키고, 서로 다른 영역이나 교과목들을 융합시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장점을 가진 스토리텔링을 통한 수업을 다양한 국가의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공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③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추구 및 한중일 상호협력 강화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이하 KOSEIU)는 APCEIU의 지원으로 2020년 스토리텔링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증진 연구 사업 실시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수업안 <세계시민, 스토리로 배우다>을 개발한 바 있다.
- 2021년에는 개발한 <세계시민, 스토리로 배우다> 중 일부 스토리텔링 수업안을 한중일 초등

학교에 적용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 2022년에는 2020년, 2021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예비교사의 수업안 개발 및 상호 교류 행사를 실시하였다.
- KOSEIU와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이하 JAIE)는 매년 정기학술대회를 통하여 상호교류와 논문 발표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옴. 특히 본 사업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JAIE-KOSEIU-APCEIU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사업의 확대 및 효과성을 증진하고 있다.

2. 프로젝트 추진 목적

- 한·중·일에서 스토리텔링 기반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수업의 개발과 확대
- 스토리텔링 기반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수업을 통한 한·중·일의 평화 문화 진작과 세계시민 교육/국제이해교육의 가치 공유 및 확산
- 스토리텔링을 통한 효과적인 세계시민교육 증진방안의 상호 모색과 비교

3. 프로젝트 추진 기간

- 2023년 4월 ~ 12월

4. 프로젝트 추진 및 협력 기관

- 사업 추진기관: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 사업 협력기관: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 중국 북경사범대학

5. 프로젝트 추진 방향

① 추진 방향

- 2023년에는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초등교사 및 예비초등교사가 수정 보완한 수업안 개발 및 적용 활동을 실시하고,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 연구대회에서 한중일 교사와 예비교사, 학자들의 상호교류 행사를 실시한다.
- 한·중·일의 초등교사들이 기 개발한 스토리텔링 수업안을 보완하여 적용한 수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하여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한다.
- 한·중·일의 예비초등교사들이 기후변화 주제를 다룬 동화책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세계시민교육(주제: 기후변화교육)에 관한 스토리텔링 수업안을 개발·공유하고, 상호 교류 활동을 실시하여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한다.

㉔ 추진 내용

(1) 연구

- 연구과제 : 한·중·일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초등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수업 적용 결과 및 예비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수업안 개발 결과의 공유와 교류
- 한·중·일 초등교사는 문화다양성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스토리텔링 수업 결과를 상호 교류하였다.
- 한·중·일 예비초등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스토리텔링 수업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상호 교류하였다.
- 그리고 그 한·중·일 초등교사 및 예비초등교사의 교류 결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운영 및 교류

- 한·중·일 예비 초등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스토리텔링 활용한 수업안(주제: 기후변화 교육)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상호 발표하고 교류하였다. 한국에서는 2개 대학, 일본 1개 대학, 그리고 중국 1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수업은 한 주제에 2차시씩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자와 학교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 한·중·일 초등교사는 2020년에 개발한 <세계시민, 스토리로 배우다>에서 문화다양성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수업안을 수정 보완하여 수업을 실시했다. 문화다양성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안은 초등학교 중학년(3-4학년)과 고학년(5-6학년)에 적용하였다. 단 예비초등교사는 기존 수업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수업안을 개발하였다.
- 각국에서 개발, 적용한 수업안과 수업 후기를 일본 국제이해교육학회와 연계하여 발표, 공유하였다.



그림 1. 한국 예비교사 팀의 발표 장면



그림 2. 일본 예비교사 팀의 발표 장면



6. 프로젝트 추진의 성과

(1) 한중일 예비교사들 간 세계시민교육 실천 파트너십 환경 조성

2023년의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안 개발과 공유 교류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주제 영역 중 지속가능발전 영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예비교사들의 수업안 개발과 수업안을 토대로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대면으로 토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같은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한중일의 각각의 수업안 개발과 수업에서의 중점 사항 그리고 접근 방법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교류의 기회를 통해서 지구적 이슈,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였고, 지속적 교류를 토대로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교류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 예비교사 및 교사의 세계시민교육에의 관심과 인식 제고

예비교사들의 본 연구에 참여에서 가장 의미있는 효과들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예비교사들과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였다. 아직 현장 교사가 되기 전의 단계에 있는 예비교사들과 현장의 교사들에게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수업안 개발을 위한 공동의 협력 활동, 한중일 수업안 공유 교류에의 참여 활동 등은 자신들의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생각을 성찰해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필요성 그리고 배움의 기회로 연결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 효과 및 후속 활동에 대한 반응에서 한중일 예비교사들과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대, 깊은 생각,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교육)에 관심 갖고 연구할 것이며 관련 자료 개발, 연구 교류에 지속적 참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3)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서 스토리텔링 방식의 가능성 확인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준에 맞는 그림책, 도서, 신문기사 등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구적 문제들과 사회 현상들을 학생들이 공감하고 현실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반응에서 스토리텔링 활용 수업안 개발과 적용은 학생들의 흥미 유발, 동기 부여, 현실적인 문제로 연결력 제고, 문제해결력 함양 등의 면에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스토리텔링 활용 수업의 실행은 학교 수업 방법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업 개선을 위한 선도적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을 제시하였다.

(4) 한중일 간 세계시민교육 연구 교류의 확장 기회

그간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KOSEIU)와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JAIE), 그리고 중국 북경사범대학과 관계자 간 매년 정기학술대회를 통하여 상호교류와 논문 발표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또한 2014년에는 한·일·중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공동 교재(2012~2014)를 발간했고 이후 여러 유형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상호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협력의 노력 연장선에서 실행된 것이었다. 특별히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같은 주제 영역에서도 다른 수업안과 수업에의 접근, 주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서로 확인하는 것은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 수행한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스토리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수업

장진아
(서울남명초등학교)

1

발표순서

01 수업의 흐름

02 수업과정

03 스토리 활동 요령

04 발문 제언

2

CHAPTER 01

수업의 흐름

세계시민, 스토리로 배우다

문화다양성 교육이론과 실천을 위한 한국교육과정개발학회 발표 자료

3

문화다양성교육 연계 교수학습 과정안 구성

1~2학년군	제1주제: 문화가 다르니까 다르구나
세부주제 1:	이탈리아 음식에는 누가 즐겨?
세부주제 2:	누구의 밥일까? 세계의 식량
세부주제 3:	학교 가는 길
3~4학년군	제2주제: 나와 다른 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
세부주제 1:	일본 나라 일본 위안부의 하루
세부주제 2:	다른 나라 아이들은 뭐하고 할까?
세부주제 3:	자꾸아들 어린이 요리 체험
5~6학년군	제3주제: 자연을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가 되기
세부주제 1:	존스톤 강에는 아이
세부주제 2:	왕수성의 여행
세부주제 3:	내 삶 속 색인경 내려놓기

4

수업의 방향

- 문화다양성교육이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가 획일화되거나 목적에 의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되는 것을 추구하는 교육이다(유네스코, 2014). 본 수업은 문화 다양성이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함께 살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 본 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문화 내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인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는 태도,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적극적인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본 수업에서는 후개기반 다학문적 통합적 접근과 문제해결학습을 통하여 인지적, 사회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목표가 균형 있게 성취될 수 있게 지도한다.

5

수업의 개요

교수-학습 과정안 (5~6학년 군)

【학습 주제: 나와 다른 또 같은 친구들의 이야기】

■ 개요

	차이를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가 되기
학습 목표	인지의 영역 · 지을 경험 이슈와 다른 문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음, 인종, 종교 등 다문화 문화 차이를 이해하도록 한다.
	사회 정서적 영역 · 다양한 상황에서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행동적 영역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과 편견의 부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일인 생을 속에서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 실천한다.
학습유형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 문제해결학습 활용
성공	교실, 교외학습
활용 자료	그림책, 존스톤 강, 인종차별, 왕수성의 여행, 연경은 아이와 모자를 쓴 이야기

6

수업의 개요

■ 수업에서 주안점

- ① 문화 다양성이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이나 차별 등의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 ② 일상생활 속에 편견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색안경뿐만 아니라, 자신이 몰랐던 편견과 차별에 대하여도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 장애, 인종, 직업, 나이 등에 따른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 상황들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탐구하도록 한다. 초·5-6학년군의 사회교과와 도덕교과에서 갈등 해결의 중요성 및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및 방법, 세계 인류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중점을 둔다.
- ③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 문제해결학습 그 이외 다양한 맥락 놀이 및 게임 활동을 이용하여 학과 통합,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적정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7

CHAPTER 02

수업과정



8

도입

단 계	핵심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공주님 이야기 중 흥미로운 장면 찾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 공주님 이야기 중 흥미로운 장면 찾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 공주님 이야기 중 흥미로운 장면 찾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수업하기



6-2-3. 지속가능한 지구촌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 전개



동화 속 공주님?

아름다운 외모, 예쁜 옷, 화려한 옷, 멋진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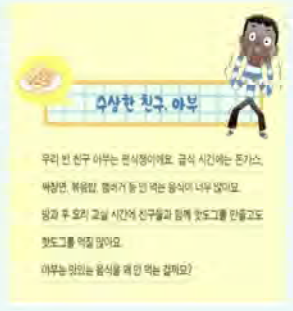
무슨 일이 생기면 왕자님이 나타나 구해준다고 기다리는 모습?

왕자님과 결혼하여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까?—하는 흔한 질문?

9

전개

단 계	핵심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전 개	· 동화 속 공주님 이야기 · 공주님 이야기 중 흥미로운 장면 찾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 동화 속 공주님 이야기 · 공주님 이야기 중 흥미로운 장면 찾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 동화 속 공주님 이야기 · 공주님 이야기 중 흥미로운 장면 찾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10

전개

단 계	핵심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전 개	· 동화 속 공주님 이야기 · 공주님 이야기 중 흥미로운 장면 찾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 동화 속 공주님 이야기 · 공주님 이야기 중 흥미로운 장면 찾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 동화 속 공주님 이야기 · 공주님 이야기 중 흥미로운 장면 찾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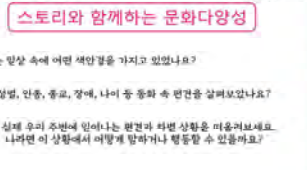
“인형 킨 아이와 모자 쓴 아이” 보기



11

전개

단 계	핵심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전 개	· 동화 속 공주님 이야기 · 공주님 이야기 중 흥미로운 장면 찾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 동화 속 공주님 이야기 · 공주님 이야기 중 흥미로운 장면 찾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 동화 속 공주님 이야기 · 공주님 이야기 중 흥미로운 장면 찾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12

[illegible]

13

4

수업후 학생이야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상대의 마음을
존중해야겠다.

나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인데
서로 비슷한 것도 있다.

일상 생활에서
변화는 많은 것 같다.
사람들마다 가진 다
움을 비워야겠다.
놀리지 않아야겠다.
다음을 존중하자.

다른 사람의 피부색, 종교, 국적을 가지고
놀리거나 비하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아닌 장애인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이를 존중하자.

15

스토리 활용 수업 효과

학생 학습 효과: 자연스러운 동기 유발, 흥미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 상승,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업에 대한 참여도 상승

교육과정 구성면: 교과 내용의 구체적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
공감대 형성, 관련 교과 연계 및 영교과 주제 연결 창의적 체험활동 구성

교수 학습 방법면: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들인 인권, 평화, 문화 다양성 등
인류보편적 가치들을 다루는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있음,
스토리 활용 수업은 학생들이 경험해볼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시뮬레이션
을 통한 공감하며 경험의 세계를 확장함

6

17

향후 개선사항

학생의 직접 완성면: 지속적인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스토리와 관련된 학습자의 위용거리, 확장된 자료 제공,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스토리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 제안

교육과정구성면: 문화다양성 관련 교과내용은 국어, 사회, 도덕 등 교과에 연계되어 있을, 스토리텔링 수업을 교과 연계로 구성하되 창의적 체험활동과 블렌드로 구성하여 최소 2차시에서 3차시 정도의 활동으로 구성 제안

교수학습방법면: 그림책은 선생님이 직접 읽어주는 방식, 깊이 있는 스토리는 학생들이 읽어보고 내용을 함께 탐색해가는 활동을 통해 수업을 전개 할 필요가 있을. 그림책의 유형별로 교수학습방법 가이드를 추가 서술 제안

8

THANK
YOU

Storytelling project –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Jang Jina
(Seoul Namyong Elementary School)

1

Storytelling project–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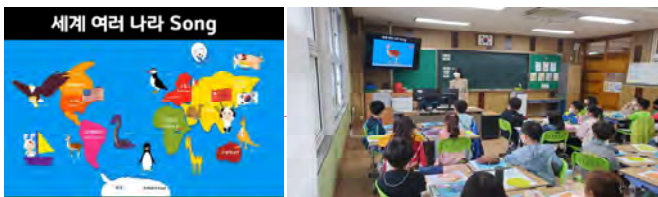
[3rd to 4th graders]

- Class Topic: Stories of friends from other countries
- Subject of class: 3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 Class time: 80 minutes (1 period = 40 minutes)
- Using the story: <A day of seven children in seven countries>, <What games do children in other countries play?>
- Important points
It examines the daily lives of friends from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allows them to be interested in cultural diversity and look at it from an open perspective.

2

[Opening]

- Listening to music fro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 Talking about experiences related t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 Imagine how friends my age might be living there.



3

[Activity 1] "A Day of Seven Children in Seven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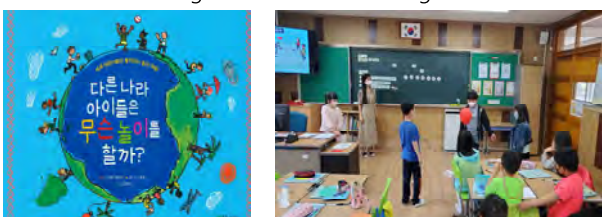
- Compare with me how the friends in the book have a day.
- Write down what you want to say if you meet friends from other countries.



4

[Activity 2] What do children from other countries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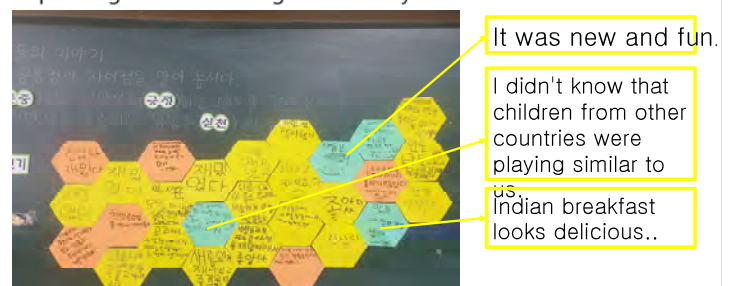
- A look at the play that children in other countries are playing.
- Imagine and express the play you want to play together if children from other countries come on a play trip.
- Let's introduce the game that we made together.



5

[Closing] Sharing learning results

- Expressing students' thoughts that they found in class



6

Storytelling project-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5rd to 6th graders]

- Class Topic: Being a person who respects diversity beyond difference
- Subject of class: 6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 Class time: 80 minutes (1 period = 40 minutes)
- Using the story: <Princess's Special Trip>, <A child who doesn't eat pork cutlet>
- Important points
The purpose is to enable students to relate and communicate harmoniously with others in various cultural environments.

7

[Opening] Princess's Special Trip

- Talking about words that come to mind through the image of a princess.
- Thinking about prejudice in our daily lives.

Beautiful appearance?

Pretty clothes?

Glass shoes?

Nice castle?



A princess who finds her dream without being locked up in a castl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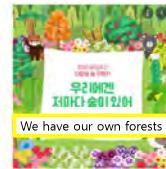
[Activity 1] "A child who doesn't eat pork cutlet"

- Think about what food you don't eat.
- Read "A Child Who Doesn't Eat Pork Cutlet" and think about why his friend Abu became a picky eater.
- Talking about how to live with friends who have different thoughts and habits.
- Students read the story together and talk based on the opinions they found.
- Talking about lookism, gender role stereotypes, Islamic culture, etc.



9

[Activity 2] Finding jaundiced eye in Daily Life



- Thinking about what jaundiced eye I usually have.
- Finding prejudice in cases such as gender, disability, age, religion, caste and race etc..
- Think deeply about the prejudice that actually occurs around us and the resulting discrimination situation.
- If I were you, write how to speak or act in this situation is a better choice.

10

[Closing] Sharing learning results

- Expressing students' thoughts that they found in class



We should try to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We should not belittle others.

It's different, not wrong

There seems to be a lot of prejudice in everyday life.

11

The meaning of this class

-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is basically an education that pursues that the culture of a society is not uniformized or integrated by purpose, but that various branches are respected in itself.
- Students learned that various cultures exist through storytelling projects.
- Recognizing that everyone is different, I tried to recognize and respect others as they are, an attitude that does not evaluate others based on my standards.
- It was a project that helped students to relate and communicate with various people in harmony.

12

Thank you for listening

<2023.11.1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과 그 실제

조수진
(대전대양초등학교)

1

Overview



2020년 <세게시민, 스토리로 배우다> 개발

- 인권교육, 평화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4개 영역
- 초등학교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스토리텔링 활용 교수·학습자료(수업안) 개발

2

Overview



2020년 <세게시민, 스토리로 배우다> 개발



2021년 스토리텔링 활용 수업안을 한국, 일본, 중국의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

- 한국에서는 4명의 초등교사 참여,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수업 적용

3

<세게시민, 스토리로 배우다> 중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영역 개발 자료

1~2학년군 학습 주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 숲

3~4학년군 학습 주제: 우리가 만들어 낸 플라스틱 섬

수업
적용

5~6학년군 학습 주제: 기후 변화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기

수업
적용

4

1. 스토리텔링 활용 ESD 수업 - 3~4학년군

5

스토리텔링 활용 ESD 수업의 실제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 3~4학년군 수업 적용]

- 수업 주제 : 우리가 만들어 낸 플라스틱 섬
- 수업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 수업 시간 : 2차시 (80분)
- 스토리 활용 : <플라스틱 섬>, <지구를 구하는 쓰레기 제로 대작전>
- 강조점 -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이해
 -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
 -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탐색 및 실천

6



[플라스틱 섬]

- 주제: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
- [플라스틱 섬]은 바닷새의 시선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의 플라스틱 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지구를 구하는 쓰레기 제로 대작전]

- 주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지구를 구하는 쓰레기 제로 대작전]은 주인공인 데이즈와 학급 친구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7

[도입] 생각열기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생활 속 플라스틱 제품 찾아보기] ·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플라스틱 제품 찾아보기 · 플라스틱 제품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생각해보기

이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일상생활과 밀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

8

[활동 1] 문제 상황 파악

단계	교수-학습 활동
전개	[활동 1] 내 손에서 바다까지, 플라스틱 쓰레기의 여행 · <플라스틱 섬> 그림책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 상황 인식하기 ·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공감하기 ·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 보기

9

[활동 1] 문제 상황 파악

'플라스틱 섬' 책 읽기 전



10

[활동 1] 문제 상황 파악

'플라스틱 섬' 책 읽기 중



11

'플라스틱 섬' 책 읽은 후

□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봅시다.

학생 1

새들과 물고들이 다 죽고, 바다의 물이 오염되어 물을 먹지 못해요

학생 2

바다가 오염 되어서 생태계가 개지게 되고 동물들이 죽거나 다치게 된다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을 바다생물이 먹으면 몸이 좋지 않다 그걸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피해 받을 거 같다

12

[활동 2] 문제 원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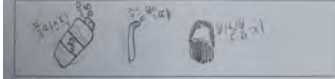
단계	교수·학습 활동
전개	[활동 2] 바다 한가운데의 플라스틱 섬 - 바다 한가운데의 플라스틱 섬에 대해 알아보기 - 플라스틱 섬의 모습을 검색하여 살펴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공유하기 - 바다를 점령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생각해 보기 -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나와도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기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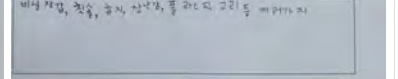
○ 활동 2 바다 한가운데의 플라스틱 섬

1. 실제 홀리스틱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리해봅시다.
- 정리하기 위해 글을 써서 발표할 친구들끼리 서로 질문을 주고 받는다.
- 정리후
2. 바다를 경험한 홀리스틱 스레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 정리후 (1) 호수에서 놀다가 데이트 하러 갔다.
3. 해도는 시간, 정열의 한 장면처럼 내가 사용하고 바뀐 홀리스틱 스레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 활동 2 - 바다 한가운데의 플라스틱 섬

1. 실제 클라식적 성가곡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리해봅시다.
- 내가 버려진 소녀의 죽음 - 1911 3월 20일 생가곡
- 모차르트 소프라노 성악에 3월 20일 생가곡
- 마지막 악장인데 끝을 다 알았을 줄 모르기 때문 - 예쁜 자
아마야 있다
2. 비단을 정제한 클라식적 노래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온 것 같다
3. 예도는 사진, 열상화 한 장면을 내가 사용하고 비단 클라식적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 비단 자갈, 천상, 놀이, 산악, 물과 더 그리운 예도가 지



4

[활동 3] 문제 해결 방안 탐색

단계	교수·학습 활동
전개	[활동 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 시작하기 · <쓰레기 제로 대작전> 속 실천 방안 확인하기 · <쓰레기 제로 대작전>을 참고하여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탐구하기 · 나의 실천 계획 세우기

- 활동 3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 시작하기

1. <매거진 새로 대작전>을 참고하여, 모든 친구들과 생활 속에서 '다섯 악당(비닐 봉지, 플라스틱 용병, 일회용 컵, 휴지와 물티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토의해봅시다. (▶ 육각형모드에 자신의 의견 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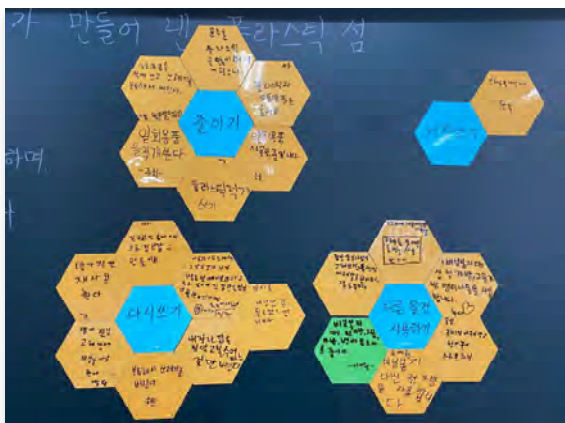
15

[활동 3] 문제 해결 방안 탐색



책에 나온 방법들을 참고하여,
노란색 육각형 보드에
자신이 생각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는 방법' 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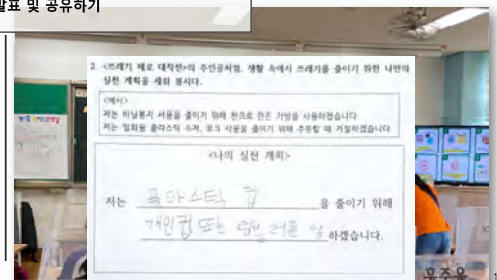
16



17

[정리] 수업 결과 공유

단계	교수-학습 활동
정리	· 자신의 실천 계획 발표 및 공유하기



8

2. 스토리텔링 활용 ESD 수업 - 5~6학년군

19

스토리텔링 활용 ESD 수업의 실제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 5~6학년군]

- 수업 주제 : 기후변화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기
- 수업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 수업 시간 : 1차시 (40분)
- 스토리 활용 : <북극곰 윈스턴, 지구온난화에 맞서다!>
- 강조점 -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생명체의 어려움에 공감
 - 기후변화의 원인을 이해하며 전 지구적 문제임을 인식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탐색 및 실천

20



[북극곰 윈스턴, 지구온난화에 맞서다!]

- 주제: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곰 생존의 문제
- [북극곰 윈스턴, 지구온난화에 맞서다!]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에 맞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책이다.

21

[도입] 과제 확인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스토리 내용 확인] · 학생들과 과제 확인하기 (그림책을 사전에 읽어오도록 과제 제시) · 책 제목이나 표지를 보고 처음에 떠올랐던 생각 나누기 · 스토리를 활용하여 지구온난화 관련 내용 정리하기 ·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 살펴보기 (예-산불 등) · 기후변화의 의미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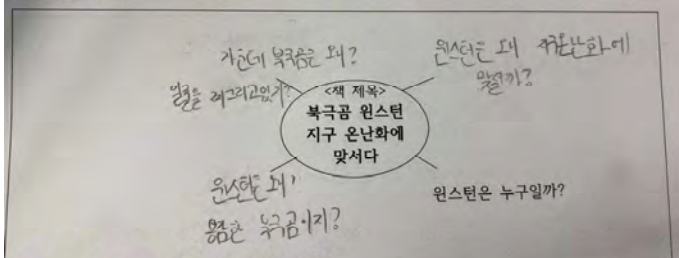
22

그림책을 활용하여

책 제목이나 표지를 보고 떠오른 생각 나누기

1. 그림책을 통해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문제 상황 인식하기

- 책의 표지를 살펴보고 이야기의 내용을 추측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23

[도입] 과제 확인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스토리 내용 확인] · 학생들과 과제 확인하기 (그림책을 사전에 읽어오도록 과제 제시) · 책 제목이나 표지를 보고 처음에 떠올랐던 생각 나누기 · 스토리를 활용하여 지구온난화 관련 내용 정리하기 ·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 살펴보기 (예-산불 등) · 기후변화의 의미 확인하기

- 1) 윈스턴과 여러 북극곰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데 모였나요?
- 2) 윈스턴은 빙하가 녹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나요?
- 3)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를 아기곰에게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나요?

24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 살펴보기

베네치아 홍수

2019년 11월 13일, 이탈리아에서 53년 만의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여 수해로 베네치아 도시의 90%가 물에 잠기고, 2명이 사망했어요.



호주 산불

2019년 9월,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소방관 포함 24명이 목숨을 잃었고, 캔버라와 코알라 등 5억 마리 이상 수많은 야생 동물이 희생되었어요.

인도 가뭄

2019년 5월 1일, 인도 기상청에 따르면 인도에서 사막도시로 추운 날 최고 기온이 50도를 기록, 연이은 폭염으로 결사병 환자도 발생하고 수확량이 사멸했어요.



기후변화의 의미 확인하기

- 전시 학습에서 안내한 기후변화의 의미를 확인하며 본 활동 시작하기

25

[활동 1] 문제 상황 파악

단계	교수-학습 활동
전개	[활동 1] 인터뷰 활동 준비하기 - 인터뷰 질문 정하기 - 내가 원스틴이라면 (북극곰 입장),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 내가 관광객이라면 (사람 입장), 북극곰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 인터뷰 역할 나누기 - 북극곰의 처지, 상황, 감정에 대하여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모둠 친구들과 확인하고, 더 좋은 질문이 있으면 추가하기 - 북극곰 역할, 사람들 역할을 나누고 인터뷰 모의 연습하기

26

[활동 1] 인터뷰 활동 준비하기



내가 만약 원스틴이라면 (북극곰 입장)



내가 만약 관광객이라면 (사람 입장)



27

[활동 1] 인터뷰 활동 준비하기

1. 관광객 (사람들) 역할 : 북극곰 원스틴에게 궁금한 점 질문하기

- ex) 네 생각은 어떠한? (의견)
ex) 왜 그런 행동을 했니? (행동의 이유)
ex) 그 때 네 기분은 어땠니? (감정, 느낌)

2. 북극곰 원스틴 역할

- : 내가 원스틴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북극곰의 입장과 처지 / 설득 / 제안 /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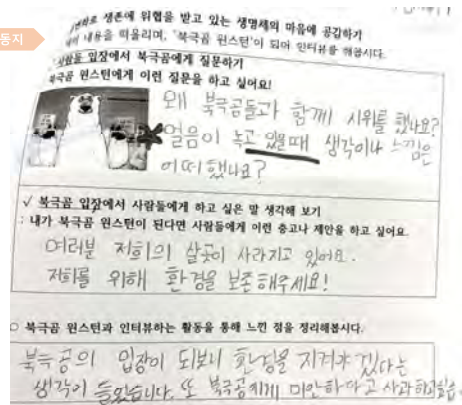
28

[활동 2] 문제 원인 확인

단계	교수-학습 활동
전개	[활동 2] 북극곰 원스틴과 인터뷰하기 - 북극곰 원스틴이 되어 보는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생명체의 마음에 공감하기 < 인터뷰 방법 > 1) 교실 앞에 의자를 북극곰의 수만큼 놓는다. 2) 모둠에서 1명의 친구가 '북극곰 원스틴' 이 되어 의자에 앉는다. 3) 다른 친구들은 사람들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묻는다. 4) 의자에 앉은 친구는 그 인물(북극곰 원스틴)이 되어 대답한다.

29

학생 활동지



30

[활동 3] 문제 해결 방안 탐색

단계	교수-학습 활동
전개	[활동 3]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해 보기 · 북극곰들의 이야기를 듣고 뒷이야기 상상하기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였을지)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 생각해 보기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기

31

[활동 3] 문제 해결 방안 탐색



32

결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

- 첫째, 스토리를 통해 현실의 문제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인식
- 둘째, 스토리를 통해 등장 인물의 상황 및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깊게 공감
- 셋째, 공감을 토대로 세계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함
- 넷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에 흥미를 높임

33

감사합니다.

한중일 예비교사 시민교육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백지은, 홍석민 (공주교육대학교)
김영서, 이동규 (전주교육대학교)

1

이제는 global boiling 시대?



<https://news.un.org/en/story/2023/07/1329142>
<https://www.washingtonpost.com/climate-environment/2023/07/29/un-what-is-global-boiling/>

2

한중일 예비교사 세계시민교육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2023년 8월 2일 일본 나고야대학 발표>

3

기후 위기 교육 + 스토리텔링

자발적인 기후 위기 행동 실천
유도 가능!

몰입&공감

생동감 넘치는 수업

4

<발표 목차>

스토리텔링
활용 도서
소개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관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기대점

아쉬운 점,
배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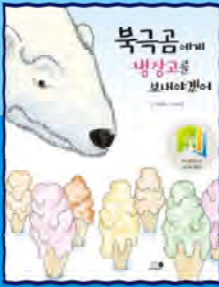
5



6

BOOK INTRODUCCION

A SUMMARY OF THE PLOT



BOOK 1
[I NEED TO SEND
A REFRIGERATOR
TO THE POLAR BEAR]

THE STORY OF A POLAR BEAR NAMED ICE,
WHO LIVES IN THE ARCTIC,
BEING UNABLE TO SELL ICE CREAM
DUE TO THE CLIMATE CRISIS



7

BOOK INTRODUCCION

A SUMMARY OF THE PLOT



BOOK 2
[GRETA THUNBERG
CHANGES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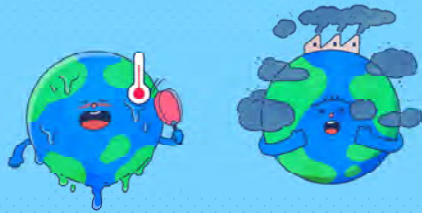
THIS BOOK SHOWS HOW GRETA
BECAME AN ENVIRONMENTAL ACTIVIST
AND WHAT SHE DID TO PROTECT OUR
EARTH FROM CLIMATE CRISIS



8

GENERAL OUTLINE

CLASS OVERVIEW



LESSON 1

AWARENESS AND
INTEREST IN
CLIMATE CRISIS ISSUES

LESSON 2

EXPLORING CLIMATE
CRISIS PROBLEMS

LESSON 3

DAILY PRACTICE TO
SOLVE CLIMATE CRISIS

LESSON 4

PLANNING A CAMPAIGN
TO SOLVE
CLIMATE CRISIS

9

GENERAL OUTLINE

TOPIC: BEING AWARE OF CLIMATE CRISIS AND PUTTING INTO ACTS TO SOLVE THESE ISSUES
(TARGETED FOR 5TH AND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DETAILED CASES AND CONTENTS OF ACTIVITIES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LOCAL ENVIRONMENT

THE PROGRAM IS PLANNED
IN A TOTAL OF
4 TEACHING-LEARNING
COURSES

FIRST

UNDERSTAND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RISIS

RECOGNIZE THE URGENT NEED FOR AN ACT
TO DEAL WITH THESE CLIMATE CRISIS ISSUES

FOURTH

THIRD

SECOND

TEACHER WILL GUIDE STUDENTS
HOW TO TAKE AN ACTION
TO DEAL WITH CLIMATE CRISIS
ISSUES BASED ON CAUSES
OF CLIMATE CRISIS

10

LESSON 1

LET'S LEARN ABOUT CLIMATE CRISIS THROUGH READING THE STORY OF POLAR BEAR

**LEARNING
OBJECTIVES**

WE CAN **RECOGNIZE**
AND BE AWARE OF THE
CLIMATE CRISIS
AFTER READING

IF I NEED TO SEND
A REFRIGERATOR
TO THE POLAR BEAR

MOTIVATION

BEFORE READING
THE BOOK, TEACHER
WILL KNOW ONLY
THE TITLE
OF THE BOOK
AND LET STUDENTS
TRY TO KNOW WHY THE
BOOK WAS NA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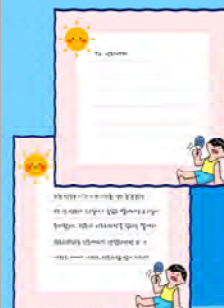
ACTIVITIES

1. LET'S READ
A BOOK
2. LET'S GET AWARE OF
CLIMATE CRISIS DUE TO
GLOBAL WARMING
3. LET'S SEND A LETTER TO
CAMEL TO INFORM THE
CLIMATE CRISIS IN OUR
REGION

11

LESSON 1'S MAIN ACTIVITY

SENDING A LETTER TO CAMEL



TEACHER WILL SHOW STUDENTS
A NEWS ARTICLE
THAT SHOWS A CLIMATE CRISIS OCCURRING
IN OUR REGION 'JEONJU'

AND STUDENTS WILL WRITE
A LETTER TO CAMEL ABOUT THIS CRISIS

12

LESSON 2

IMAGINE THAT YOU HAVE BECOME A CLIMATE CRISIS GUARDIAN EXPEDITION TEAM AND EXPLORE CLIMATE CHANGE ISSUES

LEARNING OBJEC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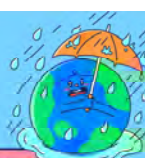
WE CAN EXPLORE AND IDENTIFY DIFFERENT CLIMATE CRISIS ISSUES AROUND THE WORLD

MOTIVATION

WE WILL SUPPOSE A SITUATION THAT CAME IN THE BOOK, HAVE SENT A LETTER TO POLAND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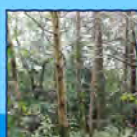
1. LET'S EXPLORE DIFFERENT CLIMATE CRISIS ISSUES AROUND THE WORLD
2. LET'S PREPARE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YOU HAVE SEARCHED
3. LET'S PREPARE THE CLIMATE CRISIS THROUGH



13

LESSON 2'S MAIN ACTIVITY

EXPLORING A DIFFERENT CLIMATE CRISIS ISSUES AROUND THE WORLD IMAGINING THAT YOU'VE BECOME A CLIMATE CRISIS GUARDIAN EXPEDITION TEAM





TEACHER WILL GIVE EACH GROUPS EXAMPLES CONSISTED OF CLIMATE CRISIS ISSUES OF KOREA, CHINA AND JAPAN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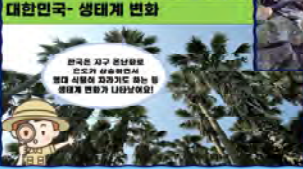
LESSON 2'S MAIN ACTIVITY

KOREA-ECOLOGICAL CHANGE

대한민국



대한민국- 생태계 변화



대한민국- 생태계 변화



15

LESSON 2'S MAIN ACTIVITY

CHINA-HEAT WAVE

중국



중국- 여름 폭염



중국- 여름 폭염



16

LESSON 2'S MAIN ACTIVITY

JAPAN-SEA TEMPERATURE RISE

일본



일본- 해수 온도 상승



일본- 해수 온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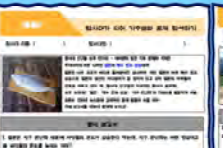
17

LESSON 2'S MAIN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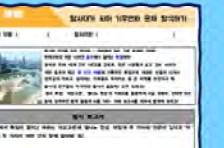
일본



일본



일본



18

LESSON 3

LET'S PROTECT THE EARTH BY CHANGING OUR DAILY ROUTINE

LEARNING OBJECTIVES

WE CAN THINK AND CHANGE OUR DAILY ROUTINE TO DEAL WITH CLIMATE CRISIS

MOTIVATION

WE WILL SHOW A VIDEO OF A TED TALK TO Greta Thunberg

ACTIVITIES

1. LET'S READ AND CHECK THE CONTENT OF "Greta Thunberg CHANGES THE WORLD"
2. LET'S THINK OF WAY TO DEAL WITH THE CLIMATE CRISIS THAT WE CAN PUT INTO ACTION IN OUR DAILY LIFE.



19

LESSON 3'S MAIN ACTIVITY

ENVIRONMENTAL DIARY + MIND MAP

ENVIRONMENTAL DIARY

DATE: / /

TIME: : :

WEATHER: ☀ ☁ ☔

WHAT I DID TODAY:

WHAT I THINK ABOUT IT:

MIND MAP

CLIMATE CRISIS

- CAUSES
- EFFECTS
- SOLUTIONS

1. TEACHER WILL GIVE AN ENVIRONMENTAL DIARY FORM AND STUDENTS WILL WRITE A DIARY AFTER LOOKING BACK AT THEIR BEHAVIORS THAT THEY'VE DONE IN THEIR DAILY LIFE TO DEAL WITH CLIMATE CRISIS.
2. TEACHER WILL GIVE A MIND MAP FORM AND STUDENTS CAN THINK OF BEHAVIORS THAT THEY CAN DO IN THE FUTURE DAILY LIFE TO DEAL WITH CLIMATE CRISIS.



20

LESSON 4

LET'S SEND OUR MESSAGES TO SOLVE CLIMATE CRISIS ISSUES

LEARNING OBJECTIVES

WE CAN PLAN A CAMPAIGN FOR ENVIRONMENT AND MAKE A PICKET FOR OUR ENVIRONMENTAL CAMPAIGN

MOTIVATION

TEACHER WILL GIVE AN EXAMPLE OF VARIOUS ENVIRONMENTAL CAMPAIGN AROUND THE WORLD

ACTIVITIES

1. LET'S PLAN AN ENVIRONMENTAL CAMPAIGN
2. LET'S MAKE A CAMPAIGN PICKET USING RECYCLABLE MATERIALS AND WASTE PRODUCTS



21

LESSON 4'S MAIN ACTIVITY

FOCUS ON MOTIVATION PART

MEAT FREE

MEAT FREE MONDAY

• Reduce the amount of meat you eat to help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 Meat free Monday: 1st Monday of every month.

• Meat free Tuesday: 2nd Tuesday of every month.

PLASTIC FREE JULY

PLASTIC FREE JULY

• Reduce plastic waste by using reusable bottles and containers.

• Plastic Free July: 1st July to 31st July.

TEACHER WILL GIVE DIFFERENT EXAMPLES OF VARIOUS ENVIRONMENTAL CAMPAIGN SUCH AS MEAT FREE MONDAY, PLASTIC FREE JULY OR TURNING OFF ALL LIGHTS ON EARTH DAY.



22

LESSON 4'S MAIN ACTIVITY

MAKE A CAMPAIGN PICKET BASED ON THE CAMPAIGN THEY HAVE PLANNED

CAMPAIGN PICKET

DATE: / /

TIME: : :

WEATHER: ☀ ☁ ☔

WHAT I DID TODAY:

WHAT I THINK ABOUT IT:

DOWN UP

DOWN UP

• Reduce the amount of meat you eat to help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 Meat free Monday: 1st Monday of every month.

• Meat free Tuesday: 2nd Tuesday of every month.

STUDENTS WILL ALSO PROMOTE THEIR CAMPAIGN IN LUNCHTIME AT SCHOOL USING THE PICKET THEY HAVE MADE

WE EXPECT STUDENTS TO BE INSPIRED THROUGH EXAMPLES FROM MOTIVATION PHASE AND MAKE THEIR OWN CAMPAIGNS USING CREATIVITY.



23

WHAT TO EXPECT

WHAT WE EXPECT FROM THESE LESSONS

- 1 Warn and be aware of climate crisis
- 2 Recognize the climate crisis is an issue for our entire world
→ Expect them turning into a global citizen
- 3 By using a storytelling
→ Better understanding of climate crisis situation
→ Encouragement to participate more in activities which designed
→ Students can develop qualities such as problem solving, decision making,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nd creative thinking



24

WHAT TO EXPECT

WHAT WE EXPECT FROM THESE LESSONS

Overall Flow

Awareness and interest in climate crisis issues → Exploring climate crisis problems → Daily practice to solve climate crisis → Planning a campaign to solve climate crisis

4 → Expect students to continue their interest in climate crisis issues even after lessons are over which will lead to independent and active practice in their real life

25

WHAT TO EXPECT

WHAT WE EXPECT FROM THESE LESSONS

5 Designed our activities to focus from our region and country to the world

THIS CAN HELP STUDENTS TO RECOGNIZE THAT CLIMATE CRISIS IS A GLOBAL ISSUE WHICH NEEDS A COOPERATION THROUGH COMMUNICATION WITH MANY DIFFERENT COUNTRIES

26

TAKEAWAY

LACKING POINT

1 DEFICIENCY OF TIME FOR ACTIVITIES ESPECIALLY IN LESSON 2 AND 4

2 THROUGHOUT LESSONS, TEACHER GIVES TOO MUCH EXAMPLES TO STUDENTS
→ BUT THIS MIGHT LEAD TO A LACK OF ABILITY TO RESEARCH AND USE INFORMATION FOR STUDENTS.

27

TAKEAWAY

LEARNING POINT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climate crisis issues once again

Students should learn about climate crisis issues more deeply in school

Climate crisis is a problem for our whole world

We need to cooperate together and students should start from learning acts they could do in their daily life.

28

THANK YOU

.....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29

Designing “Small Talk” aimed at promoting ICC in English education in Japanese elementary schools

일본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한 Small Talk

石森 広美 (ISHIMORI, Hiromi)

(北海道教育大学 Hokkaido University of Education)

In Japan, foreign language (actually "English") education officially began as a "subject" in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s in 2020. As a new teaching material, Small Talk has been set up to encourage "interaction" in the area of speaking. The problem to be recognized is that the examples of Small Talk described in the "Training Guidebooks" and instruction manuals presented by the MEXT do not consider the importance of fostering children's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CC),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diversity.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design Small Talk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ICC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일본에서는 2020 년도부터 초등학교 5, 6 학년에 있어서 「교과」로서 외국어(실제로는 「영어」) 교육이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신교재로서 말하는 영역에서의 「교환」을 추구하는 Small Talk 가 설정되어 있다. 문부과학성이 제시하는 「연수 가이드북」이나 지도서에 기재된 Small Talk 의 예는, 아동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국제 이해, 다양성의 존중을 기르는 것이 의식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로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ICC(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육성에 기여하는 Small Talk 에 대해 제안한다.

1. Introduction: Background of this presentation and awareness of the issu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background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as a subject) in elementary schools is to “respond to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6). Rather, I feel that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cultivating a mindset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tolerance for different cultures. In elementary school foreign language classes, the aim is to develop the foundations and basic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or communication skills, bu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s missing (Torikai, 2018). “Interaction” has been newly established in the area of “speaking” and Small Talk is recommended as one of these activities. Therefore, in this presentation, I focused on Small Talk, which is easy to use in daily classes such as warm up / review activities and came up with the idea that it could be used as a teaching material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diversity.

2. Challenges

(1) Communicative competence

An overview of the changes in the purpose of elementary school foreign language (English) shows that from 2002 to 2010, it was implemented as part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in comprehensive studies, and the focus was to foster a tolerant attitude toward other cultures. After that, as practice was accumulated, the development of a positive attitude toward communication was

emphasized. After 2011, when foreign language activities became compulsory, connections to junior high schools became a focus, and the emphasis shifted to becoming familiar with a foreign language (English). Then, from 2022, when the introduction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s a subject, the developmen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will be made explicit, and attention are being focused on improving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rasawa, 2021).

On the other hand, if we look at the “goals” presented in the curriculum guidelines, the consistent goal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elementary, junior and high schools, including elementary school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to develop/foster “communicative competence” (or communication skills). The school advocate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through 10 years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starting from the basics and continuing through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The component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which is the core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clude not only language skills such as grammatical competence and discourse competence, but also attitudes, and knowledge of world issues (Muranoi, 2006).

In addition, the “world” includes not only the world around us, but also various cultural and social issues, global issues, etc. Knowing these things and having your own thoughts is the key to foreign language education. It is also deeply related to the “consciousness of others” that is emphasized in Azuma (2023), when looking into the future of children living in a global era,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deepen understanding and thinking from a global perspective, even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required in elementary school foreign language education. Especially in the early stages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 think it is meaningful to reconsider its combination with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along with its purpose.

(2) Small Talk

With the above issues in mind, this study reconsiders Small Talk, which is easy to handle even for a short period of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ability to “talk [and interact],” we also promote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cluding respect for different cultures and diversity, and a tolerant/open attitude and mind.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7), Small Talk, which is set in new teaching materials for upper grades, is an interactive program that focuses on listening to the instructor's summary talk and communicating in pairs based on a certain theme. It gradually develops into dialogue between children, and in the 6th grade, it is positioned as an activity where children mainly interact with each other. Small Talk is recommended with the aim of developing the basics of communication skills, but in reality, “the conversations become memorization from the textbook” and “conversations between children tend to become exchanges of fixed phrases from the textbook, so it is difficult to spread the word.” (Machida, 2021) It has become a source of concern for teachers.

Sinc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two 1-2-minute conversa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class, by adding topics that have the potential to develop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to this Small Talk, we will make it even more interesting. It is envisioned that this activity will arouse children's

intellectual curiosity in real life, provide an opportunity to stimulate their motivation for learning a foreign language, and Small Talk can become an activity that supports communication.

(3) Purpose and method

There are many examples of Small Talk in the "Training Guidebook" provided by MEXT and instruction manuals organized by the textbook publishing companies, but as far as an overview is concerned, I was aware of the problem that it was difficult to arouse children's interest in different cultures and motivate them to study English. Therefore, in this presentation, I will critically examine "representative examples of small talk" from the viewpoint of respect for diversity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nsider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Small Talk,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and to propose samples for teachers to try using.

As for the method, after examining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Small Talk described in the "Training Guidebook", I will create examples of dialogue that may develop from the perspective of respect for diversity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the process, I will listen to the opinion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training course stude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nd use their perspectives as a reference. The draft plan will receive comments from teachers who are now involved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

3. Rethinking about Small Talk

For example, in the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re is a unit *What would you like?* The following are ① Examples of Small Talk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7) "Elementary School Foreign Language Activities and Foreign Language Training Guidebook" and ② Mitsumura Shoten *Here We Go!* showing an example of a Small Talk.

①T: I like pizza. What food do you like? I like pizza very much.

I like cheese very much. Pizza is very delicious. Do you like pizza? Yes? Good.

What kind of pizza do you like? Seafood pizza? Mushroom pizza? Margherita?

I especially like quattro formaggi.

It's very delicious. The topping has for kinds of cheese and honey.

Mmm...yummy! Do you want to try?

②HRT: What food do you like?

ALT: I like curry and rice. I like sushi, too. How about you?

HRT: I like Chinese food. I like dumplings and ramen.

Oh, it's almost lunch time!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ALT: I would like a hamburger and soda pop.

HRT:OK. You would like a hamburger and soda pop?

Let's go to a fast food restaurant!

First, in (1), there remains a question as to whether it is necessary or meaningful to list many types of pizza that are unfamiliar to pupils. Also, there are few target expressions. In (2), a wide variety

of foods have appeared, but it seems to be difficult to develop respect for diversity and deepen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For example, by adding religious aspects such as Islamic food culture and Ramadan, it might be possible to increase its value as a teaching material that shows children a new world.

Example (draft) created with an international student from Malaysia.

5th Grade Unit 3. *What do you want to study?*

T: What subject do you like ?

E: I like **Islamic education**.

T: Islamic education? We don't have it.

(児童に向かって아동을 향해) What's that?

We have moral education. You can see it on page 28.

What's moral education in Japanese?

Yes, 道徳(모랄). Moral は道徳の、良心の、って意味。

Education がつくね。Islamic education にも education がつくね。

Islamic education は…そう、イスラム教のことを勉強する時間だね。

(이슬람을 공부할 시간이군요.)

T: What subject do you like ?

S: I like music.

T: Good! I like music, too. (マレーシアの留学生に向かって)

Do you have music in Malaysia?

E: Yes ! We have music.

T: Oh, you have music in Malaysia. What do you play in music class?

E: We play the recorder.

T: Really? (児童に向かって) Do you play the recorder, too ?

Ss: Yes !

T: We play the recorder in Japan and in Malaysia.

マレーシアでも音楽の授業でリコーダーを習うんだね。同じだね !

(말레이시아에서도 아들은 음악의 수업으로 리코더를 배운다. 동일하네!)

In cross-cultural education, it is considered important to mutually understand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and this point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Grade 5 foreign language *What would you like?* Small Talk (Mitsumura Shoten *Here We Go!*)

- HRT: What food do you like?
- ALT: I like curry and rice. I like sushi, too. How about you?
- HRT: I like Chinese food. I like dumplings and ramen.

Oh, it's almost lunch time!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 ALT: **I would like** a hamburger and soda pop.
- HRT:OK. **You would like** a hamburger and soda pop? Let's go to a fast food restaurant!

In this example shown in the textbook, there seems no perspective of cross-cultural understanding or respect for diversity. So, I reexamine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design a sample as follows.

T: Do you like curry, S1?
S1: Yes!
T: Do you like curry and rice? or soup curry?
S1: Curry and rice. I like curry and rice.
T: That's nice. Oh...I'm hungry. Fareiz-san, are you hungry ?
F: Yes, I'm hungry, too.
T: Fareiz-san, **what food would you like** today? **Would you like** soup curry for lunch?
F: Yes, **I would like** soup curry, but not this time... I can't eat lunch this month...
(Why?)
F: Because I'm on **Ramadan**...I'm **Muslim**. I cannot eat or drink between sunrise and sunset.
T: Oh, I see. I understand. I'm sorry.
F: It's OK.
T: Let's go next time.

As seen, the idea of “Ramadan” is tried out as an introduction to the teachings of Islam. This is because religion is deeply connected to the values and culture of the world, and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others. In particular, the Muslim population is currently on the rise, and opportunities for cross-cultural contact are increasing within Japan as well. I believe that this perspective is critical to becoming a member of a multicultural society.

4. Feedback from teachers

Some feedback from teachers have been collected. To summarize the teacher's responses: Small Talk, which incorporates the perspective of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ttracts the interest of children. By devising Small Talk, it is possible to cultivate a mindset of respect for diversity and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On the other hand, it is revealed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general are reluctant to mention something religious, thinking that dealing with religious topics requires caution and is difficult. There were opinions that this could lead to incomplete understanding or misunderstandings, being aware of some risk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Small Talk through communication with international students and people with diverse backgrounds as well as teachers involved in English Education at schools. I would like to make Small Talk examples that promotes cross-cultural communication, refine the content, and then present it to teachers as a tool for cross-cultural understanding. For practice at schools,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JTEs and ALTs is also important.

※This work is supported by JSPS KAKENHI Grant Number JP 23K02380 (Grant-in-Aid for Scientific Research(C))
한국이나 중국 등 일본의 이웃 국가와의 상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Small Talk 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꼭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E-mail: ishimori.hiromi@h.hokkyodai.ac.jp

이문화 교류를 통한 인권교육, 동화교육(同和教育) 실천

후지이 미카

(조에쓰 교육대학 교직대학원·조에쓰 시립 히가시혼초 초등학교)

I. 연구 배경과 문제의 소재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 소재를 3 가지 기술한다.

1. 지금까지의 교육 실천
2. 인권교육과 국제이해교육
3. 한국정부 일본교직원 초청 프로그램 참가

이상의 3 가지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를 '이문화교류를 통한 인권교육, 동화교육의 실천'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현임교는 인권교육, 동화교육을 핵심으로 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할 수 있는 체험활동과 수업 실천에 힘써왔다.취직이나 유학 등 외국에서 많은 사람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아동이 다양한 언어나 문화를 가진 사람과 관련된 기회가 늘고 있다.나라와 언어, 문화의 차이를 받아들여 그 사람 자신을 아끼고 관여했으면 하는 바람에 동화 학습을 실천하고 있었다.이 실천을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인권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연관성과 자신도 타인도 존중하는 것에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다음으로 모리타(2015:20)는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의 형성은 국제이해교육이 지향하는 사회상과도 겹쳐 국제이해교육의 토대가 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며 "국제이해를 추진하기 위해 인권존중 태도를 함양하고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문제 파악과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이며 국제이해교육과 많은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일본의 국제이해교육에서 인권교육은 현대에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노자키(2022:234)는 인권교육에 대해 「일본에서는 개별적인 인권문제 학습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태도적 측면을 강조한 일반적인 대처에 머무르는 동시에 실천력을 육성하는 대처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현임교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힘인 실천 행동력을 키우기 위해 동화 학습에서 개별 인권 문제를 다루고 실천을 반복하고 있다.이에 그동안 실천한 동화학습과 국제이해교육의 관련,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ACCU 주최 '한국 정부 일본교직원 초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한국 선생님들과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자신이 교사로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권교육, 동화교육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그동안 실천한 동화학습을 선생님들에게 알리고 더불어 향후 인권교육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본 연구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Ⅱ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2021 학년도에 실천한 '외국인 차별'을 다룬 동화학습수업 실천을 국제이해교육의 개념과 목표, 학습영역의 관점에서 살펴본다.초등학교에서의 동화 학습과 국제 이해 교육의 관련과 상호 작용을 밝힌다.

Ⅲ 현임교 인권교육, 동화교육 (同和教育)

현임교에서는 인권 교육, 동화 교육을 핵심으로 하여 「한사람 한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 소중히 한다」라고 하는 인권 존중의 시점에 선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동화교육의 6 년간의 지속적·발전적 배움을 목표로 학습지도요령으로 정해진 교과·영역 외에 연간 9 시간에서 13 시간의 '동화학습 (同和学习)' 시간을 교육과정에 배치하고 있다.

동화학습은 행복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키는 학습이라고 생각한다.동화학습에서는 다루는 차별문제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학습내용이나 학습형태, 기르고자 하는 힘을 설정하고 있다.세 가지 동화학습 유형은 다음과 같다.

생활 체험 학습	학교생활이나 가까운 실생활 속에서의 차별문제를 소재로 하여 체험 등을 통해 인식을 깊게 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시키지 않는다·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욕과 사회적 기능, 자기 유용감을 키운다.
사회 참여 학습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과제나 차별사건을 소재로 하여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상대방을 생각한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부라쿠 문제 학습 (部落問題学習)	부라쿠 차별과 관계가 깊은 사건을 소재로 하여 피차별 부라쿠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부라쿠 차별의 부당성을 깨닫고 차별에 대한 분노, 차별 해소를 위한 실천 행동력을 기른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외국인 차별은 2021 학년도, 4 학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차별문제로 자리매김하였다.동화학습의 유형 중에서는 사회참여학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키워드는 '국제이해', '이문화이해'이다.

○부라쿠문제 [部落問題] (동화문제 [同和問題])

법무성(2023)에는 부라쿠문제(동화문제)를 일본 사회의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신분차별로 인해 일본 국민 일부가 오랫동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낮은 상태에 놓이게 되고 동화지구로 불리는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에 반대되거나 취업 등 일상생활상에서 차별받는 등의 일본 고유의 인권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IV 연구의 개요

본 실전은 2021 년에 초등학교 제 4 학년(65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동의 생각을 소중히 하면서,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동화 학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외국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과 외국인과의 교류할 기회를 마련했다.이하, 활동 내용을 나타낸다.

학습 활동	목적
조예츠국제교류협회(JOIN) 직원의 이야기	외국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 알다. 외국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의 일의 보람, 고생,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안다.
말라위 유학생과의 교류	말라위 유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나라마다 생김새와 문화, 습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언어 체험 수업	중국의 학교에 대해 아는 것을 통해 나라마다 문화와 습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중국어 수업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전달되지 않을 때의 기분을 생각한다.
동화 학습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나(A 씨)」의 마음을 생각함으로써 국가와 문화,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당한 언행에 분노하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관여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1) JOIN 직원의 이야기

현임교에서 2021 학년도 4 학년 종합학습시간 주제는 '일'이었다.다양한 직업 분들로부터 강화를 듣고 일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그 중 JOIN 직원분께서 강의를 해주셔서 아동이 외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삼았다.

(2) 말라위 유학생들과 교류

말라위 유학생 2 명과 교류했다.유학생과의 교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말라위에 대한 소개
체와어로 인사, 국기의 의미, 초등학교의 일 등등
- ② 잉꼬마 댄스
- ③ 말라위 유학생들에게 질문 시간



말라위 유학생들과의 교류 후 돌아보기를 공유했다.아동의 시점에서 「자신들의 생활과의 차이」 「자신들의 생활과의 공통점」 「새롭게 알게 된 것」으로 크게 구분되었다.「첫 이미지와 달리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조금 무서운 이미지였지만, 함께 활동하니 즐거웠다」 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3) 다른 언어 체험 수업

중국 유학생과 다른 언어 체험 수업을 했다.다른 언어 체험 수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중국의 초등학교에 대해 퀴즈로 소개
 - ② 중국어로 된 다른 언어 체험 수업

중국어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수업을 듣는다.

 - ③ 느낀점, 생각한것의 공유
 - ④ 중국 유학생 질문 타임



다른 언어 수업 체험 후의 되돌아보는 공유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걱정되고 매우 불안했습니다」「말을 모르면, 매우 외롭다든가 괴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을까 봐 두렵다」등, 말을 모를 때 어떻게 느낄지, 어떻게 하면 안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4) 동화학습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학습 내용	◎발문 ○예상되는 아동의 반응	◇지도상 유의점 ☆평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 행위의 부당성	◎사실과 현상을 듣고 생각한 것을 발표합니다. ○열심히 외운 일본어를 웃는 것은 이상하다. ○외국인이라고 화장실을 더럽혔다고 단정해서 너무해. ○'외국인은 무섭다'는 것은 착각이고 실수다.	◇외국인이라는 점,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주변의 언행에 분노한다.
A 씨의 괴로운 마음	◎A 씨는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슬프다. ○언어를 모르는 것도, '외국인이라니'라고 몰아붙여 차별받는 것도 괴롭다.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일로 차별받은 A 씨의 괴로운 마음에 공감하게 한다.
차별 해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당신이 이 학급에 있다면 A 씨가 자신답게 생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A 씨와 많이 관련되어, A 씨에 대해 알기도 하고, 기분을 묻기도 한다. ○'외국인은 무섭다' '외국인은 모른다'고 단정짓지 말고 스스로 말을 걸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는다.	◇대화 후 사전 설문 결과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소중히 여기고 싶은 것	◎오늘의 학습과 지금까지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소중히 여겨 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차이로 차별할 것이 아니라 차이를 소중히 여기고 누구와도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싶다. ○'외국인이니까'라고 자신도 차별을 했던 것 같다.상대방을 알고, 그 사람 자신을 소중히 하고 싶다. (국제교류협회 쪽의 메시지를 듣는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차이를 수용해 누구에게나 똑같이 관여하려는 의욕을 높이고 있다.

수업자료, 수업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대회 당일 발표한다.

V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과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유학생과의 교류, 이언어 체험 수업이라는 이문화 교류 체험을 통해 아동들이 깨닫고 활동 전후 자신의 변화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는 국제이해교육의 체험목표와 겹친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동화학습에서 자신의 마음과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하는 차별도 많이 있다. 자신의 차별하는 마음을 깨닫는 것은 인권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지향하는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차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차이점은 자신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제 이해 교육의 배움을 향한 의욕·태도 목표인 「관용·공감」의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나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태도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향후의 과제는 다음의 2가지이다.

우선 동화학습에 있어서의 자료에 대해서이다. 문자화하여 문장의 자료로 삼음으로써 아동이 생각하는 것이 초점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대화가 생기기 어렵다. 아동이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면서 차별에 대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화학습, 국제이해교육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이 학생들에게 나답게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다양한 타자를 존중하는 학급 경영을 실시하는데 일조하여 동화 학습, 국제 이해 교육의 배움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森田真樹 (2015) 「国際理解教育と関連諸教育」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編『国際理解教育ハンドブック—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を育む—』明石書店、16-23 頁.

野崎志帆 (2022) 「209 人権教育」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編『現代国際理解教育事典 改訂新版』明石書店、234 頁.

大津和子 (2022) 「2 国際理解教育の概念と目標」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編『現代国際理解教育事典 改訂新版』明石書店、14-15 頁.

上越市立東本町小学校 (2019) 『愛・いのち 第4集』永田印刷株式会社.

法務省 (2023) 「部落差別 (同和問題) を解消しましょう」

https://www.moj.go.jp/JINKEN/jinken04_00127.html (2023 年 10 月 12 日閲覧)

異文化交流体験を取り入れた人権教育、同和教育の実践

藤井 美香

(上越教育大学 教職大学院・上越市 立東本町 小学校)

I 研究の背景と問題の所在

研究の背景と問題の所在を3点述べる。

- 1 これまでの教育実践
- 2 人権教育と国際理解教育
- 3 韓国政府日本教職員招へいプログラムへの参加

以上の3点から、本研究のテーマを「異文化交流を取り入れた人権教育、同和教育の実践」と設定した。

最初に、現任校は人権教育、同和教育を中核とした教育活動を実践している。これまで、児童が外国の人に対する差別や偏見をなくすために自分にできることを、自分事として考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体験活動や授業実践に力を入れてきた。就労や留学など、外国から多くの人々が日本に訪れている。児童が様々な言語や文化をもつ人とかかわる機会が増えている。国や言葉、文化の違いを受け入れ、その人自身を大切にしておかかわってほしいと考え同和学习を実践していた。この実践を国際理解教育の視点から分析することで、人権教育と国際理解教育の関連や自分も他者も尊重することについて向き合う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

次に、森田(2015:20)は、人権教育が目指す「すべての人々の人権が尊重される社会の形成は、国際理解教育の目指す社会像とも重なり、国際理解教育の土台をなす教育であると言える」「国際理解を進めるために、人権尊重の態度を育成し、人権という切り口からの問題把握と、課題解決方法を模索していくことは不可欠であり、国際理解教育と多くの共通性を見いだすことができる」と述べている。日本の国際理解教育における人権教育は、現代では重要な領域であるといえる。しかし、野崎(2022:234)は人権教育について「日本においては、個別の人権問題学習があまり行われず、態度的側面を強調した一般的な取り組みに留まるとともに、実践力を育成する取り組みに欠ける傾向がある」と述べている。現在の所属校では、「自他の人権を守るための力」である実践行動力をはぐくむため、同和学习で個別の人権問題を取り上げて実践を積み重ねている。そこで、これまで実践した同和学习と国際理解教育の関連、相互作用について検討したいと考えた。

最後に、今年 ACCU 主催「韓国政府日本教職員招へい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韓国の先生方とかかわる中で、自分の価値観を見直すとともに、自分が教師として大切にしていることは、人権教育、同和教育であることに気づく機会となった。これまで実践した同和学习を韓国の先生方に知っていただき、共にこれからの人権教育について考えたいと思い、本研

究を発表することにした。

II 研究の目的

本研究では、筆者が2021年度に実践した「外国人差別」を取り上げた同和学习の授業実践を国際理解教育の概念と目標、学習領域の視点から考察する。小学校における同和学习と国際理解教育の関連と相互作用を明らかにする。

III 現任校の人権教育、同和教育

現任校では、人権教育、同和教育を中核とし、「一人一人の基本的な人権を尊重し、大切にする」という人権尊重の視点に立った教育活動を行っている。同和教育の6年間の継続的・発展的な学びを目指し、学習指導要領で定められた教科・領域の他に年間9時間から13時間の「同和学习」の時間を教育課程に位置付けている。

同和学习は、「幸せに生きる権利は誰にも等しく与えられている、自他のその権利を守る学習」と考えている。同和学习では、取り上げる差別問題を3つに類型化し、学習内容や学習形態、はぐくみたい力を設定している。3つの同和学习の類型を以下に示す。

生活体験学習	学校生活や身近な実生活の中での差別問題を題材とし、体験等を通して認識を深め、差別をしない・させない・許さないという意欲と社会的技能、自己有用感をはぐくむ。
社会参加学習	社会生活で発生している人権課題や差別事象を題材とし、他者の意見を傾聴し、痛みや苦しみに共感し、相手を考えた決断と行動ができる力をはぐくむ。
部落問題学習	部落差別に関係の深い事象を題材とし、被差別部落の歴史的・社会的な背景を正しく認識させ、部落差別の不当性に気づき、差別に対する憤り、差別解消に向けての実践行動力をはぐくむ。

本研究で取り上げる外国人差別は、2021年度、第4学年で重点的に取り上げる差別問題として位置付けられていた。同和学习の類型の中では、社会参加学習に位置付けられており、キーワードは「国際理解」「異文化理解」である。

○部落問題（同和問題）

法務省（2023）には、部落問題（同和問題）を「日本社会の歴史的過程で形作られた身分差別により、日本国民の一部の人々が、長い間、経済的、社会的、文化的に低い状態に置かれることを強いられ、同和地区と呼ばれる地域の出身者であることなどを理由に結婚を反対されたり、就職などの日常生活の上で差別を受けたりするなどしている、我が国固有の人権問題」とある。

IV 研究の概要

本実践は2021年に小学校第4学年（65名）を対象に行った。

児童の思いを大切にしながら、自分事として考える同和学習につなげていくために、外国人とかかわる仕事をしている方や外国人と交流する機会を設けた。以下、活動内容を示す。

学習活動	ねらい
上越国際交流協会（JOIN）の職員からのお仕事講話	外国人とかかわる仕事について知る。 外国人とかかわる仕事をしている方の仕事のやりがい、苦勞、大切にしていることを知る。
マラウイの留学生との交流	マラウイの留学生との交流を通して、国ごとに見た目や文化、習慣が違うことに気づく。
異言語体験授業	中国の学校について知ることを通して、国ごとに文化や習慣が違うことに気づく。 中国語の授業を体験することを通して、言葉が分からず、自分のおもいが伝わらないときの気持ちを考える。
同和学習 「外国人に対する差別や偏見をなくすために自分ができること」	外国人という理由で差別された「私（Aさん）」の気持ちを考えることを通して、国や文化、習慣の違いから受けた不当な言動に対して憤るとともに、互いの違いを受け入れてだれに対しても同じようにかかわろうとする態度を育てる。

（１） JOIN の職員からのお仕事講話

現任校では、2021 年度第 4 学年の総合的な学習の時間のテーマは「仕事」であった。様々な職業の方から講話を聴き、仕事について学んでいた。その中で、JOIN の職員の方から講話をしていただき、児童が外国に関心をもつきっかけとした。

（２） マラウイの留学生と交流

マラウイの留学生 2 名との交流を行った。留学生との交流の内容は以下の通りである。

- ① マラウイについての紹介
チェフ語であいさつ、国旗の意味、小学校のこと等
② インゴマダンス
③ マラウイの留学生に質問タイム



マラウイの留学生との交流後、振り返りを共有した。児童の視点として、「自分たちの生活との違い」「自分たちの生活との共通点」「新しく知ったこと」に大きく分けられた。「最初のイメージと違って、おもしろいと思った」「ジェスチャーで答えてくれてうれしかった」「ちょっと怖いイメージだったけど、一緒に活動したら楽しかった」などと語っていた。

（３） 異言語体験授業

中国の留学生と異言語体験授業を行った。異言語体験授業の内容は以下の通りである。

- ① 中国の小学校についてクイズで紹介
② 中国語での異言語体験授業
中国語で小学校 1 年生の算数の問題の授業を受ける。
③ 感じたこと、考えたことの共有
④ 中国の留学生に質問タイム



異言語授業体験後の振り返りの共有では、「何をしゃべっているかわからなくて『どうしよう』と思って、心配でとても不安でした」「言葉がわからないと、とてもさみしいとか苦しいとかがあると思いました」「何を言っているかわからないから、悪口を言わ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から怖い」「仲間はずれにされている気がして心配になる」など、言葉がわからないときどのように感じるか、どうすれば安心できるかについて語っていた。

(4) 同和学习「外国人に対する差別や偏見をなくすために自分ができること」

学習内容	◎発問 ○予想される児童の反応	◇指導上の留意点☆評価
外国人に対する差別行為の不当性	◎出来事を聞いて思ったこと、考えたことを発表しよう。 ○頑張って覚えた日本語を笑うのはおかしい。 ○外国人だからとトイレを汚したと決め付けていてひどい。	◇外国人であること、文化や言語が違うことを理由に差別をする周囲の言動に、憤りの気持ちをもたせる。
Aさんのつらい気持ち	○「外国人は怖い」というのは思い込みだし、間違っている。	
差別解消に向けて自分ができること	◎Aさんはどんな気持ちでしょうか。 ○自分の気持ちを分かってもらえなくて悲しい。 ○言葉が分からないことも、「外国人って」と決め付けられて差別されることもつらい。	◇自分では変えることのできないことで差別されたAさんのつらい気持ちに共感させる。
差別や偏見をなくすために大切にしたいこと	◎あなたがこの学級にいたら、Aさんが自分らしく生活するためにできることは何でしょうか。 ○Aさんとたくさんかかわって、Aさんのことを知ったり、気持ちを聞いたりする。 ○「外国人は怖い」「外国人は分かってない」と決め付けないで、自分から話しかけて、困っていることがあれば助ける。 ◎今日の学習と今までの自分を振り返り、これから大切にしていきたいことは何ですか。 ○違いで差別するのではなく、違いを大切にして、誰とでも積極的にかかわりたい。 ○「外国人だから」と自分も差別をしていたと思う。相手のことを知って、その人自身のことを大切にしたい。 (国際交流協会の方からのメッセージを聞く。)	◇話し合い後、事前アンケートの結果から、自分自身を振り返らせ、差別をしている人が変わることが必要であることに気付かせる。 ☆外国人に対する差別や偏見をなくすために大切なことを考え、違いを受け入れて、誰に対しても同じようにかかわっていこうという意欲を高めている。

授業資料、授業の分析の詳細は研究大会当日に発表する。

V 研究のまとめ

本研究から導出された成果は次の2点である。

1つ目は、留学生との交流、異言語体験授業という異文化交流体験を通して、児童が気づき、活動前後の自分の変化に気づくことができた。これは、国際理解教育の体験目標と重なる。体験をしたからこそ、同和学习で自分の心と向き合って話す姿が見られた。外国人に対する差別の中には、自分が気付かないうちにしている差別も多くある。自分の差別心に気付

くことは、人権教育と国際理解教育が目指す社会へ向けての一步になると考える。

2つ目は、「違い」についての捉え方に変化が見られた。違いは自分らしさと考えることは、国際理解教育の学びに向かう意欲・態度目標である「寛容・共感」の「多文化社会のなかで、異なる文化をもつ人々や異なる状況にある人々の存在を認め、理解し、学ぼうとする」態度につながると考える。

今後の課題は次の2点である。

まず、同和学习における資料についてである。文字化し、文章の資料にすることで、児童が考えることが焦点化されてしまう。そのため、対話が生まれにくい。児童が多様な考えを交流しながら、差別に対して自分を振り返ることができる資料を作成していく必要がある。

そして、同和学习、国際理解教育の授業において最も重要なことは、学級が児童にとって、自分らしく、思いを語れる場所になることである。多様な他者を尊重する学級経営を行う一助として、同和学习、国際理解教育の学びを活かしていくことが大切である。

引用文献、参考文献

森田真樹（2015）「国際理解教育と関連諸教育」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編『国際理解教育ハンドブックー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を育むー』明石書店、16-23 頁。

野崎志帆（2022）「209 人権教育」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編『現代国際理解教育事典 改訂新版』明石書店、234 頁。

大津和子（2022）「2 国際理解教育の概念と目標」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編『現代国際理解教育事典 改訂新版』明石書店、14-15 頁。

上越市立東本町小学校（2019）『愛・いのち 第4集』永田印刷株式会社。

法務省（2023）「部落差別（同和問題）を解消しましょう」

https://www.moj.go.jp/JINKEN/jinken04_00127.html （2023 年 10 月 12 日閲覧）

학교수업에서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실천(북 콘서트)

사회: 김선미(중앙대학교)

FUJIWARA, Takaaki (同志社女子大学)	『표주박 섬 문제』 한국어판을 출판하며
이기훈(보평초등학교)	다문화공존을 위한 『표주박 나라 문제』 시뮬레이션 초등수업 실천사례
김난영(라온고등학교)	다문화공존을 위한 『표주박 나라 문제』 시뮬레이션 고등수업 실천사례

2023.11.11

2023年度 第24回韓国国際理解教育学会秋季学術大会
(全州教育大学校) 翻訳ひょうたん島分科会 (仮称)

「ひょうたん島問題」の韓国語版 出版によせて



藤原 孝章
同志社女子大学名誉教授
(元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会長)



1

11 Nov 2023

2023 24th Autumn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SEIU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ranslated "Hyotan-jima Issues" Subcommittee (tentative name)

Prologue to the publication of the Korean edition of "Hyotan-jima Issues".



FUJIWARA Takaaki
Professor Emeritus, DWCLA,
Former President of the JAIE



2

はじまりは、2021年5月

ユネスコAPCEIU「世界市民教育のための図書翻訳研究会」のリーダー、ラオン高校で日本語教育担当の金蘭玲(キム・ナンヨン KIM Nanyoing)先生が出版社の明石書店を通して翻訳したいとの申し出をされた。

2019年、国際交流基金日本語国際センター
「韓国中等教員の研修(7月16日~8月14日)」
韓国の日本語教師34人が日本語教育の研修

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の『ひょうたん島の問題』に出会う
面白い内容、易しいレベルからより深いレベルまで対応
帰国後、同僚といっしょ翻訳して実際の授業。
生徒たちの反応がとても良かった
世界市民教育の現場においても新しく、韓国にはまだない

翻訳研究会メンバー(英語、日本語、小学校の教師の全7名)の希望

3

Beginning, May 2021.

The leader of the UNESCO APCEIU 'Study Group on Translation of Book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Ms KIM Nanyoung, in charge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t Laon High School, offered to translate the book through the publisher, Akashi Shoten.

2019, Japan Foundation Japanese Language International Centre
'Training of Korean secondary teachers (16 Jul~14 Aug)'

Training of 34 Korean Japanese language teachers
in Japanese language teaching.

Get the book of "Hyotan-jima Issues".
Interesting content, from easy level to more in-depth level
After returning home, translated together with colleagues
and taught in real classes.

The students' reactions were very positive.
New to the field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not yet available in Korea

The wishes of the seven members of the translation study group
(English, Japanese and primary school teachers)

4

「ひょうたん島問題」とは？

「ひょうたん島問題」の「物語」は、緑もくらしもゆたかな「ひょうたん島」に、凶作に直面する北の「カチコチ島」から働き者の「カチコチ人」が移住し、また人口増加と低所得に直面する南の「パラダイス島」からのんびり屋の「パラダイス人」が移住する場面から始まる。ホスト・グループとして多数派を形成する「カチコチ人」とゲスト・グループとして少数派を形成する「パラダイス人」の3つの「民族集団」がともにくらすことから派生する諸問題が明らかになる。

すなわち、①異文化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課題となる「あいさつがわからない」、②勤労に対する価値観の違いが文化的なシンボルである祝祭への参加をめぐる対立する「カーニバルがやってきた」、③言語や教育における価値観の違いが多数派の同化と少数派の異議申し立てとなって表面化する「ひょうたん教育の危機」、④多数派に対する違和が少数派の分離主義に発展し、居住の集住化と分離を生み、社会の安全や福祉のコスト負担の是非を問う「リトル・パラダイスは認められるか」、人口動態の変化が島の環境や資源の相互依存関係にストレスを与え、社会の持続可能性が課題となる「ひょうたんパワーの消滅」という、深刻化する5つの社会問題が学習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

(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編2022:220「ひょうたん島問題」)



*韓国語版では「カチコチ」「パラダイス」の用語は韓国で親しみやすい言葉に、変更しています。

5

What is "Hyotan-jima Issues" ?

The story of "Hyotan-jima Issues" begins when the hard-working Kachikochis from Kachikochi Island in the north, facing a bad harvest, and the laid-back Paradise Islanders from Paradise Island in the south, facing population growth and low income, move to Hyotan Island, an island with abundant greenery and a good quality of life.

The scene reveals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the three ethnic groups living together: the Hyotan people, who form the majority as the host group, and the Kachikochi and Paradise Islanders, who form the minority as the guest group.

*The terms 'tick-tock' and 'paradise' have been changed in the Korean version to words that are more familiar in Korea.

6

What is "Hyotan-jima Issues" ?

In other words,

- (1) "I don't understand greetings", where cross-cultural communication becomes an issue,
- (2) "Carnival has arrived", where different values of work conflict over participation in festivals that are cultural symbols, And (3) differences in values in language and education become assimilation by the majority and objection by the minority.
- (4) "Can Little Paradise be accepted?", in which discord with the majority develops into separatism among the minority, leading to residential agglomeration and segregation, and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bear the costs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and (5) "Gourd Power", in which demographic changes stress the interdependence of the island environment and resources, and social sustainability becomes an issue.

Five increasingly serious social issues are available for study: 'The disappearance of island power', in which sustainability of the society is an issue.

(JAIE Ed.,2022:220, "Hyotan-jima Issues")

7

「ひょうたん島問題」の特色

一つ目は、異文化理解から、労働、教育、居住、環境問題へと、それぞれの問題解決の次により高次の問題が生じるという入れ子的な問題構造を、シミュレーションとして示すことによって、多文化社会の問題の構造化と重層性を体験できるようにしたことです。

二つ目は、構造化や重層性の要因として、人種主義をめぐる異なる4つの立場（普遍派人種主義、差異派人種主義、普遍派反人種主義、差異派反人種主義）を取り出し、同化を強いるマジョリティ集団の主張、それに反対し自らの独自性を強調するマイノリティ集団の主張、個人を基盤にした基本的な権利から同化に反対する主張、マイノリティ集団の権利から多文化を主張し、同化に反対する主張、として言語化し議論の場としてのロールプレイをデザインしたことです。

三つ目は、ロールプレイと問題解決カードのランキングの議論を合わせること、さらにはシミュレーションという仮定の空間で学んだ社会問題が、実際にはどのような現実となっているか、問題解決のための共生のモデルを示すことで、社会参加学習における象徴的参加の事例として示したことです。

そして、振り返りを深くすれば、自分の中に、同化主義や多文化主義など人種主義をめぐる4つの原理に根ざした複数の自己があることを学ぶことができることです。

8

Features of "Hyotan-jima Issues"

The first is to show, as a simulation, a nested problem structure in which higher-order problems arise after each problem is solved, from cross-cultural understanding to labour, education, housing and environmental issues, so that the structuring and layering of problems in a multicultural society can be experienced.

Second, as a factor of structuring and multilayering, four different positions on racism (universalist racism, differenceist racism, universalist anti-racism and differenceist anti-racism) were taken out and verbalised as the arguments of the majority group that forces assimilation, the arguments of the minority group that opposes it and emphasises its own uniqueness, the arguments against assimilation from the basic rights of the minority group, the arguments for multiculturalism from the rights of the minority group and the arguments

9

Features of "Hyotan-jima Issues"

Third, by combining the discussion of role-playing and ranking of problem-solving cards, and by showing how the social problems learned about in the virtual space of the simulation have actually become reality and a model of symbiosis for problem-solving, as an example of symbolic participation in social participation learning.

This is to show how social problems are actually a reality, and how a model of inclusion can be used to solve them.

And that if we look back deeply, we can learn that within oneself there are multiple selves rooted in the four principles of racism, including assimilationism and multiculturalism.

10

韓日共通の社会背景

「ひょうたん島問題」の社会背景

グローバル化する社会における移民や外国人労働者などの移動
多民族化、多文化化が進行する社会

労働市場

韓国：就労者としての外国人の受け入れを認める「雇用許可制」
日本：「技能実習」（研修者）や留学生（資格外就労者）
最近では「特定技能」
韓国の方がより進んだ制度

家族形成

国際結婚（多文化家族）の増加
韓国：中国東北部の朝鮮族の中国人
日本：アジアからの「外国人花嫁」
農村の過疎化と後継者不足による外国人花嫁の受け入れ

「2世問題」

国際結婚家族（多文化家族）や外国人家族を問わず
多文化を前提にした「外国にルーツを持つ子ども」の教育の課題
言語習得（日本語や韓国語）、学校における就学や学修内容の課題



11

Social background common to Korea and Japan

Social context of the 'Hyotan-jima issues'

Migration of people, including migrants and foreign workers in a globalising society
Societies that are becoming increasingly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Labour market

South Korea: 'employment permit system' allowing foreigners as workers
Japan: 'Technical training' (trainees)
and foreign students (non-qualified workers). Recently, "specified skills".
South Korea has a more advanced system.

Family formation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Chinese of Korean ethnicity in Northeast China
Japan: 'foreign brides' from Asia

Acceptance of foreign brides due to rural depopulation and lack of successors

Problems of Children rooted in foreign countries problem

International married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 families alike
Issues of education for "children rooted in foreign countries" on the basis of multiculturalism

Issues related to language acquisition (Japanese and Korean), school attendance and academic content in schools

12

韓日共通の多文化共生の課題（１）

韓日双方に共通する「単一民族」・「民族同胞」幻想
韓国では戦前の日帝支配下における民族独立闘争
戦後の朝鮮戦争や軍事政権がもたらした民族主義
「民族」の名の下に同化を強いる
それ以外は「よそもの」として排除

格差社会における二分化
富裕層と貧困層
ホワイトカラーとブルーカラー、
マジョリティとマイノリティ

「二分法思考」
貧困層や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包摂の課題に
真摯に向き合うことなく、自分には関係のない他人ごと、
同情はしても共感はないよそごととして考える傾向

「ひょうたん島問題」
ロールプレイや対話を通して、
マジョリティとマイノリティの複数の自己を体験できる
「二分法思考」の克服に迫る

13

Issues of multicultural inclusion common to Korea and Japan (1)

The 'single ethnic group' and 'ethnic compatriot' illusions common to both Korea and Japan.

The struggle for national independence in Korea under pre-war Japanese imperial rule
Nationalism brought about by the post-war Korean War and military regime

Forced assimilation in the name of "nation".

Others are excluded as 'outsiders'.

Divisions in a society of inequality

The rich and the poor, White-collar and blue-collar, Majority and minority
'Dichotomous thinking'.

The challenges of inclusion of the poor and ethnic minorities
The tendency to think of the poor and ethnic minorities as strangers to oneself, without taking the issues of inclusion seriously,
Tendency to think of it as someone else's business, something to which one has sympathy but not empathy.

'Hyotan-jima Issues'

Through role-play and dialogue,
Experience the multiple selves of majorities and minorities
Approaches to overcoming 'dichotomous thinking'

14

韓日共通の多文化共生の課題（２）

日本の多文化共生の前に立ちはだかる「三つの壁」

「心の壁」

過去の歴史を省みない在日コリアンの人々への
ヘイトスピーチなどの差別的言動、外国人恐怖や不安、
私たちの日常に潜む身近な何気ない言動（マイクロアグレッション）

「言葉の壁」

日本語教育の立ち遅れ
災害情報や行政、病院、法廷などにおける難解な日本語表示
少ない多言語表示や「やさしい日本語」表示

「制度の壁」

外国人参政権の制限
国籍付与や国籍取得の困難さ
在留資格など多様な法律や制度上の課題

韓国においてもこのような「三つの壁」が大なり小なりある
「外国人住民センター」「外国人労働者支援センター」「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などの社会統合プログラム
「三つの壁」を克服する試みとして日本よりも先行

15

Issues of multicultural inclusion common to Korea and Japan (2)

The 'three walls' that stand in the way of multicultural inclusion in Japan

'Wall of the mind'.

Towards zainichi Koreans who do not reflect on their past history.

Hate speech and other discriminatory language,

Behaviour, fear of foreigners and anxiety

Familiar casual words and deeds hidden in our daily life (microaggressions)

'Language barriers'.

Lagging behind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Difficult Japanese language displays in disaster information, administration, hospitals, courts, etc. Few multilingual and 'easy Japanese' displays

'Barriers to legal systems'.

Restrictions on foreign citizenship.

Difficulties in granting and obtaining nationality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such as residency status

In South Korea, these 'three barriers' exist to a greater or lesser extent

Social integration programmes such as the Foreign Resident Centre, the Foreign Worker Support Centre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re.
Leading Japan in attempts to overcome the 'three barriers'.

16

「ひょうたん島問題」の実践

『外国人労働者問題をどう教えるか』（1994年）

1990年代から「外国人労働者問題」について

高等学校の「国際理解」の授業で実践

日本：移民や開拓民として海外に送り出した

日本人移民の子孫を

労働者不足解消のために就労者・定住者として受け入れ

『ひょうたん島問題』（旧版2008年、新版2021年）

2000年代になって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

大学の授業「多文化共生と子ども」で実践

毎年50～80人の学生が受講

講演やワークショップの実施

国際理解や人権教育のための教員研修

都道府県の教育センター、市町村の教育委員会主催

自治体職員や市民レベルでの人権教育研修、

日本語ボランティアの研修など



17

Practice on "Hyotan-jima Issues"

'How to Teach Foreign Worker Issues' (1994)

Since the 1990s, the 'Foreign Worker Issue' has been Practised i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lasses at senior high school. Japan accepted descendants of Japanese immigrants as workers and permanent residents to solve labour shortage.

The book of "Hyotan-jima Issues" (old edition 2008, new edition 2021)

Making simulation materials in the 2000s.

Practice in the university course 'Multiculturalism and Children' in 50-80 students lecture class every year

Lectures and workshops outside the university

Teacher training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human rights education at prefectural education centres
Human rights education training at municipal staff and citizen
Training for Japanese language volunteers, etc.



18

一つだけ気にかけてほしいこと（１）

「ひょうたん島問題」の学習デザインで一つだけ気になること
人種主義をめぐる多文化共生の課題を取り上げる
逆に、文化や民族を本質主義的に捉え、
文化を固定的に変容のないものとして
理解されてしまう危険性
つまり、文化や民族の対立ばかりが目立ってしまう。

現実とは違っている

例えば、スポーツの世界において、
日本では「ミックスジャパニーズ」の人たちの活躍が目立っています。
テニス、サッカー、ラグビー、バスケットボール、柔道、陸上競技など
日本代表の選手たちは実に多様。

国家統合の表象とも言えるが、
文化本質主義や単一民族思考から脱却し
文化や民族は混合し、変容すること、
文化の複合性と多様性を認めていく思考への転換を。

19

One thing you should care about (1)

Hope to concern one thing about
the learning design of "Hyotan-jima Issues"
Addressing multicultural issues around racism
Conversely, it takes an essentialist view of culture
The danger of understanding culture as fixed and untransformable.
In other words, only cultural and ethnic conflicts will stand out.

Reality is different.

For example, in the world of sport,
'Mixed Japanese' people are playing a prominent role in Japan.
Tennis, football, rugby, basketball, judo, athletics, etc.
Japan's national team is truly diverse.

Although it can be seen as a representation of national integration,
Moving away from cultural essentialism and mono-ethnic thinking
Cultures and peoples must be mixed and transformed,
to a shift in thinking that recognises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cultures.

20

一つだけ気にかけてほしいこと（２）

そもそも多文化共生とは？

co-existence（共存）ではなくinclusion（包摂）
文化の多様性・複合性の担保
多様性のなかの平等や公正といった関係性こそが重要

多様性の担保と公正・平等な関係性
ナショナルな文化や民族における定型的な物語と対峙し、
複合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つことの意味
多様性、共生のありようを記述する
エスノグラフィや物語が必要

コスモポリタン・シティズンシップ
地球上の誰もが持つ普遍的な権利（人権）
連帯と多様性の視点をグローバルなシティズンシップ

お願い
文化の変容、多様性、複合性、
公正・平等な関係性の構築について十分な配慮を



21

One thing you should care about (2)

What is multicultural inclusions in the first place?

That is Inclusion, not co-existence
Ensuring cultural diversity and plurality
The importance of equality and fairness in the context
of diversity.

Securing diversity and fair and equal relationships

Confronting formulaic narratives in national contexts,
Describing meaning about diversity and composite
identities. Ethnography and narratives are needed

Cosmopolitan citizenship

Universal rights (human rights) for everyone on earth
Global citizenship for a perspective of solidarity and
diversity

Request

Cultural transformation, diversity and complexity,
Due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fair and equal
relationships.



22

お礼の言葉

翻訳と授業実践への感謝

翻訳研究会の7人の先生方

リーダーの金蘭玲（KIM. Nanyoung）先生、
Dolma 高校のKIM Moonjung 先生、
Chang-ui 高校のLEE Sunhee 先生、
Seong-nam 外国語学校のCHA Seungyoun先生、
Incheon Yeonsong 小学校のKIM Hyangsook先生、
Wire Goun 小学校のLEE Kihoon 先生

翻訳の監修や資料収集への感謝

韓国国際理解教育学会副会長・中央大学教授
金仙美（KIM Sunmi）先生

メールでの連絡、調整への感謝

APCEIUの教育研修担当 LEE Jihong 氏

出版への感謝

LIM Hyun Mook APCEIU院長

韓日の国際理解教育の推進と韓日双方の対話の一助となることを願う

23

Thanks to...

Appreciation for translation and classroom practice

The seven teachers of the Translation Study Group
KIM Nanyoung, leader of the group,
KIM Moonjung, teacher at Dolma High School
LEE Sunhee, teacher at Chang-ui High School,
CHA Seungyoun, teacher at Seong-nam Foreign Language School,
KIM Hyangsook, teacher at Incheon Yeonsong Primary School,
LEE Kihoon, teacher at Wire Goun Primary School

Appreciation for supervision of translation and collection of materials

Prof KIM Sunmi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professor of Chuo University

Thanks for email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Ms. LEE Jihong, Education and Training Officer, APCEIU

Publication thanks

LIM Hyun Mook, Director, APCEIU

For promot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dialogue between Koreans and Japan.

24

日本語参考文献と視聴した韓国映画

日本語

・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編（2022）『現代国際理解教育事典 改訂新版』明石書店、220頁（「ひょうたん島問題」）
 ・春木育美・吉田美智子（2022）『民大国際化する韓国—労働・家族・ジェンダーの視点から』明石書店
 ・藤原孝章（1994）『外国人労働者問題をどう教えるか—グローバル時代の国際理解教育』明石書店
 ・藤原孝章（2008）『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ひょうたん島問題」—多文化共生社会ニッポンの学習課題』明石書店
 ・藤原孝章（2021）『新版 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ひょうたん島問題」—多文化共生社会ニッポンの学習課題』明石書店
 ・森茂岳雄 監修, 川崎誠司・桐谷正信・中山京子編（2023）『国際理解教育と多文化教育のまなざし—多様性と社会正義／公正の教育にむけて』明石書店、377-390頁
 ・オードリー・オスラー、ヒュー・スターキー著、藤原孝章・北山夕華監訳（2018）『教師と人権教育—公正、多様性、グローバルな連帯のために—』明石書店

・『パラサイト 半地下の家族』
 2019年 기생충
 ・『ミッドナイト・ランナー』
 2017년 청년경찰
 ・『女は冷たい嘘をつく』（消えた女、ミッシング）2016年
 미생: 사라진 여자



(From official sites)

25

ありがとう

Thank you

謝謝 (シエシエ)

감사합니다 (カムサハムニダ)

ขอบคุณครับ (コップンカップ)

Terima kasih (テレマカシ)

Obrigado (オブリガード)

TUSEN TACK (ツーセン・タック)

Iyayraykere (イヤイライケレ、ヒンナ、アイヌ語)



26

수업 사례 - 평범하게 특별하게 -

이기훈
(보평초등학교)

1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시작

2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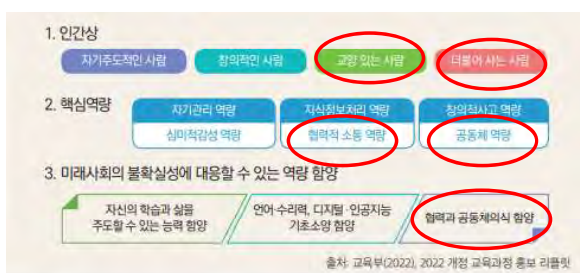


3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시작



2022개정교육과정



5

국제이해교육 방법

- 연대, 협력과 같은 가치 교육(가치 주입, 가치 추론, 가치 명료화, 가치 분석, 대안적 가치교육 접근법)
- 갑자기 특별한 수업보다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근
-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접근
- 교사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
- 적절한 시기에, 매력 있는 접근
- 매력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필요 → 학습 순서 및 시기, 다른 교과와의 연계
- 특별한 수업?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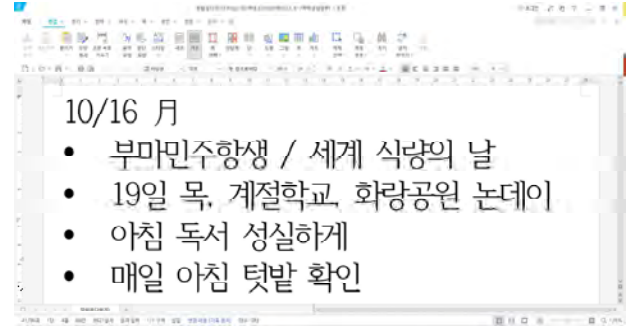
국제이해교육 방법

- 연대, 협력과 같은 가치 교육(가치 주입, 가치 추론, 가치 실천)
- 갑자기 특별한 수업보다는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접근
-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접근
- 교사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
- 적절한 시기에, 매력 있는 접근
- 매력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필요 → 학습 순서
- 특별한 수업?



7

알림장을 통한 매일 계기교육



8

알림장을 통한 매일 계기교육



바나나 게임

- 실과, 합리적 소비 학습
- 합리적 소비만이 정답인가?
- 바나나가 농부들에 의해 생산되어 소비자들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 수 있는 게임
-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이해
- 옥스팜+바나나링크의 공정무역 자료
→ 아름다운가게에서 정리 및 번역
→ 자료 그대로 수업에 활용

10

바나나 게임

바나나 게임 (Banana role play activity)

주제	공정한 소비 (공정무역의 이해)	형태	역할극, 게임
목표	바나나를 생산하는 농부들이 바나나를 어떻게 팔고 있는지 이해하고, 바나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바나나를 어떻게 팔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바나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바나나를 어떻게 팔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방법	공정무역의 이해	게임	바나나 게임
장비	바나나 게임 카드, 바나나 게임 카드, 바나나 게임 카드		
구분	바나나 게임 카드, 바나나 게임 카드, 바나나 게임 카드		



11

바나나 게임 (Banana role play activity)

	농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합계
바나나	8	7	12	10	18
도매상	8	7	12	10	18
소매상	8	7	12	10	18
소비자	8	7	12	10	18
합계	8	7	12	10	18

$8 + 7 + 12 + 10 = 18$

롤플레이, 시뮬레이션 → 대안적
가치교육 접근



토의토론 활동 → 가치 명료화
또는 가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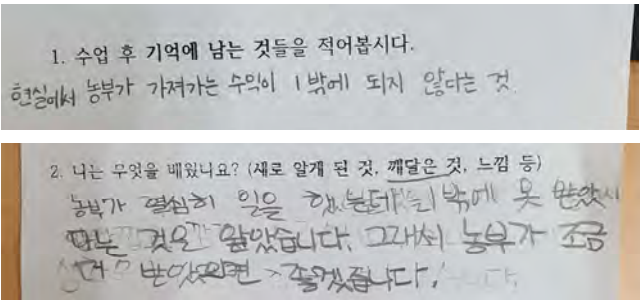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문제 상황 이해 → 노동력 착취, 아동노동 문제 잘 이해 → 합리적 소비보다는 윤리적 소비 공감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간 가치 명료화 및 선택

'윤리적 소비' 실천 방법으로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에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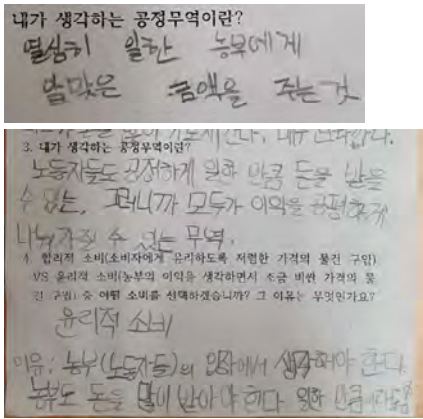
14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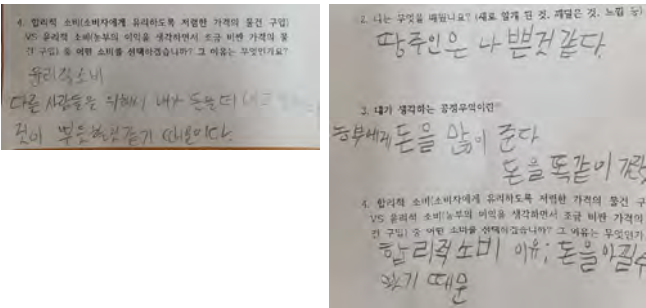
15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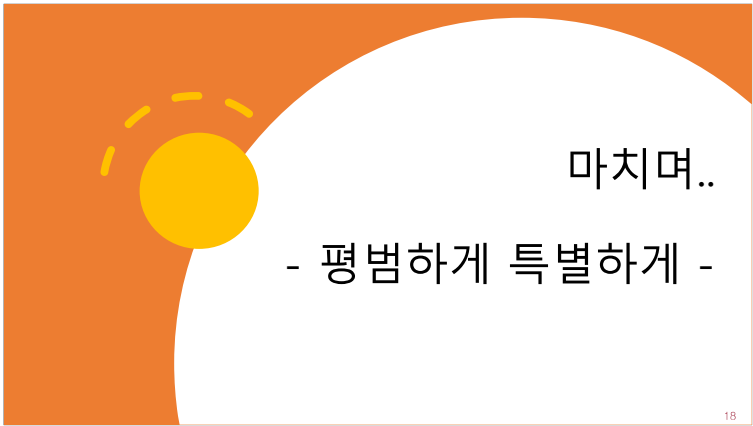


16

소감



17



18



다문화공존을 위한 [표주박 나라 문제]
시뮬레이션 수업실천사례

김난영
2023. 11. 11 (라온고등학교)

<표주박 나라 문제> 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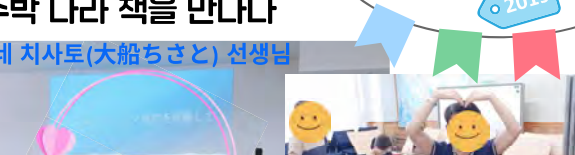
- 유네스코 학교 운영 담당자 (2015~)
- 전공-2학년 일본어교과 3개반 주당 2시간씩
- 교양과목- 3학년 세계시민교과, 논술교과 각 1시간씩

2019

- 2019. 일본 사이타마시 국제교류기금 일본어센터
- 한국 중등 교원 연수 (7월 16일~8월 14일)
- 오후네 치사토 (ちさと) 선생님 <핵심 능력 형성>

표주박 나라 책을 만나다

오후네 치사토(大船ちさと) 선생님



APCEIU - 중앙선도교사 연구회

- 세계시민 도서번역연구회





**4월7일
시작!**



**5월12일
아카시 선전에
번역의뢰 메일**

『ヨウとん人権の闘争』の翻訳をお願いいたします。①
 希望言語：日本語 希望国：日本
 希望年齢：10代 希望性別：女性 希望職業：学生 希望学歴：大学卒業以上 希望年収：なし

資料：主として韓国のことと韓国語で記述です。

資料①『朝鮮語』オムツ紙を添付いたします。

②日本語：『朝鮮語』オムツ紙の添付した韓国語のテキストを添付いたします。添付先：apceiu@apceiu.or.jp 添付ファイル名：『ヨウとん人権の闘争』の翻訳をお願いいたします。

③韓国語：『ヨウとん人権の闘争』の韓国語の添付した韓国語の添付先：apceiu@apceiu.or.jp 添付ファイル名：『ヨウとん人権の闘争』の翻訳をお願いいたします。

④日本語：『ヨウとん人権の闘争』の韓国語の添付した韓国語の添付先：apceiu@apceiu.or.jp 添付ファイル名：『ヨウとん人権の闘争』の翻訳をお願いいたします。

APCEIU - 중앙선도교사 연구회

- 세계시민 도서번역연구회

5월13일

6월19

저작권문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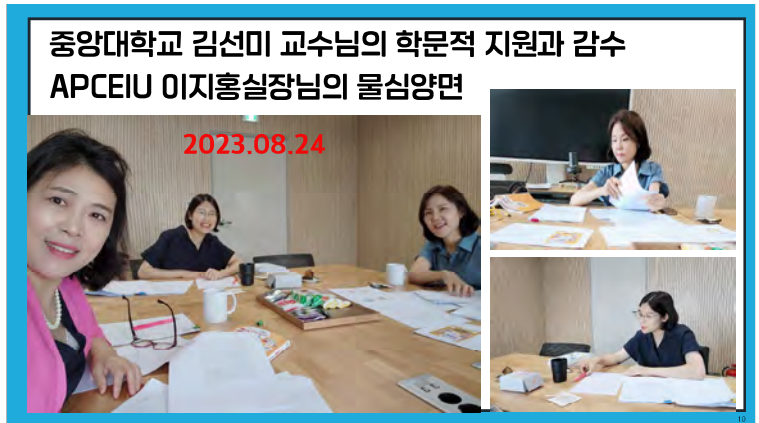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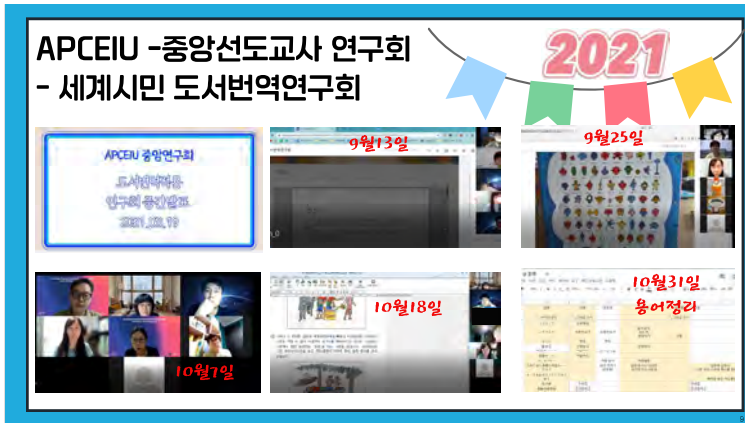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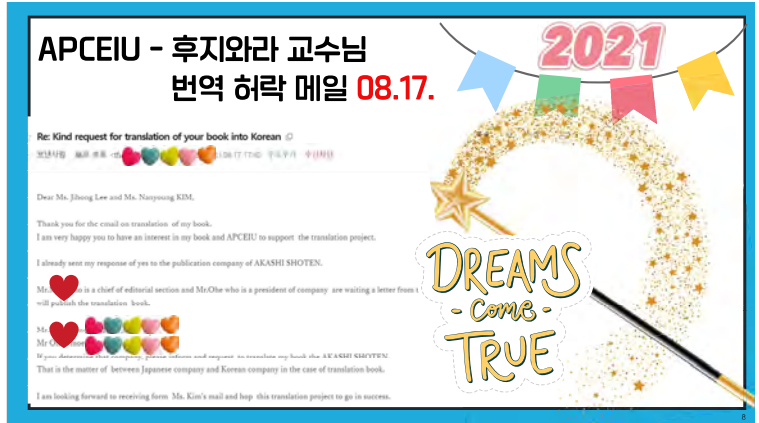
문의 드립니다.

저자가 번역하는 도서에 개개 저자권을 묻는 개념을 일본의 해당 도서 출판사가 공개적으로 보냈는데 당시에 전혀 알지 못하여 물어 보았지만 전혀 답장이 오지 않았으며, 저작권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 다음으로 인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경황이 아무래도 모르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내일 답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저자가 도서번역에 어려우면 저작권을 내서 할당할 수 있게 하고 실권제 저작에 대한 해자가 있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뮬레이션 교재의 매력

- 사전적의미 : 실제사건이나 과정을 시험적으로 재현하는 기법
- 실제처럼 시험적인 가상환경을 재현하여 체험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
-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배경, 다문화화, 향향 전인류적 시각, 정책에 의한 사회변화의 필요성, 지구 환경과 자원고갈문제, 현실적인 공존모델 사례 제시 등 계획적인 교육공학적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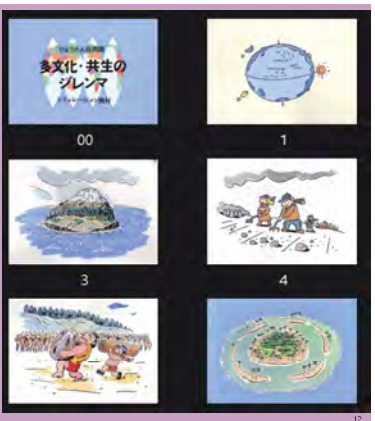
시뮬레이션을 선택하게 된 배경

세계인이 내 삶과 연계될 수 있을까?
평소 접하기 어려워서 남들이 안되거나 자기 삶에 와 닿지 않는 세계인을 시뮬레이션으로 설정하여 체험을 제공하고, 이후에 실제 외국학생들과의 만남(교류)을 통해 가까이 느끼게 하고 싶다는 희망!

한-일관계도 세계인의 입장에서 보자!

역할 카드

- 예쁜 그림 + 현실감있게 표현한 그림 속 대화 내용들!
- 현실에 일어나는 장면을 설정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연기하여 비슷한 체험을 통해 특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학습 방법을 가운데 하나이다.
- 개인 또는 집단의 사회적 적응을 향상하기 위한 치료 및 훈련 방법



2학기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향

- 세계인과 소통하는 교사의 교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 외국어 수업 개선 및 의사소통역량 함양.
-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 역사 속 세계의식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 일본 학생들과의 온라인 교류 및 유네스코 이념을 바탕으로
- 실천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안목을 기르고
- 미래 시대의 주역으로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표를 개척한다.



교육과정 재구성

세계시민교과 + 논술교과 + 일본어수업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일본어 교과 평가계획 - 보고서 및 논술 활동 총 12점

어려운 점: 수업에서 활용할 자료-**현실공존모델**찾기



수업의 목표

- 1학기 한일근대사 극복 프로그램의 후속 활동으로서 **세계 시민 인식**의 필요성
- **일본을 넘어서 세계인으로** 학생들의 국제이해에 대한 인식 필요
- **한·일 관계를 넘어서** 세계시민, 민주시민 역량 제고

수업 차시 운영

- 논술은 일본어1 시간과 논술시간과 연계하여 시간을 확보 하고 운영함.
- 1~2차시 <인사를 모르겠어> 시뮬레이션 활동
- 2~3차시 <카니발이 다가왔다> 시뮬레이션 활동
- 3~4차시 난민의 인권에 관한 토론활동

성취기준 재구성

[12월 1~05-04] [평가준거 성취기준 ①]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10통사 08-01]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2월 1~05-04] [평가준거 성취기준 ①]
+ [10통사 08-01] + [12논술02-04] + [12논술01-04]

1. 세계 시민을 가지고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표주박심 문제>라는 상황의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 한·일 양국 및 글로벌화되는 세계인의 다양성과 국제관계변화(세계화) 등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다양성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

2.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형 평가> 12점

교과, 전로, 교양 교과 연계 활동

<표주박심 문제>

평가영역 4 논술형 (12점)

평가계획

단원	비율	평가 시기	성취 기준
전단원	12% (12점)	과정중심평가	[12월 1~05-04] [평가준거 성취기준 ①] + [10통사 08-01] + [12논술02-04] + [12논술01-04]
평가 주제			1. 세계 시민을 가지고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표주박심 문제>라는 상황의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 한·일 양국 및 글로벌화 되는 세계인의 다양성에 대한 견해를 갖고 세계 시민의식의 역할을 함양한다. 2. 세계적 관점의 다양성에 대해 도서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 나타나는 비교를 통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논리적으로 토론, 발표 활동에서 표현할 수 있다. 3. 세계화 시대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잘 표현되었는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월 1~05-04] [평가준거 성취기준 ①] + [10통사 08-01] + [12논술02-04] + [12논술01-04] 1. 세계 시민을 가지고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표주박심 문제>라는 상황의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 한·일 양국 및 글로벌화되는 세계인의 다양성과 국제관계변화(세계화) 등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다양성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 2.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인식

평가척도			
평가요소	토론·발표(3점씩 2회)	최종 논술 또는 칼럼쓰기(1회)	
	- 발표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다 - 청중을 바라보면서 말한다. -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 말하기의 규칙을 잘 지키며 명확한 목소리로 말한다.	- 공공성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 논리적이고 흥미롭게 정보를 재구성한다. - 그래픽이나 도표를 활용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보강한다. - 명확한 주제를 제시하도록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들이 있다.	
	평가 요소 3-4가지를 만족시킴	3	평가 요소 4가지를 만족시킴 6 평가 요소 3가지를 만족시킴 5
	평가 요소 1-2가지를 만족시킴	2	평가 요소 3가지를 만족시킴 4

1.인사는 처음이지?

주제: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목표: 커뮤니케이션의 갭을 체험하고 문화에는 고유의 습관이나 가치관이 있음을 이해한다.

시간: 10분 정도 소요

각 환경이 다른 세 섬의 주민들이 센트럴 파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장면의 역할극



A 당신은 표주박 섬 주민입니다.

- 당신은 "까르바"라고 인사합니다
- 당신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 상대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할 때 까지 상대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말을 걸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 상대가 이 인사 이외의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면 미소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C 당신은 파라다이스섬 주민입니다.

- 당신은 "듀코~"라고 말하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 양손을 뻗어 악수를 합니다
- 상대의 몸을 양팔로 꼭 껴안습니다.

● 단, 이상인 경우에는 한쪽 어깨를 부딪치며 인사합니다.

● 만약 상대가 똑같이 인사를 해주지 않을 때는 곤란한 표정이나 화가 난 듯한 동작을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 그리고 다른 상대를 찾아 인사를 다시 반복합니다.



B 당신은 카치코치섬 주민입니다.

- 당신은 양손을 위로 크게 벌리며 큰소리로 "카치코~치"라고 크게 외치며 인사를 합니다.

● 상대가 똑같이 인사를 해줄 때 까지 당신은 계속 손을 위로 펼쳐 "카치코~치"라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 상대가 도망가려고 하면 쫓아기 계속해서 인사를 합니다. 단 너무 심하게는 쫓지 마세요(기분 나쁘지 않도록)

문화의 수용성
타문화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
까?에 대한 피드
백을 묻고 나서
세계의 인사를
따라 해본다.



활동피드백		활동 보고서	
작성자	()학년 ()반 ()번 이름 : ()	교사	확인 (인)
과목명		영역	인문·학·정·지·경제·사회·국제어제
		핵심역량	민주시민역량 의사소통역량 세계시민역량 문화적소양역량 창의적사고비판 역량
암게이트	1. 인사를 나눌 때 나의 인사를 따라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내 인사를 따라 해 준 타국인은 몇 명 정도입니까?(생각나는 대로 적으시오) _____명 3.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사를 따라 나도 흉내내어 인사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내가 따라 한 인사는 몇 번이었습니까? _____명 5. 시뮬레이션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다른 나라의 인사법과 인사말을 적어보세요. (자유롭게)		

타문화 수용성에 대한 반응	
1. 인사 2. 내 3. 나는 4. 내? 5. 사들	2. 기억에 남는 인사법과 인사말을 적어보세요 듀크~ 악수하기, 인도네시아의 몸 비마에 대가. 이차이족의 청별은 인사법이 이상하면서도 신기했다. 다양한 인사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다. 문화에 따라 인사법이 다르니 스리랑카 허름 법도가 다른 것을 알게되었다.

키아오라~	봉쥬르~	소파이~
		
알로하	슬라맛씨앙(낯)	밍글라바~
		
출처: 인터넷 여러 곳에서 이미지에서 추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 민족이나 문화권에 의한 생활습관의 차이 등이나 다양성
- 세계모든 민족의 생활용품이나 문화재, 음악이나 공예품을 아는 것도 그 나라를 이해하는 도구
- 각 나라의 일상을 조사하거나 식사 매너, 금기하는 일 등 민족이나 문화권에 의한 생활습관의 차이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어느 문화나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1. 카니발이 다가왔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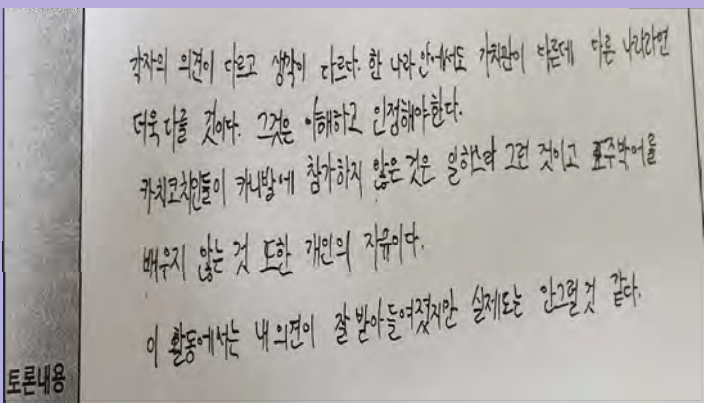
1.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각 나라의 문화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됨을 이해한다.
2.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해도 그것이 자신의 생활을 위협하는 경우, 사회문제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어 문화적 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3.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2. 문제상황이해

- 표주박섬에 이주해 온 카치코치인들은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들은 토요일, 일요일, 축제일 등에 관계없이, 매일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합니다. 고향인 카치코치섬의 가족이나 동포에게 돈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카니발에 카치코치인들은 참여하지 않고 일만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표주박나라의 이슈가 된다.

3.역할활동 과 토론

- 자신이 알게 되는 각각의 입장에 서서 그 역할에 최대한 몰입하기.
- 논점은 카치코치인은 카니발에 참가해야 하는가? 아닌가?
- 토론 후 보고서 작성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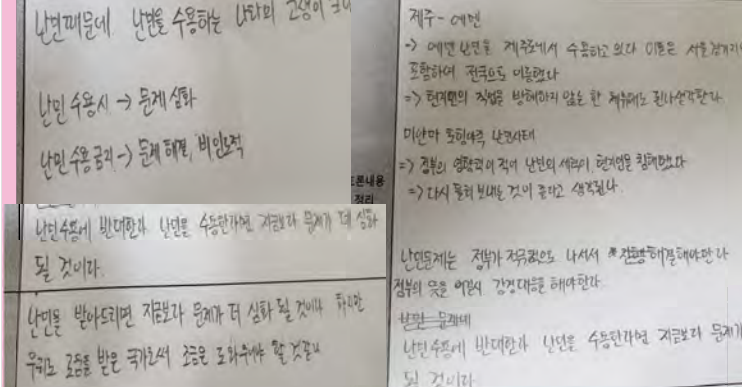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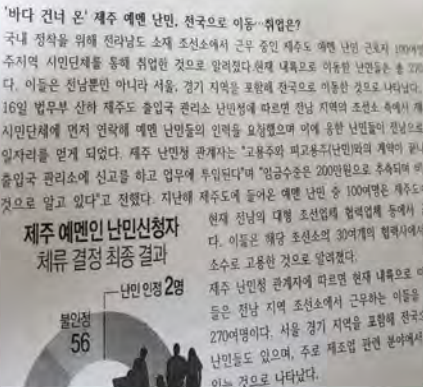
2차 후속 토론활동 학습자료 -예멘 난민문제

- 1.LIVE ISSUE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 사태 기사 배부
함께 울며 음식 나눠주던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떠나라”
<https://bit.ly/3rVS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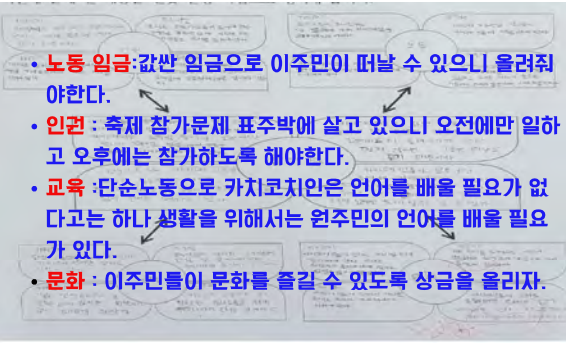


- 2.제주 예멘 난민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Q&A]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bit.ly/3QnEg1C>

방글라데시 사례와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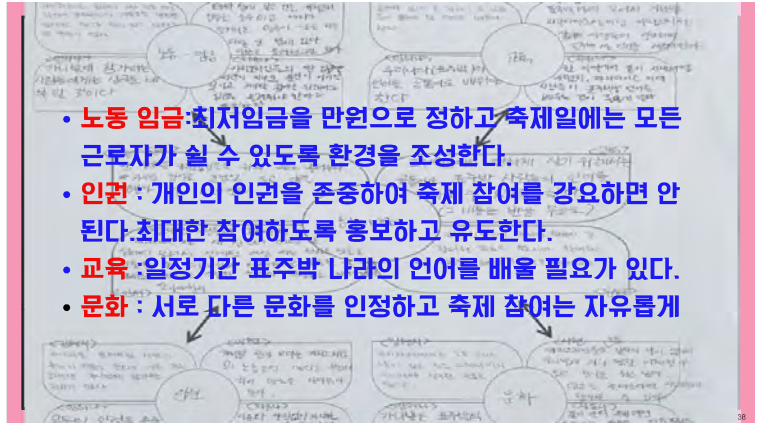


정책 만들기



키워드:

인권
노동
교육
문화
합의점



최종 논술 쓰기

교과 세특 기록

- ① 일본어1과 논술 교과를 연계하여 실시한 '인사를 모르겠어' 활동에서 문화에 따라 인사법이 다르고 스킨십의 허용 범위가 있다는 점에서 환경과 문화와의 연관성을 알 수 있었고, 다른 나라의 생활 문화 습관으로 형성된 것이 인사라는 점을 깨달음. '카니발이 다가왔다'의 역할 토론 활동에서는 다국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합의점으로서 교육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 이해해야 하며, 난민이나 이주민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문제해결역량을 드러냄. 논술 활동에서는 쉐어드롤 이론에 근거하여 인권, 문화, 교육분야에서 기준이 될 다문화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었고, 각각의 가치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함.
- ② 일본어1과 논술 교과를 연계하여 실시한 '인사를 모르겠어' 활동에서 문화가 다르니 인사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다양한 인사법이 문화간의 벽을 넘어서기 위한 소통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음을 깨달음. '카니발이 다가왔다'의 역할 토론 활동에서 난민의 입장에서 카니발에 참석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인권차원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 다른데에도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음. 이에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기준이 될 수 있는 규칙이나 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함.

교과 세특 기록

③

일본어1과 논술 교과를 연계하여 실시한 '인사를 모르겠어' 활동에서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인사법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여러나라의 인사법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다양성의 시작임을 깨달음. '카니발이 다가왔다'의 역할 토론 활동에서는 카치코치인의 입장에서 역할을 맡아 난민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깨달았고, 반면 난민 수용의 문제에 대한 토론 활동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실제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난민의 입지리나 지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면에서 신중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난민을 위한 해결책으로서 임금 개선이나 세금제도에 대해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역할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글로벌화 되어가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면서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

도서 <표주박 나라 문제>는

-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 환경, 이주배경인의 언어와 교육문제와 정책, 유한한 지구자원, 안보에 이르는 지구인의 공존, 공생, 공유의 딜레마를 체험하는 책.
- 지식으로 배웠던 것을 실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체험을 해봄으로써 사회 문제를 가까이 인식하는 계기를 만든다.
- 함께 살아가는 문제를 비슷한 상황의 경험으로 디자인한 수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세계시민의식!!
- 딜레마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이고, 참여의 중요성을 몸으로 배우는 과정



기조패널 및 종합토론

사회: 박경희 (우석대학교)

이춘희 ((전)서울 문성초등학교)

JIANG Yingmin (Beijing Normal University)

ICHINOSE Tomonori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Miyagi University of Education)

[기조패널 및 종합토론]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과 지향

이 춘 희
(전) 서울문성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4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국제이해교육의 다양한 주제(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인권교육 등)를 다루었습니다.
2. 초등, 중등, 대학 등 학교 급별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대학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어릴 때부터 접한 학생들이 이해와 공감의 과정을 거쳐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사례가 많이 공유되고 있고, 대학 중에서도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대의 실천 사례가 다양하게 공유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초등 사례가 패널1,2,5,6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특히 패널5에서 일본의 초등사례까지 볼 수 있어서 의미가 더 큼니다.
3. 여러 기관과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천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인천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의 참여와 실천 경험의 공유가 학회를 더욱 풍부하게 해 주었습니다.
4. 다양한 방법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학교교육, 국제교류, 대학교육,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방법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실천 ‘표주박 나라 문제’ 북콘서트까지 다양한 방법의 실천 사례가 공유되어 풍성했습니다.
5. 정책과 이론 연구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실천과 아울러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이행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관련 논의 및 이행사례 분석, 시도교육청의 정책 이행 현황 분석, 정책참여학교 특성 분석 등 정책과 이론 연구가 함께 공유되어서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6. 중국과 일본에서 참석하고 사례를 공유해주신 분들 덕분에 한국과 함께 일본과 중국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의 실천과 지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멀리 일본과 중국에서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분쟁, 심각한 기후 위기, 질병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있고 현재 대한민국은 교직 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세계시민교육이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서울에서 총 42년 6개월의 교직생활을 한 후 지난 8월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2015년

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 있는 두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계시민교육과 유네스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큰 갈등으로 분열되고 고통을 겪고 있던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과 유네스코학교의 운영 결과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세계시민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다양한 학교 급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학과 여러 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정책과 이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고 희망이 느껴집니다.

사람을 기르고 바꾸는 일인 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가르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연구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학회의 주제인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진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국제이해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강 영 민

(중국베이징사범대학 국제비교교육연구원)

1. 중국 국제이해교육의 관련범주

중국의 국제이해교육은 1980년대부터 발족되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발전되어왔다. 국제이해교육의 관련 범주로는 대외개방이후 시작된 “외국알기”교육, 유네스코 이념의 계승을 위한 교육, 국제화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국제경쟁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국제교류를 위한 교육 등이 포함된다.

2.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범주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은 1990년대 “유엔지속가능한 발전”의제 제기와 더불어 환경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환경관련 교육이 그 주축을 이루고있고 2015년 이후에는 “유엔지속가능한발전목표2030”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전향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이해교육과의 연관성이 강화되어 양자 융합되는 지역의 실천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3. 국제이해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의 발전상황

중국 교육부는 2010년과 2020년에 교육정책의 개혁안 문서에서 국제이해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별도의 추진정책을 실시하지는 않고 주로 지방교육청, 민간단체, 학교현장이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추진정책아래 유네스코지속가능한 발전센터, 중국교육과학원 등 민간단체들 주도로 지방교육청과 연결하여 추진하고있는 상황이다.

4.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의 영향

인류운명공동체는 중국정부가 2017년 제 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출한 이념으로 향후 외교정책뿐만아니라 국제이해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의미와 목표와도 관련지어 양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개최된 제20차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보고서에서는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전인류공동가치”를 인류문명공동체이념의 내용으로 하여 향후 국제이해교육과 “유엔지속가능한 발전 목표2030”교육을 이해하는 지침으로 될것으로 전망된다.

A Consideration of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GCED, ESD and SDGs in the Japanese Educational Context

Tomonori ICHINOSE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Miyagi University of Education

1. Background

During the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 which received robust suppor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introduced "The basic educational promotional plan of 2008". This plan designated UNESCO-Associated Schools as hubs for fostering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and offered assistance in expanding the network of UNESCO-leading ESD through these schools. This proactive endeavor empowered UNESCO-Associated Schools in Japan to play an active role in shaping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ologies for ESD.

Simultaneously, ESD seamlessly integrated into the curricular descriptions across all subjects.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encompassed a considerable volume of ESD-related content, with notable prominence in the fields of geography, civics, natural science, home economics, and physics.

The majority of ESD practices in Japan tend to occur during dedicated integrated study periods, rather than achieving full integration into core subjects. These designated study intervals have furnished an avenue for the implementation of pedagogical approaches that emphasize task-based inquiry learning, problem-solving, and participatory learning—integral constituents of a pluralistic approach to ESD (Ichinose, 2017).

Citizenship Education, a concept UNESCO has advocated since its incep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global studies, development education, and global education originat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 the late 1970s. In the late 1990s, organizations such as Oxfam and other non-governmental entities introduced the notion of a "Global Citizen." In the United Kingdom's National Curriculum, "Citizenship" was instituted as a compulsory subject for secondary education in 2002, resulting in the widespread prolifera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This, in turn, prompted the gradual introduction and growth of Citizenship Education in Japan, commencing in 2002.

Consequentl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2012), as articulated by the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assumed paramount import. Consequently, it was systematically cultivated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with its commencement in 2012.

Furthermore, Citizenship Education took on a distinct focu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Morality Education, the evolution of Sovereign Education, and the inception of "Public" subjects within the high school curricula in Japa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comprehensively encompass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matters. Specifically, SDG 4.7 unambiguously stipulated that by 2030, the imperative exists to ensure that all learners attain the requisite knowledge and competencies essential for the advanc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chieved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With the commencement of SDGs in 2015, the concept of SDGs permeated not only the realms of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home economics, and the arts but also extended its influence into the domains of national languages and mathematics.



Picture: Tokyo Shoseki, JH Moral Education Textbook

2. Research question and method

Statistical research elucidating the contemporary amalgamation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s conspicuously absent. Consequently, this study employed a bibliometric methodology, leveraging literature repositories, with the explicit objective of quantitatively illustrating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UNESCO and Japan.

For the exploration of the conceptual dimensions of GCED, ESD, and SDGs, an inquiry was undertaken utilizing the UNESDOC database, which is administered by the UNESCO Library. Additionally, in the context of these concepts within the Japanese context, an examination was carried out utilizing the Library of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olicy Research (NIER)/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Library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 (OPAC) as the designated literature repository.

3. Findings

Results of the bibliometric analysis of the UNESCO database UNESDOC are shown in “Figure 1. This shows the chronological changes in the number of literature items appearing in the database for each descriptor. The vertical axis shows the percentage for the total number of appearances of a descriptor in one year. Next, bibliometric analysis was carried out in Figure 2 using the Library of Education, NIER/MEXT Library OPAC literature databases in order to ascertain how educational practices have developed in Japan have developed in response to UNESCO’s presentation of concepts.

In Figure 1 and 2, we can observe the trends in the frequency of references to Citizenship Education, GCED, and ESD. Citizenship Education, a concept that UNESCO has persistently advocated since its

establishment, began to gain widespread prominence in Japan around 2002, leading to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erences in the databases since that time. Subsequently, with the inception of the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in 2012, as proclaimed by the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Japan took on paramount importance, particularly around 2013, but exhibited a slight decline from 2014 onward. It is noteworthy that during this period, the Japan Association for Citizenship Education (JACED), an academic association, was founded i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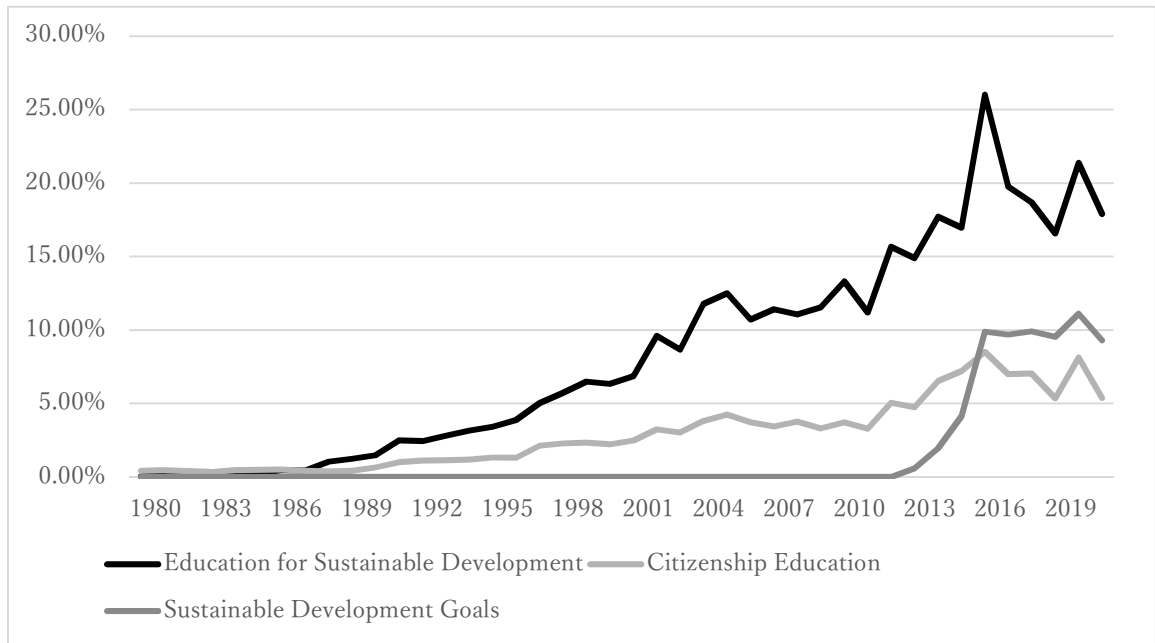


Figure 1: GCED,ESD,SDGs concepts in the UNESCO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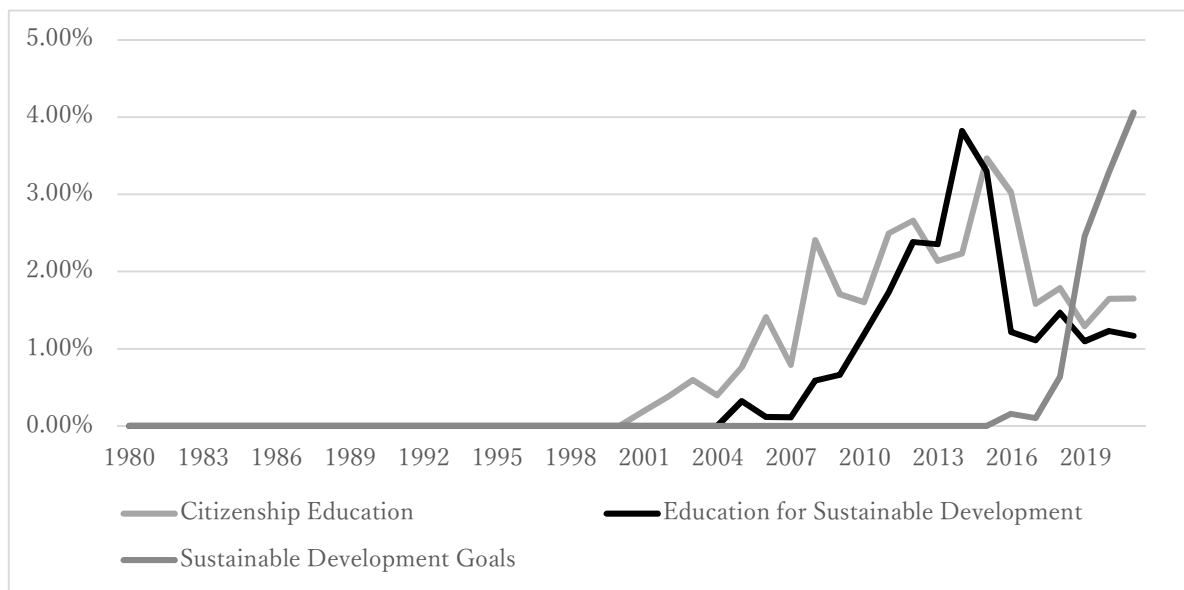


Figure 2: GCED,ESD,SDGs concepts in the JAPAN OPAC Database

The findings of the bibliometric examination of OPAC data are depicted in Figure 2. In Japan, despite the conspicuous absence of references to the term in the databases between 1987 and 2002, there was a gradual escalation in hits commencing in 2002. This was followed by a modest decline from 2014 when the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concluded. Notably, during this interval, the Japanese Society of ESD (JSESD), an academic consortium, was instituted in 2017.

Subsequent to the year 2015, an initiative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as launched. Over the past five years, SDGs have taken center stage, emphasizing the imperative of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This trajectory signifies that SDGs encompas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functioning as an overarching framework for these vital domains.

4. Discussion

Bentham (2013) highlighted tha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pedagogy should cultivate action competence and adopt learning approaches that foster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engagement. This necessitates incorporating active learning strategi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learner-centered methodologies, and participatory and collaborative learning activities.

UNESCO champion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chieving the SDGs (ESD for 2030) as a decade-long follow-up to the Global Action Programm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2019). They proffer guidance on encouraging learners to undertake transformative actions for sustainability. According to UNESCO (2019), first, through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learners become cognizant of certain realities. Subsequently, through critical analysis, they begin to fathom the intricacy of these realities. Second, experiential exposure to these realities engenders a deeper connection to the issues, which can also foster empathy towards those affected by said realities. Third, empathy can evolve into compassion if the exposed realities hold significance in the learners' lives and sense of identity. This proposal posits that critical inquiry, exposure to realities, relevance to personal lives, and collaboration with others all play pivotal roles in empowering individuals to take decisive actions.

In Japan's case, the previously mentioned integrated study periods have been transformed into project-based, inquiry-based learning time. This subject, known as "Kadaikenkyu," which translates to problem-based research, requires 105-to-205-unit hours per year in upper secondary school. Students are allowed to pursue individual, or group research based on their interests, involving experiments, observations, and fieldwork. Over the past five years, particularly in upper secondary school, the central theme of this problem-based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17 target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se examples underscore the imperative for teachers to enhance the learning and teaching approaches, with the aim of influencing students' attitudes and behaviors and fostering a commitment to undertake transformative actions for sustainability.

Finally, to gain a more profound comprehension of the impac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The National Academic Performance and Learning Situation Survey (NAPLSS), an extensive investigation encompassing students in different grades across Japan's national, public,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serves as the conduit for gathering empirical data essential for the contemplation of issues related to the amplification of GCED and ESD.

As illustrated in Table 1, the outcomes of the survey conducted among third-yea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3rd grade indicate a notable absence of robust confidence when it comes to fostering a commitment to societal transformation and the cultivation of a global citizenship perspective.

Table 1: NAPLSS questions about transformation of society and global perspective targeted for Junior High School 3rd grade students in Japan.

	Agree	Agree a little	Disagree a little	Disagree
What would you like to do to improve your community and society?	182,398 19.7%	409,511 44.2%	229,434 24.8%	103,387 11.2%
Would you like to make friends with people of other countries or learn more about foreign countries?	325,666 35.2%	294,943 31.8%	184,838 20.0%	118,507 12.8%

Therefore, given the constraint of successful practices being confined to specific schools and geographical districts, it is evident that a more advanced approach is indispensable for orchestrating a transformation of society and the advancement of global citizenship in the Japanese educational landscape.

References:

- Bentham, H. (2013). Clearing the path that has been laid: A conceptualisa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15(2), 25–41.
- Ichinose, T. (2017). An analysis of transformation of Japanese schools that significantly addresse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19(2), 36-50. DOI: 10.1515/jtes-2017-0013 (accessed August 1, 2023).
- UNESCO.(2019).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Beyond 2019. Executive Board 206 EX/6.II, Paris: UNESCO.

찾아오시는 길



전주교육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063-281-7114

전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0



- | | |
|----------|----------|
| 1 대학본부 | 13 체육센터 |
| 2 도서관 | 14 평생교육관 |
| 3 제1학생회관 | 15 테니스장 |
| 4 제2학생회관 | 16 음악관 |
| 5 미술실과관 | 17 생활관 |
| 6 조소실습실 | 정문 |
| 7 교사교육센터 | |
| 8 경비실 | |
| 9 황학당 | |
| 10 운동장 | |
| 11 교육문화관 | |
| 12 전산사회관 | |